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49호 2015.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동북아역사재단

특집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정호섭 |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 비문 구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과와 과제 11
조영광 |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47
이정빈 |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방법의 성과와 과제 87
조우연 |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 성과 검토 115
이노우에 나오키 | 일본학계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1

논문

- 권오중 | 고대 중국 正史에서의 예맥 - '요동예맥'의 자취에 관한 검토로서 243
박윤미 | 金代 賓禮를 통해 본 宋·高麗·夏의 국제 지위 283
현명철 |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325
조재곤 | 러일전쟁과 평안도의 사회경제상 367
김인덕 |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41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43

Contents

Special Issue The research results and henceforth task about the King Gwanggaeto Ste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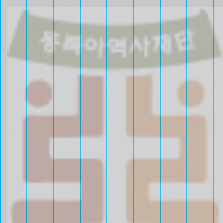
- Jung Hosub ▮ Research on the King Gwanggaeto Stele and Future Tasks:
Regarding Morphology, Location, Content Structure, and Features 11
- Jo Yeongkwang ▮ Status and Tasks for Study of the Foreign Relations and
World View of Koguryo in the Gwanggaeto Stele 47
- Lee Jeongbin ▮ Research Methods for Rubbings of the Gwanggaeto Stele 87
- Cho Wooyun ▮ Review of Historical Research on the King Gwanggaeto Stele
by Chinese Academics 115
- Inoue Naoki ▮ Results and Topics in Japanese Research on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201

Articles

- Kwon Ojung ▮ Yemaek Tribe in the Authentic History of Ancient China 243
- Park Yunmi ▮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Song, Goryeo, and Xia on the
Basis of the Ceremony for Guests of Jin 283
- Hyun Myungcheol ▮ The Coastal Defense of Busan and the Arrival of
Steamships in 1872 325
- Cho Jaegon ▮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Socio-economic Situation
around Pyeongan Province 367
- Kim Induck ▮ The Massacre of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rends in the Movement of Power 411

특집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의 출자와 건국신화, 왕계, 정복전쟁을 비롯해 대외관계, 천하관, 수묘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주고 있어서 4~5세기 고구려와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광개토왕비가 발견된 1880년대 이후 현재까지 1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개토왕비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의 성격에 대한 문제, 정복전쟁 기사에 대한 이해, 수묘제에 대한 이해 등에서 학자마다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립 1600주년을 맞아 비가 발견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중·일 학계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됨으로써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관계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주제를 6가지로 나누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호섭은 비의 형태와 위치, 비문 구성과 성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광개토왕비 연구는 근래에 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나 위치, 비문 구성 등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주로 다루었다. 특히 비의 성격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비에 대한 기초적 탐색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광개토왕비의 성격 문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와 대비하여 비의 성격 문제를 재조명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볼 때 광개토왕비와 주변 국가의 비석과의 비교 연구, 비의 텍스트 구성과 작성 등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김락기는 비의 수묘제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하였

다. 광개토왕비문 수묘인 연호조는 단순히 수묘제도와 관련한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역지배 및 지배양상의 변화, 고구려의 대민과악의 실례 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330가에 달하는 수묘인연호의 수묘대상 왕릉과 구민과 신래한예, 국연과 간연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다양한 방향에서 진전되었고, 수묘인연호의 매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함께 향후 고구려 왕릉 수묘는 '제도'라는 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과 함께 국연과 간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천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김락기의 논고는 기획의도와는 달리 추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동기획의 중요사항인 고구려 수묘제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추후 여타 지면을 통해 성과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조영광은 비의 천하관과 전쟁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고구려인들의 자국 중심의 천하관은 비문에 보이는 주몽을 시조로 한 왕실의 신성성과 초기 왕 계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왕실 교체의 시점, 초기 왕계의 복원과 확립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 계루부 왕실의 등장은 주몽과 함께 초기 왕계는 『삼국사기』와 비문에 전하는 내용이 당시 고구려인들이 인식한 초기 왕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아울러 비문에 보이는 광개토왕 당시의 대외 관계는 고구려 천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과 백제를 중심으로 한 대남방 관계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거란·왜·신라·가야 등 당시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와 종족들이 언급되고 있고, 후연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락 8년조, 영락 10년조, 영락 17년조의 가야 제국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추후 더욱 진전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넷째, 이정빈은 비의 탁본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탁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석회 탁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석탁본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주목한 것이

탁본의 제작의 배경과 기법이었다. 이에 여러 종류의 탁본을 모아 형식을 분류하고 이를 편년해 온 일련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대체로 기존 연구가 착목패턴법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용지법과 비자자형비교법을 통해 그를 검증함과 아울러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음을 살폈다. 결국 탁본 연구방법은 원석탁본을 탐색해 비문을 판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향후의 과제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해 비문을 보다 정밀히 비교 연구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조우연은 광개토왕비가 재발견된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학계에서 진행해온 관련 연구를 시기별·주제별로 나누어 살폈다. 연구사적인 시기 구분을 능비가 재발견되면서부터 1930년대까지, 1940~1970년대, 1980년대~현재까지로 삼분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초기 논저를 자세히 정리하고, 저자들 사이의 인맥 관계를 살핍으로써 초기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1940~1970년대의 연구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과 경향에 대해 살폈다. 마지막으로 대량으로 축적된 1980년대 이후의 연구 논저를 목록화(目錄化)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자, 그리고 시대적인 연구 경향에 대해 살폈다. 이어서 그동안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온 재발견 시점 검토, 탁본과 석문(釋文) 연구, 쟁점기사 검토,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서체연구, 관련 인물, 연구 약사(略史), 서평, 유적 소개 등 분야의 대표적인 논저를 자세히 검토하여 주요 논저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여섯째, 이노우에 나오키는 비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일본고대사와의 관계 속에서 '의심할 수 있는 고전'에 비해 '의심할 수 없는 古碑'로서 주목되어 연구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실은 광개토왕비가 고구려 사료로서의 광개토왕비가 아니라 시종일관 일본고대사 자료로서의 광개토왕비였음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왕비 연구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정력적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광개토왕비 연구상의 과제로는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고구려사의 역

사적 전개과정을 추구하는 사료로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 두 번째는 광개토왕비 연구에 있어 중요한 목본·탁본의 연구도 또한 진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광개토왕비 탁본의 일본에의 전래과정 해명과 근대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의 의의를 밝혀가는 일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성과와 쟁점을 위주로 연구사를 정리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미흡하거나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개토왕비에 대해서는 1,000여 편 이상을 헤아릴 만큼 수많은 연구 논저가 있었다. 그런 만큼 본 과제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중요한 연구가 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을 맞아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포함되도록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족하나마 나름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광개토왕비 연구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기

동북아역사재단

집필자를 대표하여 정 호 섭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 비문 구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정호섭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광개토왕비가 건립된 지 1600년이 지났다. 이 비는 건립 이후 고구려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겠으나, 고구려 멸망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기도 했다. 조선 초기부터는 금나라 황제비로도 인식되어 오다가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고구려 광개토왕비임이 밝혀졌다. 광개토왕비임이 확인된 지 벌써 1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 비의 확인으로 동북아시아사에 있어서 당대의 중요한 자료가 마련되어 광개토왕비는 후대인들에게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광개토왕비의 오랜 생명력은 현재까지도 발현되고 있다.

광개토왕비는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와 함께 고구려 당대에 세워진 비석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광개토왕비는 현존하는 금석문 가운데에서 크기 면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사료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문헌자료의

※ 투고: 2015년 2월 9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건국과 왕계, 광개토왕의 훈적과 대외관계, 고구려 수묘제의 운영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세기 말 비의 확인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역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단적으로 비에 대한 명칭부터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이는 ‘광개토왕릉비’로 명명하고, 혹은 ‘호태왕비’나 ‘광개토왕비’로 부르고 있다. 또한 비를 건립한 목적에 대해서도 광개토왕의 훈적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훈적비 혹은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에 수묘제 변천과 연관된 수묘비 혹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비 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는 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혼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비의 형태, 위치,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의 건립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개토왕비 발견 이후 관심은 주로 초기 왕계, 건국신화, 신묘년조, 백제를 위시한 정복전쟁, 수묘제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근래에 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나 위치, 텍스트 구성 등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광개토왕비의 이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광개토왕비에 담긴 가장 기초적인 텍스트의 이해는 1차 사료를 고구려인들이 기록한 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함의를 추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텍스트 작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록된 내용을 사료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텍스트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비에 대한 기초적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비의 형태와 위치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아울러 비의 내용 구성과 성격에 대해 연구사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개토왕비의 성격 문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와 대비하여 비의 성격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II. 비의 형태와 위치

1_ 비의 형태와 재질

광개토왕비는 자연석을 이용한 4면 비이다. 높이 6.3m, 무게 34t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이용하여 4면 모두에 내용을 예서체로 적었다. 비석을 세우는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4면에 글자를 모두 새기는 것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이다. 또한 중국에는 광개토왕비보다 큰 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광개토왕대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서안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무자비(無字碑)의 규모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광개토왕비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아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석으로서의 필요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4면에 모두 글자를 새긴 비석은 중국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이고, 크기도 거대해서 광개토왕비가 형태면에서 매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특히 고구려 때 제작된 광개토왕비와 충주고구려비²⁾가 모두 4면 비여서 그동안 이를 두고 고구려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로 인해 이러한 인식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집안고구려비는 광개토왕대 혹은 장수왕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³⁾ 자연석을 치석하여 잘 다듬은 중국 동한(東漢) 시기 이후로 주로 유행했던 규수형의 2면 비이다. 거의 동시기에 만들어진 비석들 가운데에서 집안고구려비처럼 자연석을 잘 치석한 대좌, 비신, 개석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규수형의

- 1) 광개토왕비의 독특한 형상이 비를 특정하고 있는 중요 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이성시, 2001, 『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 2) 충주고구려비는 원래 중원고구려비로 명명되었으나, 근래 문화재청에서 충주고구려비로 공식화하여 이에 따른다.
- 3) 집안고구려비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광개토왕대 혹은 장수왕대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국내학계는 대체로 광개토왕대설을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2면 비가 제작되기도 했고, 광개토왕비나 충주고구려비처럼 치석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한 4면 비로 제작되기도 했던 것이다.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으로 좀 더 비의 형태에 대해 구명(究明)해야 할 점들이 생겨났다. 이처럼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비, 충주고구려비라는 고구려 때 3개의 비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태적으로 이질적인 비석들이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던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고구려가 중국식 비석 문화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고구려적인 비석 문화를 새롭게 창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동일 형태로 추정되는 무구검기공비나 집안고구려비와 같이 중국식 비석 문화가 존재하던 상황에서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식의 비석 문화가 독창적으로 창출된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 충주고구려비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에 유형화된 일정한 양식의 비석이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다.⁴⁾ 그런데 문제는 보통은 자연석을 이용한 비석이 먼저 건립되고, 후에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비신, 개석, 대좌 등의 비석 형태를 완전하게 갖춘 비석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신라의 경우를 보면 고구려와 반대 순서로 비석 문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4면 비와 2면 비를 비교했을 때, 글씨가 크고 규모도 웅장한 4면 비가 많은 내용의 글을 담을 수 있고 위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비좌와 개석이 갖춰져 있고 비면을 잘 다듬어 글씨를 더욱 선명하고 정연하게 쓸 수 있는 2면 비가 어떤 점에서는 더 큰 장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동시기에 이러한 다른 유형의 비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이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듯하다.

특히 집안고구려비가 세워질 당시 중원 지역에서는 한말 이해 금비령(禁碑令)이 내려졌고, 특히 광개토왕비가 세워진 동진 말기에는 재차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왕릉마다 묘상입비하고 거대한 광개토왕비까지

4) 이성제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묘상입비'도 집안고구려비처럼 정형화된 비석 양식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성제, 2013,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입비의 의의」, 『선사와 고대』 39.

건립한 것이다. 중원의 금비령이 고구려까지 미치지 못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광개토왕대에 고구려에서 독자적인 입비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 당시 중원 양식의 비가 아닌 자연석에 4면 비 형태로 거대 비석을 건립한 고구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광개토왕비라는 석주형의 4면 비 형태가 동북아시아의 사슴돌과 선돌로 상징되는 종교적 신성조형물의 4면 비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비의 형태로 이해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비가 6세기 신라의 울진 봉평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등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8세기 툰유쿠크비, 켈테긴비, 빌개가간비 등 돌궐비와 위구르의 4면 비 문화에도 연결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⁶⁾ 그러나 선돌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슴 내지는 동물을 새겨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이 고구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고, 돌궐비는 대체로 중국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천착하게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듯하다.

광개토왕비는 대석과 비신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개석은 존재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석은 화강암을 이용하여 다듬은 것인데, 길이 3.35m, 폭 2.7m로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두께도 고르지 않은 편이다. 대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깨진 상태이고, 비가 처음에 새긴 홈과 어긋나게 세워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가 한 차례 도괴되어 일어난 현상이거나 혹은 입비 당시에 깨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대석으로 보아 비는 원래 그 자리에 세워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비신은 사각 기둥의 형태로 각 면의 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모양이다. 제1면과 제3면이 넓고 제2면과 제4면이 좁은 형태이고 비면도 고르지 못하다.

5) 고평의, 2013, 「신발전 집안고구려비의 형태와 서체」, 『고구려발해연구』 45.

6) 조법중, 2014, 「광개토왕릉비의 사면비 특성과 동북아시아적 전통」,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자료집』.

7) 池内宏, 1938, 『通溝』 上; 임기환, 2011,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광개토왕비, 중원 고구려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한국 금석문 연구』.

이처럼 비의 규격이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치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광개토왕비의 자형은 예서체로 글자가 매우 큰 편이다. 비문의 서체는 기본적으로 예서체이기에는 하나, 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개토태왕비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서체는 광개토왕비 특유의 자연석주비 양식과 함께 충주고구려비로 이어지면서 주요한 특징을 형성했다고 보기도 했다.⁸⁾ 광개토왕비의 서체를 보면 일정기간 동안 호우층 출토의 명문 호우 등 여러 면에서 고구려 서사문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파악된다. 비의 크기도 거대하지만, 비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의 크기도 큰 편이다. 사실 광개토왕비만큼 큰 글씨는 어느 비석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 광개토왕비를 건립하면서 가독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비문의 일차적인 독자는 국연과 간연으로 구성된 수요인들로 이해하면서 일종의 출석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⁹⁾ 그러나 당시 한자로 된 비문을 읽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구민’이나 ‘신래한예(新來韓穢)’로 표현된 수요인 모두가 이러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대상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층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일반 백성들도 비문을 모두 읽는 것이 가능해서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거대한 비석을 세워 비가 쉽게 보이도록 배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광개토왕비가 위대한 광개토왕의 흔적을 기억시켜 주는 상징물이기에 모든 이들에게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경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⁰⁾ 이러한 거대한 비가 건립되는 배경에는 가독성이라는 측면보다는

8) 고광의, 2005, 「광개토태왕비에 나타난 고구려 書寫文化의 특징 - 광개토태왕비체와 石柱碑 양식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9) 비가 수요제 운영에 실제로 활용되었다는 입장에서 출석부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지만(이우태, 2013, 「금석학적으로 본 광개토왕비」,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비를 보고 그것을 실제 활용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10) 정호섭, 2012,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수요제 개편」, 『선사와 고대』 37.

오히려 상징적인 측면이 더 고려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의 재질과 관련해서는 광개토왕비 비신에 이용된 돌이 화강암이 아니라 비교적 무른 석질의 응회암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석이 이용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글을 크고 깊게 새기기가 화강암보다 용이하다는 사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비의 원석이 응회암인 점에 주목하여 비의 산출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비에 사용된 응회암의 산지를 찾는 시도인 것이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환인의 오녀산성 일대 지역과 집안 동북쪽의 양민 지역, 북한의 자성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¹¹⁾ 이러한 견해를 참고한다면 광개토왕비에 사용된 거대한 암석은 제법 먼 거리로부터 옮겨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인의 오녀산성 일대라면 운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 취약점이고, 자성 지역은 암석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직접 지질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집안의 동북쪽에 위치한 양민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여겨진다. 양민 지역에서 집안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 거대한 돌을 옮기는 것은 양민과 집안의 지형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양민 지역에서 압록강을 이용하여 뗏목을 이용했거나 혹은 겨울철에 압록강이 얼었을 때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옮겨오기는 힘들다. 이러한 거대한 돌을 옮긴다고 했을 때, 아마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修羅(수라)'¹²⁾와 같은 운반에 필요한 보조적 기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국시대 혹은 그 이후에 '수라'와 같은 운반기구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비가 왕릉에 비해 별로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위치도 왕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워졌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비가 광개토왕 사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자리에 서 있던 선물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제시되기도

11) 고구려연구재단, 2005, 『환인·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 지질조사 보고서』.

12) 일본에서는 修羅를 이용하여 고분, 아스카 시대에 석관, 석실, 석곽, 초석 등에 사용되는 석재가 운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1999, 『修羅』.

했다.¹³⁾ 거의 같은 인식선상에서 비에 사용된 돌이 이전부터 기능했던 신성한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⁴⁾ 나아가 동천왕대의 양민 일대에서 채석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동천왕 때 임시로 이거한 평양성의 후보지가 양민 일대이며, 동천왕릉으로 비정되는 임강총과도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⁵⁾ 이러한 가능성의 제기는 바로 비의 형태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_ 비의 위치와 왕릉과의 관계

광개토왕비는 국내성 동쪽의 우산하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성으로부터 비는 대략 동북쪽으로 4km 거리에 있고, 우산하 고분군 내에는 다수의 왕릉급 적석총이 자리하고 있다. 우산하 고분군에는 이밖에도 2110호분, 임강묘, 992호분 등의 대형 적석총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대형 적석총은 각 변이 30m 이상의 고분으로, 규모면에서만 보면 왕릉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4세기 후반경의 고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4세기 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왕릉급 고분으로는 계단적석석실묘로 태왕릉과 장군총이 있고, 계단적석광실묘로는 우산하 540호분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세 고분은 광개토왕비와 거리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고, 4세기 후반경에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비와 상관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 본 광개토왕비의 좌표는 41° 8' 41.40"N, 126° 12' 51.01"E이다. 거리면에서 살펴보자면, 광개토왕비와 가장 가까운 고분이 우산하 540호묘이고 그다음으로 가까운 고분이 태왕릉이다. 장군총은 광개토왕비와 먼 거리에 있지만, 광개토왕비를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13) 金應顯, 1973, 「高句麗 書法考」, 『書通』 1; 이우태, 2013, 앞의 글.

14) 김현숙, 2013,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목적」,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15) 임기환, 2014, 「광개토왕비의 건립과정 및 비문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표 1〉 광개토왕비 주변 고분에 대한 피장자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

고분	연구자	피장자 비정
우산하 540호묘	· 張福有 · 孫仁杰 · 遲勇 · 정호섭	고국양왕 고국원왕
태왕릉	· 東潮 · 이도학 · 여호규, 임기환, 정호섭, 기경량 · 중국 연구자, 조법중	소수림왕 고국원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군총	· 손수호 · 關野貞, 梅原末治, 永島暉臣慎, 田村晃一, 박진석, 이도학, 여호규, 백승욱, 임기환, 이희준, 정호섭, 기경량 · 초기 연구자, 중국 연구자, 浜田耕策, 조법중, 東 潮, 桃崎祐輔, 강현숙	산상왕 광개토왕 장수왕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산하 540호묘는 고분 연대가 광개토왕의 몰년과 비교해서 다소 이른 시기이고, 태왕릉은 광개토왕비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묘실 방향과 비의 방향이 상반된 방향이라는 점에서 피장자를 광개토왕으로 비정하는 데 있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장군총은 광개토왕비와의 거리가 비교적 다른 왕릉급 고분들에 비해 멀다는 점에서 광개토왕릉으로 비정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했던 것 같다. 그동안 광개토왕비 주변의 4세기대 대형 적석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피장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광개토왕비 주변 고분에 대한 피장자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개토왕비 주변의 4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 고분의 피장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체로 태왕릉을 전통적으로는 광개토왕릉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는 고국양왕릉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장군총에 대해서도 점차 장수왕릉으로 비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왕릉급 고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즉 고고학 자료에 대한 편년, 왕릉과 비와의 관계, 고구려 왕릉의 수릉(壽陵)과 귀장(歸葬) 여부, 그리고 고구려 능원제(陵園制)



〈그림 1〉 주변의 주요 고분과 광개토왕비



〈그림 2〉 광개토왕비 주변도¹⁶⁾

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먼저 왕릉과 비의 위치관계를 도면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1>의 지도와 같다.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직선거리상 비로부터 540호묘는 180여 m, 태왕릉은 370여 m, 장군총은 1,730여 m 거리에 있다. 이 가운데 우산하 540호묘는 광개토왕릉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도 각 변이 30m가 넘고, 무덤 형식도 계단적석석실묘 혹은 계단적석석광묘¹⁷⁾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계단적석광실묘로 이해하면 가장 무난할 듯하다. 석실은 연도와 묘실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완벽한 형태의 횡혈식인데 비해 광실은 묘실을 갖추고는 있지만 연도가 없이 묘도만 갖춘 소위 횡구식이다. 우산하 540호묘의 묘실 구조는 연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횡구식의 광실인 것이다. 거리상으로 보면 고분에서 동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180여 m 떨어진 지점에 광개토왕비가 위치하고 있다. 물론 현재 이 무덤은 거의 파괴되었지만 묘실 방향은 남서쪽으로 보이고 태왕릉보다는 선행된 형식으로 파악된다.¹⁸⁾ 묘실 방향을 남서쪽이라고 한다면 고분 방향은 광개토왕비를 향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광개토왕의 몰년과 비교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분이기 때문에 광개토왕비와 가장 가까이 있는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은 광개토왕릉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와의 거리가 곧 왕릉을 비정하는 결정적인 사항은 아닌 것이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적혀 있어서 광개토왕의 무덤은 국강상(國岡上)에 위치

16) 吉林城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2, 『洞溝古墳群-1997年調查測繪報告』.

17)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540호분에 대해 석실묘(吉林城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2, 『洞溝古墳群-1997年調查測繪報告』)로 파악하기도 하고, 석광묘(張福有·孫仁杰·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로 이해하기도 하는 등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고 내용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 볼 때 횡구식인 광실묘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18) 張福有·孫仁杰·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

한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광개토왕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고구려의 국강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국원왕도 국강상왕(國岡上王)이라는 이칭이 있기 때문에 고국원왕릉은 자연스럽게 국강상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산하 540호분은 국강상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다소 이른 시기의 고분인 만큼 국강상왕이라고 불린 광개토왕의 조왕(祖王)이었던 고국원왕릉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¹⁹⁾ 물론 우산하 992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²⁰⁾ 출토된 와당 편년으로 보면 고국원왕의 몰년과는 차이가 있다.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기년명 와당의 경우 우산하 992호분은 戊戌 338년, 우산하 3319호분은 丁巳 357년, 乙卯 355년, 서대묘는 己丑 329년, 戊戌 338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기년명 와당이 이전 시기에 제작된 것을 사용될 수도 있고, 이후 개와되었을 수도 있어서 고분의 절대적 편년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산하 992호분의 무술명(戊戌銘) 와당과 고국원왕의 몰년인 371년은 3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산하 992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천추총을 고국원왕릉²¹⁾ 혹은 고국양왕릉²²⁾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천추총을 고국원왕이나 고국양왕의 무덤으로 이해할 경우 문헌 기록의 장지명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집안 시기 고구려왕의 장지는 집안 지역 어디에 왕릉을 축조해도 모두 고국원, 고국양, 국강상, 국양 등으로 불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금석문상에 보이는 ‘국강상’이라고 하는 지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기는 곤란할 듯하다. 대체적으로 출토되는 와당의 형식으로 보더라도 ‘천추총-태왕릉-장군총’의 순서이므로 천추총은 소수림왕릉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19)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43; 정호섭, 2011, 앞의 책.

20) 임기환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임기환, 2009, 「고구려 장지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1)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22) 왕릉보고서, 東潮, 魏存成, 桃崎祐輔, 方起東, 손수호 등의 견해이다.

지 않을까 한다.²³⁾

그동안 태왕릉은 거리상으로는 광개토왕비와 가깝고 고분 편년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개토왕릉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 태왕릉의 방향과 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태왕릉과 광개토왕비의 관계가 부정되기도 했다.²⁴⁾ 태왕릉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서쪽 방향이고, 광개토왕비는 태왕릉의 뒤쪽 방향인 동북쪽에 위치하면서 비의 정면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 비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왕릉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 청동방울에는 ‘辛卯年 好太王□²⁵⁾造鈴 九十六’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방울은 2003년 태왕릉 남쪽 오른쪽 모서리 2번째 호석 주변 돌 밑에서 청동제 부뚜막에 30여 점의 유물이 일괄로 매장된 상태로 수습된 것으로 전한다. 이 방울을 근거로 태왕릉을 기본적으로 광개토왕릉으로 파악하면서 이 방울이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을 증명하는 유물임을 강조하기도 한다.²⁶⁾ 광개토왕의 생전인 신묘년에 실제로 의식용 기물 또는 말방울로 사용된 것을 왕이 돌아가셨을 때 부장품으로 함께 매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왕릉을 고국양왕의 무덤으로 비정하면서, 고국양왕을 모셨던 巫가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의 사후인 391년에 이 방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²⁷⁾ 즉 391년은 고국양왕이 돌아간 해이기 때문에 태왕릉에서 이 방울이 발견된 것은 고국양왕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의적 산물로 이해한 것이다. 이 방울이 태왕릉과 분명하게 연관되는가 하는 점에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출토 지점이 태왕릉 부근이라는 점에서 신묘년인 391년을

23) 張福有, 孫仁杰, 遲勇, 임기환, 강현숙, 정호섭, 기경량 등은 천추총을 소수림왕릉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경량,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制」, 『韓國史論』 56.

24) 여호규, 2006, 앞의 글.

25) 이 부분은 巫, 所, 正(工), 山(陵) 등으로 판독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판독은 어렵다.

26) 조법중, 2004,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 방울」, 『한국고대사연구』 33.

27) 백승옥, 2005, 「신묘년명 청동방울과 태왕릉의 주인공」, 『역사와 경계』 56.

고려한다면 태왕릉의 피장자가 고국양왕 혹은 광개토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4세기 후반 이후의 발전된 양식의 적석총인 태왕릉, 장군총으로 선후관계를 파악하면 태왕릉이 장군총보다는 선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태왕릉은 고국양왕릉이나 광개토왕릉, 장군총은 광개토왕릉이나 장수왕릉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고분과 광개토왕비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지만, 광개토왕비의 위치와 고분의 거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광개토왕비와 장군총과의 방향과 위치를 기준으로 광개토왕비를 신도비(神道碑)로 파악함으로써 장군총의 피장자를 광개토왕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²⁸⁾ 그런데 신도비설도 당시 고구려에 신도비라는 문화가 도입되었는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광개토왕비의 제1면의 방향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무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즉 신도는 보통 묘실의 동남향의 길이므로 신도비는 묘소의 동남향에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비가 현실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비의 정면이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현실과 비석의 정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²⁹⁾ 한편으로는 장군총은 비와 1.7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동천으로 비정되는 하천이 자리하여 물길과 계곡으로 구분되고 있어서 능과 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³⁰⁾ 비록 장군총에서 광개토왕비까지의 거리가 멀고 중간에 하천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하천이 중간에 존재한다고 해서 광개토왕비와 장군총을 연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고구려 때 하천이 무덤과 비석을 구분하는 경계로 인식되었는지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하천이 장군총과 광개토왕비를 가로막는 장벽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장군총이 국내성 시기의 마지막 왕릉이라고 한다면 왕릉의 배경으로 두고 광개

28) 백승욱, 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29) 김현숙, 2013, 앞의 글.

30) 조법중, 2013,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토왕비는 국내성에서 장군총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고, 국내성 지역의 왕릉 묘역을 조망하고 굽어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³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비의 위치나 방향이 광개토왕릉을 비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능의 위치나 능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비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³²⁾

좀 더 확장하여 집안 전체를 놓고 보면 왕릉의 위치와 비의 위치, 집안고구려비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집안 전체에서 광개토왕비는 동북쪽의 구릉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릉 지대를 포함한 일대가 아마 국강상으로 표현된 지역일 듯하다. 최근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으로 광개토왕비와의 위치 관계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전기가 마련되었다. 집안고구려비의 원위치가 발견 지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할 경우,³³⁾ 마선구 지역의 왕릉급 고분의 중심 지점이면서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 집안고구려비가 세워진 정황을 추측할 수 있다. 국내성 지역의 전체 입지를 고려할 때도 집안고구려비가 있었던 위치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지역이면서 완전한 서쪽 지역에 해당되고, 광개토왕비는 국내성 동쪽 지역이면서 집안 외곽 방향인 하해방으로 나가는 출구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집안고구려비와 비교하여 입비의 위치를 고려하면 광개토왕비도 우산하 지역의 왕릉급 고분들의 중심 지점이면서 도로와 가까운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집안 지역의 지형상으로 하천이 비 근처에 흐르고 있고, 당시 도로도 현재와 거의 같은 방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입비의 위치에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는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 서로 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³⁴⁾

광개토왕비나 집안고구려비의 건립 목적이 수묘인 관리와 연관된다는 점

31) 이성제, 2013, 앞의 글.

32) 이우태, 2013, 앞의 글.

33) 대체로 집안고구려비의 원위치에 대해서는 발견 지점 서쪽의 강안대지로 상정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34) 이성제, 2013, 앞의 글.



〈그림 3〉 집안고구려비의 원위치 추정³⁵⁾

에서 이들 비가 왕릉의 주변이 아니라 수묘인들의 마을이나 이들이 모이기 용이한 장소에 세워졌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³⁶⁾ 이 견해는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성격을 수묘비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개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광개토왕비나 집안고구려비의 1차 목적이 수묘비가 아니라면 이러한 개연성은 크게 의미를 상실할 여지가 있다. 적어도 수묘인들 모두가 두 비에 적합한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수묘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수묘제 운영을 위한 목적에

35) 정호섭, 2013,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주변의 고구려 고분」, 『한국고대사연구』 70.

36) 이우태, 2013, 앞의 글.

서 세워진 비석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거대한 비는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광개토왕비가 위치한 고분들의 배치나 비가 가지는 위치의 의미, 그리고 단순한 송덕비가 아닌 수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광개토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Ⅲ. 비문의 구성과 비의 성격

1. 비의 서사구조와 텍스트 구성

광개토왕비는 비석에 세로선을 그어 각 행을 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면이 11행, 2면이 10행, 2면이 14행, 4면이 9행으로 총 44행이고, 새겨진 글자의 수는 모두 1,775자이다. 그리고 2자가 들어갈 공란이 있다. 이 가운데 150여 자는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글자의 크기는 11~16cm까지 분포하고 있어 일정하지 못한 편이다.

광개토왕비가 대체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듯하다. 물론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³⁷⁾ 형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비의 첫 번째 부분인 1부는 고구려의 건국 및 추모왕, 유리왕, 대주류왕에 이르는 3대의 왕위 계승, 17세손 광개토왕의 행장에 관한 간략한 기술이다. 두 번째 부분인 2부는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연대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인 3부는 '묘상입비'를 비롯한 수묘제 정비와 수묘인 연호의 구성, 그리

37) 이성시,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여호규, 2014, 「광개토왕릉비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영남학』 25.

고 그와 관계된 매매금지령과 같은 법령을 담고 있다.

특히 비의 제1면은 고구려의 출자와 광개토왕의 생애의 대략을 적은 부분과 詞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1부는 ‘其詞曰(기사왈)’로 끝을 맺으면서 2칸의 공란을 두었고, 다음 행부터 영락 5년의 기사를 시작으로 하여 연대기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공란은 광개토왕의 훈적 내용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띄어쓰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묘지나 묘비에서 보이는 뇌사(誄辭)의 형식적인 차용이다.³⁸⁾

여기서 텍스트 구성상 생각해 볼 문제는 其詞曰의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즉 其詞曰 이하 전체의 내용인 비의 끝까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면의 수요인 연호 앞까지의 정복기사에 한정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비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비의 마지막에 있는 ‘之’가 其詞曰 이후로 시작되는 문장 전체의 대중결사의 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³⁹⁾ 즉 其詞曰 이후로는 종결사 없이 마지막에 ‘之’로 전체를 종결했고, 이러한 구성도 중국 묘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행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메우려는 의도에서 쓴 글자라는 의견도 있다.⁴⁰⁾ 고구려나 신라의 금석문에서 ‘之’가 단일 문장에서 종결사로 사용되는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광개토왕비를 비롯하여 충주고구려비, 덕흥리고분 묵서명, 평양성 석각 등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⁴¹⁾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之’를 대중결사 혹은 공란을 메우기 위한 글자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之’가 대중결사로 사용된 용례를 찾을 수 없고, 특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문장구조상으로 “其有違令 賣者刑之 賈人制令守墓之”에서 앞 문장의 종결사인 ‘刑之’에서

38) 최근 여호규도 중국 묘비 형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여호규, 2014, 앞의 글.

39) 여호규, 2014, 위의 글.

40) 森博達, 2011, 「한일 속한문의 세계－『일본서기』 구분론과 종결사 之」, 『고대 공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41) 이우태, 2006, 「신라 금석문과 고구려 금석문의 차자표기」,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245~246쪽.

대응되는 뒷부분의 종결사로 ‘守墓之’에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문제는 2부의 내용과 3부의 내용은 비록 이어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수묘인 연호 앞까지의 부분과 수묘인 연호 이후의 문장의 서술 방식이나 형식이 전혀 다른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는 광개토왕과 관련한 내용을 연대기로 서술한 일종의 송덕비나 신도비에 들어갈만한 내용과 비슷한 문장인데 반해, 수묘인 연호 이후 부분은 구체적인 연대의 기록도 없이 ‘敎(교)’와 ‘制(제)’가 등장하는 교언(敎言)이나 제령(制令)과 같은 왕의 명령인 동시에 일종의 공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령문서와 같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텍스트의 이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성시는 수묘제 창출이라는 광개토왕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 하나의 텍스트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⁴²⁾ 전체적으로 수묘제 창출을 위한 과정으로 비의 내용을 설정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1부와 2부의 문장의 형식과 3부의 문장 구성이나 형식이 너무나 상이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외는 달리 임기환은 광개토왕의 사후 장수왕이 부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한 훈적비를, 부왕의 왕릉 수묘를 위한 수묘인 연호비 등 2개의 비석을 세우려고 하다가 둘을 하나의 비석에 합쳐 기록한 것을 광개토왕비로 이해했다.⁴³⁾ 이 견해는 광개토왕비의 텍스트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자 역시 광개토왕비의 텍스트 이해의 차원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임기환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나아가 광개토왕비가 광개토왕만을 위한 수묘비의 내용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⁴⁴⁾ 처음부터 광개토왕비의 수묘인 연호 부분이 광개토왕의 수묘비를 세우기 위한 텍스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

42) 이성시, 2008, 앞의 글.

43) 임기환, 2011, 앞의 글; 임기환, 2014, 앞의 글.

44) 광개토왕비의 수묘인 연호에 대해서는 광개토왕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왕릉 전체 수묘인 연호를 적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면서 애초에 광개토왕의 훈적 내용을 작성하면서 광개토왕비의 其詞曰의 내용은 연대기적 기술에 한정되었을 것인데, 수묘인 연호 부분은 형식을 달리하는 텍스트가 별도로 존재했을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텍스트의 내용이 광개토왕의 훈적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에 其詞曰의 내용 아래에 부가적으로 기술되었던 것으로 이해했다.⁴⁵⁾ 나아가 광개토왕비의 3부에 해당되는 수묘인 연호 부분의 내용이 교언어나 제령의 내용을 가진 별도의 텍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후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으로 광개토왕비의 수묘인 연호 부분과 관련된 별도의 텍스트가 바로 '묘상입비'로 표현된 각 왕릉 수묘비와 이러한 작업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령비로서의 집안고구려비로 상정하기도 했다. 즉 수묘제 정비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는 집안 고구려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묘제 정비와 개편에 대한 광개토왕의 훈적 내용이 훈적비인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⁴⁶⁾

이러한 텍스트를 합쳐서 기록했다는 견해에 대한 재반론도 있었다. 이성제는 광개토왕비의 전체적인 기술방식이 횡적인 서술로 일관된 점을 지적하면서 두 개의 성격이 다른 텍스트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글로 작성되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술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⁷⁾ 마찬가지로 여호규도 능비 찬가가 비문의 기획 단계부터 광개토왕의 사적과 함께 수묘인 연호조를 명사(銘辭)의 한 단락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⁴⁸⁾

광개토왕비에서 특히 이상한 점은 其詞(辭)曰 이하는 중국식 묘지에서 보통 뇌문(誄文)형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개토왕비는 연대기적인 훈적 내용과 수묘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광개토왕비는 장송의례의 뇌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⁴⁹⁾ 하지만 중국의 묘비

45) 정호섭, 2012, 앞의 글.

46) 정호섭, 2013, 앞의 글.

47) 이성제, 2013, 앞의 글.

48) 여호규, 2014, 앞의 글.

49) 여호규, 2014, 위의 글.

나 묘지에서 보이는 뇌사와는 그 내용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 묘비나 묘지에서 공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뇌문의 앞에 서술되는 것에 비해 광개토왕 비에는 뇌사에 연대기적 공적과 수묘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아마 광개토왕의 공덕을 일일이 되새기며 신에게 복을 비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광개토왕비의 텍스트는 중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어서 이 비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묘비나 묘지에 ‘其詞曰’ 혹은 ‘其辭曰’ 혹은 ‘其銘曰(銘云)’ 등으로 뇌문 형식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뇌문의 내용도 추상적인 추도문 같은 형식으로 몇 줄 기록되는 것이 보통인데, 광개토왕비는 ‘其詞(辭)曰’로 뇌문을 구성한 형식은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적인 묘비나 묘지 형식을 일부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문장 구성상에서도 중국과는 차별되는 내용 구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고구려가 중국식 묘비, 묘지 문화의 형식적인 부분을 차용하고서 실제적으로는 고구려적인 독특한 서사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개토왕비의 내용상 수사방식이 제1부는 과거, 제2부는 현재, 제3부는 미래로 이해하기도 하고,⁵⁰⁾ 전개방식이 제1부는 대과거, 제2부는 과거, 제3부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글로 이해하기도 한다.⁵¹⁾ 아울러 비문의 각 문장의 서술방식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관짓는 역사적 서술법으로 보기도 한다.⁵²⁾ 이러한 견해들은 수사방식이나 서술방식을 이해하려는 의도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비의 내용상 광개토왕을 기준으로 해서 시제를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비 텍스트를 정리한 시점이 장수왕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의 건립시점인 장수왕대를 놓고 보면 내용상 시제 자체가 미래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은 “於是立碑銘記勳績 以示後世焉” 구절 정도이다.

50) 서철원, 2008, 「광개토왕릉비문의 수사방식과 세계관」, 『고전문학연구』 33.

51) 김현숙, 2013, 앞의 글.

52) 임기환, 2013,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역사관」, 『광개토왕과 고구려사를 위한 새로운 이해』,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원 발표문.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와 미래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나 미래는 현재의 연장과 유지라는 한정된 의미로 입을 수밖에는 없다.

광개토왕비문이 순수 한문식이 아니라는 점도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한자나 한문을 수입하여 자국화하기 시작한 단계의 구체적인 모습이 광개토왕비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두 발달의 초기적인 모습이 광개토왕비에 보인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점도 광개토왕비가 형태나 문장 형식에서와 같이 고구려의 독자적인 양식이라는 부분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개토왕비가 의도적으로 4자나 6자의 운문적 요소가 강한 문구로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⁴⁾ 이는 집안고구려비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⁵⁵⁾

2_ 비의 건립 목적과 성격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사후 광개토왕릉과 함께 장수왕의 주도로 만들어진 비석이다. 비의 내용에 따르면 광개토왕의 사후 2년 동안 능과 비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장수왕은 부왕의 무덤을 조성함과 동시에 비를 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개토왕비의 내용을 통해 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비문의 성격을 규정해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능비설, 신도비설, 훈적비설, 수묘제 창출과 관련한 송덕비설, 수묘비설, 훈적과 수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복합비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비문 내용상 입비 목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다.

53) 권인한, 2013,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학적 연구」,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54) 여호규, 2014, 앞의 글.

55) 여호규,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구성과 내용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0.

먼저 광개토왕비를 ‘광개토왕릉비’로 명명하는 이유는 비에 기록된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이라는 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릉에 시신을 옮기고 비를 세워 훈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인다”라는 서술에서 왕릉의 조영과 입비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개토왕비는 왕릉 조영과 연계된 능비 혹은 묘비라는 것이다.⁵⁶⁾ 이는 광개토왕비의 발견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이다.⁵⁷⁾ 기본적으로 묘비 혹은 능비로 이해하면서도 비의 성격을 신도비로 보는 견해도 일제 강점기에 집안 지역을 조사했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 의해 제기되었다. 광개토왕의 왕릉이 태왕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참도(參道)를 설정하여 광개토왕릉을 장군총으로 보고 광개토왕비를 신도비로 파악한 것이다. 이 견해는 근래 백승옥에 의해 더욱 보강된 측면이 있다.⁵⁸⁾

그러나 광개토왕비는 일반적인 묘비의 형식이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능비나 묘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것은 묘비에는 보통 피장자의 시조나 혹은 가문과 직계조상에 대해 거론하면서 피장자의 생애에 관해 적고 있고, 추모하는 문구를 뒤에 붙이는 것이 보통인 데 비해, 광개토왕비는 직계조상에 대한 언급도 없고 생몰년에 대한 기록도 없는 등 묘비와는 다르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56)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王健群, 1985, 『好太王碑研究』; 조인성, 1988, 「광개토왕릉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수묘제」, 『한국사시민간좌』 3;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조법중, 1995,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수묘제연구」, 『韓國古代史研究』 8;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출판사;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高句麗渤海研究』 39; 공석구, 2013, 「광개토왕릉비 守墓人 烟戶 記事의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7; 조우연, 2013, 「집안 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여호규, 2014, 앞의 글.

57) 王志修가 제시한 이후(王志修, 1895, 「高句麗永樂太王碑考」, 『高句麗永樂太王碑歌考』) 전통적인 입장이다.

58) 關野貞, 1914, 「滿洲輯案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3; 백승옥, 2006, 앞의 글.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내용이 주로 수묘제와 관련한 것이어서 이를 수묘비로 이해하는 의견도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에 의해 이른 시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⁵⁹⁾ 한편 이성시는 광개토왕비의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이 묘비나 묘지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광개토왕비는 수묘역 체제를 창출한 광개토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송덕비 혹은 현창비로 이해한 바 있다.⁶⁰⁾ 즉 광개토왕비가 수묘역 체제를 창출한 광개토왕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긴 하지만, 광개토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수묘역 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비문에 보이는 건국신화나 정복기사 등도 모두 수묘제 서술을 위해 언급된 내용으로 이해했다. 즉, 대체로 광개토왕비는 수묘 내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복한 성의 명칭과 수묘인 연호를 차출한 성이 명칭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⁶¹⁾ 정복 기사를 보더라도 정복 전쟁은 대백제전에 한정해야 할 것이지만, 영락 5년의 비려, 8년의 숙신, 9년의 신라, 20년의 동부여 등은 신라해의 수묘인 연호와는 무관하다.⁶²⁾ 이런 점에서 광개토왕의 정복전쟁이 수묘제를 위한 전제였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비에 대해 능비이면서 동시에 훈적비, 신도비, 수묘비의 세 요소를 모두 가진 것으로 파악하거나⁶³⁾ 광개토왕비가 수묘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능비나 훈적비적인 성격 외에도 수묘비적인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며,⁶⁴⁾ 훈적법전비(勳績法典碑)⁶⁵⁾ 혹은 공적현창비인 동시에 수묘인 법령비(守墓人 法令碑)의 성격을 갖

59) 池内宏, 1938, 앞의 책.

60) 이성시, 1996, 「광개토왕비의 건립목적과 고구려의 수묘역제」, 『고구려발해연구』 2; 이성시, 2008, 앞의 글.

61) 정호섭, 2012, 앞의 글.

62) 이성제, 2013, 앞의 글.

63)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64) 김현숙, 1989,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수묘인의 사회적 성격」, 『한국사연구』 65; 김현숙, 2013, 앞의 글.

65) 徐德源, 1997, 「高句麗好太王碑鑿立之原委與性質重探」,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耿鐵華, 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⁶⁶⁾ 또한 광개토왕비가 훈적비·송덕비·울령비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⁶⁷⁾ 결국 광개토왕비가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된 것으로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광개토왕비를 건립한 주요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광개토왕비가 기본적으로 훈적비라는 견해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제시되었다.⁶⁸⁾ 이는 비에 기록된 내용 중에 “훈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인다”는 구절에 주목하여 광개토왕비가 기본적으로는 광개토왕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⁶⁹⁾ 즉 비의 내용상 광개토왕의 주요 업적은 정복 전쟁이고,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수요인 연호를 상정하고 비를 이해한 것이다. 필자 역시 최근 광개토왕비는 왕의 정복사업이라는 훈적과 묘상입비나 매매금지를 포함한 수요제 정비에 힘쓴 왕의 훈적을 동시에 기록한 훈적비라고 이해한 바 있다.⁷⁰⁾ 다시 말하면 묘상입비를 비롯한 매매금지령도 수요제 정비를 힘쓴 광개토왕의 훈적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 내용에 부가적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광개토왕비는 선왕의 훈적이나 왕릉의 수요인 연호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왕가의 계보와 함께 광개토왕의 행장까지 담은 종합적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광개토왕비는 국가적 제례의 완성을 기념하고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상징적인 구조물로 보고 있다.⁷¹⁾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

66) 이용현, 2013,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백제의 대응을 축으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67)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울령제」, 『한국고대사연구』 72.

68) 佐伯有清, 1974, 『研究史廣開土王碑』;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 『역사와 현실』 13; 濱田耕策, 2006,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父王廣開土王の治績を繼いで」, 『朝鮮學報』 199·200; 연민수, 2013,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69) 陸心源이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陸心源, 1987,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紀助碑跋」, 『儀顧堂續跋』) 이러한 견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70) 정호섭, 2012, 앞의 글.

71) 이성제, 2013, 앞의 글.

게 중심은 외치와 내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흔적을 위주로 한 비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우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광개토왕비는 원래 집안 지역에서 있던 선돌이었다가 재활용된 것으로 흔적비인 동시에 수묘인 연호인 국연(상설직)과 간연(임시직)의 출석을 확인하는 출석부 역할을 하여 수묘인 연호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수묘비로 이해한 바 있다.⁷²⁾ 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복합비로 이해하고 있지만, 광개토왕 사후에 비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비가 선돌의 형태로 있던 것을 활용한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김현숙도 장수왕 직전부터 고구려인의 신앙 대상이었던 비신에 광개토왕의 업적을 새기고, 수묘인 문제를 적어 고구려의 왕권과 종교적인 신성성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⁷³⁾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장수왕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선돌이나 신앙의 대상물로서의 거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견해이고 개연성도 충분히 있지만, 단지 정밀하게 다듬지 않은 비신 상태를 두고 추론한 것이어서 고구려에서 과연 그러한 신앙의 대상물이 국내성 시기에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산지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만큼 그러한 거대한 돌을 국내성 인근에서 채석하지 않고 양민이나 오녀산성 등의 지역에서 옮겨와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결여되어 있으며, 옮긴 시점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와 같은 거대한 돌은 현재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에 사용된 화강암 호석의 사례도 있는 만큼, 국내성 인근 지역에서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개토왕비가 평양 천도 의지와 무관하지 않고 왕릉에 대한 안전수호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 국내성 시대를 매듭짓고자 한 정치적 행위의 산물로 이해하기도 한다.⁷⁴⁾ 평양 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음을 전제로 광개토왕비의 건립을 평양 천도라는 국가 중대사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72) 이우태, 2013, 앞의 글.

73) 김현숙, 2013, 앞의 글.

74) 김현숙, 1989, 앞의 글; 이도학, 2002, 「광개토왕릉비의 건립 배경」, 『백산학보』 65.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의 텍스트 구성에 대해 천착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광개토왕비문을 고구려 당시의 사정에서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찬자의 입장에서 그 의도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천착한 연구는 많지 않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더 이루어져 선명한 결론을 얻게 되거나 묘상입비의 실물과 같은 또 다른 고구려비가 발견된다면 비의 성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질 듯하다.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으로 오히려 광개토왕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하나는 분명해졌다. 집안고구려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묘상입비의 실물로서의 수묘비와 묘상입비의 실물이 아닌 다른 성격의 비(교령비나 울령비 혹은 포고비, 고계비 등)로 의견이 크게 나뉘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 광개토왕비가 적어도 묘상입비 혹은 집안고구려비를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제3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⁷⁵⁾ 제3부의 내용에 보이는 220가 혹은 330가가 적어도 광개토왕만을 위한 수묘인 연호 구성이 아닐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3부도 수묘제 정비와 매매금지령을 내린 광개토왕의 업적에 해당한다. 물론 수묘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통해 국내성 시기의 왕릉 수묘제를 완비했다는 측면에서 수묘제와의 연관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의 1부 마지막에 보이는 “훈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인다”는 구절과 其詞曰의 내용 구성이 정복 전쟁과 수묘제 정비라는 2개의 업적을 횡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에서 보면 비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묘비 내지는 능비이지만 그 내용이나 건립목적상에서 바라

75) 물론 집안고구려비를 광개토왕비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두 비를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광개토왕비에 먼저 작성되고 이후 집안고구려비에도 작성되었다는 정황은 어색하다. 광개토왕비라는 거대한 비석에 강조한 내용이 집안고구려비와 같은 작은 비석에 재차 강조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비의 성격은 광개토왕의 업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훈적비라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향후 과제를 대신하여

이상으로 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되짚어보고, 현 단계에서 개별적인 논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 비에 대한 연구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래 비의 성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면, 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탐색이 늦은 감이 없진 않다. 그것은 아마 주로 그동안 비에 대한 연구가 왕계 문제나 정복 전쟁 등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향후 비에 대한 연구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첫째, 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동시기 주변 제국의 비문과의 비교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묘비와의 비교 검토나 북방 민족의 비석 문화와의 비교 검토, 그리고 일본의 비석 문화와의 비교 검토 등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광개토왕비의 뇌문의 형식이 독특한 만큼 이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북위의 문성제 순행비와의 비교 검토⁷⁶⁾나 주변국가의 석비 및 기념물과의 비교를 통한 고구려 4면 비의 특성을 고찰한 연구⁷⁷⁾ 등이 시도된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둘째, 고구려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고구려 묘상입비의 실물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집안고구려비를 묘상입비의 실물로 이해하는 견

76) 최진열, 2014, 「광개토왕비와 문성제순수비의 비교 연구」,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자료집』.

77) 조법중, 2014, 앞의 글.

해도 일부 존재하지만, 집안 고구려비는 여러 면에서 묘상입비의 실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묘상입비의 실물이 발견된다면 ‘묘상입비-집안고구려비-광개토왕비’로 이어지는 5세기 비석 문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주고구려비까지 연결되는 계기적 변천 양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의 텍스트 구성과 작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비의 성격 문제에 대해 좀 더 선명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비의 이해에 있어 가장 1차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집안고구려비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시각에서 비교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텍스트 자체의 비교 검토를 통해 두 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⁷⁸⁾ 등이 시도된 바도 있다.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만 고구려 수묘제의 변천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집안고구려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비교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집안고구려비에 대한 건립 시기 문제도 해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의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기존 문헌 기록과 광개토왕비의 기록 간의 비교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78) 정호섭, 2014,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비교 연구」, 『한국사연구』 167. 이 글의 광개토왕비와 관련한 몇 부분의 연구사는 위 논문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본 과제 완료 즈음에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학술회의에 한국고대사학회와 고구려발해학회 공동으로 두 비를 비교하는 발표를 제안받은 바 있어 본 과제에서 작성했던 연구사를 위 논문에서 다수 활용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저서

- 고구려연구재단, 2005, 『환인·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 지질조사 보고서』.
- 권인한, 2013,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학적 연구」,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김현숙, 2013,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목적」,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大王陵碑 新研究』, 동화출판사.
-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 森博達, 2011, 「한일 속한문의 세계 - 『일본서기』 구분론과 종결사 之」,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출판사.
- 연민수, 2013,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 이성시, 2001, 『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 이용현, 2013,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백제의 대응을 축으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이우태, 2006, 「신라 금석문과 고구려 금석문의 차차표기」,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 이우태, 2013, 「금석학적으로 본 광개토왕비」,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09, 「고구려 장지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14, 「광개토왕비의 건립과정 및 비문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 조법중, 2013,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耿鐵華, 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吉林城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2, 『洞溝古墳群 - 1997年調查測繪報告』.

- 王健群, 1985, 『好太王碑研究』.
- 張福有·孫仁杰·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
- 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 佐伯有清, 1974, 『研究史廣開土王碑』.
- 池内宏, 1938, 『通溝』上.

논문

- 고광의, 2005, 「광개토태왕비에 나타난 고구려 書寫文化의 특징 - 광개토태왕비체와 石柱碑 양식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 연구재단.
- 고광의,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형태와 서체」, 『고구려발해연구』 45.
-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高句麗渤海研究』 39.
- 공석구, 2013, 「광개토왕릉비 守墓人 烟戶 記事의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7.
- 기경량,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制」, 『韓國史論』 56.
-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울령제」, 『한국고대사연구』 72.
- 김응현, 1973, 「高句麗 書法考」, 『書通』 1.
- 김현숙, 1989,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수묘인의 사회적 성격」, 『한국사연구』 65.
-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 백승욱, 2005, 「신묘년명 청동방울과 태양릉의 주인공」, 『역사와 경계』 56.
- 백승욱, 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 서철원, 2008, 「광개토왕릉비문의 수사방식과 세계관」, 『고전문학연구』 33.
-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 여호규,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구성과 내용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0.
- 여호규, 2014, 「광개토왕릉비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영남학』 25.
- 이도하, 2002, 「광개토왕릉비의 건립 배경」, 『백산학보』 65.
- 이성시, 1996, 「광개토왕비의 건립목적과 고구려의 수묘역제」, 『고구려발해연구』 2.
- 이성시, 2008, 「광개토태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 이성제, 2013,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입비의 의의」, 『선사와 고대』 39.
- 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 『역사와 현실』 13.
- 임기환, 2011,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광개토왕비, 중원고구려비」, 『울진 봉평리 신라

- 비와 한국 금석문 연구」.
- 임기환, 2013,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역사관」, 『광개토왕과 고구려사를 위한 새로운 이해』,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원 발표문.
-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43.
- 정호섭, 2012,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선사와 고대』 37.
- 정호섭, 2013,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주변의 고구려 고분」, 『한국고대사연구』 70.
- 조법중, 1995,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수묘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
- 조법중, 2004,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 방울」, 『한국고대사연구』 33.
- 조법중, 2014, 「광개토왕릉비의 사면비 특성과 동북아시아적 전통」,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자료집』.
- 조우연, 2013, 「집안 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 조인성, 1988, 「광개토왕릉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수묘제」, 『한국사시민강좌』 3.
- 최진열, 2014, 「광개토왕비와 문성제순수비의 비교 연구」,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자료집』.
- 陸心源, 1987,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紀助碑跋」, 『儀顧堂續跋』.
- 徐德源, 1997, 「高句麗好太王碑鑿立之原委與性質重探」,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 王志修, 1895, 「高句麗永樂太王碑考」, 『高句麗永樂太王碑歌考』.
- 關野貞, 1914, 「滿洲輯案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3.
- 濱田耕策, 2006,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 - 父王廣開土王の治績を繼いで」, 『朝鮮學報』 199 · 200.

[국문 초록]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
비문 구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정호섭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 비문 구성과 비의 성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광개토왕비 연구는 근래에 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나 위치, 텍스트 구성 등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주로 다루었다. 특히 비의 성격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비에 대한 기초적 탐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개토왕비의 성격 문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와 대비하여 비의 성격 문제를 재조명해 보았다.

비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나 충주고구려비 등을 통해 고구려 석비 문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의 위치는 왕릉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광개토왕비가 위치한 고분들의 배치나 비가 가지는 위치의 의미, 그리고 단순한 송덕비가 아닌 수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광개토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비문 구성에 있어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문 구성상 텍스트 구성 방식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비의 성격과 관련하여 능비설, 신도비설, 훈적비설, 수묘제 창출과 관련한 송덕비설, 수묘비설, 훈적과 수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복합비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비의 1부 마지막에 보이는 “훈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인다”는 구절과 其詞曰(기사왈)의 내용 구성이 정복 전쟁과 수묘제 정비라는 2개의 업적을 횡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에서 보면 비는 형식적으로는 묘비 내지는 능

비이지만 그 내용이나 건립목적에서 보면 비의 성격은 훈적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볼 때 광개토왕비와 주변 국가의 비석과의 비교 연구, 비의 텍스트 구성과 작성 등에 대한 심화된 연구는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광개토왕비, 집안고구려비, 수묘제, 훈적비, 능비, 뇌문

[ABSTRACT]

Research on the King Gwanggaeto Stele and Future Tasks:
Regarding Morphology, Location, Content Structure,
and Features

Jung Hosub

This research provides a literature review on morphology, location, content structure, and features regarding the Gwanggaetowangbi, or the King Gwanggaeto Stele. It mainly concerns reviews on the recent “micro” approach to the monument, such as basic morphology, location, and text structures. In particular,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characters carved in to the stele. In addition, this paper reviews discussion of the features of the King Gwanggaeto Stele and explores it in relation to the Ji’an Koguryobi, which was recently found.

Concerning the morpholog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onument in the context of the stone monument culture of Koguryo, which can be seen from the Ji’an Koguryobi and the Jungwon Koguryobi. The location of monuments is not supposed to be identified with its distance from the royal palace. Multiple explanations can be raised, if the following factors are considered: the placement of the tumulus and the Gwanggaeto Stele, the meaning of the location that the monument possesses, and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 Gwanggaeto Stele being together with its guardians.

Regarding the contents of the monument’s text, there are various opinions. Among them, a series of research on the textual structure in

relation to the content deserves attention. From the fact that the phrase “recording achievement to provide it to future generations” at the end of Part I and that two achievements, the war of conquest and the maintenance of the guardian system, are written in parallel indicates that the monument is closer to a tomb in the commemoration of achiev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ography, intensive research in comparing the Gwanggaeto Stele with monuments of other states, and the text structure and composition remain for the future.



Keywords

Gwanggaetowangbi, Ji'an Koguryobi, guardian system, morphology, location, content structure, featur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조영광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광개토왕비문은 최전성기를 구가한 4~5세기 고구려의 독특한 세계관, 즉 천하관과 대외 관계를 알려주는 당대인이 남긴 1차 사료이다. 비문에 보이는 당시 고구려의 대외 관계는 주로 광개토왕의 정복 전쟁과 결부되어 잘 나타나 있다. 광개토왕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외 정복 전쟁은 고구려 자체 역량의 강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당시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한 축을 담당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고구려는 이처럼 신장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사상·이념적 기반도 마련하는데, 그것은 곧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의 형성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력 신장에 기반한 것이지만 동시에 고구려가 것처럼 자신만의 천하관을 확립해 나간 것이 국가 역량의 증대로 이어진 측면도 크다. 곧 양자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적 인과 관계로만 한정하여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상호 복합적이고 보완적으

※ 투고: 2015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로 함께 형성·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형성은 대외 정복을 통한 외적 역량의 강화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국왕권의 성장과 어우러진 것이다. 독자적 천하관 형성의 내적 동인이 되었던 왕권 강화는 왕실의 신성성, 왕계 확립 등의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비문이 세워지는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고구려는 시조 주몽으로부터 당시 왕실에 이르기까지의 왕통을 일계로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문의 서두에 등장하며 고구려 왕권 강화의 상징과도 같은 초기 왕계에 관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이어서 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대외 관계는 논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 성과들을 검토함에 있어 대외 정복(전쟁)의 대상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당시 고구려의 천하관 형성 및 왕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지어 추후 재검토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것이다. 고구려 초기 왕계의 확립 및 대외 관계와 독자적 천하관 형성은 서로 유기적이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하지만 서술의 편의와 주제의 맥락적 정리를 위해 본문에서 이들 주제에 대하여 장을 달리해 고찰할 것이다.

II.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 초기 왕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고구려가 광개토왕과 장수왕 연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력을 집중하여 대외 정

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적인 왕권 강화는 주몽이라는 성스러운 시조왕으로부터 당대의 국왕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신성한 계보가 확립되는 것으로 그 정점에 이르렀다. 특정 종교나 사상에 가탁하지 않고 왕통 자체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된 왕권의 표상으로 삼은 것은 고구려인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고구려인들의 왕계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 천하관과 함께 자족(자국)의 신성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왕계 인식의 성립 과정은 이후 독자적 천하 의식의 성립 과정과도 많은 부분에서 통하고 선행되는 요소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구려 초기 왕계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의 왕계 문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실 교체에 관한 기록¹⁾ 등과 맞물려서 일찍부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왕실 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影] 등 일본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초기 왕계와 비문에 보이는 왕계가 거의 일치하고,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이모(伊夷模)의 ‘更作新國’ 기사 등을 통해 볼 때 연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 교체는 이이모가 환도성에 새 도성을 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²⁾ 곧 왕실 교체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초기 고구려사 연구를 주도한 일본인 학자 다수가 제출한 것으로 고구려사 연구의 중요 사료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초기 기록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데서 출발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 이병도, 김철준을 필두로 한 한국 학자들은 사료에 보이는 고구려 초기 왕실 교체 기사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구명하기 위한 여러 해석들을 내놓았다. 먼저 이병도는 주몽 설화와 음운론적 근거를 들어 『삼국사기』에 보이는 송양(松讓)을 『삼국지』의 소노부(消奴部)와 동일한 실체로 파악하고, 소노부에

1) 『삼국지』 권30, 魏書 東夷 高句麗, “本有五族, 有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2)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 25-4; 三品彰影, 1954,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 『朝鮮學報』 6.

서 계루부로의 왕실 교체는 주몽 단계에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³⁾ 그의 이러한 견해는 현재까지도 학계의 다수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다.

김철준은 고구려 왕실 교체가 6대 태조왕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삼국유사』 왕력(王曆)에 5대 모본왕까지 그 성을 해(解)씨라고 기록한 것과 『삼국사기』에도 이들 왕의 이름에 ‘解’자가 들어 있음을 들었다. 그는 6대 태조왕과 5대 모본왕이 계보상 연결되기 어려우며, 태조왕은 전 왕실의 방계 출신으로 즉위하면서 성을 새로이 고(高)씨를 칭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⁴⁾ 김용선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며 태조왕과 그 이전 왕들의 세계(世系)가 다르다고 보았다.⁵⁾ 이종태 역시 태조왕계와 그 이전 왕계의 단절을 인정하고 태조왕계에 의해 주몽 시조의식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⁶⁾

이와 같은 태조왕대의 왕실 교체설은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교체가 태조왕대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계루부 내에서 방계 집단이 기존 왕실을 대신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사료에 보이는 태조왕 관련 기록과 그 이전과 이후의 국가 발전 단계와 성격 등의 격차 등을 근거로 적지 않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한편 김기홍은 태조왕의 등장을 계루부 내의 성씨 집단(해씨, 고씨)의 교체로 파악하였지만, 신흥 세력인 졸본 부여의 유리왕(고구려후 추)이 왕망에 대한 적극적 항쟁을 펼치며 기존의 대 중국 교섭 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왕망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였던 연맹장 송양(소노부)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고구려의 연맹장으로 등장하였다고 보았다.⁷⁾ 이처럼 유리왕대에 왕실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는 유리왕 22년에 이루어졌다는 천도 기사를 근거로 한

3) 이병도, 1976, 「고구려 국호고」, 『서울대학교논문제』 3; 이병도, 195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4) 김철준, 1956, 「고구려, 신라 관계 조직의 성립과정」,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지식산업사.

5) 김용선, 1980, 「고구려유리왕고」, 『역사학보』 87.

6) 이종태, 1992, 「고구려 태조왕계의 등장과 주몽국조의식의 성립」, 『북악사론』 2.

7) 김기홍, 1990, 「고구려의 국가형성」, 『한국 고대 국가의 형성』, 민음사.

것도 있다.⁸⁾ 이와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왕대의 천도 기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연구자가 많은 만큼, 천도 시기와 지역에 대한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태돈은 태조왕계의 등장을 계루부 내 방계의 왕위 계승으로 보았다.⁹⁾ 김현숙 역시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주몽 이후의 유이민계인 해씨 왕계와 선주 부여계 유이민계인 태조왕계 고씨 왕계로 파악하고 이들은 모두 계루부에 속한 집단들임을 피력하였다.¹⁰⁾ 최근 여호규 역시 태조왕의 선대가 유리왕의 손자나 계루부 방계일 것으로 추정해 위의 견해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¹¹⁾

왕실 교체에 대한 연구로, 최근에는 왕망의 고구려병 징발에 대항해 저항하다 죽은 것으로 나오는 고구려후 추 사건을 고구려 국주(연맹장)의 지위가 연노부(소노부)에서 계루부에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파악한 독특한 견해가 제출되었다.¹²⁾ 기존 고구려후 추의 실체를 유리왕이나 휘하의 장수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이해였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고구려의 연맹장인 연노부(소노부)의 수장으로 보고, 그의 사망과 연노부의 약화를 기회로 계루부 수장인 유리왕이 새로이 고구려 연맹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한 견해이지만, 연노부 수장으로 상정한 고구려후 추와 계루부 수장인 주몽(추모) 명의 상사(相似)함과 계루부 성장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절실해 보인다.

왕실 교체 외에 비문과 『삼국사기』, 그리고 중국 사서가 전하는 고구려 초기의 왕명, 왕계 세대수 차이 등에 대한 원인 구명과 왕계 복원 및 왕계 인식의 성립 시기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고,¹³⁾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가 더욱 정

8) 김중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 3.

9) 노태돈, 1993, 「주몽의 출자 전승과 계루부의 기원」, 『한국고대사논총』 5.

10) 김현숙, 1994, 「고구려의 해씨 왕 고씨 왕」, 『대구사학』 47.

11) 여호규, 2010, 「고구려 초기의 왕위 계승 원리와 고추가」, 『동방학지』 150.

12) 이준성, 2011, 「고구려 초기 연노부의 쇠퇴와 왕권 교체」, 『역사와 현실』 80.

13) 池内宏, 1951, 「高句麗王家の上世の世系について」, 『滿鮮史研究』 上世編 1, 吉川弘文館.

교하게 발전시켰다. 다케다는 중국 사서와 『삼국사기』 왕계를 비교하여 시기에 따른 단계적 왕계 인식의 성립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초기 왕계의 실질 시조는 산상왕으로, 그 세계가 광개토왕대까지 이어진 것이고, 주몽을 시조로 하는 초기의 전설왕계가 4세기 말에 형성되었고, 6세기 이후 태조 왕계 인식이 성립되며 현전하는 고구려 왕계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¹⁴⁾

그의 이러한 분석과 연구 결과는 고구려 초기 왕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졌다. 하지만 그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불신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¹⁵⁾

일본인 연구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의 입장에서 고구려 왕계가 조작 혹은 후대에 보입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비해, 국내 학자들은 비문과 『삼국사기』의 종합적 비교 검토를 통해 가능한 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도학은 비문에 전하는 왕계와 『삼국사기』의 왕계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삼국사기』의 왕계가 비문에 비해 4세대가 부족한 것은 왕명의 누락이 아니라 부자 상속을 형제 상속으로 처리하면서 빚어진 세대수 단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루부 왕실의 등장 시기는 주몽대로 보고, 이때부터 이미 왕위의 부자 상속 체계가 확립되어 『삼국사기』에는 형제 상속으로 나타나는 태조왕과 차대왕, 고국천왕과 산상왕도 실제로는 부자 상속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⁶⁾

조인성은 왕실의 세계 인식이 동천왕대와 장수왕대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14) 武田幸男, 1954, 「高句麗王系成立の諸段階」, 『高句麗史と東アジア』.

15) 고구려 초기 왕계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역시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 초기 왕계는 후대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며, 왕대별 왕계의 성립 단계(시기)를 추측하기도 하였다. 井上直樹, 2014, 「광개토왕비와 문헌사료 - 근대 일본의 광개토왕비 해석과 고구려왕계 小考」,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16) 이도학, 1992, 「고구려 초기 왕계의 복원을 위한 검토」, 『한국학논집』 20;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나타나, 동천왕대는 태조왕 이전의 왕실 세계가 정리되지 못해 태조왕이 혈연적 시조로 인식되었으나 장수왕대에 이르러 시조 동명왕 이래 당대에 이르기까지 왕실 세계가 정리되면서 태조왕 대신 동명왕과 대무신왕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¹⁷⁾ 비문에 보이는 추모왕에서 유리, 대주류로 이어지는 세계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노태돈은 광개토왕릉비문의 왕계를 기준으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왕계의 성립 시점을 비교, 분석하여 소수림왕대에 이르러 추모왕부터 모본왕까지의 초기 왕계와 태조왕을 비롯한 3대왕계가 결합된 추모왕 중심의 새로운 왕계 인식이 성립되었다고 추정하였다.¹⁸⁾ 즉 적어도 동천왕 이전 어느 시기에 태조왕 등 3대왕에 대한 왕계 인식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소수림왕대에는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새로운 왕계 인식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3대왕의 관계의 대해 祖, 子, 孫으로 전하고 있는 『후한서』와 동모 형제로 전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모두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3대왕이 친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뻘에 속하는 친족 관계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추측하였다. 그의 이러한 해석은 고구려 왕계 인식에 대한 기본적 설명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한편 임기환은 고구려 왕호의 성격을 통해 왕호 성립의 배경과 단계성을 검토하였는데,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 등의 왕호와 고국양왕 이하의 장지명 왕호가 먼저 성립하고 뒤에 초기 5왕의 왕호가 추가로 정리되었다고 보았다.¹⁹⁾ 이전까지 왕계 인식의 성립 과정이나 시기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왕명과 역사적 정황에 따른 분석이었다면,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는 고구려 왕호의 의미 분석을 통한 계열화 작업을 토대로 왕계 인식의 성립 시기를 밝힌 것은 연구 방법론에서의 새로운 시도이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박노석은 고구려 왕성이 해씨와 고씨로 나타난 것은 본래 주몽의 성이 해

17) 조인성, 1990, 「4, 5세기 고구려 왕실의 세계 인식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4.

18) 노태돈, 1994, 「고구려의 초기 왕계에 대한 일고찰」, 『이기백고희기념논총』.

19) 임기환, 2002,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씨였으나 고구려를 건국하며 고씨로 바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모본왕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태조왕은 주몽의 후손이며, 차대왕은 태조왕과 다른 계통의 주몽의 후손으로, 신대왕은 태조왕의 손자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몽의 후손 중 태조왕계가 고구려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대 유리왕부터 5대 모본왕대까지의 성씨가 해씨로 나타는 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추론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최근 여호규는 비문과 근자에 발견된 「集安高句麗碑」의 관련 서술을 비교 검토하며 광개토왕대에는 시조 추모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계적(一系的) 왕통의식(王統意識)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하였다. 곧 고구려의 전통적 왕자(王者) 계승 의식은 단순한 혈연적 계보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왕과 후대 왕을 시조 추모왕의 신성성을 대대로 계승하는 의제적 성격의 사자(嗣子) 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그것이 곧 비문의 '遷至十七世孫'으로 응축되어 표현되었다고 한다.²¹⁾

고구려 왕자의 계승의식을 혈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식의 독자적 천하관의 기반이 되는 왕실의 신성성에 바탕한 것이라는 해석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주몽과 유리, 태조왕의 즉위, 태조왕 이후 차대왕, 신대왕의 계승 등이 단순한 부자, 형제지간의 혈연적 계승으로 파악하기에는 어색하고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왕계의 단절 혹은 비정상적 계승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추론이 더해져야 한다. 이점이 다소 아쉬운 연구 성과라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문과 『삼국사기』, 중국 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이루어진 초기 왕계에 관한 연구 역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20) 박노석, 2014, 「고구려 초기 왕들의 계보 고찰」, 『전북사학』 44.

21) 여호규, 2014, 「광개토왕릉비 서두의 건국설화와 왕위계승 기사 검토」,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연구는 지나치게 왕계와 왕실 교체 자체에만 집중하여 진행된 느낌이다. 추후 고구려 초기의 왕실 교체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다양한 천도 기사(유리왕의 국내 천도, 동천왕대의 평양 천도 등)와 대외 관계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며 파악해야 한다.

Ⅲ.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대외 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광개토왕비의 주인공인 광개토왕이 활약하고, 비문이 세워진 5세기의 고구려는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신성한 왕계로 상징되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개토왕비문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고구려의 대외 관계는 대체로 전쟁 기사와 결부지어진다. 비문의 전쟁 기사는 신묘년조를 포함하여 영락 5년조, 영락 6년조, 영락 8년조, 영락 9년조, 영락 10년조, 영락 14년조, 영락 17년조, 영락 20년조 등 9개이며, 그 대상은 백제, 왜, 숙신(?), 거란, 후연(?), 동부여, 임나(가라) 등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대백제전에 할애하고 있다. 그것은 백제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당시 고구려의 가장 큰 적이자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문의 대외 관계 기사 중 상당 부분이 백제 관련 전쟁 기사일 뿐만 아니라, 유독 백제의 명칭만을 백잔이라는 비칭으로 다루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문의 대외(전쟁) 관계 기사에 대백제전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소홀한 감이 있었던 중국(후연), 북방(거란, 숙신), 왜, 신라, 가야 관계 등 다양한 방면과 대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 적지 않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특히 광개토왕대의 대중국(후연)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사 전공자들이 중국사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고,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

지만 고구려와 거란, 물길 등 북방 민족의 관계를 전문으로 다룬 성과들도 제출되었다. 또한 영토사의 관점에서 당시 고구려와 신라,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국경선) 변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비문에 보이는 주요 정벌 대상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1_ 대백제전에 대한 연구 현황(영락 17년조 포함)

비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와 백제와 크게 충돌하게 된 것은 고구려가 추진한 강력한 남하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고구려의 남진에 주목한 박성봉을²²⁾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고구려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남하를 결행하였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그 정점은 백제였으므로 필사적으로 대백제전을 감행하였으며, 그에 승리한 고구려가 4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먼저 대백제전이 확실한 영락 6년조의 경우 광개토왕이 당시까지 전개한 대백제전에서 함락한 성, 촌의 수효와 성의 명칭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의는 이 전역으로 고구려가 차지한 백제 영역에 대한 비정 위주였다. 여타 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기사는 단순히 그해에 전개한 군사 활동의 결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즉위 초부터 이 해까지 전개된 대백제전의 결산으로 봄이 일반적이다.²³⁾ 물론 이때 고구려가 백제를 치고 차지한 58성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갈리기도 하지만 대개 예성강~한강 권역으로 보고 있다.²⁴⁾ 영락 9년조와 10년조에는 백제와 함께 왜가 등장해 신라를 침공하자 고구려가 이를 구원하기 위해 남쪽의 신라와 가라까지 출병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비문의 전쟁 기사와 관련해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은 영락 17년조

22) 박성봉, 1979, 「광개토호태왕기 고구려 남진의 성격」, 『한국사연구』 27.

23)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24) 이병도, 1976, 「광개토왕의 웅략」,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379~382쪽; 노중국, 1986, 「한성시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변태섭박사화갑기념논총』, 147쪽.

대상의 실체에 대한 것이다. 영락 17년조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역의 객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백제와 후연²⁵⁾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백제로 파악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편이다. 그 근거는 비문에 보이는 사구성(沙溝城)과 『삼국사기』의 사구성(沙口城)이 같은 성이라는 것,²⁶⁾ ‘婁’자가 들어간 城名이 영락 6년조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빼앗은 것에도 다수 보인다는 점,²⁷⁾ 북연과 고구려의 교전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점은 406년 3월이고 407년에는 고구려에 우호적인 北燕이 들어서는 시기라는 것²⁸⁾ 등이다. 특히 비문에 보이는 사구성과 누성(婁城)이 비교적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요동과 하북 등 후연 관련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 성은 고구려가 백제에게 공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나왔다.²⁹⁾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백제설이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은 광개토왕 당시 백제 못지않은 적대 세력이자, 고구려에 국가적 치욕을 안긴 적이 있으며 역량으로 볼 때는 백제보다 훨씬 강대한 세력인 후연에 대한 언급이 비문 전체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개토왕 시기 대후연 관계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5차례 이상 보임을 상기한다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는 17년조 정벌의 대상을 후연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다시 제기되었는데, 막연히 정확성 추측만 하였던 기존과 달리 당시의 역사적 상황, 비문

25) 영락 17년조를 대후연전으로 파악한 것은 신채호가 처음이며, 이후 천관우, 1979, 「광개토왕릉비문제론」, 『전해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임기환, 199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민의 성격」, 『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774쪽; 공석구, 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50쪽; 이인철, 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문상중, 2001,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조 기사에 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 4·5집 등이 주장하였다.

26) 이기동, 1988, 「광개토왕릉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시민강좌』 3, 23쪽.

27) 王健群, 1984, 앞의 책, 222쪽.

28) 이도학, 1988, 「광개토왕대의 남방 정책과 한반도 제국 및 왜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67, 164~165쪽.

29)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135쪽.

서술의 특성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전개하였다. 먼저 공석구는 17년조의 ‘斬殺蕩盡’이라는 표현이 고구려의 천하관 내에 있던 속민(屬民) 혹은 노객(奴客)인 백제에 쓰일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王師四方合戰’에서 볼 때 전장은 협소한 산성이 아니라 평탄한 개활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는 산성 중심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중국은 평지성 위주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고구려는 평지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지성 위주로 방어체제가 갖춰져 있던 요서 지역이 해당 전역의 주전장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것은 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백제설을 주장한 논자들이 내세웠던 북연과의 관계를 고려해 후연 관계 기사를 제외하였다는 주장도 북연이 후연의 계승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와의 관계를 더 강조하였던 것을 볼 때 고구려 측에서 먼저 북연의 입장을 생각해 후연 관계 기사를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락 17년조 기사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속군성 공략 기사를 압축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파악하였다.³⁰⁾

임기환은 비문이 정벌 관련 기사를 매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정벌의 대상은 17년조에 보이는 ‘斬殺蕩盡’이나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라는 표현에 적합한 상대여야 한다고 보았다. 백제, 신라, 동부여 등은 대왕의 은택(恩澤)을 입은 속민이므로 ‘斬殺蕩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황상 한 번의 전역에서 빼앗긴 갑옷이 1만 명 이상에 군수 물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주체가 백제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 그 주인공은 후연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³¹⁾ 또한 ‘婁’자가 들어간 지명은 백제뿐만 아니라 동부여 등 부여계 지명으로 확인되므로 후연이 고구려 북방의 부여 지역을 공격하였다면 비록 후연전이라 할지라도 전장이 구부여 지역이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피력하고, 그 시기는 高雲이 후연을 멸하고 북연왕이 되는 407년 7월 이전의

30) 공석구, 2012, 「광개토왕의 요서지방 진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31) 한 차례 전역에서 1만 명 이상의 갑옷을 획득하고 무수한 군수 기자재를 보유할 만한 국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후연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인철이 처음 지적하였다. 이인철, 2000, 『고구려 대외 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어느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²⁾

이처럼 비문에 정확한 대상이 들어나 있지 않은 영락 17년조 전역의 상대국이 백제냐 후연이냐로 학계의 견해가 갈리는 중에 양자를 적절히 절충한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곧 광개토왕이 후연을 정벌하고 돌아와서 다시 백제의 사구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공파한 사실이 해당 기사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³³⁾

당시 북중국의 상황은 전진에 의한 짧은 통일 시기가 막을 내리고 후연이 세워지는 등 분열 양상을 띠었는데, 광개토왕은 그 후연과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김영하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물자 노획 성과만 거둔 영락 17년조의 전반부는 복속 관계를 맺지 않은 대후연 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들에 대한 공략 기사인 후반부는 복속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 대백제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⁴⁾ 일종의 절충론인 이 견해는 해당 기사가 ‘還’자를 기점으로 시기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전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전혀 다른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 하나의 문장에 기록되었다면 문맥상 적어도 1개 이상의 국명이 등장해야 자연스럽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고구려의 서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후연과 백제 두 국가를 대상으로 같은 해에 대군을 동원해 연속적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도 정황상 조금은 무리한 감이 든다. 후연은 당시 동북아에서 최강국 지위에 있던 나라이고, 백제는 실질적 고구려의 최대 라이벌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부가되지 않으면 절충론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문의 지향점, 당시의 대외 관계 기초를 밝히는 데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락 17년조 정벌 대상의 실체는 현재까지도 선뜻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32)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33) 강제광, 2009, 「고구려 광개토왕의 요동확보에 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탐구』 2, 38~39쪽.

34) 김영하, 2012, 「광개토왕릉비의 정복기사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6, 244~245쪽.

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2_ 대외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

비문에는 신묘년, 영락 9년, 10년, 14년 등 백제(백잔) 다음으로 왜에 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물론 이들 기록 중 왜가 주체가 되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묘년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나, 여타의 기록에도 왜는 중요한 조연 혹은 매개체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실체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소위 신묘년조(391) 기사는 지금까지 고대 한일 관계사의 많은 논란을 던지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적 검토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제 식민 사학자들은 비문의 신묘년조를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비문을 이용하였다. 신묘년조 기사를 둘러싼 논쟁은 민족주의 사학자들 부정적 견해와 해방 후 이른바 비문 변조설까지 등장하며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현재는 고구려가 남긴 특유의 과장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비문의 신묘년(391)조 기사는 비문의 전쟁 및 대외 관계 기사로서 뿐만 아니라, 비문 자체의 위변조설까지 결부되어 광개토왕릉비를 둘러싼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분이다. 논란이 된 소위 신묘년조 기사는 광개토왕이 대 남방 작전에 나선 영락 6년(396년)조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 그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묘년조³⁵⁾는 1889년 일본인 학자 요코이 타다나오(横井忠直)가 雙鉤加墨本을 바탕으로 『會餘錄』 제5집에 「高句麗古碑考」를 게재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졌다. 여기서 그는 신묘년 기사를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 등을

35)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羅 以爲臣民. 석문은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가락국사적개발원에 의함.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고 이를 『日本書記』에 보이는 신공왕후(神功皇后)의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정벌 기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이 기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4세기 후반 신공황후의 한반도 남부 지역 정벌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으며,³⁶⁾ 임나일본부설로 이어진다.³⁷⁾

이처럼 비문의 신묘년조 기사가 소위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활용되자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정인보는 신묘년조 기사의 주어를倭가 아닌 고구려로 보아, “신묘년에 왜가 건너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이를 격파하였고, 다시 백잔을 치고 신라를 구원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³⁸⁾ 그에 의하면 비문의 주체는 고구려로, 대주어인 고구려가 생략된 것이므로 신묘년조도 마땅히 고구려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박시형은 중국과 공동으로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서 『광개토왕릉비』(1966, 사회과학출판사)를 내놓았다. 그는 광개토왕비문과 관련된 문헌 사료를 거의 검토하고, 비의 재발견 경로를 상세히 추적하였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신묘년조 기사에 대해서는 정인보의 해석법을 받아들여 고구려를 주체로 보아 기존 일본 식민주의 사학자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정인보와는 달리 신묘년에 건너온 왜를 격파한

36) 那珂通世는 ‘渡海破百殘□□□羅’의 결락 부분을 任那 또는 加羅로 추정하여 왜가 백제, 가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那珂通世, 1893,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

37) 이를 근거로 한 소위 임나일본부설은 白鳥庫吉, 1905, 「好太王の碑文に就いて」, 『中央公論』 20-8; 浜田耕作, 1906, 「高句麗好太王碑の話」, 『早稻田興風學會雜誌』 10-3; 今西龍, 1913, 「加羅疆域考」;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등에 의해 확립되었고, 末松保和가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1949)를 저술함으로써 집대성, 체계화되어 井上秀雄의 『任那日本府と倭』(寧樂社, 1978)로까지 이어졌다.

38) 百殘新羅 於太王 煩碼屬民 而倭則賞來優句麗 句麗亦聲婚海往優(倭) 交相攻 而百殘 乃通倭 爲不利於新羅 太王以爲 此 吾巨民也 曷敢爾哉. 정인보,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膺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정인보의 해당 논고는 前間恭作이 전해 준 탁본과 판독을 활용해 1930년대 중, 후반에 저술되었다. 민영규, 1985, 「鄭齋園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校錄并序」, 『동방학지』 46·47·48.

것은 같으나 다시 백제가 왜와 연계해 신라를 격파하고 이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김석형은 일본 사학자들이 강조해 온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며, 삼한(삼국)의 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해 작은 삼국을 세웠다는 전혀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였다. 이른바 분국설의 등장이다.³⁹⁾ 이 주장은 현재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임나일본부설과 비문에 대한 전면적 재인식과 재검토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는 고구려라는 주어가 끝까지 걸린다고 보아 “신묘년에 왜가 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백제를 공파하고 백제, 신라, 가라 등을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정인보, 박시형과 같은 입장이거나, 고구려의 역할과 활동을 더욱 확대 해석한 견해라 하겠다.

이후 제일 교포 역사학자 이진희는 19세기 말 한반도 진출을 추진하였던 일본군 참모부가 한국 고대사 왜곡을 목적으로 비문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신묘년조 기사 연구에 파란을 일으켰다.⁴⁰⁾ 천관우도 비문의 조작이나 誤讀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비문의 결락 부분을 보입 추독하여,⁴¹⁾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 온 고로, (왜를 끌어들이) 백제가 신라를 침략하여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⁴²⁾

이형구 또한 비문 변조설의 맥락에서 비문의 字形과 結構, 字體 불균형 등을 근거로 ‘倭’ 자는 본래 ‘後’인 것을 조작한 것으로, ‘來渡海破’는 ‘不貢因破’를 일본군이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비문을 “신묘년 이래 (백제와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백잔과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

39) 김석형, 1963-1, 「삼한·삼국의 일본열도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김석형, 1966, 『초기 조일 관계 연구』, 과학원출판사.

40)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41) 而倭以辛卯年來渡海(故)百殘(將侵)新羅 以爲臣民.

42) 천관우는 일본의 남선영경론의 핵심인 임나일본부를 백제의 군사령부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천관우, 1977~1978, 「복원 가야사」 상·중·하, 『문학과 지성』 28·29·31.

였다.⁴³⁾ 그러나 이 견해들은 일본군 참모본부에 의한 고의적인 글자 조작은 없었다는 왕젠첸[王健群]의 연구 이후 그 입지가 약화되었다.⁴⁴⁾

그러나 설령 일본 군부가 비문을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한반도와 대륙 침략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비문 연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에 의해 드러났다.⁴⁵⁾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나카즈라 아키라[中塚明]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일본 역사학계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⁴⁶⁾

신묘년조 기사를 둘러싼 논란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기사의 주체를 놓고, 倭로 파악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 일본인 사학자들과 고구려로 본 남북한 역사학자들의 대결 국면을 띠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비문 변조설이 불거지면서 주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비문 자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고, 여기에 중국 연구자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른바 비문 변조설은 현 시점에서는 그 자체적 파급력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일본 학자들에 의해 근대 일본 역사학의 체질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과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므로 그 연구사적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하겠다.

근래에 들어서 비문 변조설이 그 힘을 잃으면서 신묘년조 기사의 주체에 대해 일본으로 파악하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속민 또는 왜의 신민이라는 표현은 고구려가 과장한 서술로 봄이 일반적이다. 문맥과 논리상 가장 합리적 해석이기

43) 이형구 외, 1981, 「廣開土王陵碑文의 所爲 辛卯年 기사에 대하여-僞作 '倭'字考」, 『동방학지』 29.

44)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45) 佐伯有清, 1972,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再檢討のための序章-參謀本部と朝鮮研究」, 『日本歴史』 287. 佐伯有清는 왜가 임나가라는 물론 백제, 신라를 공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문의 주체는 왜가 아닌 고구려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잔을 부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佐伯有清, 1972,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再檢討-特に'辛卯年'の倭關係記事をめぐって」, 『續日本古代史論集』 上.

46) 中塚明, 1971, 「近代日本史學史におけるの朝鮮問題」, 『思想』 561; 旗田巍, 1974, 「廣開土王陵碑文の諸問題」,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는 하나, 고구려가 굳이 자신의 속민으로 표현한 백제, 신라 등에 대해 왜의 신민이라고 또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될 필요성이 느껴진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문에 등장하는 왜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자국이 추진한 남방 정책의 방해자로 인식되어 비문 기술의 핵심적 전제로 상정 되었다고 한다. 신묘년조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과장되게 강한 왜의 이미지를 출현시켰다고 한다.⁴⁷⁾ 이와 유사하게 광개토왕이 강력하게 추진한 남방 정책에서 백제와 ‘和通’한 왜는 고구려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는 비문에서 고구려가 왜를 적개심 넘치는 대상으로 기술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는 광개토왕의 교화가 미치는 이른바 官的 秩序의 편제 대상으로 고구려의 천하관 내에 속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⁴⁸⁾

요컨대 신묘년조에 대한 논의는 바다를 건너와 격파한 주체에 대해 왜, 고구려라는 입장이 대별되고 있고, 왜로 보는 주장은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 신라 등을 신민으로 삼자 이후 고구려가 남방으로의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고구려로 보는 견해는 다시 이때 바다를 건너온 고구려가 백제, 신라 등을 모두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입장과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보는 주장으로 나뉜다.⁴⁹⁾

하지만 현재는 광개토왕비가 세워지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신묘년조 기사의 내용 자체가 고구려의 입장에서 과장되게 서술되었다고 해석하는

47) 연민수, 2012,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한일관계사연구』 43.

48) 이도학, 2012, 「광개토왕대의 남방 정책과 한반도 제국 및 왜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67.

49) 고구려의 대외 관계사적 측면에서 신묘년조를 분석한 연구는 이 정도로 추려진다. 하지만 비문 자체의 결락과 위변조 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에 달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 김영하, 2012, 앞의 논문; 井上直樹, 2008,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선사와 고대』 28 등이 잘 정리하였다. 관련 논의는 대외 관계 부분의 연구사 검토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쪽이 우세하다. 왜의 한반도 남부 지역 진출에 대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비문 위변조의 확실한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소위 신묘년조 기사는 이후 영락 6년, 9년조, 10년조 등과 함께 고구려의 한반도 남부 지역 진출 시도와 연계하여 더욱 활발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3_ 대가야전, 대신라전, 대백(식)신전, 대패려전에 대한 연구 현황

4, 5세기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남방 진출을 꾀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동북아 국제 관계, 생산 기반 확보 등 다양한 배경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남방 진출에 대한 고구려의 열망과 시도가 잘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가 비문에 보이는 가야 관계 기사이다.

비문에서 그 실체가 가야 세력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영락 10년조에 신라와 함께 등장하는 임나(가라)의 존재이다. 임나는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이며,⁵⁰⁾ 이 전역으로 인하여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전기 가야의 맹주 금관가야는 급속히 약화되고,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로 넘어갔다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다.⁵¹⁾ 그런데 이 부분은 신조묘년조에 보이는 결락 부분 ‘渡海破百殘□□羅’의 보입 문제와도 연관되어 신라, 혹은 가라 또는 이들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추측해 가야 지역으로의 고구려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⁵²⁾

또한 동년조의 ‘安羅人戍兵’의 실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안라인의 지키는 군대,⁵³⁾ 안라국의 수비병으로 본 견해가 있으

50) 임나의 위치를 고령으로 보는 견해(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43; 천관우, 1977, 앞의 논문; 이영식,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도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김해 금관가야설을 취하고 있다.

51) 김태식, 2002, 「광개토왕대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광개토왕과 고구려 남진 정책』, 학연문화사.

52) 이에 대한 논의의 구체적 전개 양상은 김영하, 2012, 앞의 논문이 참조된다.

53) 菅政友, 1891, 앞의 논문; 那珂通世, 1893, 앞의 논문; 末松保和, 1949, 앞의 글

며,⁵⁴⁾ 근래에는 고구려를 돕는 동맹군으로 해석하여 안라국 군대가 고구려와 연합해 ‘백제-왜-임나가라’ 연합군과 대항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⁵⁵⁾ 그리고 이를 특정 국가(安羅)로 상정하지 않고 安을 술어 동사로 보아, 고구려가 어떤 성을 공취한 후 신라인 수비병이나 고구려 군대를 두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⁵⁶⁾

한편 10년조를 둘러싼 또 다른 논의는 ‘從拔城’에 관한 것이다. 이를 종발성이라는 임나가라에 속한 특정 성의 명칭으로 보는 견해와⁵⁷⁾ ‘성을 공략함에

등은 임나를 지배하는 왜군 장수가 통솔하고 안라인 군사들로 구성된 군대라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는 곧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해 왜의 가야 지역 통치를 역사적 사실로 보려는 과거 일본학계의 주장이다.

- 54) 곧 함안 지역으로 비정되는 안라국인으로 구성된 수비병으로 보는 입장으로, 군대 구성에 대한 것은 과거 일본학계의 의견과 같으나, 임나일본부의 용병이 아니라 백제의 동맹군으로 보는 입장이다(김석형, 1966, 앞의 글, 406쪽). 이 견해는 이영식, 1993, 앞의 책; 연민수, 1987,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왜 관계 기사의 검토』, 『동국사학』 21;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 조일관계 연구』, 연변대출판사; 백승충, 1995, 「가야의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등 많은 연구자들의 공감을 얻어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하다.
- 55) 남재우에 의해 제출된 이 견해는 그동안 안라수병을 고구려와 맞서는 성격의 군대로 해석한 기존 견해와 달리 고구려 동맹군으로 본 최초의 해석이다. 남재우, 1998, 「안라국의 성장과 대외관계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남재우, 2003, 『안라국사』, 해안.
- 56) 신라인 수비병을 안치하였다는 해석은 과거 일본학자들이 해당 기사를 임나일본부의 용병으로 억지 해석한 데 대한 반론으로서 王健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王健群, 1984, 앞의 책. 이후 같은 맥락으로 高寬敏은 “(고구려)가 순라군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해석하였고(高寬敏, 1990, 「永樂十年 高句麗廣開土王의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김태식 또한 동의를 표하였다. 김태식, 1994, 「광개토왕릉비문의 임나가라와 안라인수병」, 『한국고대사논총』 6. 최근에는 그 실체에 대해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 지역 신라, 가야 지역에 대한 조치로 주둔시킨 자국 군대로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백승욱, 2003, 「광개토왕릉비문의 건비목적과 가야관계기사의 해석」, 『한국상고사학보』 42, 49~50쪽. 그동안 백제나 왜의 책동에 의한 수동적 작전으로만 이해되었던 고구려의 해당 지역 진출과 관리에 대해 고구려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연구 성과라 하겠다.
- 57) 那珂通世, 1893, 앞의 논문; 김석형, 1963, 앞의 글; 천관우, 1979, 앞의 글; 王健群, 1984, 앞의 책;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高菅敏, 1990, 앞의 글; 노태돈, 1994, 앞의 책 등.

따라'라는 문구로 보는 견해로⁵⁸⁾ 대별되나, 전자가 우세하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도 임나가라, 곧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로 보는 설과 부산 복천동 지역으로 보는 설, 대가야 중심지인 고령⁵⁹⁾ 지역설 등이 있다.⁶⁰⁾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고구려가 한반도 최남단의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는 주로 가야사를 전공하는 연구지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앞으로는 당시 고구려의 국가, 군사적 역량 및 고구려군의 작전 능력과 반경, 그리고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실리적 성과에 대해 고구려를 주체로 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관련해 신라 또한 중요한 대상으로 등장한다. 신라는 고구려가 한반도 최남단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는 직접적 동인을 제공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은 비문의 9년, 10년조이며 모두 백제, 왜로부터 침략을 받아 고구려가 구원의 은택을 베푸는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고구려는 이때부터 신라를 속민으로 취급하였고, 신라에 대한 구원을 명분으로 '백제-왜-임나가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려 하였다⁶¹⁾는 연구가 있다.⁶¹⁾ 이 무렵 광개토왕은 신라왕으로 친고구려 성향을 띤 실성을 세움으로써 신라에 친고구려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⁶²⁾ 같은 맥락에서 10년조에 보이는 직접 고구려를 찾아와 '論事'한 寐錦을 실성왕으로 보기도 한다.⁶³⁾

58)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59) 권주현, 2011,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61~63쪽.

60) 최근에는 중발성의 어원과 김해 봉황동 유적지 발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위치가 김해 봉황동 토성이었음을 밝힌 연구가 나왔다. 송원영, 2010, 「金官加耶와 廣開土王碑文 庚子年 南征記事: 김해지역 고고학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61) 이도학, 1988, 「고구려의 낙동강유역 진출과 신라, 가야 경영」, 『국학연구』 2.

62) 장창은, 2008, 『신라 상고기 정치 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63) 후보돈, 2005, 「고구려 남진의 성격과 그 영향-광개토왕 남정의 실상과 그 의미」, 『대구사학』 82.

비문의 영락 8년조에 보이는 肅(息)慎土谷의 실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식신(息慎)으로 판독해 말갈의 전신인 숙신(肅慎)으로 봄이 일반적이다.⁶⁴⁾ 그러나 숙신은 선진 시기의 종족명으로, 당시는 이미 읍루를 거쳐 물길로 불렸으며, 비문의 지향성을 고려할 때도 숙신으로 보는 것은 어렵고 동예 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⁶⁵⁾ 낙랑, 대방 등 중국 군현이 구축된 후 동예 지역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동예의 남쪽 경계인 평강과 안변을 잇는 천연 교통로이자 경계서인 추가령 구조곡(土谷)을 함께 일러 백신토곡(肅慎土谷)으로 기록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한다.⁶⁶⁾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백신토곡을 강원 영동 지역 북부의 동해안 지역으로 비정한 견해도 제출되었다.⁶⁷⁾ 그 외에 백제,⁶⁸⁾ 혹은 신라로⁶⁹⁾ 보는 주장도 있다. 여러 추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肅慎(肅慎)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용례와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끝으로 영락 5년조의 패려(裨麗)는 그 정확한 부(部)나 위치의 비정에 있어서 다소간 출입이 있지만,⁷⁰⁾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그 실체를 거란으로 보고 있다.⁷¹⁾ 최근에는 패려 정벌 기사가 비문 정복 기사 중 최초로 등장하고, 요동 순

64) 천관우, 1979, 「광개토왕릉비문재론」, 『전해중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 고대편, 일조각.

65)濱田耕策은 비문의 이 息(肅)慎에 대해 경기 북부나 강원도의 濊人으로 추정하였다.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古代朝鮮と日本』.

66) 김영하, 2012, 앞의 논문, 240쪽.

67) 조영광, 2014,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시기 한·예족의 복속과 고구려인화」, 『영남학』 25.

68) 王健群, 1984, 앞의 책.

69) 徐榮洙, 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中), 『歷史學報』 119.

70) 패려를 거란 8부 중 하나인 匹紜部로 특정한 것은 박시형이 최초이다. 박시형, 1966, 『광개토왕비문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54쪽. 비문에 보이는 광개토왕의 작전 도상 시라무렌하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거란 필렬부는 광개토왕의 정벌 대상으로 유력하고, 패려와 필렬(혹은 필혈)은 발음도 유사해 같은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71) 천관우, 1979, 앞의 논문; 徐榮洙, 1988, 앞의 논문. 裨麗를 碑麗로 파악해 柔然으로 본 견해도 존재한다. 신재호, 1948, 「광개토왕의 북진정책과 선비 정복」, 『조선상고사』, 종로서원.

수 기사와 대구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 볼 때 패려 정벌은 단순히 유목민에 대한 1회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대외 팽창의 전기이자, 이후 펼쳐지는 후연과의 치열한 싸움에 기선을 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⁷²⁾ 특히 이 기사가 요동 지방 순수 기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국 영역에 대한 정치와 군사 활동을 수반한 고구려왕의 전형적인 순수 활동과 일치하며, 이는 요동이 고구려 관할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한다.⁷³⁾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는 본격적인 대남방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배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⁷⁴⁾ 패려의 실체를 거란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의 공통된 인식이므로 추후 해당 시기 거란과奚, 선비족의 내몽고, 남만주 등지에서의 활동과 연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광개토왕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 관한 연구는 신묘년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영락 6년조에 보이는 백제를 정벌하고 확보한 영역에 대한 비정, 17년조 정벌의 대상에 대한 구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락 17년조의 경우 그 대상을 후연으로 볼 것인가, 백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비문의 성격은 물론 광개토왕, 나아가 고구려 대외 팽창 활동의 지향성까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⁷⁵⁾

위의 문제는 정확한 역사상의 복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문에 자주 등장하는 북방 민족(패려, 백신 등)과 왜의 실제, 관계 구명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비문에

72) 서영수, 2013,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 『백산학보』 95.

73) 김영하, 2002,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57~158쪽.

74)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の 對稗麗戰」, 『한국고대사연구』 67, 206쪽.

75)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비문의 전쟁 기사와 『삼국사기』의 그것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대후연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나온 적지 않은 연구들이 그 원인 구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한 듯하다. 이 또한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서 수묘역의 주된 담당자로 나오는 한·예로 표현된 세력의 소재지, 종족적 특성, 백제와의 관련성, 고구려와의 관계 등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과 해명 역시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앞장에서 살펴본 고구려의 천하관과 대외 관계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비문에 보이는 전쟁은 시기와 대상별로 그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초보적 논급은 제기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비문에 보이는 전쟁을 단순 정벌, 정복(영역화), 복속 등 각기 구분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IV.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4, 5세기 고구려는 비문의 天帝之子, 皇天, 臣民, 朝貢, 屬民 등의 표현 등을 통해 볼 때 독자적 천하관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⁷⁶⁾ 이는 비문에서도 확인이 되듯 당시 고구려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하여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군사적 우위와 국력 신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그 표현 방식은 중국식 천하관과 유사하나, 실상은 자국의 독자성과 특성을 강한 자부심으로 드러낸 것으로 파악되는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의식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지금까지 나온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6) 武田幸男는 이를 고구려적 중화의식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한국 고대사의 천하관 연구는 고구려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⁷⁷⁾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천하관에 관한 연구의 효시는 양기석과 노태돈이다. 양기석은 역사현실에 대한 의도적·관념적인 의식이 반영된 ‘천하관’으로 규정하고, 천하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군주호(태왕), 화이사상(동이), 신성족 관념(천제지자), 독자적 연호(영락) 등을 검토하며 그 변천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였다.⁷⁸⁾

그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화이관을 수용하면서도 나름의 자존적 천하관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은 자국의 전통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자신감은 중원고구려비의 ‘동이’ 표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동이’는 화이관에 입각한 東方人에 대한 멸칭으로 이를 주변국인 신라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그는 비록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領護東夷中郎將’의 작호를 받았지만, 이는 당시 책봉체제가 授爵者의 요구에 따라 의례적으로 운영되었고 삼국 간의 상호 견제의 의미가 내포되었으므로 고구려가 받은 ‘동이’라는 의미는 신라, 백제의 통솔을 전제로 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⁷⁹⁾

노태돈은 천하관을 현실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규정하고 고구려인의 인식이 1차적 천하로서 고구려 자국의 영역, 2차적 천하로서 고구려에 실질, 관념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주변 영역, 3차적 천하로서 동북아시아 전역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천하관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고구려의 전통적 신앙과 관념으로 유지되었다고 보았다.⁸⁰⁾

고구려 국왕은 스스로를 天孫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인의 인식 속에서 天은 자연 현상이나 理法 등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신인

77) 藤原啓夫, 2011, 「고구려의 천(天) 그리고 천하관」, 『내일을 여는 역사』 44.

78) 양기석, 1983, 「4~5C 고구려 王者의 천하관에 대하여」, 『역사와 담론』 11.

79) 반면 윤용구는 동이중앙장이 요하 이동의 동이 제국에 대한 고구려의 통제권을 공인한 장군호이며, 동이교위는 시라무렌하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북위가 당시의 국제 질서인 책봉을 통해 공인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80) 노태돈, 1988,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天帝로서, 왕은 그의 현신이며 후손으로서 신성한 천손이라는 고구려의 전통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구려식 천하관은 중국식 화이관과 달리 상술한 단계적 천하관의 형태로 구현되었다고 본 것이다.⁸¹⁾

이처럼 주변 세계를 자국과의 관계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식한 고구려식 천하관에는 고구려적 천하에 속한다고 여긴 신라, 백제, 동부여 등의 주민과 고구려 주민 사이는 동류 의식에 대한 상당한 자의식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비문에 신라, 백제, 동부여가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는 서술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분석하였다. 과연 그것이 비문에 보이는 주변국에 대한 속민 표현의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통일 국가나 민족을 형성한 적이 없는 한민족 고대 국가들이 종족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류의식을 대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정은 한민족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윤상열은 기존 고구려 천하관에 관한 연구가 4~5세기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4~5세기 고구려 천하관의 모태가 되는 국초의 천손족 의식이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거치며 광개토왕, 장수왕대에 독자적 천하관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러한 고구려 천하관의 형성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곧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존재하였던 천하관이

81) 노태돈은 이처럼 고구려의 독특한 천하관이 군주 칭호인 태왕(太王), 성왕(聖王) 등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고구려의 대왕(大王) 의식은 중국적 우주관의 궁극인 황제와 유목 민족의 가한(可汗)과 같은 의미로, 굳이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본래 고구려 전통적 군장 칭호인 가(加)에서 국왕을 왕으로 바꿔 부른 이래 王 칭호는 이미 중국식 황제와 같은 초월적 의미를 담은 것이므로 국왕을 굳이 다시 황제로 바꿔 부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비문에 보이는 ‘世子’ 표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천자국-太子, 제후국-世子라는 관념은 실상 중세적 관념으로, 周代에는 세자와 태자는 같은 의미로 쓰였고, 漢代에는 천자와 제후를 막론하고 제위(혹은 왕위) 계승후보자에게 太子 칭호를 주었다. 고구려가 비문에 世子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국과의 조공 책봉 관계를 의식한 것이 아닌, 태자와 세자의 용례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고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함이 옳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삼국이 공히 사용한 太子의 용례도 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4~5세기에 유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면서 독자적 천하관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천하관은 동류의식과 실리 관계로 연결되는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구려는 그 세력들을 다양한 개념으로 포섭하여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⁸²⁾

그는 고구려가 초기부터 일정한 방위 관념을 지배 구조에 접목시켰고, 태조왕~중천왕대에는 동·남·서해의 경계 의식이 정립되어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四方) 의식이 성립되었으며, 고국천왕대에 이르러 기내 제도의 출현으로 천하 의식이 더욱 정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5세기 무렵 고구려의 세계 관념은 '지상의 모든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유교가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된 4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중국적 '화이관'과 비슷한 형태의 관념이 고구려 천하관의 확립과 맞물려 정착되었다고 보았다.⁸³⁾ 그러나 그의 연구는 관련 자료가 다소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논리 비약과 실증적 측면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 아쉬움을 준다.

비문에 보이는 천하관의 또 하나의 형태로서 사방, 사해(四海) 의식의 발전에 대한 연구 성과도 있다. 조경철은 광개토왕대에 9개의 절을 세운 것은 중앙과 팔방(八方)의 관념으로 능비에 보이는 '黃龍'과 '四海'라는 표현이 이와 관련 있고, 이는 천하의 중심에 있는 고구려가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분석하였다.⁸⁴⁾ 김병곤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광개토왕이 재위 중에 동서남북 사해로의 평정을 도모하여 이와 같은 관념을 실현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⁸⁵⁾ 이러한 견해들도 유사한 사례나 실증적 측면에서 논증이 약하고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해석한 감이 든다.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호규는 비문의 영락 5년조 기사를 분석하며 5세기 초반 고구려의 대중국 인식과 대외 정책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요컨대 영락 5년조 기사는 중국

82) 윤상열, 2010, 「고구려 천하관의 형성 배경 연구 - 지배구조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83) 윤상열, 2011, 「고구려 세계 관념의 확립 과정 탐구」, 『고구려발해연구』 41.

84)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教」, 『東北亞歷史論叢』 20.

85) 김병곤, 2011, 「고구려의 평양천도 기획시점과 남진」, 『고구려발해연구』 39.

왕조나 유목민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지만, 고구려 중심의 천하를 설정하기 위해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것을 노출하기를 기피하면서도 이들과의 관계를 독자적인 천하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혹은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고구려의 인식과 정책이 담긴 것이라고 보았다.⁸⁶⁾ 또한 이를 통하여 5세기 초반 고구려인들이 중국과는 별개인 요하 이동의 독자적 천하를 설정하고, 주변국과 집단을 자신의 천하에 속한 존재들로 상정하였음을 밝혔다.

즉 5세기 초반 고구려인들은 자신의 천하를 여러 족속이 거주하는 세계로 설정하고 주변 지역은 이적시한 반면, 자신은 신성한 중심 집단임을 자임하였다는 것이다.⁸⁷⁾ 또한 비문에 보이는 ‘聖’, ‘道’, ‘天’ 등의 표현은 단순히 유교식 표현만으로는 天帝와 피로 연결되는 고구려 시조와 왕의 신성성을 나타내기엔 무리가 있다 판단한 고구려가 유교적 표현을 자국 식으로 변용하여 쓴 것으로 파악하였다.⁸⁸⁾

최근에는 공간인식으로서의 천하관과 자기중심적 질서인식으로서의 화이관념을 구분하고,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인식을 고찰한 연구가 나왔다. 시노하라 히로가타[篠原啓方]는 고구려가 고유의 천 개념을 바탕으로 중국 유교적 천 개념을 수용하여 태왕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독자적 천 관념을 확립하고 주변 세력을 정복함으로써 고구려적 천을 구현한 천하관과 국제질서인식을 확립하였다고 한다.

그는 비문에 보이는 천제지자, 皇天, 일월지자 등의 표현에서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天이며, 이 天이 왕의 혈통과 결부되어 국초부터 고구려왕은 천으로서 신성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천의 신성함은 혈통을 타고 대대로 고구려왕에게 전수되었으며, 천제에서 비롯되는 광개토왕의 世系

86) 여호규, 2005,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 인식과 대외 정책」, 『역사와 현실』 55.

87) 여호규, 2009,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 천하의 공간 범위와 주변 족속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88) 여호규, 2014, 「광개토왕릉비 서두의 건국설화와 왕위계승 기사 검토」,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가 기재된 비문의 건국 신화는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혈연이 아닌 군신 관계의 성격을 띠는 유교적 천-천자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 분석하였다.⁸⁹⁾ 하지만 ‘조공’이라는 표현과 ‘영락’ 연호의 사용 등은 고구려가 유교적 천자 개념도 일정 부분 수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⁹⁰⁾ 그의 이러한 분석은 산발적이거나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므로 새로이 제창한 견해라기보다는 기존 연구를 재정리하여 개념화한 것에 가깝다 여겨진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한 연구의 추후 연구 과제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고구려의 모태가 되었던 부여나 고구려의 계승 국가인 발해의 천하관과의 비교 연구라 생각된다. 부여의 천하관에 대하여서는 간략한 고찰이 나오기도 하였지만,⁹¹⁾ 고구려와 비교하면 심도 있고 다각적 접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생각된다. 이는 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⁹²⁾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독자적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였음과 고구려의 계승국임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하지만 발해가 어떤 식으로 독자적 천하관을 형성하였으며 그것이 고구려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나온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하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9) 그에 의하면 천하관은 본래 현실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표현 자체는 화이 개념이 없다고 보았다. ‘천하’를 성립하게 하는 것은 ‘천’으로, ‘천’이 지상 위에 펼쳐지는 공간으로 현실화 된 것이 ‘천하’이고, ‘천하’의 독자성은 ‘천’ 혹은 ‘천’이 ‘천하’로 구현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篠原啓方, 2005, 『高句麗の國際秩序認識の成立과 展開: 4-5世紀를 中心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90) 篠原啓方, 2011, 「고구려의 천 그리고 천하관」, 『내일을 여는 역사』 44.

91) 윤상열, 2008, 「부여의 천하관 소고」, 『사학연구』 90.

92) 발해의 천하관과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한 연계성을 고찰하고자 한 연구가 있으나(윤상열, 2008, 「발해의 천하관 연구-고구려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32), 발해와 고구려의 천하관을 직접 분석하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 내황외왕 체제 등에 대한 개괄적 소개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물론 이는 발해사가 가진 만성적 자료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후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각도와 발해 자체의 관점에서 발해 천하관 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가 고대 국가 형성에 큰 영향 미친 신라의 천하관과 고구려의 천하관의 비교 연구도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대왕 칭호, 연호 사용 등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성기의 고구려가 확립한 천하관이 이후 신라의 천하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라사의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명실상부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확립한 것으로 파악되는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기와 그 이전, 이후 시기의 상황 및 의식 구조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요구된다. 자국의 국력 신장과 국제 관계의 변화 등에 수반하여 형성된 광개토왕 대의 천하관 형성은 이후의 역사, 국제 관계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갔을 공산이 크다. 특히 고구려 후기는 고구려가 대 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도 백제, 신라의 성장이라는 큰 도전을 맞이하였던 만큼 내부적으로 천하관이나 대외 인식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에 관해 상세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바와 같이 4, 5세기 고구려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형성된 독자적 천하관이 과연 전통과 새로운 사상(유교)의 결합이라는 사상사적 측면에서만 해석하여야 하는지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성이 내재된 독자적 천하라는 것은 그 범위 설정에 있어 모종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결국 인적(족적)·문화적인 요인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한 종족적 유사성에 착안한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과 당시의 대외 관계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다. 고구려인들의 자국 중심의 세계관은 비문에 보이는 주몽을 시조로 한 왕실의 신성성과 초기 왕 계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왕계에 대한 연구는 계루부에서 소노부로 넘어가는 왕실 교체의 시점과 중국 사서에 전하는 고구려 초기 왕계와 『삼국사기』 및 비문의 왕계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해 초기 왕계의 복원과 확립 시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고구려 계루부 왕실의 등장은 주몽과 함께, 초기 왕계는 『삼국사기』와 비문에 전하는 내용이 당시 고구려인들이 인식한 초기 왕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구려는 신성한 왕계를 표방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비문의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문에 보이는 광개토왕 당시의 대외 관계는 백제를 중심으로 한 대남방 관계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거란·왜·신라·가야 등 당시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와 종족들이 언급되고 있고, 후연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문에 대한 연구 초기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소위 임나일본부론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신묘년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 1970년대 이후 비문변조설과 비문에 대한 역사적 재검토가 진행되며 신묘년조가 왜의 한반도 남부 지역 공략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역사적 기념물을 남김에 있어 자국 중심의 과장된 서술의 도구로 왜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대외 관계를 둘러싼 비문의 많은 부분이 백제를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락 17년조는 백제로 보는

견해와 후연으로 보는 견해가 대별되고 있으며, 영락 8년조는 숙신과 동예 지역으로 보는 주장이 각각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10년조의 가야 제국에 관한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금후 더욱 진전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내적인 왕권 강화와 외적인 대외 정복과 결부하여 고구려는 자신들만의 독자적 천하관을 수립하게 된다. 천하관은 당시 고구려인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문은 고구려 당대인이 남긴 자료로서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이다. 비문에는 고구려인들의 자존 의식을 보여 주는 다양한 표현과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어 그것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고구려는 유교적,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주변을 인식하였음이 밝혀졌다. 앞으로 고구려의 모태인 부여, 고구려의 계승 국가인 발해, 그리고 동 시기에 한반도에 존재하며 관계를 맺은 백제 및 신라와 같은 국가의 천하관과 다각도의 비교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공석구, 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기흥, 1990, 「고구려의 국가형성」, 『한국 고대 국가의 형성』, 민음사.
- 김영하, 2002,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김태식, 2002, 「광개토왕대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광개토왕과 고구려 남진 정책』, 학연문화사.
-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 노중국, 1986, 「한성시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변태섭박사화갑기념논총』.
- 노태돈, 1994, 「고구려의 초기 왕계에 대한 일고찰」, 『이기백고회기념논총』.
-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 조일관계 연구』, 연변대출판사.
- 여호규, 2014, 「광개토왕릉비 서두의 건국설화와 왕위계승 기사 검토」,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 연민수, 1998, 「광개토왕 비문에 보이는 대외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 이기동, 1988, 「광개토왕릉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시민강좌』 3.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인철, 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 이영식,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 임기환, 199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민'의 성격」, 『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 천관우, 1979, 「광개토왕릉비문재론」, 『전해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 井上直樹, 2014, 「광개토왕비와 문헌사료 - 근대 일본의 광개토왕비 해석과 고구려왕계 소考」,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논문

- 강선, 1996, 「4~5세기 高句麗의 영토확장과 平壤遷都」, 『淑明韓國史論』 2.
- 강재광, 2009, 「고구려 광개토왕의 요동확보에 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탐구』 2.

- 공석구, 1990, 「廣開土王陵碑의 東夫餘에 대한 考察」, 『한국사연구』 70.
- 공석구, 2012, 「廣開土王의 遼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 권주현, 2011,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 김병곤, 2011, 「고구려의 평양천도 기획시점과 남진」, 『고구려발해연구』 39.
- 김석형, 1963, 「삼한·삼국의 일본열도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3-1.
- 김영하, 2012, 「광개토왕릉비의 정복기사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6.
- 김용선, 1980, 「고구려유리왕고」, 『역사학보』 87.
- 김태식, 1994, 「광개토왕릉비문의 임나가라와 안라인수병」, 『한국고대사논총』 6.
- 김중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 3.
- 김현숙, 1994, 「고구려의 해씨 왕 고씨 왕」, 『대구사학』 47.
- 남재우, 1998, 「안라국의 성장과 대외관계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 노태돈,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論』 19.
- 노태돈, 1993, 「주몽의 출자 전승과 계루부의 기원」, 『한국고대사논총』 5.
- 노태돈, 2012,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67.
- 문상중, 2001,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조 기사에 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 4·5집.
- 박노석, 2014, 「고구려 초기 왕들의 계보 고찰」, 『전북사학』 44.
- 박성봉, 1979, 「광개토호태왕기 고구려 남진의 성격」, 『한국사연구』 27.
- 백승욱, 2003, 「광개토왕릉비문의 건비목적과 가야관계기사의 해석」, 『한국상고사학보』 42.
- 백승충, 1995, 「가야의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서영수, 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中)」, 『歷史學報』 119.
- 서영수, 2013,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 『백산학보』 95.
- 손영중,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령역」, 『역사과학』.
- 양기석, 1983,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對하여」, 『湖西史學』 11.
- 여호규, 2009, 「廣開土王陵碑에 나타난 高句麗 天下의 공간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 여호규, 2010, 「고구려 초기의 왕위 계승 원리와 고추가」, 『동방학지』 150.
- 연민수, 1995,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對外關係 - 高句麗의 南方經營과 國際關係論」, 『韓國古代史研究』 10.
- 윤병모, 2009, 「광개토왕의 요서 및 동몽골 공략」, 『대동문화연구』 68.

- 윤상열, 2008, 「고구려 中期 天下觀의 推移」, 『高句麗渤海研究』 30.
- 윤상열, 2008, 「부여의 천하관 소고」, 『사학연구』 90.
- 윤상열, 2008, 「발해의 천하관 연구 - 고구려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32.
- 윤상열, 2010, 『高句麗 天下觀의 형성배경 연구: 지배구조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윤상열, 2011, 「고구려 세계 관념의 확립 과정 탐구」, 『고구려발해연구』 41.
-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 - 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 이도학, 1992, 「고구려 초기 왕계의 복원을 위한 검토」, 『한국학논집』 20.
- 이도학, 2012, 「廣開土大王의 南方 政策과 韓半島 諸國 및 倭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67.
- 이명인, 2012,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 慕容鮮卑와의 관계 및 문화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7.
- 이성제,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7.
- 이승호, 2011,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天帝之子 관념 형성의 史的 배경」, 『역사와 현실』 81.
- 이종태, 1992, 「고구려 태조왕계의 등장과 주몽국조익식의 성립」, 『북악사론』 2.
- 이재성, 2011, 「고구려·契丹 관계사 - 4세기 말기에서 6세기 후기까지」, 『한국전통문화연구』 9.
- 이형구 외, 1981, 「廣開土王陵碑文의 所爲 辛卯年 기사에 대하여 - 僞作 '倭'字考」, 『동방학지』 29.
- 임기환, 2002,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 장창은, 2012, 「4~5世紀 高句麗의 南方進出과 對新羅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44.
-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東北亞歷史論叢』 20.
- 조영광, 2014,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시기 한·예족의 복속과 고구려인화」, 『영남학』 25.
- 조인성, 1990, 「4, 5세기 고구려 왕실의 세계 인식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4.
- 주보돈, 2005, 「고구려 남진의 성격과 그 영향 - 광개토왕 남정의 실상과 그 의미」, 『대

- 구사학』 82.
-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の 對稗麗戰」, 『한국고대사연구』 67.
- 篠原啓方, 2011, 「고구려의 天 그리고 천하관」, 『내일을 여는 역사』 44.
- 井上直樹, 2008,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선사와 고대』 28.
- 篠原啓方, 2005, 『고구려적 국제질서인식의 성립과 전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高寛敏, 1990, 「永樂十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 旗田巍, 1974, 「廣開土王陵碑文の諸問題」,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舎.
- 鈴木英夫, 1986, 「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 『千葉史學』 8.
-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文の謎—初期朝日關係研究史上の問題點」, 『思想』 575,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79,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紀要』 78,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 25-4.
- 三品彰影, 1954,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 『朝鮮學報』 6.
- 佐伯有清, 1972,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再檢討のための序章—參謀本部と朝鮮研究」, 『日本歴史』 287.

[국문 초록]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조영광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그리고 당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다. 천하관은 당시 고구려인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문은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고구려는 유교적,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주변을 인식하였음이 밝혀졌다.

고구려인들의 이러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은 비문에 보이는 주몽을 시조로 한 왕실의 신성성과 초기 왕 계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왕실 교체 시점, 초기 왕계의 복원과 확립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 계루부 왕실의 등장은 주몽과 함께, 초기 왕계는 『삼국사기』와 비문에 전하는 내용이 당시 고구려인들이 인식한 초기 왕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구려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 정책 활동을 전개하였다. 비문에 보이는 광개토왕 당시의 대외 관계는 백제를 중심으로 한 대남방 관계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거란·왜·신라·가야 등 당시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와 종족들이 언급되고 있고, 후연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문에 대한 연구 초기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소위 임나일본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신묘년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비문변조설과 비문에 대한 역사적 재검토가 진행되며 신묘년조가 왜의

한반도 남부 지역 공략을 기록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역사적 기념물을 남김에 있어 자국 중심의 과장된 서술의 도구로 왜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대의 관계를 둘러싼 비문의 많은 부분이 백제를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락 17년조는 백제로 보는 견해와 후연으로 보는 견해가 대별되고 있으며, 영락 8년조는 숙신과 동예 지역으로 보는 주장이 각각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10년조의 가야 제국에 관한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주제어

광개토왕비, 천하관, 초기 왕계, 대외 관계, 신묘년조

[ABSTRACT]Status and Tasks for Study of the Foreign Relations and
World View of Koguryo in the Gwanggaeto Stele

Jo Yeongkwang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stud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orld view of Koguryo people found in the Gwanggaeto Mausoleum Tablet. The world view, the outlook on the world, has shown how the people of Koguryo grasped themselves and the world around them. An epitaph on the tablet is the most sensible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ir world view. There are a lot of representations and descriptions revealing self-esteem of people of Koguryo, which have been investigated at here and abroad.

According to research published to date, it is understood that Koguryo recognized its surroundings through its original world view, instead of that based upon Confucianism and Chinese centrality. A world view based on the self-esteem of the people of Koguryo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genealogy of kings of early Koguryo from Jumong in the epitaph. The studies of the line of descent have mainly focused on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Keru tribe to the Sono tribe and the moment when the king's genealogy was recovered and become established, through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line from Chinese historical materials with that from *Samguk sagi* and the epitaph. According to studies, it seems to be correct that the contents found in *Samguk sagi* and in the epitaph are remarkably consistent with the early line of descent that people of Koguryo acknowledged.

Koguryo came to construct its unique world view through which it could proceed with conquest projects. The epitaph also gives evidence of many kinds of relevant facts. Even though mostly consisting of artic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southern region, especially Baekje, the epitaph of the Gwanggaeto Mausoleum Tablet refers to a variety of East Asian countries and tribes including Khitan, Wa, Silla, Gaya, and even the alleged Houyan dynasty.

The early research into the epitaph carried out by so-called Japanese colonial historians mainly concentrated on the text regarding the sinmyo year for the purpose of rationalizing the Mimana Nihon-fu controversy. However, as the suspicion of falsification and reconsiderations of the epitaph have continued since the 1970s, it is now believed that the sinmyo year text does not describe Wa's invasions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ut could be seen as an exaggerated depiction which took advantage of Wa in order to emphasize historic achievements.

Although most parts of the epitaph regar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arget Baekje, other subjects of attention are not clear, leading to continuous controversies. Some scholars opine that the article of the seventeenth year of Yeongnak is associated with Baekje, while other scholars argue that it relates to the Houyan dynasty.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 article of the eighth year of Yeongnak refers to Suksin or Dongye, and various investigations into countries of Gaya, mentioned in the tenth year of Yeongnak, may be found.

Keywords

Gwanggaeto Stele, World view, Royal genealogy of early Koguryo, Foreign relations, Sinmyo year text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방법의 성과와 과제

이정빈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광개토왕릉비는 4~5세기 고구려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의 하나이다. 하지만 광개토왕릉비는 발견된 직후부터 육안으로 파독하기 어려울 만큼 훼손된 상태였고, 이후 비의 훼손은 거듭되었다. 이에 따라 비문의 판독은 주로 탁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탁본은 광개토왕릉비 연구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광개토왕릉비 탁본은 100여 본으로, 각 본마다 비문의 판독이 달라진다. 이는 판독자의 주관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각 탁본에 나타난 字形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종 탁본은 제작시점과 기법이 다른데, 이에 따라 자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광개토왕릉비 연구에서는 어떠한 탁본에 기초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부터 비문의 탁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고, 연구성과도 꾸준히 축적

※ 투고: 2015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탁본 연구의 성과가 널리 공유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물론 이미 몇 차례의 연구사 검토가 있었다.¹⁾ 그런데 최근까지도 새로운 탁본이 계속 발굴·소개되었다. 무엇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쉬젠신[徐建新]의 『好太王碑拓本 研究』(東京堂出版, 2006);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의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吉川弘文館, 2009); 후루세 나츠코[古瀬柰津子]의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同成社, 2013)처럼 종합적인 연구성과가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한층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도출되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본 연구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³⁾ 이와 관련하여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탁본의 편년방법을 제안한 연구가 주목된다.⁴⁾ 이러한 연구사 검토는 탁본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의 과제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탁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연구방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의 흐름을

- 1) 종합적인 연구사 검토로는 다음이 주목된다. 林基中, 1966, 「한국에서 호태왕비 탁본과 비문연구」; 徐建新·徐日範, 1996, 「中國學界에서의 高句麗好太王碑 碑文과 拓本 研究」; 鈴木靖民·李建河, 1996, 「日本에서의 廣開土王碑 拓本과 碑文 研究」. 이상의 논문은 광개토왕비 연구 100년 특집 『高句麗研究』 2집에 수록되었다.
- 2) 이 과정에서 다시 연구사가 정리되었다.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 研究』, 東京堂出版, 202~225쪽;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45~65쪽.
- 3) 다만 백승옥, 2009, 「史料로서의 墨本을 통해서 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새 지평: 『廣開土王碑墨本 研究』, 武田幸男 著, 〈書評〉,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연구소가 나온 정도였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11월에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고구려발해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탁본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설정되고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면서 연구의 중요성이 환기되었다고 보인다. 徐建新, 2014, 「好太王碑 발견과 초기 탁본 제작에 관한 새로운 자료-李超瓊의 『遼左日記』를 중심으로」; 耿鐵華, 2014, 「通化市博物館 소장 好太王碑 拓本」; 白承玉, 2014, 「廣開土王碑 拓本 『惠靜本』의 외형적 특징과 복원」,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고구려발해학회.
- 4) 백승옥, 2011, 「廣開土王碑 拓本の 編年方法—연구현황을 中心으로」, 『목간과 문자』 8.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식분류와 편년의 성과를 점검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비교 연구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탁본 연구의 흐름

본격적인 탁본 연구로는 미즈다니 데지로[水谷悌二郎]의 「好太王碑考」(『書品』 100, 1959)가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힌다.⁵⁾ 미즈다니는 1936년부터 광개토왕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1945년 5월 15일 도쿄 혼코유미마치[本郷弓町]의 에다 분가도[江田文雅堂]에서 이른바 水谷本을 입수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미즈다니는 9종의 탁본을 비교·검토하였고, 그 결과 그가 소장한 탁본(水谷本)이 원석탁본임을 밝히고, 1,566자의 판독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미즈다니는 현존 탁본을 古拓本(原石拓本)과 石灰拓本 그리고 雙鉤廓填本(墨水廓填本)의 세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광개토왕릉비는 1880년에 발견된 직후부터 판독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1890년대부터 분명한 탁본을 얻기 위해 비문에 석회를 칠하고 석회보수를 하였는데, 이로써 얻어진 것이 석회탁본이다. 그런데 석회탁본은 그 제작과정에서 비문을 훼손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석회탁본의 문제가 인식되었고, 그보다 먼저 제작된 원석탁본의 자료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⁶⁾ 미즈다니 역시 원석탁본을 탐색하고자 탁본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5) 水谷悌二郎, 1977, 『好太王碑考』, 開明書院 참조.

6)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學雜誌』 2-5; 關野貞, 1913,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3; 今西龍, 1915,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久米邦武 著, 『增訂增補 大日本時代史』, 古代; 今西龍 著, 1937,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455쪽.

미즈다니는 원석탁본을 탐색하는 데 석회탁본만 아니라 목수곽전본을 중시하였다. 목수곽전본은 탁본을 판독한 이후 이를 별지에 베낀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탁본은 아니다.⁷⁾ 다만 목수전곽본은 거의 석회탁본 이전의 것이다. 그런 만큼 그의 제작에는 원석탁본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수곽전본은 원석탁본의 탐색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미즈다니는 탁본의 형식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미즈다니의 성과는 이후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⁸⁾ 그가 제시한 형식분류의 기본적인 유형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석회탁본은 비문 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탁본의 제작 과정에서 제작자 내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석회도포(석회칠·석회보수)를 통해 비문을 변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李進熙가 제기한 비문변조설이 대표적이다.⁹⁾ 그는 이른바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적인 논거가 된 1면 9행, 이른바 '辛卯年條' 구절이 석회칠을 통해 의도적으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육군 참모본부가 비문 연구에 개입하면서 탁본을 바꿔치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석회칠을 하여 비문을 변조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미즈다니의 연구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원석탁본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진희는 水谷本 또한 석회탁본으로 보고 그 제작시점을 1930년대로 파악하였다.¹⁰⁾

-
- 7) 이렇듯 목수곽전본을 염두에 둘 경우 拓本보다 墨本이 적절한 용어일 수 있다.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19~23쪽. 다만 국내학계에서 墨本이란 표현은 생경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拓本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拓本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의 하나로 목수곽전본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武田幸男은 墨本の 일종으로 模寫本을 포함하였지만, 현재로서 모사본이 탁본 연구에서 갖는 중요성 내지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 8) 末松保和, 1977, 『解説』, 앞의 책, 137~138쪽; 末松保和, 1981, 「好太王碑研究の流れ—水谷悌二郎氏の研究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末松保和, 1996, 『高句麗と朝鮮古代史』, 吉川弘文館, 186~190쪽.
- 9)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李進熙 著·李基東 譯, 1982, 「參謀本部에 의한 '石灰塗付作戰」, 『廣開土王碑의 探求』, 一潮閣.
- 10) 李進熙 著·李基東 譯, 1982, 앞의 책, 92쪽.

이진희의 비문변조설은 곧 탁본 연구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를 비판하는 후속연구가 연이어 발표되었고,¹¹⁾ 한동안 논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는 비문변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희의 문제제기를 통해 그동안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근본적인 반성이 촉구되었다. 온전한 역사자료로 믿어온 탁본에 의문을 던져 그 제작과정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¹³⁾

그로부터 탁본의 제작과정과 배경도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전까지는 주로 전문 연구자인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이마니시 류[今西龍]·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1910년대 조사보고가 주목되었지만,¹⁴⁾ 이진희의 문제제기 이후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탁본 제작의 경위가 탐색되었다.¹⁵⁾ 중국 金石學者의 문집과 지역주민의 증언을 통해 關月山·李雲從과 같은 초창기 탁본 제작자의 행적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석회탁본이 제작된 시점이 보다 분명해졌고, 석회칠·석회보수를 통한 일제의 의도적인 비문훼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11)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佐伯有清, 1974, 『研究史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佐伯有清, 1976,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 吉川弘文館; 笠井倭人, 1978, 『廣開土王碑に對する石灰塗付作戰說への疑問』,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王健群, 1984, 『好太王陵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林東錫 譯, 2004, 『廣開土王碑 研究』, 한국학술정보; 藤田友治, 1986, 『好太王碑論爭の解明』, 神泉社; 권오엽 譯, 2004, 『호태왕비 논쟁의 해명』, 제이앤씨; 星野良作, 1991, 『廣開土王碑研究の軌跡』, 吉川弘文館.
- 12) 다만 李進熙는 비문변조설을 고수하고 있는데, 다음의 저서를 통해 논쟁의 과정을 정리하고 自說을 재차 천명하였다. 李進熙, 2003, 『好太王碑研究とその後』, 靑丘文化社.
- 13)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 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49~50쪽.
- 14) 關野貞, 1913,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3; 今西龍, 1915,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久米邦武 著, 『增訂増補 大日本時代史』, 古代; 黑板勝美, 1918, 「本會第百九會例會記事」, 『歴史地理』 32-5.
- 15) 王健群 著·林東錫 譯, 2004, 『廣開土王碑 研究』, 한국학술정보, 39~56쪽, 85~139쪽. 이와 관련한 중국학계의 여러 논의는 耿鐵華·李東營 主編, 2012, 『高句麗研究史』, 吉林大學出版社, 15~24쪽.

신문의 보도기사와 같은 자료 또한 관심을 모았다. 예컨대 사카와 카게노부[酒勾景信]의 탁본(酒勾本)을 처음으로 보고한 신문기사(『東京横濱毎日新聞』, 1884년 6월 29일)를 보면,¹⁶⁾ 애초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광개토왕릉비를 주몽의 功績紀念碑로 판단하였고, 倭 관계기사는 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문기사의 내용 역시 비문변조설 부정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광개토왕릉비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도 중요시되었다. 1907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에두아르 사반느(Édouard Emmanuel Chavannes)의 『한국의 고대왕국 고구려 유적에 관한 보고서』와 일본 安東 영사관 통역생 미우라 토모카즈[三浦稔]의 광개토왕릉비 『鴨綠·渾兩江流域視察復命書』와 같은 조사보고서가 대표적이다.¹⁷⁾ 사반느의 보고서를 보면 광개토왕릉비의 사진과 석회탁본이 나온다. 그런 만큼 그의 보고서는 여러 석회탁본의 제작시점을 찾는 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우라의 보고서에도 광개토왕릉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판독문이 적혀져 있다. 다만 미우라 보고서의 경우 아직 어떠한 종류의 탁본을 보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데,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처럼 탁본의 제작과정과 배경이 연구되면서 개별적인 탁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高明士, 1981, 「臺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 『韓國學報』 3.
- 高明士, 1984, 「“臺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補述·兼述好太王碑研究近況」, 『韓國學報』 4.
-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 『朝鮮學報』 99·100.
- 濱田耕策, 1990,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 『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の研究』,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書 24.

16) 佐伯有清, 1995, 「廣開土王碑文研究餘論」,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 吉川弘文館.

17) 서길수, 2005, 『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연구』, 여유당; 이왕무, 2014, 「통감부시기 安東 일본 영사관의 광개토대왕비 조사」, 신라사학회 제135회 학술발표회.

- 横山昭一, 1990,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 『目黒區所藏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寫真集』, 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개별적인 탁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료의 집성과 아울러 연구방법이 한층 심화될 수 있었다. 다케다의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1988)가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는 그때까지 원석탁본으로 확인된 5종의 탁본(水谷本·金子鷗亭本·傅斯年甲本·傅斯年乙本·林昌淳本)을 모으고, 각종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목수곽전본-원석탁본-석회탁본 순의 변천사를 제시하였고, 『書通』 창간호(1973년 9월)에 소개된 탁본(書通本) 또한 원석탁본의 하나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케다는 탁본의 상태와 기법을 통해 형식분류와 편년을 시도해 연구방법을 진전시켰다. 그의 연구를 통해 원석탁본·석회탁본·목수곽전본을 구분할 수 있었고, 각종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이 가능해 진 것이다. 원석탁본의 경우 傅斯年乙本-書通本-水谷本-傅斯年甲本-金子鷗亭本-林昌淳本の 순으로 편년된다고 하였다.

탁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탁본이 발견되며 동력을 얻었다. 이를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가 쉬젠신이다.¹⁸⁾ 그는 1991년부터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에서 22本 이상의 새로운 탁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중에서 6本の 탁본이 원석탁본임을 밝혔다. 특히 北京大學圖書館 A本이 주목되었다. 이 탁본에는 潘祖蔭의 題箋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로 보건대 北京大學圖書館 A本은 청 말의 이름난 탁공 이운중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운중은 1889년 베이징

18) 徐建新, 1993,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述」, 『世界史研究動態』; 徐建新, 1995, 「關於北京大學圖書館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 『世界歷史』; 徐建新, 1996,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北京大學所藏拓本を中心に」, 『朝鮮文化研究』 3; 徐建新, 2005, 「고구려 호태왕비 초기 탁본에 관한 연구-조기목본의 製作과 流傳(1880~1888년)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1;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에서 지안[集安]으로 가서 광개토왕릉비의 탁본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北京大學圖書館 A本の 제작시점은 1889년으로 파악된다.

쉬젠신은 이와 아울러 그 외에도 5本の 원석탁본을 주목하고 그 제작시점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다케다의 형식분류와 편년방법을 참고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 기존 원석탁본의 판독문을 보완하였고, 원석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 탁본의 제작과정과 관련한 청 말 금석학자의 문헌자료를 발굴·분석해 그의 연구를 보강하고 있다.¹⁹⁾ 그러한 결과 최근 쉬젠신은 다케다와 아울러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탁본연구는 석회탁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석탁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탁본의 제작의 기법과 배경이 주목되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탁본을 모아 형식을 분류하고 이를 편년하였다.

Ⅲ. 형식분류·편년의 성과

현존 탁본의 제작시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절대연대와 상대연대 측정 방식이다.²⁰⁾ 절대연대는 제작시점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절대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발문을 통해 제작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北京大學圖書館 A本·王少箴舊藏本이나 비교적 근래 제작된 張明善本(1963)·周雲台本(1981)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표식적 탁본이라 부를 수 있다.²¹⁾ 표식적 탁본은 그 수가 많지

19) 徐建新, 2005,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の新發見－對1884年潘祖陰藏本の初步調査」, 『中國史研究』 2005-1.

20)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 研究』, 東京堂出版, 214~215쪽.

21) 武田幸男, 2013,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 연민수·서영수 외 지음, 『광개토

않지만, 상대연대 측정과 검증에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상대연대 측정의 기본은 형식분류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탁본의 형식분류는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제작자마다 拓出의 수법(탁출법)과 착묵의 정도(착묵법), 그리고 小拓紙의 취급방법(용지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²²⁾

첫째 탁출법은 수법의 정밀도(精粗)·문자의 형태(瘦肥)를 가지고 판단한다. 문자의 字格이 고려되며, 墨色の 濃淡 또한 주요 속성으로 거론된다. 다만 탁출의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탁본 자료만 아니라 이를 보는 안목, 다시 말해 정밀하고 계통적인 식별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별능력은 오랜 기간 탁본 연구에 몰두해야 함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역사 전공자에게 이러한 안목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케다는 보다 간단명료한 형식분류와 편년방식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제시한 것이 이른바 착묵패턴법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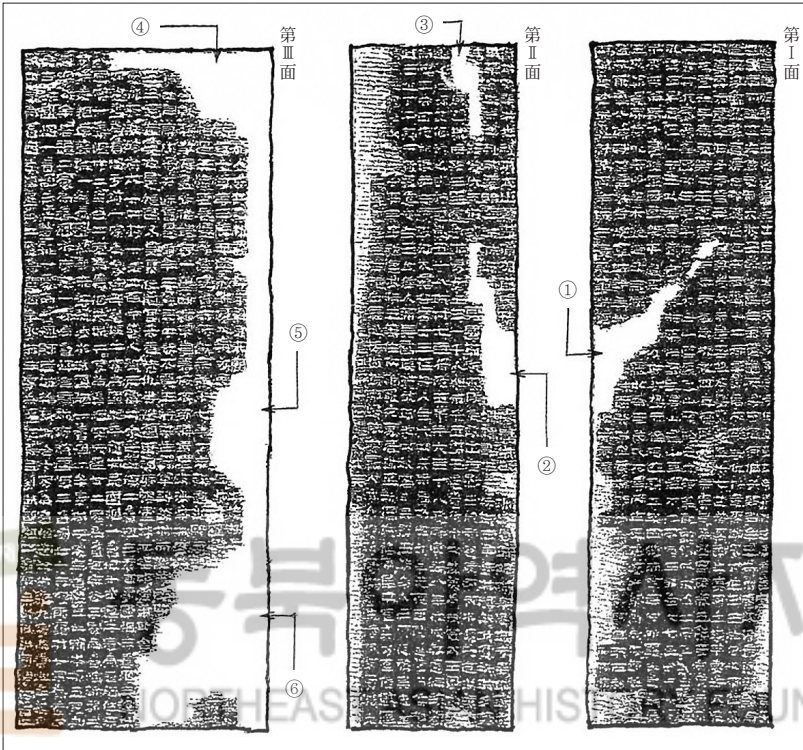
착묵패턴법은 주로 석회탁본의 형식분류에 적용된다. 석회탁본은 현존 탁본 중 가장 수량이 많고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즈다니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는 석회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케다 역시 이로부터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착묵패턴법은 석회탁본을 중심으로 한 형식분류와 편년방식이다. 문자의 점획은 물론이고 廓填을 포함한 字格과 字格群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불착묵의 6개 포인트를 지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광개토왕릉비는 본래의 형태와 아울러 풍화·파손으로 인해 착묵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고, 착묵 역시 균등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탁본의 공백 즉 不着墨 포인트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불착묵 포인트는 시간적인 편의를 제공해 탁본의 형식을 분류하는 데 유용하다. 다케다가 제시한 불착묵 포인트의 6개 지점은 다음과 같다.²⁴⁾

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34쪽.

22)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152~153쪽.

23) 이하의 서술은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114~116쪽; 武田幸男, 2013, 앞의 논문, 30~34쪽 참조.



〈그림 1〉 다케다의 착목패턴법 6개 포인트

이상의 포인트에서 〈그림 1〉의 ①과 ②는 1면과 2면의 모서리의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V字(逆八字) 모양의 공백이다. ③은 2면 상부 중앙의 오른쪽이다. ④~⑥은 3면으로, 우측의 상부에서 하부에 걸쳐 있다.

석회탁본은 '석회보수 → 석회박락 → 석회보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석회보수의 시점을 고려하면, 불착목 포인트의 증감이 시기별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케다는 불착목 포인트 대조표를 작성하여 석회탁본의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표 1〉이 참고된다.²⁵⁾

24)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113쪽에서 인용하였다.

25)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119쪽 〈표 3〉; 武田幸男, 2013, 앞의 논문, 32쪽 〈표 2〉

〈표 1〉 석회탁본의 불착묵 포인트와 형식분류

포인트	제1면	제2면		제3면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유형							
C-0형	착묵, 불착묵 포인트 1개 이상						1890년대 전반
C-1형	연속 7행 이하	연속 3행× 최다 11자격	연속 2행× 6자격	연속 9행	연속 3행	연속 7행× 11자격 이상	1895~ 1913
C-2형	연속·불연속 7행 이상	연속 1~2행× 최다 5자격		연속 7행 이상	연속 3행	연속 6~7행× 최다 10자격	1913~ 1934
C-3형	연속·불연속 11행	연속 2행 이하× 최다 4자격					1934~ 1938
C-4형							1945년 이후

다케다는 원석탁본을 A형, 묵수과전본을 B형, 석회탁본을 C형으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위 표처럼 불착묵 포인트를 비교해 석회탁본의 형식을 5개 유형의 기본형으로 분류하였다(C-0형~C-4형). 이와 같은 형식분류는 시간적인 계열을 고려한 것으로, 곧 일종의 편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착묵패턴법의 형식분류와 편년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케다는 사례 연구를 동반하였다. 제작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표식적 탁본이 그러한 사례 연구의 대상이었다. 표식적 탁본의 불착묵 유형이 〈표 1〉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것이다. 楊守敬本·關野貞舊藏本·書學院本 등이 대표적이다.²⁶⁾ 예컨대 書學院本은 『鄭孝胥日記』를 통해 탁본의 일지를 확인할 수 있다. 書學院本은 1935년 정샤오쉬(鄭孝胥)가 청밍차오(程明超)의 요청으로 광개토왕릉비의 情形을 관찰·탁본하였던 것이다.

를 재정리하였다.

26)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各論 3〉에 수록된 여러 사례가 참고된다.

書學院本은 포인트 ①의 좌단에서 불착목과 일부 전착목의 자격이 좌상으로 뺀어 9행에 걸쳐 있는데, 이는 공백부분의 우측선단 7~9행, 좌측 착목에 해당한다. ②는 공백부분이 보이며 1행×3~4자격이다. ③~⑥은 착목 부분만 공백이 보이지 않는다. 6개의 포인트가 C-3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1>처럼 C-3형은 1934~1938년으로 편년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케다의 착목 패턴법은 표식적 탁본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 그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비단 5개의 기본형만 아니라 C-0~4의 하위 유형 또한 세분하였는데, 하위 유형의 세분에는 용지법을 적용하였다.

광개토왕릉비는 높이 6.39m에 각 면이 1.35~2.00m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 면은 수십 장의 작은 종이 즉 小拓紙를 이어 붙여서 탁본할 수밖에 없었다. 소탁지의 크기와 형태는 개별적인 탁본이 조사·연구되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²⁷⁾ 소탁지의 크기와 형태, 이어붙이기 수법이 탁본 제작자마다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탁지의 취급방법을 주목해 보면, 탁본의 제작자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탁본의 제작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소탁지의 취급방법은 탁본 뒷면을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크기와 형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와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였다.²⁸⁾ 그는 도쿄대학에 소장된 탁본을 조사·분류하고, 다른 종류의 탁본을 비교해 소탁지를 통한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시도하였다. ① 소탁지의 크기, ② 소탁지의 배열, ③ 貼숨의 순서를 기준으로 탁본을 몇 개의 그룹을 묶고,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탁본을 기준으로 동일 그룹의 탁본을 편년한 것이다. <표 2>가 참고된다.²⁹⁾

27)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 『朝鮮學報』 99·100; 濱田耕策, 1990,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 『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の研究』,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書 24; 橫山昭一, 1990,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 『目黒區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寫真集』, 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28) 早乙女雅博, 2005, 「東京大學 所藏 廣開土王碑 拓本-小拓紙에서 본 제작연대의 고찰」, 『고구려연구』 21; 早乙女雅博, 2013, 「小拓紙から見た廣開土王碑拓本の分類と年代」, 古瀬柰津子 編著,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

〈표 2〉 주요 탁본의 소탁지와 형식분류

탁본명	분류	1면 소탁지/ cm	배열	연대	비고 (다케다 분류)
北京大學圖書館 A本	원	130×70, 64×32	6×2	1889	A3
北京大學圖書館 B本	원	50×40	14×4		A4
北京大學圖書館 C本	원	45×37	13×4~5		A4
北京大學圖書館 D本	원	46×38			A4
水谷悌二郎本	원	47×47	12×3		A4
東京大문학부 A본	1	74×46	7,2×3		C-1-2
關野貞甲本	2	63×40	8,2×3,67	1913	C-1-2
關野貞乙本	2	67×39	8,2×3,67		
今西龍 舊藏本	2		8,2×4	1913	C-1-2
九州大本	3	52×53	11×3	1927~1932	C-2-3
內藤確介本	3	52×53	11×3	1927~1931	C-2-3
お茶の水女大本	3	53×53	11×2,75		
東京大동양문화연구소본	4	107×50	5×3		
鈴木宗作本	4	110×56	5×3		C-2-3
足立幸一 舊藏本	5		5,5×2	1931~1938	C-3

이와 같은 사와토메의 연구방법은 다케다의 착묵패턴법과 상호보완적이다. 다케다 역시 용지법을 참고해 원석탁본의 편년을 시도하였다. 〈표 3〉이 참고된다.³⁰⁾

다케다는 원석탁본을 A1~A4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1형은 소탁지 1매에 단일의 문자 혹은 수개의 문자를 탁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사례는 없다고 한다. A2형은 전4면의 각 면 11~12단 총 150~160매로,

29) 早乙女雅博, 2013, 74쪽의 〈표 1〉을 재정리하였다.

30)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111쪽의 〈표 2〉를 재정리하였다.

〈표 3〉 원석탁본의 유형대조표

기준		A1형	A2형	A3형	A4형
탁출법	탁본의 정밀	不整本	整本	整本	整本
	탁출의 精粗	雜(加墨)	粗	精	精
	자체의 瘦肥		肥	瘦	瘦
착묵법	착묵의 정황	1자 가량	불착묵 소량	전면 착묵	전면 착묵
용지법	용지의 매수	1매 가량	150~160매	60매 전후	12매
	용지의 층수		1층	1층	2층
	용지의 단수		11~12단	8~9단	3단
비고	탁본의 소재	미확인	傅斯年乙本 外	북경대도서관 A본 外	임창순 구장본 外

4개의 탁본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3은 8~9단으로, 60매 가량 된다고 하였다. A4는 3단 12매로 용지가 2층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사와토메 역시 이러한 다케다의 연구결과에 유의하였다. 위 〈표 2〉의 비고(다케다 분류)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형식분류와 편년이 다케다의 연구결과와 정합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아 정합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착묵패턴법과 용지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말해준다.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에는 쉬젠신의 碑字字形比較法도 빼놓을 수 없다.³¹⁾ 字形은 일찍부터 탁본의 형식을 분류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준의 하나였는데, 쉬젠신은 이를 보다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그동안의 자형비교가 완전성을 중시하였다면, 비자자형비교법은 그보다 시기별 변화를 중시해 유형화를 시도한 점이 특징적이다.

비자자형비교법 역시 형식분류와 편년의 주된 대상은 석회탁본이었다. 석회탁본은 碑字를 보수해 보다 분명한 탁본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탁본의 과정에서 제작자의 필획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각 탁본마

31) 徐建新, 2006, 앞의 책, 226~227쪽.

다 필획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쉬젠신은 각 시기 자형의 특징을 찾아남으로써 상대연대의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비자자형비교법은 독립적인 편년방법이 아니고, 착묵패턴법과 상호보완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의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착묵패턴법, 용지법, 비자자형비교법이 제시되어 있다. 착묵패턴법을 중심으로 용지법과 비자자형비교법이 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나온 것이다. 이제 탁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연구방법의 종합과 교차검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공개된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국제캠퍼스) 김혜정 관장 소장의 탁본(혜정본)과 2014년 확인된 通化市博物館 所藏 拓本(通化市博物館本)이 주목된다. 탁본의 공개를 통해 여러 연구방법이 형식분류와 편년에 고려되었거니와, 이를 통해 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³²⁾ 이들 탁본을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보고되는 탁본 자료는 한층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비교 연구의 과제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은 탁본의 제작시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의 자료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특히 원석탁본의 탐색이 주요 과제였다. 원석탁본이 비문의 원형에 가장 근접하며, 따라서 이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문은 발견 직후부터 훼손이 진행되었

32) 서영수, 2012, 「廣開土太王陵碑 原石拓本本 「혜정소장본」 공개의 의의와 그 성격」, 『광개토대왕릉비 원석정탁본 공개와 박물관학적 활용방안』, (사)한국박물관학회·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3~27쪽; 耿鐵化, 2014, 앞의 논문; 白承玉, 2014, 앞의 논문. 특히 白承玉은 혜정본의 외형적 특징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朱印을 발견하였고 이로부터 혜정본 복원의 실마리를 얻었으며, 그것이 초기 원석탁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고, 발견 초기 탁본의 제반여건은 불비하였다. 비문의 원형이 부재한 가운데 원석탁본도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문의 원형을 전제로 원석탁본의 類似性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전 여러 탁본의 相似性에 주목해 이를 비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원석탁본과 석회탁본, 그리고 묵수곽전본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쉬젠신의 비자자형비교법이다. 각 시기 탁본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탁본 상호 간의 특징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탁본의 비교를 통한 판독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림 2>와 <그림 3>의 사례를 주목해 볼 수 있다.³³⁾

먼저 묵수곽전본의 일종인 李超瓊 舊藏本(潘祖陰 舊藏本)을 보면 ‘木’으로 읽힌다. 하지만 석회탁본인 內藤湖南 舊藏本부터 이는 ‘我’로 읽힌다. 석회가 박락된 周雲台本을 보아도 ‘我’로 읽는 것이 순조롭다. 그리고 보면 王少箴 舊藏本부터 水谷悌二郎本까지의 원석탁본 역시 ‘我’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木’과 달리 ‘我’의 ‘丿’ 및 ‘戈’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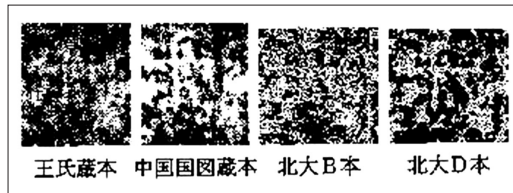
이처럼 현전 원석탁본의 판독은 묵수곽전본과 석회탁본과 비교해서 읽을 때 보다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자형 변화의 원리는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석회탁본의 제작자마다 가진 필획인식의 경향성이 궁금하다. 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착묵패턴법처럼 보다 간단명료한 기준과 연구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것이 광개토왕릉비의 서체이다. 광개토왕릉비 서체에 대해서는 일찍이 19세기 후반 金石學者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서체 연구의 성과는 판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획이 분명치 않은 문자의 경우 서체에 입각해 본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서체 연구의 성과를 바로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33) 徐建新, 2006, 앞의 책, 232쪽. 그림은 徐建新, 2006, 앞의 책, 233쪽에서 인용하였다.



〈그림 2〉 1면 2행 33字, '我'의 자형 변화



〈그림 3〉 원석탁본의 '我'字

있다. 광개토왕릉비 서체에 대한 연구 또한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古隸·漢隸·八分·隸楷之間·眞書·東晉禮書·舊體名石書·의식용 국정서체·고구려 관방서체·광개토태왕비체·고구려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³⁴⁾

그런데 지금까지의 서체 연구는 대부분 특정한 탁본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탁본을 비교·연구하는 데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탁본마다의 필획인식 내지 그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탁본마다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서체 연구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각종 탁본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염두에 두고, 異見字의 서체를 비교·검토하면서 새로운 판독을 시도한 연구가 주목된다.³⁵⁾ 이와 같은 시도가 축적된다면, 향후 서체 연구의 성과는 자형의 비교 연구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교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종합이다. 먼저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주목되는 성과는 번역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케다와 쉬젠신의 연구서는 그 내용이 면밀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문적인 번역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탁본의 정보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현재 알려진 각종 탁본은 소장처가 제각각이다. 그러므로 각종 탁본에 대한 정보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소탁지 취급방법의 경우 표구로 인해 알기 어렵게 된 것도 있다. 개인 소장자의 탁본은 자료 접근부터가 수월치 않다. 연구 성과의 종합과 아울러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탁본의 외형과 속성을 고려해 분류정보를 수립하고, 이에 입각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탁본의 현황을 <표 4>와 같이 정리해 둔다.³⁶⁾

34) 이와 관련한 연구사는 고광의, 2013, 「광개토왕태비의 서체」, 연민수·서영수 외 지음,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121~133쪽 참조.

35) 고광의, 2014, 앞의 논문, 106~122쪽.

36) 徐建新, 2006, 앞의 책, 280~297쪽; 백승옥, 2009, 앞의 논문, 26~27쪽을 참조

〈표 4〉 현존 주요 탁본의 형식과 편년

	명칭	소장자	종류	보존형태	제작시점	비고
1	李超瓊 舊藏本	중국 개인	묵수곽전본	剪裝本(全1冊)	1880, 1881	李超瓊 跋文
2	酒勾景信本	東京國立博物館	묵수곽전본	전4폭 정지본	1883 이전	
3	大東急記念文庫本		묵수곽전본			
4	小松宮本		원석탁본		1894~1895 이전	
5	任昌淳 舊藏本	태동고전연구소	원석탁본	전장본 2책		
6	書通本		원석탁본			
7	王少箴 舊藏本	北京 王培眞 소장	원석탁본	전4폭 정지본		
8	中國國家圖書館本	中國國家圖書館	원석탁본			
9	北京大學圖書館 A本	北京大學圖書館	원석탁본			
10	北京大學圖書館 B本	北京大學圖書館	원석탁본			
11	北京大學圖書館 C本	北京大學圖書館	원석탁본			
12	北京大學圖書館 D本	北京大學圖書館	원석탁본			
13	北京大學圖書館 E本	北京大學圖書館	원석탁본			
14	水谷梯二郎本		원석탁본			
15	金子鸚亭本		원석탁본			
16	傅斯年甲本	臺灣中央研究院	원석탁본			
17	傅斯年乙本	臺灣中央研究院	원석탁본	3면 1폭		
18	天津文運堂 舊藏本	개인	석회탁본	전장본 전4책		
19	국제한국학연구원본	국제한국연구원	석회탁본	전장본 전8책		
20	사반느本		석회탁본	전4폭 정지본	1907	
21	서울대박물관본	서울대박물관	석회탁본	전4폭 정지본		
22	서울대규장각본	서울대 규장각	석회탁본	전4폭 정지본		
23	국립중앙박물관본	국립중앙박물관	석회탁본	전4폭 정지본		
24	독립기념관 A本	독립기념관	석회탁본	전4폭 정지본		

하여 재정리하였다.

	명칭	소장자	종류	보존형태	제작시점	비고
25	동아대박물관본	동아대박물관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26	東京大건축사본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13	關野貞
27	東京大문학부 A본	도쿄대고고연구소실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28	東京大문학부 B본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29	東京大동양문화연구소본		석회탁본			
30	お茶の水女大本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31	内藤湖南 舊藏本	京都大學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32	楊守敬本		석회탁본		1902 이전	
33	今西龍 舊藏本	天理大圖書館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13	
34	辻元謙之造 舊藏本	天理大圖書館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05 이전	
35	九州大本	九州大	석회탁본		1928	
36	書品本		석회탁본		1959 이전	
37	三井家本	개인	석회탁본		1912 이전	
38	上田正昭本	上田正昭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39	中野政一本	中野政一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12	
40	黒田本	東京國立博物館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41	長崎西高本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29 이전	
42	足立幸一 舊藏本	京都府立福知山高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43	内藤確介 舊藏本	東京 目黒區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27~1929	
44	臺灣國家圖書館甲本	臺灣國家圖書館	석회탁본	4면 1쪽	1927 추정	
45	臺灣國家圖書館乙本	臺灣國家圖書館	석회탁본	4책 전장본	초기 석회탁본	
46	傅斯年丙本	臺灣中央研究院	석회탁본		1907 추정	
47	傅斯年丁本	臺灣中央研究院	석회탁본		1927 추정	
48	莊巖本	개인	석회탁본			
49	學習院本	比田井南谷	석회탁본	전4쪽 정지본	1930년대	
50	張明善本		석회탁본		1963	
51	周雲台本		석회탁본		1981	

V. 맺음말

탁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석회탁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석탁본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주목한 것이 탁본의 제작 배경과 기법이었다. 이에 여러 종류의 탁본을 모아 형식을 분류하고 이를 편년하였다. 현존 탁본의 제작시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절대연대와 상대연대 측정 방식이다. 절대연대는 발문과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탁본이 상대연대 측정에 標式이 된다. 상대연대는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으로써 파악한다. 현재 제시된 주요 연구방법은 拓出의 수법(탁출법)과 착묵의 정도(착묵법), 그리고 小拓紙의 취급방법(용지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연구방법은 다케다가 제시한 착묵패턴법이다. 착묵패턴법은 6개의 불착묵 포인트를 주목하는 것으로, 석회탁본의 편년에 용이하다. 용지법은 사와토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소탁지의 크기, 소탁지의 배열, 貼合의 순서를 기준으로 각종의 탁본을 유형화하였다. 쉬젠신은 비자자형비교법을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자형비교가 완전성을 중시하였다면, 비자자형비교법은 그보다 시기별 변화를 중시해 유형화를 시도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탁본의 연구방법은 상호보완적이다. 대체로 착묵패턴법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용지법과 비자자형비교법을 통해 그를 검증함과 아울러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탁본 연구방법은 결국 원석탁본을 탐색해 비문을 판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같은 연구방법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의 과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연구방법을 종합해 비문을 보다 정밀히 비교 연구하는 데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高句麗研究會, 1996,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 李進熙, 1982, 『廣開土王碑의 探求』, 一潮閣.
- 박진석, 1996, 『高句麗 好太王碑 研究』, 아세아문화사.
- 시라사키 쇼우이찌로우, 권오엽 외 역, 2004, 『광개토왕비문의 연구』, 제이앤씨.
- 연민수·서영수 외 지음, 2013,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王健群, 2004, 『廣開土王碑 研究』, 한국학술정보.
- 李成市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 林基中,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出版部.
- 李進熙, 1972, 『廣開土王碑의 研究』, 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의 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白崎昭一郎, 1994, 『廣開土王碑文의 研究』, 吉川弘文館.
-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의 研究』, 東京堂出版.
- 耿鐵華·李東營 主編, 2012, 『高句麗研究史』, 吉林大學出版社.
-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논문

- 高光儀, 2004, 「書體를 통해 본 高句麗 正體性－廣開土太王碑體의 형성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8.
-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고구려발해학회, 2014,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박진석, 2001, 「북경에서 새로 발견된 일부 호태왕비탁본의 採拓年代 고증」, 『韓國宗敎』 25, 圓光大宗敎問題研究所.
- 백승욱, 2011, 「廣開土王陵碑 拓本의 編年方法－연구현황을 中心으로」, 『목간과 문자』 8.
- 徐建新, 2005, 「고구려 호태왕비 초기 탁본에 관한 연구－조기목본의 製作과 流傳 (1880~1888년)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1.

- 高明士, 1981, 「臺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 『韓國學報』 3.
- 高明士, 1984, 「“臺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補述: 兼述好太王碑研究近況」, 『韓國學報』 4.
- 王健群, 1983, 「好太王碑的發見和捶拓」, 『社會科學戰線』 1983-4.
- 關野貞, 1913,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3.
- 濱田耕策, 1990,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 『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の研究』,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書 24.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學雜誌』 2-5.
- 徐建新, 1993,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述」, 『世界史研究動態』.
- 徐建新, 1995, 「關於北京大學圖書館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 『世界歷史』.
- 徐建新, 1996,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北京大學所藏拓本を中心に」, 『朝鮮文化研究』 3.
-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
-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 『朝鮮學報』 99 · 100.
- 早乙女雅博, 1998, 「高句麗廣開土王碑」, 『歴史と地理』 511, 史學地理學同友會.
- 早乙女雅博, 1999, 「廣開土王碑の拓本」, 『Ouroboros』 7,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 橫山昭一, 1990,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 『目黒區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寫真集』, 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국문 초록]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방법의
성과와 과제

이정빈

이 글은 광개토왕릉비 탁본의 주요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그 과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탁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석회탁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석탁본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현존 탁본의 제작시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절대연대와 상대연대 측정의 방식이다.

절대연대는 발문과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탁본이 상대연대 측정에 표식이 된다. 상대연대는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으로 파악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연구방법은 拓出의 수법(탁출법)과 작목의 정도(작목법), 그리고 小拓紙의 취급방법(용지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연구방법은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가 제시한 작목패턴법이다. 작목패턴법은 6개의 불착목 포인트를 주목하는 것으로, 석회탁본의 편년에 용이하다. 용지법은 사와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소탁지의 크기, 소탁지의 배열, 貼合의 순서를 기준으로 각종의 탁본을 유형화하였다. 쉬젠신[徐建新]은 碑字字形比較法을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자형비교가 완전성을 중시하였다면, 비자자형비교법은 그보다 시기별 변화를 중시해 유형화를 시도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탁본의 연구방법은 상호보완적이다. 대체로 작목패턴법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용지법과 비자자형비교법을 통해 그를 검증함과 아울러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탁본 연구방법은 결국 원석탁본을 탐색해 비문을 판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문의 판독을 위한 각종 연

구방법의 집약과 기준의 제시는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과제는 이러한 연구방법의 종합을 통해 비문을 보다 정밀히 비교 연구하는 데 있다.

주제어

원석탁본, 석회탁본, 목수곽전본, 착묵패턴법, 비자자형비교법



[ABSTRACT]

Research Methods for Rubbings of the Gwanggaeto Stele

Lee Jeongbin

This paper introduces methods for researching rubbings made from the Gwanggaeto Stele, and proposes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Methods for undertaking a rubbing became a subject of scholarly inquiry in the 1960s. Scholars then came to realiz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making lime rubbings, and instead sought to employ earlier rubbings. This led scholars to collect various rubbings, categorize them under different types, and accordingly construct a chronology. The extant rubbings are based on two rubbing methods—absolute age and relative age measurement methods. Absolute age is taken from written records, but these rubbings are rare. However, they provide a useful base for relative age measurement. Relative age is identified through chronological form classification.

The principal research methods for relative age measurement are the smear inking and rubbing methods. Of these, the smear inking pattern proposed by Takeda Yukio(武田幸男) usually forms the focus of major research. The smear inking pattern method focuses on six non-inked points, which provide clues for the chronological record of a lime rubbing. Saotome Masahiro analyzed paper methods systematically, who constructed a typology of lime rubbings based on the size and arrangement of paper, as well as the sequence of paper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Xu Jianxin proposed a character relative method. While most comparisons of character prints have preferred

completeness, the character relative method attempts to make a typology based on how character prints vary across time. These research method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complementary. While one could base the overall research on the smear inking method forms, the research could be further examined through paper methods and the character relative method, and categorize them according to typology. The ultimate objective of rubbing research methods is to decipher the stele's contents. Further research should aim to propose deciphering methods based on the study of various rubbing research methods.

동북아역사재단

Keywords

Gwanggaeto Stele, early rubbing, lime-rubbing, rubbing research method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 성과 검토

조우연 | 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개토왕비가 재발견되어서 130여 년이 경과한, 지난 2012년에 집안(集安)에서 광개토왕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비가 새로 발견되었다. 초기 석문(釋文) 연구를 통해 두 비문(碑文)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학계에서는 광개토왕비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논의돼 왔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재검토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¹⁾ 또한 광개토왕비 건립

※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 1) 그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守墓制'에 관한 연구인데, 앞선 시기 광개토왕비문의 守墓人 煙戶 문제를 다뤘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심화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저로는, 공석구, 2013, 「《광개토왕릉비》 守墓人 煙戶 記事의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47;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70; 이성제, 2013, 「集安 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0;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研究』 72;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2;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2;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

1600주년을 맞아 능비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도 같은 취지에서, 집안고구려비와의 비교 연구를 위해, 나아가 4~5세기 고구려사 전개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앞선 시기 진행돼 온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 내용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중국 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중국 학계의 것이고 국내의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²⁾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 성과를 정리·소개한 대표 논저로는 <표 1>과 같은 것들이 있다.³⁾

<표 1>에서 보듯이, 앞선 시기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사 정리 논저는 18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중 광개토왕비 발견 초기 연구사에 관한 정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는데, 李進熙(1972), 王健群(1984), 耿鐵華·李樂營(2012)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며, 耿鐵華(2014b)의 글에서 비석 발견 시점에 초점을 맞

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등이 있다.

- 2) 고광의, 2004, 「중국학계의 廣開土王碑 연구 현황-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고광의, 2005, 「중국의 廣開土王碑 釋文 연구 현황과 검토」,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그 외 2004년에 고구려 연구논저 목록화 작업의 일환으로 목록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제Ⅳ부 문화 5, 금석문 5-1. 광개토왕비, 『고구려사 연구논저 목록』, 고구려연구재단. 단, 수록한 논저 리스트에 일부 오탈자가 있어, 인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84쪽 “孫寶文, 1998” → “1999”; “朴真奭 著, 1992” → “1996”; 387쪽 “劉永智 …… 간행연도” → “1996년 12期”; 388쪽 “蕩然” → “湯燕”.
- 3) 朴時亨,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佐伯有清, 1974, 『研究史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에서도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초기 광개토왕 발견과 탁본 과정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 4) 그 외 비록 ‘연구사 정리’ 논저는 아니지만, 崔蓮, 金順子, 1995, 『中國朝鮮學-韓國學研究文獻目錄 1949~1990』, 中央民族大學出版社; 倪軍民, 耿鐵華, 楊春吉, 1998, 『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彙錄』, 吉林人民出版社; 倪軍民, 耿鐵華, 楊春吉, 2000, 『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目錄 1950~2000』, 吉林文史出版社; 고구려연구재단, 2004, 『고구려사 연구논저 목록』, 고구려연구재단; 馬彥, 華陽, 2009, 『國內外高句麗研究論文論著目錄』, 香港亞洲出版社; 耿鐵華, 李樂營, 2013, 『高句麗研究文獻目錄 1952~2012』, 吉林大學出版社 등 고구려연구논저목록에도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가 일부 정리되어 있다.

〈표 1〉 광개토왕비 연구사 정리 논저⁴⁾

No.	연도	저자	연구	내용
1	1972	李進熙	「廣開土王陵碑研究史上の問題點—一九一〇年代までの中國で研究をめぐって」, 『考古學雜誌』 58-1.	비석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
2	1984	王健群	「我國學術界的調查, 著錄和研究」, 『好太王碑研究』 3章 1節, 吉林人民出版社.	비석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
3	1985	高明士	「高句麗好太王碑研究の近況を展望する(高句麗好太王碑研究の近況與展望)」, 『邪馬台國』 26 第冬號.	종합연구(약술)
4	1989	李德山	「好太王碑研究綜述」, 『古籍整理研究學刊』 5期.	종합연구(약술)
5	1993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述」, 『世界史研究動態』 第10期.	1990년대 초까지의 연구사
6	1994	耿鐵華	「中國學者對好太王碑的研究」, 『KOREA學研究』 第1期,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호태왕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고구려 문화국제학술회논문집』, 해외한민족연구소.	1990년대 초까지의 연구사
7	1996	徐建新	「中國學界對高句麗好太王碑碑文及拓本的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1980~1990년대 중 반, 연구자 중심의 연구사 정리 및 비문 과 탁본 판본 검토
8	1996	高明士	「台灣的好太王碑拓本以及碑文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臺灣 所藏 탁본 검토
9	2003	耿鐵華	「近年來好太王碑研究現狀」, 『東北工程通訊』 第2期.	1980년대~2000년 대 초 연구사
10	2003	耿鐵華	「我國學者研究的新成果」,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第5章,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健群, 朴貞奭, 耿 鐵華 단행본 검토; 연구자 중심의 연구 사 검토
11	2004	고광의	「중국학계의 廣開土王碑 연구 현황—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1980년대~2000년 대 초반 연구
12	2005	고광의	「중국의 廣開土王碑 釋文 연구 현황과 검토」,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비문 釋文 연구

No.	연도	저자	연구	내용
13	2005	耿鐵華	「中國好太王碑研究現狀與趨勢」, 『廣開土太王과 동아시아 세계』, 고구려연구회.	연구사 종합 검토
14	2006	徐建新	「中國の好太王碑研究」, 『好太王碑拓本の研究』第1章,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説, 東京堂出版社(일본).	연구사 종합 검토
15	2012	耿鐵華, 李樂營	「好太王碑發現與研究—高句麗研究的開端」, 『高句麗研究史』第一章, 吉林大學出版社.	비석 발견 초기 연구
16	2012	耿鐵華	「高句麗好太王碑研究綜述」, 『高句麗好太王碑』, 吉林大學出版社.	1980년대~2010년까지 연구사 종합 검토
17	2014a	耿鐵華	「好太王碑研究130年—紀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師範大學 歷史與地理學院 好太王碑1600周年 紀念 발표회.	시기별, 연구자별 연구개황 및 2000년대 이후 연구
18	2014b	耿鐵華	「好太王碑發現初期的捶拓與研究」,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고구려발해학회.	비석 발견 초기 탁본 작업과 연구(일본 포함)

취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외 여타 연구사 논저들에서도 대부분 초기 연구사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개토왕비 발견과 초기 탁본에 연관된 인물이 적지 않은데다가, 그들이 남긴 주장이 다양하고, 또 대부분 간략한 언급에 그치고 있고 있어 사실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심지어는 비석의 재발견 시점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선 연구사 정리에서는 비석 발견과 탁본 인물, 시점 및 과정에 대해서만 다뤘을 뿐, 초기 논저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당시 지식인들의 고구려인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들 저술은 사실상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후대 연구자들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연구

사가 정리되기도 하였다. 중국 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徐建新(1993), 徐建新(1996), 耿鐵華(1994)의 연구사 3편, 그리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耿鐵華(2002), 고광의(2004), 徐建新(2006)의 연구사 2편이 정리되었으며, 최근 198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는 시기의 연구사 정리 작업이 耿鐵華(2012)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중국 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사가 가장 자세히 소개된 글이기도 하다. 그 외 2001년에서 2012년까지의 성과는 중국학계 고구려 연구사 정리의 일환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기도 하였다.⁵⁾

다만 일부 논저가 누락되어 있고, 또 최근 수년 동안 새로운 성과가 적지 않게 축적된 만큼 현 시점에서 새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 학계의 연구사 정리 방식은 단순히 연구 결과물을 분류하여 정리·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존 대부분 연구사 정리 논저들에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만 열거되어 있을 뿐, 시기별 연구 주제 경향과 연구자 상황 등이 자세히 다루이지 않았다. 특히나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소략하여 앞선 연구의 논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그 다음 기존의 연구사 정리에서는 대부분 대표 연구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논저를 자세히 소개하거나 徐建新(1996), 耿鐵華(2003), 耿鐵華(2014a), 고광의(2004), 高明士(1996), 고광의(2005)처럼 탁본이나 석문과 같은 특정 주제 연구에만 한하여 정리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 연구를 통해 광개토왕비 연구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그보다는 연구 전반에 걸쳐 각 주제별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학문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초기 연구가 이루어진 발견 시점부터 1930년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1940년대부터 1970년대, 본격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5) 王禹浪·程功·劉加明·郭叢叢, 2012, 「近十年來中國高句麗民族歷史問題研究成果宗述」, 『哈爾濱學院學報』第12期, 9~10쪽.

또, 전기(재발견~1949)와 후기(1950~현재)로 구분하고, 후기를 다시 문화혁명 이전을 1단계(1950~1965), 문화혁명 기간을 2단계(1966~1977), 개혁개방 이후를 3단계(1978~1999), 2000년대 이후를 4단계로 세분하기도 한다.⁷⁾

이 글에서는 위의 두 가지 시기 구분법을 적절히 결합시켜 해방 이전의 전통시대, 해방 이후부터 문화혁명 기간, 개혁개방 이후로 나눠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초기: 19세기 말~1930년대(혹은 中華民國 초기), ② 초기 인식의 연장과 전환기: 1940년대~1970년대, ③ 새로운 인식의 정립기: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연구의 특징, 그리고 연구 경향의 변화와 핵심 논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앞선 시기 축적되어 온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를 재점검하여 새롭게 진행된 논저들을 보완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기별로 나누어 여러 핵심 주제에 대한 연구 경향과 논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 6) 徐建新, 1993,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述」, 『世界史研究動態』第10期, 17쪽; 徐建新, 1996, 「中國學界對高句麗好太王碑碑文及拓本的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100年』, 학연문화사, 71쪽; 고광의, 2004, 앞의 글, 199쪽.
- 7) 耿鐵華, 李樂營, 2012, 『高句麗研究史』, 吉林大學出版社, 4쪽.

II. 초기: 19세기 말~1930년대 연구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능비가 재발견된 1870~1880년대⁸⁾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초기에는 금석문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탁본, 문자해독 등 기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금석문은 전통적으로 중국 문인들의 관심 대상이었는데, 특히나 清代 문인들은 가혹한 문자옥(文字獄) 검열을 피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古文 연구를 소일거리로 삼았다. 그리하여 清末에 이르러, 은퇴한 관리나 지방유지들 사이에서 금석문 수집과 고증학(考據學) 연구가 널리 유행하였으며, ‘비고(碑估)’라고 하여 그들을 상대로 한 탁본 전문 상인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새로운 금석문의 발견은 항상 수집가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었으며, 그 탁본 또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잘 알려졌듯이, 위진 시기 금비령(禁碑令)이 엄격히 지켜지면서,⁹⁾ 해당 시기에 건조된 비석이 중원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¹⁰⁾ 따라서 광개토왕비의 발견은 금석문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8) 광개토왕비 발견연대와 관련해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문헌에 관련 언급이 있으므로 당시 이미 발견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당시는 금나라 황제의 능비로 잘못 알고 있어, ‘광개토왕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발견연대를 19세기 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견 시점에 대해서도, ‘同治末年說’, ‘光緒元年說’, ‘光緒6年說’, ‘光緒初年說’, ‘光緒3年說’ 등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1980년대 이후 연구를 통해 점차 광서초년, 즉 1875년을 전후한 시점이라는 주장(王健群, 1983, 「好太王碑的發現和捶拓」, 『社會科學戰線』 第4期), 광서6년(1880)설(劉永智, 1985, 「好太王碑的發現及其他」, 『社會科學戰線』 第1期) 및 광서3년(1877)설(耿鐵華, 1988, 「好太王碑發現時間新探」, 『市民的古代』 第10集)에 힘이 실리고 있다.

9) 趙超, 2003, 『墓誌考古通論』, 紫禁城出版社, 49쪽.

10) 王靖憲 主編, 2009, 『中國碑刻全集1—戰國 秦 漢』, 人民美術出版社, 12쪽.

1_ 초기 논저

광개토왕비에 대해 언급한 초기 저술로는 다음과 같은 20여 편이 주목된다.¹¹⁾

〈표 2〉 초기 논저 목록

No.	찬술(발표) 연도	저자	논저
1	1882	李超琮	『遼左日記』.
2	1884	葉昌熾	「高句驪王墓碑跋」(2003년 전후에 발견된 초기 탁본에 수록).
3	1887	楊頤	『好太王碑考訂』.
4	1889	盛昱	『好太王碑釋文』.
5	1890~ 1896	楊同桂	「高麗墓碑」, 『瀋故』 卷1(榮禧의 고증과 상당부분 일치하는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 확인 불가).
6	1891	王孝廉	「跋文」, 釋文(任昌淳 소장 초기 탁본인 '靑溟本'에 함께 제첩).
7	1895	王志修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高句麗永樂太王碑考」, 『高句麗永樂太王碑歌考』.
8	1897	傅雲龍	「跋」, 『長白彙徵錄』(1910) 수록.
9	1897	陸心源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紀助碑跋」, 『儀顧堂續跋』.
10	1898	鄭文焯	「高麗國永樂好太王碑釋文纂考」跋, 『平湖朱氏經注經齋刻本』(1900).
11	1900	吳重熹	「高麗永樂好太王碑釋文纂攷後跋」(鄭文焯의 글에 붙임).
12	1901	葉昌熾	「奉天一則」, 『語石』 卷2.
13	1903	榮禧	「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高句麗永樂太王墓碑譚言」, 『古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考』; 朴殷植 編, 『西北學會月報』 1卷 9號(1909년 재수록).
14	1907, 1908	羅振玉	「高句麗好太王碑跋」, 『唐風樓碑錄』; 「好太王陵碑」, 『匍廬日札』; 『神州國光集』 第9輯.

11)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44~73쪽에서 열거한 21명의 논저를 토대로, 누락된 저술을 추가하여 찬술(혹은 발표)을 시간순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No.	찬술(발표) 연도	저자	논저
15	1907	吳光國 等	「高句麗古碑文」, 『輯安縣鄉土志』(1915).
16	1909	吳椒甫	『舊拓好太王碑』, 有正書局.
17	1909	楊守敬	「高句麗好太王碑釋文」·「高句麗好太王碑」·「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수록, 『高麗好太王碑』; 『寰宇貞石圖』(1909년 재판) 탁본 수록.
18	1910	張鳳台	「釋高句麗碑文」·「按說」, 『長白彙徵錄』.
19	1918	顧燮光	「高麗好太王碑」, 『夢碧移石言』.
20	1922	劉承幹	「晉高句麗好大王碑」 ¹²⁾ ·「後跋」, 『海東金石苑補遺』.
21	1923	歐陽輔	「高麗好大王碑」, 『集古求真』.
22	1925	張延厚	「跋」, 『遼東文獻徵略』卷3 金石 上(1927년 수록).
23	1925	談國桓	「手札」(金毓黻과 교신으로 추정), 「跋」(遼寧省博物館 소장 탁본의 발문).
24	1925	金毓黻	「高句麗好大王碑」(釋文) 및 按語(『遼東文獻徵略』卷3 金石 上, 1927. 그 외 羅振玉, 「高句麗好太王碑」·「好太王陵碑」; 葉昌熾, 「奉天一則」; 談國桓, 「手札」; 顧燮光, 「高麗好太王碑」; 張延厚, 「跋」 수록.
25	1928	劉節	「好大王碑考釋」(1928), 『國學論叢』第2卷 第1號, 1929.
26	1930	於雲峰	「高句麗好太王碑文」(劉天成, 蘇顯揚 修, 張拱垣, 於雲峰 等纂, 『輯安縣志』, 古蹟, 古碑頌條).
27	1931	미상	「高句麗小志」·「高句麗統系表」·「高句麗遷都經過和高句麗亡國小序」, 『高句麗好太王碑銘誌』, 輯安縣 玉奎升印刷所.
28	1937	羅福頤	「高麗好太王碑」, 『滿洲金石志』; 鄭文焯, 「高麗國永樂好太王碑釋文纂考」; 劉承幹, 「好太王碑」(재수록).

12) 『海東金石苑補遺』 목차에서는 제목을 '晉高句麗好大王碑'라고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好太王碑"라고 붙였다.

이들 초기 저술에는 광개토왕비 발견 시점과 인물, 비석의 위치, 상태(크기, 이끼 소각과정의 훼손 등), 탁본 과정 및 관련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앞선 연구들에서는 이들 초기 논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개토왕비 발견 초기의 여러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각자 주장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 자료가 아닌, 전문(傳聞)에 기초하여 저술된 것이다 보니, 엇갈린 기술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2_ 초기 논저에 언급된 인물 관계

초기 저술 대부분이 전문을 토대로 기술된 것이고, 또 이들 내용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술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의 <표 2>에서 열거한 초기 저술을 남긴 인물로는 葉昌熾, 楊頤(楊蓉浦), 盛昱(盛伯羲), 楊同桂, 王孝廉, 王志修(王少慮), 傅雲龍, 陸心源, 鄭文焯, 吳重熹, 榮禧, 羅振玉, 吳光國, 吳椒甫, 楊守敬, 張鳳台, 顧燮光, 劉承幹, 歐陽輔, 張延厚, 談國桓, 金毓黻, 劉節, 於雲峰, 羅福頤 등 25명이다. 그 외에도 광개토왕비 발견 및 탁본과 연관된 인물로는 懷仁縣 초대 知縣인 章樾과 비석의 발견자로 잘 알려진 그의 書啓 關月山, 최초 탁본 유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李超琮, 관료 출신의 潘祖蔭(潘文勤, 潘鄭龔), 李鴻齋(李眉生), 吳大澂(吳清卿), 王廉生(王懿榮), 談廣慶 그리고 탁본 제작자인 북경의 금석문 상인 李雲從(李大龍)과 沈陽의 山東 출신 금석문 상인 卮丹山, 또 가장 많은 탁본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광개토왕비 인근의 농부 初天富(初鵬渡¹³⁾), 初均德(初大碑, 老初頭) 父子 등이 있다.

13) 關野貞의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1914)에서는 '初鵬度'라고 하였으나, 王健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는 일본인들이 '初天富'를 오기한 것이며, '鵬度'는 아마 關月山의 號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王健群, 1983, 앞의 글. 최근 耿鐵華 역시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언어소통상의 문제 때문에 오기

위의 초기 논저에 언급되어 있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초기 연구자들의 인맥 관계도는 潘祖蔭과 盛昱의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초기 저술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인물들 사이에 다른 연결고리가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단순히 <그림 1>에 보이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초기 연구의 기초자료인 광개토왕비 탁본 작업은 榮禧, 潘祖蔭, 談廣慶, 盛昱 등 4인에 의해 추진되었고, 현장을 방문하여 탁본 작업을 실행한 탁공(拓工)으로는 卍丹山, 李雲從 그리고 신분 미상의 탁공과 初天富 등 4인이 확인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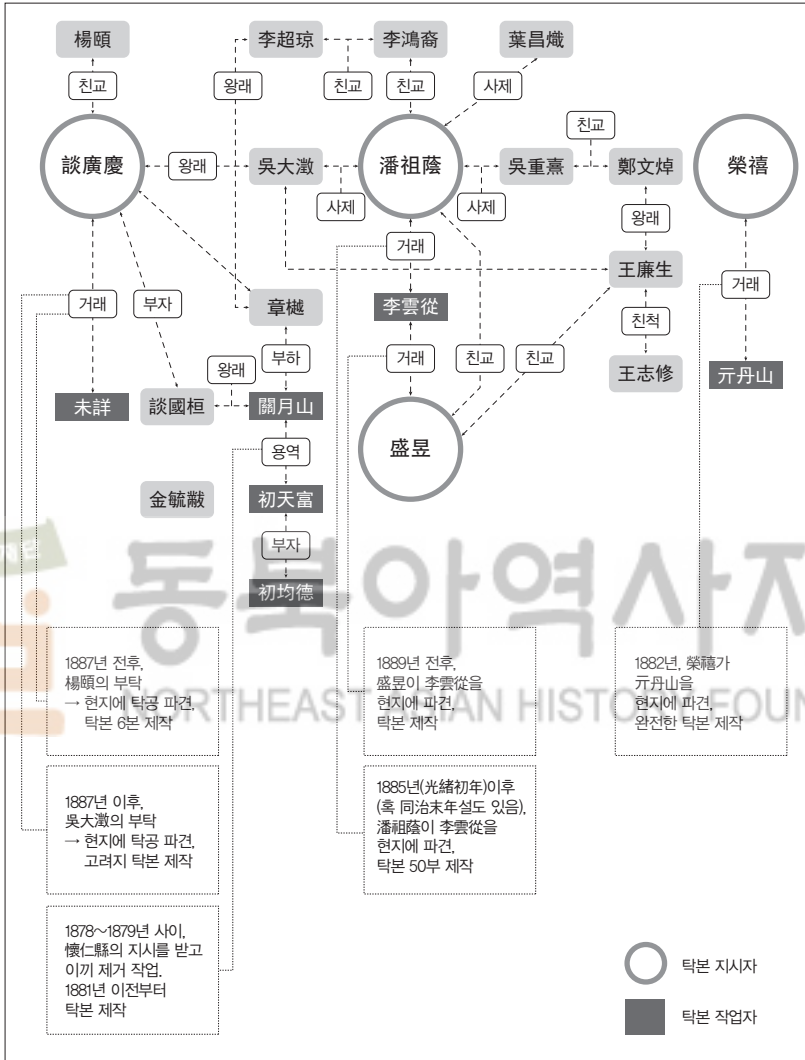
또 <그림 1>에서 보듯이, 탁본을 지시한 인물을 중심으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①그룹은 談廣慶을 중심으로 談國桓, 章樾, 關月山, 楊頤, 吳大澂 등 인물이 연결되어 있으며, ②그룹은 潘祖蔭을 중심으로, 吳大澂, 葉昌熾, 吳重熹, 鄭文焯, 王廉生, 王志修, 李超琮, 李鴻齋, 盛昱, 李雲從 등 인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①, ②두 그룹은 潘祖蔭의 제자이자 談廣慶과 왕래가 있었던 吳大澂라는 인물에 의해 또 서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③그룹은 榮禧와 탁공 卍丹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두 그룹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榮禧는 만주 지역(長白府) 출신의 지방관을 지낸 인물로서,¹⁵⁾ 중앙 관료들과의 왕래가 드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자 인맥 관계에 따르면, 결국 다음과 같은 몇몇 인물의 언급이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談國桓이다. 그는 두 차례 탁본 작업을 지시한 談廣慶의 아들로서, 당시의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또 부친의 후임인 章樾의 부하였던 비석 발견자 關月山으로부터 부분 탁본을 증정받은 바도 있다. 둘째는 吳大澂이다. 그

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耿鐵華, 2014, 「好太王碑發現初期的捶拓與研究」,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고구려발해학회.

14) 關月山이 능비를 발견하고 직접 몇 글자 탁본하였으므로 <그림 1>에서는 그 역시 탁본자로 표시하였다.

15) 耿鐵華·李樂營, 2012, 앞의 책, 34쪽.



〈그림 1〉 광개토왕비 초기 연구자 인맥 관계도

는 潘祖蔭의 제자이면서, 또 직접 談廣慶에게 탁본을 청탁하여 입수한 인물이기도 하다. 즉 ①, ②두 그룹의 정보를 두루 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셋째는 葉昌熾이다. 그는 潘祖蔭의 제자로서, 潘祖蔭이 李鴻齋로부터 증정받은 탁본¹⁶⁾의 문자 배열을 부탁하는 등 초기부터 개입한 인물이다. 넷째는 王志修이다. 그는 奉天府軍糧署同知를 지낸 인물로서,¹⁷⁾ 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奉天府의 속현이었던 懷仁縣의 관료들과 연락이 닿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직접 현장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⁸⁾ 그것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 먼 친척인 王廉生을 통해 그와 관계가 있는 鄭文焯, 盛昱, 吳大澂 등에게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초기 연구에서 談國桓, 吳大澂, 葉昌熾 그리고 王志修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_ 초기 연구의 특징과 내용

광개토왕비 초기 연구의 특징에 대해 앞선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비문을 고구려 사료로 간주하여 한·중·일 문헌자료를 이용해 고증을 진행하였다. 둘째, 초기 연구는 금석문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한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탓에 와전된 내용이 적지 않아 후대 연구에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탁본 판본에 대한 검토가 자세하지 않아, 이른바 원석탁본에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석회 도포 이후의 탁본을

16) 李超瓊이 1881년에 章樾에게서 탁본 2부를 증정받았고, 그것을 1884년 무렵에 李鴻齋에게 다시 증정하였고, 李鴻齋가 다시 潘祖蔭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李超瓊의 『遼左日記』 1881년 기술에 광개토왕비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아마 1882년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徐建新, 2014, 「關於好太王碑發現和早期拓本制作的新史料—以李超瓊的《遼左日記》爲中心」,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17)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48쪽.

18) 王健群, 1984, 위의 책, 49쪽; 範犁, 楊春吉, 1998, 「王志修《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注釋與說明」, 『通化師院學報』 第2期, 55쪽; 耿鐵華, 2014, 앞의 글, 159쪽.

연구 저본으로 삼은 경우가 많아 해석 자체가 의미 없게 된 경우가 많다.¹⁹⁾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초기연구에서는 비문을 해독(解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추독(推讀)해 내고 비문에 보이는 간지에 주목하여 입비 연대 및 비석의 주인공을 고증하였으며 나아가 고구려 왕계(王系)와 약사(略史)를 살펴 후대 연구에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초기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석문

비석 초기 연구자들 대부분이 석문을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王孝廉, 王志修, 鄭文焯, 榮禧, 陽守敬, 羅振玉, 劉承幹, 劉節, 金毓黻²⁰⁾ 등이 있다. 그중, 유절의 「好大王碑考釋」(1928)에서 앞선 시기 연구를 종합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참조할 가치가 높다. 따라서 1958년²¹⁾과 2004년²²⁾ 두 차례나 중국학계에 다시 소개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그는 비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명에 주목해 전음(轉音)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명을 추정하고 있어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 羅振玉의 「高句麗好太王碑跋」(1907), 「好太王陵碑」(1908)와 陽守敬의 『高麗好太王碑』(1909)도 여러 탁본들을 비교하여 비문을 해독함으로써 비교적 수준 높은 석문을 남겼다. 이들 초기의 비문 해독은 후대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특히나 그동안 비문에 등장하는 간지를 토대로 입비 연대와 주인공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 왔는데, 羅振玉이 자세한 고증을 통해 최종 東晉 義熙 10년(414)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王孝廉의 석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초기 탁본을 기초사

19) 徐建新, 1996, 「中國學界對高句麗好太王碑碑文及拓本的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72쪽.

20) 관련 논저는 <표 2> 초기 논저 목록 참조.

21) 劉節, 1958, 「好大王碑考釋」, 『古史考存』, 人民出版社.

22) 劉節, 2004, 「好大王碑考釋」, 『劉節文集』, 中山大學出版社.

료로 삼았으며, 여타 선입견이나 다른 석문의 영향을 받지 않아²³⁾ 비문 해독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초기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탁본을 비교·검토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종류를 입수하여 문자를 판독하였고, 또 대부분 현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²⁴⁾ 탁본에만 의존하다보니 문자해독에 적지 않은 오류가 나타난다. 게다가 고구려사 전공자들이 아니고, 사료도 몇몇 고전문헌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비문 고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광개토왕비의 성격

광개토왕비의 성격에 대해 초기 금석문 학자들은 서로 달리 이해하고 있었다. 혹자는 ‘묘비(능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王志修의 「高句麗永樂太王碑考」(1895)에서는 “此碑當卽句麗王安墓碑”라고 하였고, 榮禧가 찬술한 「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1903)이나 羅振玉의 「好太王陵碑」(1908) 제목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혹자는 ‘紀功碑(공적비)’로 보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陸心源의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紀勛碑跋」(1897)에서는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則此碑應題爲高句麗廣開土王談德紀勛碑”라고 하여 비석을 ‘기훈비’로 명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鄭文焯(1898) 또한 “此高麗好太王墓上紀功碑也”라고 하여 공적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23) 고광의, 2005, 「중국의 廣開土王碑 釋文 연구 현황과 검토」,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53~54쪽.

24) 초기 학자들 중 현장 조사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金毓黻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가 釋文을 발표한 시점은 1925년이고, 현장 조사는 그 10년 뒤인 1935년에 이루어졌다. 관련 내용은 『靜晤室日記』 5권에 수록되어 있다.

3) 서체

광개토왕비 탁본 연구와 더불어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는 바로 서체 연구이다. 鄭文焯, 王志修, 榮禧, 顧燮光, 葉昌熾, 歐陽輔 등 초기 탁본 연구자들은 광개토왕비 서체를 팔분한중체(八分漢隸體)로 보거나 예서와 해서의 중간 형태 혹은 진서(해서)라고도 하였다.²⁵⁾

4) 지명

비교적 이른 시기 광개토왕비에 등장하는 지명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학자는 劉節이다. 그는 「好大王碑考釋」(1928)에서 古音과 地理書 그리고 津田左右吉과 같은 일본 근대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해 아주 자세한 고증을 시도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경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Ⅲ. 초기 인식의 연장과 전환기: 1940~1970년대 연구

1940년대~1970년대의 중국은 중일전쟁, 내전과 문화대혁명이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학술분야 전반이 침체되어 있었다. 고구려 연구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광개토왕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현장조사와 비문 탁본, 그리고 보수 작업이 일부 진행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1940년대 金毓黻가 『東北通史』(1941) 연구에서 광개토왕비를

25) 앞선 연구에서 비문 서체 유형과 관련된 19가지 학설을 표로 자세히 정리한 바 있어 이 글에서 다시 부연하지는 않겠다. 고희의, 2004, 앞의 글, 고구려연구재단, 231쪽.

언급하는 등 몇몇 주목되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동북공정’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 金毓黻은 1920년대에 이미 광개토왕비에 대해 자세한 고증을 남겼다. 다만 그가 1926년에 찬술한 「高句驪好大王碑」(석문) 및 按語에서는 한·중 사료 비교를 통해 고구려 왕계를 고증하고 있을 뿐 별다른 고구려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1941년에 발표한 『東北通史』에서 고구려는 중화에 속한 민족이고, 王氏 高麗나 李氏 朝鮮과는 종족적 기원이 다르다고 하여,²⁶⁾ ‘귀속’ 인식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광개토왕비에 관한 내용은 『東北通史』 卷3의 4節 ‘慕容氏與高句麗’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의 요동 진출을 주로 다뤘는데, 최종 점거 시점을 끝 元興 4년(404)으로 보았다. 그는 요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광개토왕이 이른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손꼽기에 손색없지만, 이에 관한 언급이 비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문제 대해, 선왕들이 선비족에게 신속(臣屬)해 있었으므로, 요동에 침입한 사실을 기피하고자 기록에서 누락시켰다는 丁謙의 해석을 소개하면서, 타당성 있는 설명이라고 극찬하였다. 즉 광개토왕이 燕의 봉작을 받았으므로 요동 침공사실을 비문에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⁷⁾ 金毓黻 이후로 195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광개토왕비 연구는 단절로 나타난다.

1950년대 이후 발표된 논저는 張馭寰의 「集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文物參考資料』 第4期, 1958), 劉節의 「好大王碑考釋」(『古史考存』, 人民出版社, 1958), 周一良의 「高句麗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世界通史資料選輯(上古部分)』, 商務印書館, 1962) 등 3편 정도에 불과하다. 그중 1편은 劉節의 1928년에 발표한 글을 재수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2편이 발표된 셈이다.

1958년에 新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중앙학술지인 『文物參考資料』(『文物』誌 전신)에 광개토왕비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가 게재되었다.²⁸⁾ 그리

26) 金毓黻, 1944(1981 再版), 『東北通史』, 五十年代出版社, 229쪽.

27) 金毓黻, 1944(1981 再版), 위의 책, 147~153쪽.

28) 張馭寰, 1958, 「集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 『文物參考資料』 第4期.

고 이 시기 ‘사회성격과 수묘인’에 관한 연구가 주목된다.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중국사의 전개를 재단하려는 시도와 함께, 역사발전과 사회성격에 대한 논의가 1950~1980년대 중국 사학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고구려 사회 성격에 관해 언급한 학자는 세계사 전공자인 周一良인데, 그는 세계통사를 다루면서 조선사(한국사) 부분에서 광개토왕비 비문을 소개하였다. 그는 수묘(守墓) 관련 기사에 주석을 붙여, 수묘인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서, 강제로 무덤 인근에 배치되어 수묘역에 종사하였다고 보았다.²⁹⁾ 따라서 그는 고구려 사회 성격을 노예제 사회로 파악하였다. 이후 학계에서는 고구려 사회 성격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학설이 1970년대까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외 비록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석회도포 변조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1970년대에 李進熙에 의해 일본육군참모본부의 의도적인 석회도포 및 비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래 사실 여부를 놓고 전개된 논쟁을 손꼽을 수 있다.

중국의 초기 금석문 연구자들도 이미 석회 도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글자 자획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탁공의 잘못이라고 인식해왔다.³⁰⁾ 따라서 사실 이 논쟁이 화제가 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에 이미 ‘석회도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1957년에 輯安縣文化科에서 유물보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林至德은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석회도포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1957년 4월 4일자 조사기록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李清太(당시 78세)와 于濤林(당시 60세) 두 사람 모두 능비 주변에 거주하면서 탁본 작업을 하고 있던 初氏 성씨의 인물이 ‘白灰’를 발랐음을 증언하였다고 한다.³¹⁾

29) 周一良, 1962, 「高句麗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世界通史資料選輯(上古部分)』, 商務印書館, 433쪽.

30) 楊昭全, 1998, 「中國朝鮮古代史研究概述」, 『韓國研究論叢』 第4輯, 384쪽.

31) 林至德의 조사기록은 集安博物館檔案室에 소장되어 있으며, 耿鐵華의 저서에서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 조사 작업과 보호조치는 이후의 본격적인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능비 보존 처리와 보호 조치는 1961년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선정되면서 본격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集安博物館의 주도하에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에 관한 내용은 集安博物館長을 지낸바 있는 耿鐵華에 의해 자세히 정리·소개된 바 있다.³²⁾

조사·보호 조치는 주로 1957년(林至德 - 실측), 1962년(林至德 - 실측), 1965년('好太王碑化學保護處理工作小組' - 보존처리), 1974년(周雲台 - 보존처리 효과 점검), 1976년(國家文物局 - 화학보존처리 부분 테스트), 1979년(周雲台) - 화학보존처리)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능비 상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훼손 방지 조치를 취해 나갔다.³³⁾ 특히 1963년에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한 고고조사의 일환으로 광개토왕비 탁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張明善이 제작한 탁본 4부 중의 1부를 북한에 증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종합해 보자면, 1940~1970년대의 불안하였던 사회 환경은 이 시기 학문을 극도로 위축시켰는데, 광개토왕비 연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광개토왕비 연구가 전무하였던 것은 아닌데, 그 내용과 특징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일제의 침략에 대한 반발로 '요동'이나 '만주' 대신 '동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시대와는 다른 고구려인식 서서히 정립되어 갔다. 따라서 중국과 고구려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광개토왕비 연구에서 요동 지역 진출 시기와 '신속'이라는 관계가 강조되었다.

인용한바 있다. 耿鐵華, 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20~122쪽.

32) 耿鐵華, 1990, 「好太王碑的保護與現狀」, 『文博』第2期; 耿鐵華, 2003, 「第2章 好太王碑保護與調查」,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3) 孫仁傑, 2003, 「好太王碑現狀觀測與保護的思考」, 『博物館研究』第3期.

- 2) 해방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장 조사와 보호조치가 취해졌으며, '석회도포'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이미 그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 3) 마르크스 역사발전론을 적용하여 고구려 사회 성격을 정의하려는 시도와 함께 비문의 수요인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IV. 새로운 인식의 정립기: 1980년대 이후 연구

1980년대에 들어서 앞선 시기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학문 여건과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풍요로움이 그 토대가 되었다. 이 시기 중국 학계에서는 초기 금석문 학자들이 축적해 놓은 기초자료와 접근상의 편의에 힘입어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량의 성과를 배출하였다.

1980년대에 광개토왕비 연구사상 한 획을 그은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1984)를 비롯한 다수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어 관련 연구의 학문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초기 조사과정과 탁본 판본 검토 및 일부 쟁점 주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비문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 단행본 23권이(〈부록 1〉) 출판되었고, 연구논문 158편이(〈부록 2〉)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장 최근 연구사 정리(耿鐵華, 2012)에서 통계한 105편³⁴⁾보다 상당수 보완된 목록이다.

단행본 23권 중 전문연구서는 종합연구서 6권과 탁본연구서 4권으로, 총

34) 耿鐵華, 2012, 「高句麗好太王碑研究綜述」, 『高句麗好太王碑』, 吉林大學出版社, 5쪽(구체적인 목록은 368~372쪽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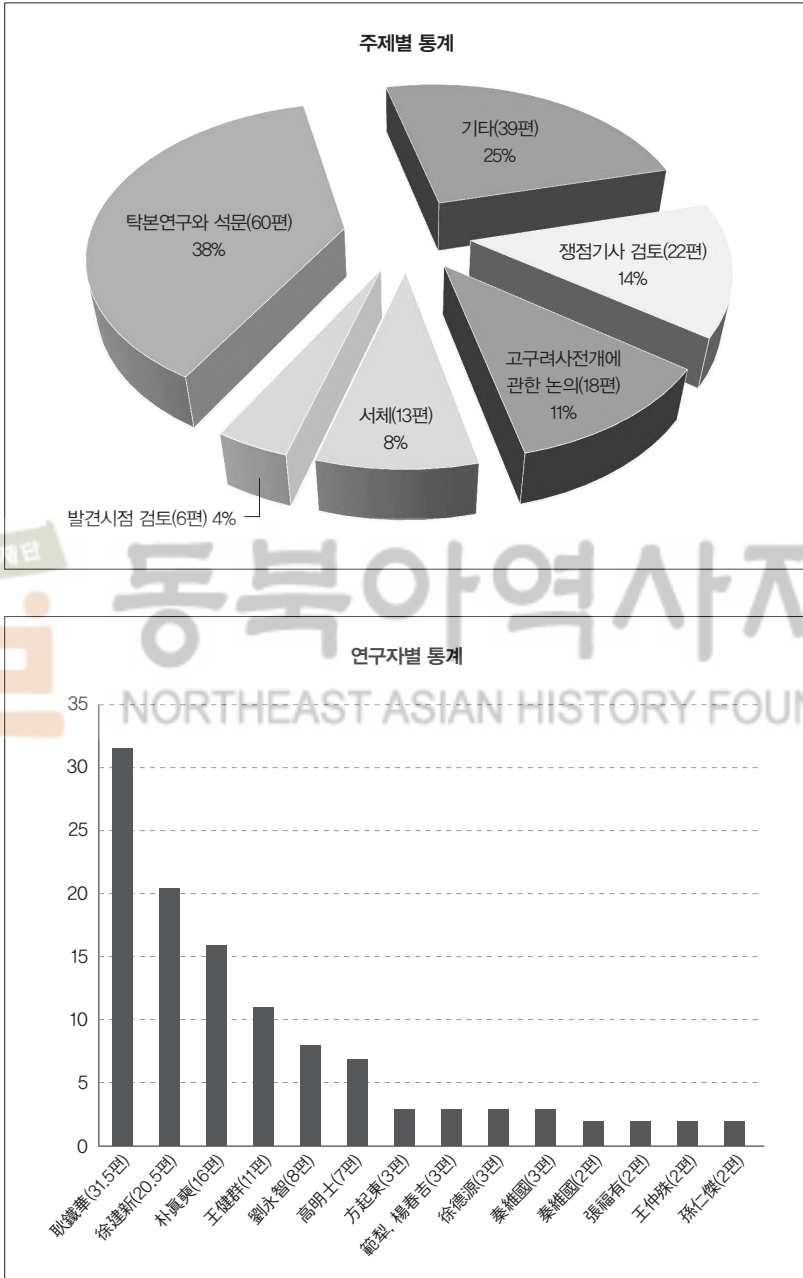
10권이다. 그중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가 대표적이며, 耿鐵華와 朴眞奭이 각각 4권, 3권을 펴냈다. 사실상 이 두 학자가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 徐建新이 일본에서 출판한 탁본연구서(『好太王碑拓本の研究』, 2006)도 주목된다.

나머지 13권은 연구서가 아닌 서예 분야의 ‘서첩(書帖) 혹은 자첩(字帖)’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이 석회탁본을 영인한 것으로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 다만 그중 『好太王碑』(遼寧省博物館, 1982)에서는 자체 소장하고 있던 민국초년(民國初年)의 상태가 양호한 탁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또 1999년에 孫寶文이 엮어낸 탁본집인 『好太王碑』(中國著明碑帖選集 27, 吉林文史出版社, 1999)에는 원석탁본인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分段拓出本(北京大學 C本)’ 및 方起東의 석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 같은 해 胡祖輝가 펴낸 『好太王碑』上·下(古吳軒出版社, 1999)에서는 光緒 중기의 高麗紙 精拓本을 수록하고 있어,³⁵⁾ 관련 연구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탁본연구와 비문해독이 60편(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역구사, 유적 소개, 종합연구 등) 연구가 39편(25%), 쟁점기사 검토가 23편(14%), 고구려 전개에 관한 연구가 18편(11%)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체연구가 13편(8%), 발견시점 검토가 6편(4%)으로 통계되었다.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耿鐵華, 徐建新, 朴眞奭, 王健群, 劉永智, 高明士 순으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중 耿鐵華의 논저가 가장 많으며, 석문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였고, 徐建新은 탁본 연구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朴眞奭은 석문연구와 임나일본부설 비판이 대표적이다. 王健群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가 1984년에 펴낸 저서는 연구사상의 한 획을 긋는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劉永智는 王健群과 더불어 1980년대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재발견 시점 논쟁 등에 상당한 활약을 보였다. 그 외 方起東은 王健群과 함께 현장조사와 석문연구에 주

35) 고평의, 2004, 앞의 글, 230쪽.



〈그림 2〉 1980년대~현재 발표논문 통계

력하였고, 高明士는 타이완에 소장되어 있는 탁본 발굴과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1_ 시기별 연구 경향

1)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전통시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탁본과 비문 해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원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중단되었던 광개토왕비 연구가 재개되면서 연구자들이 기초자료 검토과정에서 초기 금석문 학자들의 석문이나 1950~1970년대 북한, 일본 연구자들 석문에 많은 문제점과 논쟁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학계에서는 연구 시작단계의 기초자료 검토 차원에서 탁본과 석문 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사실 비문 해독의 정확성이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 시기 석문 작업은 후대 연구를 위해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비가 재발견된 시점이 아직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 이 시기 王健群(1983)과 劉永智(1985)의 논쟁을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그후 耿鐵華(1988)가 새롭게 가담하면서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세 가지 학설, 즉 ‘광서초년설(光緒初年說)’, ‘광서6년설(光緒6年說)’, ‘광서3년설(光緒3年說)’이 정립되었다. 王健群과 劉永智가 이미 작고한 현 시점에서 耿鐵華의 ‘광서3년설’이 중국 학계의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徐建新이 새로운 자료 발굴 등을 통해 劉永智에 이어 ‘광서6년설’을 지지하고 있어 주장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이 시기 ‘신묘년(辛卯年)’ 기사, ‘왜(倭)’의 실체,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실재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몽 출자, 수묘제도, 고구려사회 성격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능비 연구를 규정지을 수 있는 상징적인 논저는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1984)라고 할 수 있는데, 능비연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에 대

해 비교적 자세한 검토를 남겼다. 따라서 이 저서는 비단 1980년대뿐만 아니라 연구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주목되는 연구로도 손색이 없으며, 후대 거의 모든 능비 연구에서 이 논저를 인용하고 있다.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학계에서는 여전히 탁본과 비문 해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비문 연구를 통해 고구려사의 단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신묘년조 기사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王健群, 耿鐵華, 劉永智, 朴真奭, 高明士가 1980년대 연구를 주도하였고, 성과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는 기형적인 발전 형태를 보인다. 즉 연구자는 耿鐵華와 徐建新, 朴真奭 세 명의 ‘독주’로 나타나며, 이들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1인당 2~3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형적인 양상은 1980년대 연구를 주도하였던 王健群이 1996년 사망하였고, 劉永智 또한 2003년에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方起東도 2005년에 사망함으로써 핵심 연구자가 대거 사라지게 되었다. 또 朴真奭과 徐德源, 王仲殊 등은 연로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데, 중국학계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단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³⁶⁾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990년대 이래로 베이징대학의 徐建新이 새로 등장하여 탁본 연구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나가면서 광개토왕비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이러한 기형적인 발전은 결국 중국 학계에서 다양한 학설과 목소리가 사라지고 몇몇 견해로 좁혀지면서 ‘通說化’되어 자리매김해나가고 있음을

36) 耿鐵華, 2012, 앞의 글, 15쪽.

시사해준다. 이는 학술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중국 학계로서는 시급히 극복해나가야 할 당면과제일 것이다.

1990년대의 대표적인 논저로는 耿鐵華의 『好太王碑新考』(1994)를 손꼽을 수 있으며, 對日 논쟁에 관해서는 朴真奭의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1993)가 주목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朴真奭의 『好太王碑拓本研究』(2001)와 徐建新的 『好太王碑拓本の研究』(2006)가 대표 탁본 연구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

2_ 주제별 연구

이 시기에는 연구 성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제별로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몇 편에 한해서 그 경향과 논지를 살펴 전체적인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동안 중국학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개토왕비를 연구해왔는데, 耿鐵華의 앞선 연구에서는 여덟 가지 주제로 분류한 바 있다.³⁷⁾ 사실상 이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법을 취해, ① 재발견 시점 검토, ② 탁본과 석문연구, ③ 쟁점기사 검토, ④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⑤ 서체연구, ⑥ 기타(관련 인물, 연구 약사, 서평, 유적소개) 등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재발견 시점 검토

현재 중국학계에서 광개토왕비 재발견자가 關月山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발견 시점을 놓고 여전히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저술에서 발견 시점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비의 재발견 시점과 관련해서, 초기 저술에서 일곱 가지 서로 다

37) 耿鐵華, 2012, 앞의 글, 5~13쪽.

른 언급이 확인되는데, 저술 연대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비석 발견 시점 언급

No.	주장	찬술(발표)연도	저자	저술	언급 내용	지리학자
1	光緒6年說 (1880)	1884, 1901, 1923	葉昌熾 歐陽輔	「高句驪王墓碑跋」(초기 탁본), 「奉天一則」, 『語 石』; 「高麗好大王碑」, 『集古求真』.	“光緒六年, 邊民斬山刊木始 搜得之”, “光緒六年, 邊民斬 山刊木始得之”; “光緒六年, 邊民斬山刊木始得發現”.	金毓黻 ³⁸⁾ 劉永智 ³⁹⁾ 徐建新 ⁴⁰⁾
2	光緒3年說 (1877)	1895	王志修	「高句麗永樂太王古碑 歌」·「高句麗永樂太王 碑考」, 『高句麗永樂太王 碑歌考』.	“我皇馭宇之三載, 衽席黎首 開邊疆”, “光緒三年開邊禁, 以通溝設巡檢”.	耿鐵華 ⁴¹⁾
3	庚子(甲午) ⁴²⁾ 年說(1894)	1909	楊守敬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 德碑跋」, 『寰宇貞石圖』.	“或云是庚子中日之役尋得”.	
4	光緒元年說 (1875)	1918	顧燮光	「高麗好太王碑」, 『夢碧 簃石言』.	“光緒元年開墾東邊荒地始發 見”.	
5	同治末年說 (1870년대)	1922	劉承幹	『海東金石苑補遺』.	“此碑同治末年始傳入京師, 吳縣潘文勤公祖蔭先得之”.	
6	光緒初年說	1925	談國桓 張延厚 金毓黻	「手札」; 「跋」; 「高句驪 好大王碑」 말미 주석.	“當在光緒初葉時所拓”; “勝 清光緒初, 吳縣潘鄭安尚書 始訪得之”; “按此碑於清光緒 初年爲懷仁縣 …… 所發現”.	王健群 ⁴³⁾ (1875, 1876)
7	光緒初年說2 (光緒8, 9년 (1882~1883) 이전)	1929	談國桓	「跋」.	“回首前塵, 恍如夢寐. 按章 君宰懷仁, 在光緒八, 九年. 關君即發現此碑之人”.	

38) 金毓黻의 초기 연구에서는 ‘光緒初年’이라고 하였으나, 『東北通史』(1941)에서는 ‘光緒6年’에 발견됐다고 하였다. 金毓黻, 1944(1981 再版), 앞의 책, 147쪽.

39) 劉永智, 1985, 앞의 글; 劉永智, 1996, 「好太王碑之發現與釋文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이상에서 보듯이, 광개토왕비 재발견 경위와 관련해서 여러 초기 학자들이 서로 엇갈린 기술을 남기면서 그 정확한 연대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 주제에 관한 대표적인 논자는 王健群, 劉永智, 耿鐵華, 徐建新, 조복향 등이며, 이들의 주장은 대개 ‘광서초년설(1875, 1876)’, ‘광서6년설(1880)’, ‘광서3년설(1877)’ 등 세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1983년 王健群이 ‘광서초년설’을 제기하였고,⁴⁴⁾ 이에 1985년에 劉永智가 ‘광서6년설’을 반론으로 제기하였으며, 1988년에 耿鐵華가 또 ‘광서3년설’을 들고 논의에 가담하면서 세 가지 학설이 병립하게 되었다. 그후 1995년에 耿鐵華와 동일 연구기관 소속인 조복향이 耿鐵華의 설을 지지하였고, 2003년에 徐建新이 새로 발견된 탁본의 제발(題跋)을 근거로 劉永智의 설을 지지하였다. 사실상 이 설은 李進熙의 앞선 주장과 일치하며, 현재 한·일 학계에서 통설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王健群과 劉永智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徐建新은 광개토왕비 탁본 연구외의 고구려사 연구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므로, 현재 耿鐵華의 ‘광서3년설’이 중국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비석 재발견 시점이나 인물과 관련해서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인에 의해 재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나 王健群의 경우 『龍飛御天歌』, 『江界邑誌』 등 조선시대 문헌에서 비석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찬술자가 고구려의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金나라 皇帝碑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엄밀히 따져 ‘재발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그는 중국인 금

40) 徐建新, 2005,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發現—對1884年潘祖蔭藏本的初步調查」, 『中國史研究』 第1期; 徐建新, 2014, 앞의 글.

41) 耿鐵華, 1988, 앞의 글; 耿鐵華, 2014, 앞의 글.

42) 원문에서는 ‘庚子’라고 하였으나, 중일전쟁은 1894년, 즉 甲午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후에 劉節은 楊守敬의 글을 인용하면서 ‘甲午中日之役’으로 수정하였다. 劉節, 1958, 앞의 글, 16쪽.

43) 王健群, 1983, 앞의 글.

44) 池內宏이 제시한 ‘光緒2年’ 주장과도 비슷하다. 池內宏, 1938, 「廣開土王碑發見の由來と碑石の現狀」, 『史學雜誌』 第49編 第1號.

석문 학자에 의해 재발견되었음을 강조하였다.⁴⁵⁾

2) 탁본과 석문 연구⁴⁶⁾

초기 연구자들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삼아 1980년대 이후부터 王健群을 시작으로 앞선 시기 탁본과의 비교, 새로운 탁본 제작, 현장 조사 등을 통한 본격적인 비문판독과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徐建新과 高明士가 베이징 및 타이완에서 발견된 새로운 탁본 판본을 소개하면서 비문 판독 작업이 한층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래 탁본 연구와 비문해독 분야에서 주목되는 성과를 배출한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王健群, 方起東, 朴眞奭, 耿鐵華, 高明士, 徐建新 등이 있다.

우선, 王健群의 「好太王碑文譯注(上, 下)」(『博物館研究』 第1, 3期, 1983),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1984 재수록)가 주목된다. 1980년에 吉林省考古研究室에 재직해 있던 王健群은 광개토왕비 연구 프로젝트 진행을 위임 받고 1981년부터 연구를 개시하였다. 그가 우선 주목한 부분은 앞선 시기 비문 판독을 둘러싸고 진행된 다양한 논쟁이었다. 따라서 그는 새로 비문을 판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⁴⁷⁾ 그는 横井忠直, 榮禧 등의 선형 석문 12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6種의 탁본 판본과 1981년에 周雲台가 새로 제작한 탁본을 자세히 비교하고, 또 비석 실물 조사를 통해 89자를 새로 판독해냈으며, 62자를 확정지었다. 또 앞선 시기 글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로 표기하였던 부분도 실물 검토를 통해 29곳에 실제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앞선 시기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문

45) 王健群, 1984, 앞의 책, 4쪽.

46) 이 주제와 관련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학계의 연구사가 자세히 정리된 바 있어(고광의, 2005, 앞의 글), 이 글에서는 이를 토대로, 일부 누락·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47) 王健群, 1984, 앞의 책, 1~2쪽.

의 글자수를 1,802자 혹은 1,804자로 봐오던 것을 최종 1,775자로 확정하였으며,⁴⁸⁾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⁴⁹⁾ 그의 탈락된 부분의 글자 15자를 추독해내기도 하였다.⁵⁰⁾

王健群의 비문 해독 연구는 다양한 탁본을 비교 검토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비석 실물 조사를 통해 문자를 판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한·일 학계로서는 적어도 비문판독에 있어는 王健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王健群과 함께 광개토왕비 현장 조사에 참여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方起東은 조사 완료 후 1984년에 출판된 연구 저서에서 공동 저자는 물론 연구 참여자 명의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부 중국학자들의 사견에 따르면, 여전히 文革의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1980년대 초 당시 ‘右派’ 출신인 方起東이 저서의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단지 王健群의 단독저서 형태로 출판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王健群의 『호태왕비 연구』 집필에 方起東이 크게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견해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方起東은 1995년과 200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냈다. 글에서는 광개토왕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구사를 언급하고, 더불어 몇몇 비문에 대한 판독 견해를 단편적으로 제시한 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비문 판독에 있어 正字體와 草書體의 관계 등 서체에 대한 기본이해를 토대로, 원 字形에 충실하되 변형된 異體字에 유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⁵¹⁾ 그 외에도 方起東의 석문은 1999년에 孫寶文이 펴낸 자첩 성격의 탁본집인 『好太王碑』(中國著明碑帖選集 27)

48) 王健群, 1984, 앞의 책, 129쪽.

49) 물론 일부 다른 견해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劉永智는 王健群의 1775자 주장을 비판하면서 비석이 여러 차례 훼손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비석의 상태에 근거하여 글자 수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1,802자 설을 주장하였다. 劉永智, 1996, 앞의 글, 258쪽.

50) 王健群, 1984, 앞의 책, 135쪽.

51) 方起東, 2004, 「好太王碑釋讀一見」, 『東北史地』第2期, 42쪽.

와 2002년에 출판된 집안 지역 고분군실측조사보고서 성격의 『洞溝古墓群 1997年調查測繪報告』(科學出版社), 2004년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출간된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등에 수록될 만큼 중국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연구자는 朴眞奭이다. 1993년에 발표한 저서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에서는 비문에 반영되어 있는 ‘고구려-왜’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책의 첫머리에서(第1章 好太王碑及其文字) 비문에 대한 자세한 판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1992년에 광개토태왕비 근처에 20여 일 머물면서 실물 관찰을 통해 비문 판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이 저서의 부록에 6종의 탁본 사진자료와 석문 6편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6년에 『고구려 호태왕비 연구』에서 다시 자세한 비문 판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저서는 국내에서 먼저 출판되었고, 3년 뒤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李東源 譯, 『高句麗好太王碑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99). 이 책의 ‘第1章 好太王碑文字考’에서는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23개 문자에 대해 여러 탁본과 선행연구를 다양하게 비교 검토하여 판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 부록으로 연구에서 참조한 탁본 10종 영인본과 한·중·일 학자들의 석문 11편을 수집하여 첨부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⁵²⁾

이어서 2001년에는 자료집 성격의 『好太王碑拓本研究』를 펴냈는데, 다양한 탁본 사진자료와 초기 금석문 학자들이 남긴 논저 영인본 및 관련 연구 논문들을 수록한 것으로, 연구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이 책은 탁본편(拓本篇), 자료편(資料篇), 논문편(論文篇)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탁본편에서는 북경도서관 소장 탁본 사진 44매, 王少箴舊藏原石拓本 사진 44매, 『書通』 창간호에 수록된 탁본 사진 44매, 吳椒甫 소장본 탁본 사진 61매를

52) 朴眞奭, 1999, 『高句麗好太王碑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32쪽; 부록 1~92쪽.

수록하였다. 자료편에서는 王志修, 정문작, 오중희, 영희, 엽창치, 羅振玉 등 초기 금석문 학자들이 남긴 題跋과 초기 연구를 수록하였고, 또 1905~1984년에 촬영된 광개토왕비 사진자료를 수록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1918년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조사사진과 1976년 林至德이 촬영한 사진의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어서 요코이 다다나오[横井忠直],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 榮禧, 羅振玉, 楊守敬, 이마니시 류[今西龍], 鄭寅普, 金毓黻, 王健群, 李亨求,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조선유적유물도감』, 朴眞奭, 耿鐵華 등 한·중·일 역대 대표 석문 29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논문편에는 탁본 편년, 석회도포 문제 등 광개토왕비 탁본에 관한 저자의 논문 5편을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耿鐵華의 석문 연구가 있다. 그의 첫 석문은 1984년에 발행된 『集安縣文物志』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후일 자신의 저서에서도 고백하였듯이, 당시 광개토왕비 관련 저술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편찬자가 원고 교부를 미루게 되면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집필하게 되었으며, 시간에 쫓기다보니 羅振玉의 석문을 거의 그대로 따라 급조하였다.⁵³⁾

그 후 羅振玉의 비문 판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1986년에 일본에서 발표할 무렵에 일부 문자 해독을 개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好太王碑新考』인데, 후지타 유지[藤田友治]의 『好太王碑爭論之解明』(1986)에 수록되어 일본에서 간행되었으며, 1994년에는 다른 논문 18편과 함께 『好太王碑新考』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비문 1,775자 중 1,622자를 판독하여 제시하였는데, 李進熙의 연구에서 검토한 석문 12종 외에, 또 王健群 석문(1984),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석문(1985), 다케다 석문(1988) 등 3종을 추가하여 총 15종의 석문을 검토하였으며, 원문을 ‘好太王碑集釋集解’ 부분에 수록하여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 집안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탁본 3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輯安縣志』 편찬 과정에서 1928년을 전후하여 제작한 탁본(呂耀東 기증),

53) 耿鐵華, 2003, 앞의 책, 248쪽.

북한과의 공동 조사 일환으로 1962년 9월에 張明善이 제작한 탁본, 王健群 조사에 협조하여 1981년 7월에 周雲台가 제작한 탁본이 그것이다.

이어서 2003년에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를 펴냈는데, '第5章 好太王碑文字現狀' 부분에서 비문 1,775자 중에 8.45%에 달하는 150여 자가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비문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였다. 또 '第7章 好太王碑文識讀的前景'에서는 석문 약사를 소개하고, 그동안 제기되어온 각 문자별 대표적인 판독 견해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책 말미에 부록으로 중국 학계의 대표 석문인 王健群 석문(1984), 朴眞奭 석문(1993) 및 耿鐵華 석문(1994)을 첨부하였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탁본 판본 연구⁵⁴⁾와 훼손된 부분의 비문 추독을 검토하였으며,⁵⁵⁾ 새로운 탁본 발굴과 연구⁵⁶⁾에 주력하는 등 현재 중국 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근년에 새롭게 발굴해낸 '通化師範學院藏好太王碑拓本'은 연구 가치가 높은 灰前 초기 판본으로서 2014년 7월에 고구려발해학회에서 개최한 '고구려 세계유산 10년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직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여기서 지면을 할애해 일부 부연 설명을 붙여보고자 한다.⁵⁷⁾

(1) 취득 및 감정

이 탁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통화사범학교(通化師範學院) 교수인 耿鐵華와 학교 산하 연구기관인 高句麗研究院 원장인 李樂營이 학교 명의로 구입(徵集)한 것이다. 발견한 구체적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전후

54) 耿鐵華, 2002, 「好太王碑拓本收藏著錄及其年代」, 『社會科學戰線』第1期; 耿鐵華, 2006, 「潘祖蔭藏好太王碑早期拓本芻議」, 『東北史地』第4期; 耿鐵華, 2008, 「李雲從與好太王碑捶拓」, 『東北史地』第4期; 耿鐵華, 2014, 「關於好太王碑拓本的幾個問題—紀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師範學院學報』3月號.

55) 耿鐵華, 2008, 「好太王碑釋文補字略說」, 『通化師範學院學報』第9期.

56) 耿鐵華, 李樂營, 2014, 『通化師範學院藏好太王碑拓本』, 吉林大學出版社.

57) 이 부분의 내용은 耿鐵華, 李樂營, 2014, 위의 책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대개는 2012년 초를 전후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소장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6월 29일에 통회사범학원 高句麗研究院에서 ‘紀念高句麗好太王逝世1600周年學術研討會’를 개최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張福有, 劉厚生, 王綿後, 梁志龍, 孫仁傑 등 중국의 고구려 연구자들에게 탁본을 공개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종합되는데, 첫째, 탁본이 완정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종이 재질, 먹 흔적 및 제작 방식 등으로 미루어 석회 도포 이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제1면의 단열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데, 폭이 좁고 변두리가 선명하다.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신묘년조 기사 등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光緒末年 탁본의 특징이기도 하다. 셋째, 사용한 皮紙 연결 부분의 흔적이나, 사용한 종이 매수 등은 모두 비교적 이른 시기 탁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2013년 5월에 집안고구려비 연구 때문에 집안에 방문하였을 당시 耿鐵華 선생이 광개토왕비 신 탁본을 입수하였고, 연구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5월에 이르러서야 단행본으로 공개되었으며, 국내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7월에 소개되었다.

(2) 탁본 상태

탁본 재질은 皮紙이며 색상은 灰黃色에 가깝다. 비면 1면당 2매씩 총 8매로 나뉘져 있다. 2012년에 표구하였으며, 접혀서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도 하였다. 보수과정에서 탁본 변두리에서 섬유재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선 시기 발견된 탁본에서 사용한 종이와는 다른 재질이었다.

표구 후 탁본 실측 크기는 <표 4>와 같다.

앞서 여러 소장자를 거치면서 일부 자의적으로 재단한 흔적이 발견된다. 3면 제1행의 대부분이 잘려진 상태인데, 아마 이전 소장자가 이 행에 문자가 없으므로 재단하였던 것 같다.

(표 4) 표구 후 탁본 실측 크기

(단위: cm)

위치		길이	윗부분 넓이	아랫부분 넓이
제1면	상부	294	147	155
	하부	272	148	145
제2면	상부	290	110	128
	하부	284	132	136
제3면	상부	292	181	188
	하부	272	179	193
제4면	상부	280	110	125
	하부	283	129	124

이끼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석 훼손 상황이 이 탁본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후대의 탁본에 비해 단열 면적이 비교적 작으며 훼손된 비문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초기 탁본의 특징이기도 하다.

(3) 탁본 제작 연대

跋文이 없으므로 정확한 제작연도 내지는 최초 소장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몇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대략적인 연대를 추정해볼 수는 있다.

첫째, 이 탁본에 사용된 종이와 먹이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초기 탁본 형태와 일치한다. 그 제작연대는 완정본이 제작된 광서 6년(1880)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이 탁본의 문자 자형에서 초기 탁본의 특징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석회 도포 이후의 탁본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석회 도포 시점과 관련해서, 미즈다니 데지로[水谷悌二郎]의 1889년설과 李進熙의 1900년설이 있는데, 후자가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탁본 제작연대 하한을 1900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탁본이 탁공 경로 조사를 통해 집안 현지 拓工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탁본에 사용된 종이나 먹의 품질이 좋지 못하며, 탁본 기술도 정교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는 初天富가 북경의 李大龍 등으로부터 탁

본 기술을 습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대략 1889년 전후로 짐작된다.

이 탁본은 2014년에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을 기념하여 탁본집으로 출판·공개되었는데,⁵⁸⁾ 2013년에 출간된 『集安高句麗碑』와 마찬가지로 吉林大學出版社를 통해 발행되었으며, 판형이나 편집체계 또한 비슷하다.

1장, 3장에서는 탁본 발견경위, 상태, 제작연대 추정 등 내용을 다루었다. 2장, 4장 부분에서 새 탁본과 기존 여러 탁본의 비문을 비교하여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몇몇 비문에 대한 석문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저자의 앞선 주장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나 1-9-13의 문자를 ‘海’가 아닌 ‘每’로 판독함으로써 앞의 주장을 이어갔다. 탁본 8매(2매×4면)와 사진 자료를 수록하고, 다시 한 페이지당 비문 8자씩 나누어 확대 수록하였으며, 그 밑에 해서체로 석문을 붙였다.

그 외 2000년대에 들어서 金在善,⁵⁹⁾ 張福有,⁶⁰⁾ 徐德源⁶¹⁾ 등도 비문 해석을 시도하였으나 아주 간략할뿐더러 앞선 시기의 연구를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徐德源의 글에서는 ‘城’과 ‘鴨盧’ 등 일부 관심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문단 나누기와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어 연구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탁본 판본 발굴과 연구 분야에서 대해 언급해보자면, 우선 주목되는 학자로는 臺灣大學의 高明士와 中國社會科學院的 徐建新을 손꼽을

58) 耿鐵華, 李樂營, 2014, 앞의 책.
 第一章 通化師範學院藏好太王碑拓本概況
 第二章 拓本上的文字與說明
 第三章 拓本的年代
 第四章 好太王碑文字新釋
 第五章 關於好太王碑拓本
 好太王碑及其拓本
 好太王碑拓本文字編排本

59) 金在善, 2003, 「好太王碑文研究」, 『宜賓學院學報』第2期.

60) 張福有, 2003, 「好太王碑雜識及碑文考箋」, 『學問』第10期.

61) 徐德源, 2008, 「好太王碑銘文選釋選考」, 『遼寧大學學報』第1期.

수 있다.

高明士는 隋唐시대 동아시아관계사·문화사 전공자로서, 이른 시기부터 한·중·일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1980년대부터 타이완에 소장되어 있는 탁본 조사와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까지 꾸준한 연구를 통해 타이완에서 확인된 여러 탁본 판본을 학계에 널리 알렸다.⁶²⁾

그가 발굴 및 확인한 탁본은 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傅斯年圖書館 소장본 2종(傳館 甲, 乙本), 臺灣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 2종(國館 甲, 乙本), 庄嚴 개인 소장본 1종(庄嚴本) 등 총 5종이다. 이 중 傳館 甲, 乙本은 灰前本이고, 나머지 3가지는 이른바 석회탁본이다. 또 傳館 乙本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그 연구 가치가 水谷本보다 높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⁶³⁾

高明士는 단순히 탁본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자세한 검토를 통해 탁본 제작연대, 각 탁본의 특징과 학술적 가치 등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였다. 특히나 傳館 甲, 乙本 제작 시기를 1887~1892년 사이로 추정함으로써 그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들 탁본은 다케나가 펴낸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1988)에 수록되었으나, 중국 연구자들의 경우 실물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 향후 타이완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⁶⁴⁾

徐建新은 여타 중국학자들과 달리 일본 明治大學에서 일본고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1년 5월부터 北京, 天津, 南京 등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광개토왕비 탁본 28종을 비교·검토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原石拓本’⁶⁵⁾ 발굴과 탁본 판본 연구에 주력해왔다. 그는 ‘王少箴舊藏原石拓整本(王

62) 高明士의 대표 논저로는 「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1983), 「訪勞貞一院士談高句麗好太王碑」(1983), 「〈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補述」(1984), 「台灣的好太王碑拓本以及碑文研究」(1996),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藏高句麗好太王碑乙本原石拓本的史學價值」(1999) 등이 있다.

63) 高明士, 1983, 「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 『韓國學報』 第3期, 34쪽.

64) 耿鐵華, 2003, 앞의 글, 252쪽.

65)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徐建新은 석회 도포 이전의 초기 탁본에 대해 일본학계에서 관용되고 있는 이른바 ‘原石拓本’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중

氏藏本)’에 대한 연구 성과를⁶⁶⁾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후 ‘北京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拓整紙本’,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拓整紙本(北京大學A本)’,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分段拓出本(北京大學B本)’,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分段拓出本(北京大學C本)’,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分段拓出本(北京大學D本)’, ‘1884年潘祖蔭藏本’ 등 총 7종의 탁본을 발굴 및 연구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徐建新的 연구에 따르면, 王氏藏本은 1882~1890년에 제작된 석회 도포 이전의 원석탁본이며, 북경도서관소장본도 유사한 형태의 이른 시기 탁본으로서 타이완의 부산도서관소장본 乙本과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북경대학소장본들은 제작 시기가 좀 늦어 다른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이들 역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1889년에 李龍(李雲從)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에 경매시장에서 발견한 ‘1881年潘祖蔭藏本’은 懷仁縣 章樾이 지인인 李超□(李超琮)에게 2부를 증정하였고, 李超□이 다시 李泓齋(李泓齋)에게 전달하였으며, 李泓齋가 그중의 한 부를 潘祖蔭에게 증정한 판본으로서 1883년에 일본으로 가져간 ‘酒匂景信本’ 보다 이른 시기인 1881년 전 후에 제작되었다. 이 탁본은 비문 판독에 중요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葉昌熾, 이홍경과 같은 초기 기록자들의 발제문은 비석 발견 초기의 여러 상황들을 짐작케 한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이 탁본을 낙찰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재파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⁶⁷⁾

徐建新이 발굴하여 공개한 이상의 탁본들은 사실상 일부에 불과하며, 중국

국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전통시대부터 ‘原石拓本’이란 비석 자체가 사라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현재 광개토태왕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적절치 못한 용어라는 것이다. 耿鐵華, 2003, 앞의 글, 261쪽.

66) 王培眞, 徐建新, 1993, 「好太王碑原石拓本的新發現及其研究」, 『世界曆史』 第2期.

67) 耿鐵華, 2006, 앞의 글, 17쪽.

내에 아직 미공개 탁본이 더 존재하는 바 현재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⁶⁸⁾

徐建新은 2006년에 앞선 시기 연구를 집대성하여 일본에서 『好太王碑拓本の研究』(2006)을 펴냄으로써 그동안의 성과를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 책에는 중국의 광개토태왕비 연구사, 초기 탁본 제작과 유전 연구, 1881년 반조음소장본 연구, 초기탁본 제작, 원석탁본과 석회본에 대한 연구, 탁본 편년 연구 등 앞선 시기 핵심 연구들이 수록되어 있다.⁶⁹⁾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 연구자 7명의 탁본 편년법을 종합 검토하여 「高句麗好太王碑拓本的分期與編年方法」(2009)을 발표함으로써 현전하고 있는 다양한 판본의 탁본의 제작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徐建新은 일본 유학 출신으로서 대부분 중국학자들과는 학문적 배경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자료 중심의 접근이 많으며 논리적 구성이 치밀하여 경청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외 大連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이 새로 공개되었으나,⁷⁰⁾ 耿鐵華가 2012년에 발굴해낸 ‘동화사범학원소장본’과는 달리, 1926년을 전후하여 제작된 석회본, 즉 탁본이 대량으로 제작되던 시기의 것이므로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68) 耿鐵華, 2012, 앞의 글, 10쪽.

69)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1章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說

第2章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の製作と流伝(一八八〇~一八八八年)

第3章 一八八一年旧藏本の発見とその基礎的調査—兼ねて“酒匂本改ざん説”の問題を論ず

第4章 高句麗好太王碑の初期拓本製作者李雲從考

第5章 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

第6章 好太王碑初期石灰拓本の研究

第7章 好太王碑石灰拓本の編年

70) 韓辰飛, 2013, 「大連圖書館館藏《好太王碑》拓本釋讀與鑒定」, 『圖書館學刊』第5期.

탁본 연구에 관한 중국학계의 시대적 연구경향의 변화나 흐름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보자는 대개 다음과 같다. 1980~1990년대 앞선 시기 석문과 탁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석문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돌파 대안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새로운 탁본의 발굴에 노력을 기하였으며, 새로운 탁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선 시기 석문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그러한 탁본 발굴 작업이 최근까지 이어져 1881년 潘祖蔭 소장본이나, '통화사범학원소장본' 같은 의미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광개토왕비 연구를 위한 학문적 토대가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

석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초기 금석문 학자들의 석문과 일본, 북한의 대표 석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비문 해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광개토왕비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석문 연구는 몇몇 소수 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절에서 언급한 王健群, 方起東, 朴眞奭, 耿鐵華의 석문은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석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모든 연구에서 이들의 석문을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王健群과 方起東 두 학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朴眞奭 선생은 연로하여 학계 활동이 드물다. 耿鐵華 선생만이 최근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중국학계의 관련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탁본 판본 연구는 高明士와 徐建新이 주도해왔으나, 타이완의 高明士는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별반 연구성과를 내지 못한 데 비해 徐建新의 연구가 돋보인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중국의 광개토왕비 석문과 탁본 연구는 耿鐵華와 徐建新 2명의 연구자가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사실 이들 두 선생의 연배가 낮지 않음에도 후속 연구자들이 거의 없는데, 중국 학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⁷¹⁾ 즉,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학설이나

71) 耿鐵華, 2012, 앞의 글, 15쪽.

견해가 단일한 데다가 그 연구층마저 고갈 및 단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 쟁점기사 검토

중국 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미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여러 쟁점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⁷²⁾ 또 적극 동참해왔다. 본 소절에서는 이들 몇몇 쟁점 사항에 대한 중국 학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석회도포 변조설

석회도포 변조 여부 확인을 위해 1981년에 王健群과 方起東 두 학자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인근 주민, 그리고 初天富⁷³⁾ 후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서 林至德의 조사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⁷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사를 통해 初天富와 初均德이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비문을 다시 새길 때 사용한 底本인 ‘碑文底子’를 그 후손인 初文泰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점이다.⁷⁵⁾

그는 또 李進熙가 제기한 ‘석회도포작전’의 논리적 허점들을 자세히 비판하고 당사자가 初天富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일일이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初天富가 석회를 도포한 목적은 결국 원료를 절감하고 금석문 애호가들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탁본을 제작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결론지었다.⁷⁶⁾

王健群의 이 연구는 석회도포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한·일

72) 劉永智, 1983, 「關於好太王碑爭論的問題」, 『東北史研究』第1輯; 王健群, 1985, 「和好太王碑研究有關的幾個問題」, 『博物館研究』第1期.

73) 關野貞의 조사에서는 ‘初鵬度’(關野貞, 1914, 앞의 글)라고 하였으나 王健群은 현지 조사를 통해 ‘초봉도’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비석 탁본 작업을 해온 인물이 初天富, 初均德 부자임을 확인하였다. 王健群, 1984, 13~14쪽. 그후 광개토왕비 초기 탁본 제작자로서 초씨 부자에 관한 사적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範犁, 楊春吉, 「初氏父子與好太王碑」, 『新文化報』, 1997. 9. 5.

74) 인터뷰 내용은 『好太王碑研究』(1984), 15~21쪽에 수록되어 있다.

75) 王健群, 1984, 앞의 책, 18쪽.

76) 王健群, 1984, 위의 책, 34쪽.

학계 논쟁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初天富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이어서 耿鐵華는 석회도포 문제를 놓고 전개된 한·일 학계의 논쟁 및 王健群의 관련 연구를 자세히 소개하고, 나아가 清末~民國 초년 집안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당시 외국인 出入境 관리가 삼엄하여 이른 ‘석회도포작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⁷⁾ 하지만 耿鐵華는 初天富에 의한 석회 도포를 전제하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王健群과는 달리 初天富가 단순히 탁본의 편의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석회를 발랐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석회 도포 자체가 힘든 일이고, 석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만큼 王健群이 제시한 ‘원료 절감’이란 목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석회도포가 이루어질 무렵 금석문 수집가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 판본의 탁본을 소장하고 있었고, 일개 농부가 어설픈 조작해서 금석문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王健群이 발견한 ‘碑文底子’를 서예 전문가에게 가져가 감정을 받아본 결과, 필법이 유창하고 字體가 정연하여 初天富와 같은 일개 농부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耿鐵華는 이 저본은 일본인이 쓴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어서 그는 20세기 초 일본 학자들의 행적과 남긴 사진 등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初天富에게 석회도포를 지시 내지는 사주한 주체로 일본을 지목하였다. 구체적으로 1905년 집안에 다녀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혹은 1907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토 코지로[内藤虎次郎] 소장 사진의 촬영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석회 도포 목적은 당시 빈번한 탁본으로 검게 변해버린 능비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비문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⁷⁸⁾

77) 耿鐵華, 2003, 앞의 책, 106~130쪽.

78) 耿鐵華, 2003, 위의 책, 142~147쪽; 耿鐵華, 2014, 「好太王碑研究130年—紀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師範大學 歷史與地理學院 好太王碑1600周年 紀念 발표회, 30쪽.

하지만 耿鐵華 역시 初天富가 석회를 발라 비문을 임의로 조작하였음을 인정한다. 初天富가 이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비석이 훼손됐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비문을 새로 새겨 탁본하였다는 것이다.⁷⁹⁾ 그 후 孫仁傑도 비석 훼손에 대해 다루면서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다.⁸⁰⁾

탁본연구에 주력해온 徐建新은 새로 발굴해낸 초기 탁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酒匂景信本の 신묘년조 기사 부분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⁸¹⁾ 또 석회도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1881년에⁸²⁾ 제작된 초기판본인 반조음소장본이 2003년에 발견되었는데, 徐建新은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酒匂景信本에서 수정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른바 ‘비문변조설’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⁸³⁾ 酒匂景信本에서 변조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그 뒤에 이어진 이른바 ‘석회도포작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시기 王健群이 현장 조사와 初天富 후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석회도포 실체를 밝힌 데 이어 새로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학계의 기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석회도포와 비문변조의 주체가 일본임을 주장하려는 한국학계 일각의 주장과는⁸⁴⁾ 대조를 이룬다. 또 중국학자들이 보인 학문적 접근과는 달리 한국학계에서는 새롭게 진전된 연구나 근거 자료가 없이 막연히 앞선 시기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79) 耿鐵華, 1990, 앞의 글.

80) 孫仁傑, 2003, 앞의 글.

81) 徐建新, 1994, 「北京收藏的好太王碑原石拓本及其意義」, 『日本明治大學 國際交流基金事業招請 外國人研究者講演錄』 第2號.

82) 李進熙의 주장에 따르면 1차 석회 도포는 1883년 전후에, 2차 석회도포는 190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83) 徐建新, 2005, 앞의 글, 172쪽.

84) 이형구, 2014, 「기조강연」,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겨레일살리기국민운동본부.

(2) 신묘년조 기사와 ‘왜’의 실제

석회도포 논쟁과 연관되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어온 부분은 바로 신묘년조 기사이다. 석회 도포 음모론이 제기된 것도 사실은 일본이 탁본을 입수하고 나서 실제로 비문에 등장하는 ‘왜’와 한반도의 관계를 곡해하여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이다.

신묘년기사 논쟁의 핵심은 결국 1면 8~9행의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 문단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渡海破’의 주어 설정 문제이다. 초기 금석문 학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왜’를 주어로 하여 문장을 해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劉節의 석문을 들 수 있다. 그는 문장을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 □□□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伐殘國”으로 나누고, 신라와 백제가 왜에 附庸하였으므로 광개토왕이 두 나라를 함께 정벌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⁸⁵⁾ 사실 후대 중국학자들도 朴眞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해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1980년대에 이르러 신묘년조 기사 논쟁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학자는 劉永智이다. 그는 1950년대 이래로 정인보나 박시형 등이 제기한 ‘渡海破’의 주어가 고구려라는 주장과 李進熙의 비문변조설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문 앞뒤의 내용을 살펴 다음과 같이 문단을 나누어 이해하였다.

문단1: “百殘, 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문단2: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 □□□羅, 以爲臣民.”

문단3: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利殘國.”

즉,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 내지는 조공무역 관계에 있었으나,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두 나라를 쳐서 강제로 ‘신민’으로 삼았으므로, 당시 동쪽으로는 확장을 꾀하던 광개토왕이 곧 東進의 가장 큰

85) 劉節, 2004(1928), 앞의 글, 33~34쪽.

걸림돌인 백제를 정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가 아니라 백제를 공격한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갈등관계에 있었고, 또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왜와 결탁하였다는 명분을 앞세워 먼저 백제를 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⁸⁶⁾

이어서 정정보가 발표한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白樂濬博士還曆紀念國學論叢』, 1955)에 대한 평가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기도 하였다.⁸⁷⁾

비슷한 시기 朴眞奭도 신묘년조 기사에 관심을 보였는데, 앞의 劉永智와는 달리 남북한 학계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는 신묘년조를 중요한 고대 朝(韓)日關係 자료로 보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신묘년’의 정확한 연도 파악을 시작으로 일본 학자들이 제기한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이른바 ‘동설’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짚어 비판하였다. 또 박시형과 마찬가지로 ‘渡海破’의 주어를 ‘왜’ 보다는 ‘고구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劉永智와 달리 문단을 “百殘, 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高句麗)渡海破(倭). 百殘□□□(聯侵新)羅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伐殘國”으로 나눈 박시형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어서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한반도남부경역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왜의 발전과 실체를 살펴, 4~5세기 왜는 산만한 ‘小國’에 불과하였으므로 神功皇后 시기 三韓을 정벌하여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⁸⁸⁾

그 후 또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정하였으며,⁸⁹⁾ 특히 1986년에 일본 학자 후루다 다케히코[古田武言]가 『三國志』에 수

86) 劉永智, 1981, 「好太王“辛卯年”記事初探」, 『學術研究叢刊』第2期.

87) 明智, 1984,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初評」, 『學術研究叢刊』第1期.

88) 朴眞奭, 1981, 「試論廣開土王碑文的“辛卯年記事”」, 『朝鮮史通訊』第3期.

89) 朴眞奭, 1987, 「關於任那日本府的存在與否問題」, 『朝鮮歷史研究論叢』第1期;

朴眞奭, 1989, 「好太王碑文中的任那日本府的存在與否問題」, 『歷史科學』第1,

록되어 있는 왜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제기한 이른바 한반도 내 ‘倭地’설⁹⁰⁾을 비판하였다.⁹¹⁾ 그는 후루다가 인용한 ‘倭地史料’를 일일이 검토하여 이들 사료에 등장하는 ‘왜’의 실체는 작은 島國에 불과하며, 한반도 남부를 경영할 만큼 성장해 있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古田武言 또한 재반론을 제기하여⁹²⁾ 논쟁을 이어갔다.

朴眞奭은 신묘년조 기사, 임나일본부에 관한 그동안의 논저들을 모아 1993년에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를 펴냈으며, 1999년에 출판한 『高句麗好太王碑研究』에서도 9장, 10장 두 개 장을 할애하여 ‘倭地’ 실재 여부를 둘러싼 古田武言과의 논쟁을 다뤘다.

1984년 王健群의 저서에서도 이 문제를 능비를 둘러싼 여러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第5章 2節 六年丙申,⁹³⁾ 八年戊戌條考釋’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문장을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라고 나누었는데, 앞의 劉永智의 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어서 ‘임나일본부’ 주장의 저변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비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일각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정인보의 학설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하였다. 다만 북한학계나 朴眞奭의 비슷한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王健群은 비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신묘년조 논쟁의 핵심은 결국

2期.

- 90) 古田武彦, 1986, 「好太王碑の史料批判－共和国(北朝鮮)と中国の学者に問う」, 『昭和薬科大学紀要』 20.
- 91) 朴眞奭, 1989, 「關於朝鮮半島內的倭地說－與古田先生商榷」, 『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 92) 古田武彦, 1990, 「「倭地」の史料批判－朝鮮半島内の「倭地」に関し, 中国, 延辺大学の朴ジンソク氏の批判論文に答える」, 『昭和薬科大学紀要』 24.
- 93)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辛卯年條’, ‘辛卯年句’, ‘辛卯年記事’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王健群은 ‘六年丙申’條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王健群, 1984, 앞의 책, 153쪽.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지적하면서 본격 이 학설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 그는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수록되어 있는 4~5세기 일본의 역사는 허구나 神話에 불과하므로, 그 기록과 광개토왕비의 내용을 연관시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神功皇后가 쉽사리 삼한 지역을 정복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성립하기 어려운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따라서 王健群이 주목한 광개토왕비에 등장하는 ‘왜’의 실체는 北九州 일대의 해적이었다.⁹⁴⁾ 다시 말해, 해적들이 한반도에서 노략행위를 하다가 광개토왕에게 수차례 격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문의 기록은 임나일본부의 실재를 입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러한 일본의 통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역설하였다.⁹⁵⁾

이어서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의 王仲殊가 1990년 3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5世紀爲中心的國際東亞古代史討論會”에서 ‘신묘년조’ 기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이듬해에 같은 글을 중국의 대표적인 고고학 학술지인 『考古』에 게재하게 된다.⁹⁶⁾

王仲殊는 후속 연구에서 여전히 문장 나누기에 초점을 맞춰 앞서 주장한 ‘來渡海’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는 ‘來渡’로 붙여 하나의 동사로 이해한 武田幸男의 견해에 동조를 표하면서, 또 『抱朴子』를 비롯한 3~6세기 고문헌 속에서 비슷한 용례들을 다수 찾아내 위진남북조시대에 문헌에서 그러한 표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⁹⁷⁾

다음으로 耿鐵華 역시 1990년대 초반에 신묘년조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문장의 주어 설정에 대해서는 여타 중국학자들과 다르지 않았으나, 1-9-13자는 ‘海’가 아닌 ‘每’⁹⁸⁾로 판독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비문을

94) 王健群, 1985, 「好太王碑文中“倭”的實體」, 『博物館研究』 第3期.

95) 王健群, 1984, 앞의 책, 147~163쪽, 181~184쪽.

96) 王仲殊, 1990, 「關於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 『考古』 第11期.

97) 王仲殊, 1991, 「再論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 『考古』 第12期.

98) 새로 발굴해낸 탁본 釋文에서도 1-9-13자를 ‘每’로 판독하였다. 耿鐵華, 李樂營, 2014, 앞의 책, 20쪽.

“倭以辛卯年來渡，每破百殘，□□新羅，以爲臣民”으로 나누어 왜가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백제와 신라를 침공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던 것이다.⁹⁹⁾

이어서 비문에 등장하는 ‘왜’의 실체를 다뤘는데, 그동안 제기되어 온 北九州 지역 倭政權이 파견한 군대라는 학설, 大禾政權을 중심으로 한 왜 연합군설, 해적집단설 등에 대해 소개하고, 당시 주변상황이나 빈번한 전쟁과 규모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적어도 ‘왜’를 해적집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倭國의 이익을 대표한 군사집단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⁰⁰⁾ 傅朗雲도 이 설에 동조하여 王健群의 ‘해적설’을 부정하였다.¹⁰¹⁾

그 외 어법에 기초하여 신묘년조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¹⁰²⁾ 앞의 연구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최근 들어 李德山이 ‘왜’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나름 색다른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앞선 시기 津田左右吉, 佐伯有清, 古田武彦, 박시형, 王健群, 朴眞奭, 耿鐵華 등의 대표적인 학설을 검토하여 이와는 다른 이름대로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왜’는 특정 정권의 군사나 해적집단이 아니라, 일본열도 내 정치·군사·경제적 투쟁에서 실패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한반도로 이주한 이민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집거지가 바로 ‘倭地’라고 하였다.¹⁰³⁾ 이는 앞서 朴眞奭이 극력 비판하려고 하였던 한반도 내 이른바 ‘왜지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보자면, 대부분 중국학자들은 신묘년조 기사를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朴眞奭을 제외하고는 모두 ‘渡海破’ 주어를 ‘왜’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해외식민지를 건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

99) 耿鐵華, 1992, 「好太王碑“辛卯年”句考釋」, 『考古與文物』第4期.

100) 耿鐵華, 2011, 「好太王碑辛卯年條與相關問題」, 『社會科學戰線』第11期.

101) 傅朗雲, 1996, 「〈好太王碑〉所載相關問題的思考」, 『社會科學戰線』第4期.

102) 劉子敏, 1994, 「關於好太王碑“辛卯”句的語法分析」, 『延邊教育學院學刊』第1, 2期.

103) 李德山, 2011, 「再論好太王碑之“倭”」, 『社會科學戰線』第5期.

러, 그러한 해석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표방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나, 비문 자체를 곡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劉永智의 평가가¹⁰⁴⁾ 사실 신묘년조 기사에 대한 대부분 중국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서는 비판적인 언급이 거의 사라져 초기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4)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 사회성격과 수묘인

수묘인에 주목하여 비교적 자세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王健群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절을 할애하여 전문 수묘인 문제를 다뤘다. 그는 우선 수묘인연호 매매 금지 문구에 주목하여 新·舊民을 막론하고 수묘인은 곧 노예 집단이고, 당시 노예 매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문의 수묘인연호 매매금지는 왕실에 소속돼 있는 노예에 대한 금지조항일 뿐, 여타 노예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또 노예 매매의 보편적인 존재와 수묘인 규모로 미루어,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대량의 노예가 사용되었음을 시사해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왕건건은 앞선 시기 周一良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노예사회로 규정지었다.

이어서 王健群은 수묘제도에 대해 살폈는데, 수묘인 수와 관련해서 330가 전부를 광개토왕릉의 수묘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수묘인에는 國煙과 看煙 두 종류가 있으며, 신래한예(新來韓穢)나 舊民에 모두 이 두 부류의 수묘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국’과 ‘간’이라는 글자로 보나 배열순서나 1:10의 조합비율로 보나, 국연이 간연보다 조금은 월등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신래한예와 구민에 모두 국연, 간연이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으며, 구민은 단지 신래한예가 수묘법에 익숙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관련 법을 가르

104) 劉永智, 1983, 앞의 책.

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전쟁포로로 새로 끌려온 신래한예가 왕릉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여 구민을 배치하여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¹⁰⁵⁾

耿鐵華는 국연과 간연 두 부류 집단은 출자, 즉 거주 지역과 종사 직업이 다르다고 보았다. 국연 연호는 城民으로서 성읍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공업에 종사하던 수묘인을 말하고, 간연 연호는 谷民으로서 산지나 계곡에 거주하면서 농경·어렵에 종사하던 수묘인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연과 간연의 신분이 완전히 동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연이 조금 더 높은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대부분 잡역은 간연이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수묘인의 신분과 관련해서 앞선 시기에 제기된 노예설을 비판하였다. 그는 고구려 수묘인은 출신이 다양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農奴’로 볼릴 수는 있어도 노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¹⁰⁶⁾ 이는 저자가 고구려 사회 성격에 대해 앞선 시기 연구자들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이 글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中原과 慕容燕 등 북방 여러 나라의 문화가 고구려에 유입되어 陵寢制度, 수묘제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 당시로서는 앞선 연구에서 제기된 바 없는 급진적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耿鐵華의 이 논문은 1994년에 출판한 저서 『好太王碑新考』에 재수록되어 학계에 알려졌고, 1996년에 개최된 “광개토태왕비 연구 100년” 국제학술회의에서 叢文俊이 반론을 제기하였다.¹⁰⁷⁾ 이에 1999년에 耿鐵華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발표하게 된다.¹⁰⁸⁾ 다만 별다른 진전된 내용은 없고, 단지 제기된 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보충 설명하였을 뿐이다.

105) 王健群, 1984, 「有關守墓煙戶的幾個問題」, 『好太王碑研究』第5章, 吉林人民出版社, 192~197쪽.

106) 耿鐵華, 1988, 「好太王碑的國煙看煙及其身份問題」, 『求是學刊』第4期.

107) 叢文俊, 1996,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330쪽.

108) 範犁(耿鐵華), 1999, 「好太王碑文煙戶, 奴客諸詞語補釋」,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이 글의 저자는 ‘範犁’로 표기돼 있으나, 본문에 “拙著『好太王碑新考』” 등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耿鐵華가 지은 글로 짐작된다.

朴眞奭은 수묘인 신분에 초점을 맞춰 고구려 수묘제를 살폈다. 그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노예설, 양민설, 공노비(公奴婢)설 등을 소개하고 공노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즉 수묘인은 태왕릉에 얽매여 묘역 정비에 종사한 非 자유민으로서, 그들은 대를 이어 왕실에 소속된 일종의 왕실노비 내지는 공노비라는 것이다. 또 그들의 신분은 양민에 비해 비천하며 사회 최하층의 천민계급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매매의 주체에 대해, 수묘인을 직접 관리한 왕실 구성원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연과 간연은 큰 차별이 없는 집단이기는 하나 비문 서술 순서나 규모로 미루어 보아, 국연이 주도 지위에 있었고 간연이 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즉 국연 1가와 간연 10가로 하나의 작업팀을 구성하였으며, 태왕릉에 총 30개 작업팀을 배치하여 수묘역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⁰⁹⁾

수묘제에 관한 연구는 사회성격을 규정짓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결국 초기에는 수묘인을 노예로 보아 노예제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는 학설이 형성되었으나, 수묘인을 노예로 보기 어렵다는 여러 반론이 제기되면서 양민보다는 지위가 낮은 하층민 내지는 공노비로 보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국연과 간연을 출자가 다른 집단, 즉 성민과 곡민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고구려의 수묘제를 중원 문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2) 광개토태왕비 성격

1980년대 王健群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하지는 않았으나, 기공비(紀功碑)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는 ‘기공비’라는 유형의 비석 개념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만큼 공적을 언급하였다고 해서 기공비의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구검기공비 같은 경우가 전

109) 朴眞奭, 1998, 「關於好太王碑文中守墓人煙戶的身份」, 『朝鮮學·韓國學論叢』 (6), 延邊大學出版社. 이 글은 朴眞奭, 1999, 『高句麗好太王碑研究』 第12章, 325~342쪽에 재수록되어 있다.

형적인 기공비 성격의 비석이고, 광개토왕비는 비문에서도 “盡爲祖先王墓上立碑”라고 언급하였듯이 墓碑 혹은 陵碑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¹¹⁰⁾

본격적으로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논한 학자는 徐德源인데, 그는 앞선 시기 광개토왕비가 다양하게 호칭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석 건립 목적에 근거하여 그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우선 비문에 수묘제도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수묘 법규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석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석의 위치가 태왕릉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혹자 수묘인 집거구역 중심에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문에 공적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언급된 만큼 공적비로서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高句麗好太王勳績法典碑’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¹¹¹⁾

그 후 曹德全 또한 ‘수묘비설’을 수용하여 광개토왕비를 일종의 왕릉 묘역에 세워놓은 수묘법규를 명기한 비석으로 보았다.¹¹²⁾

耿鐵華도 徐德源의 주장과 비슷한데, 다만 ‘기공비’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다. 광개토왕 생전에 이미 비석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수묘연호의 差錯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銘記勳績, 以資後世”라고 한 비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신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 비석이 태왕릉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방향도 다르다는 문제점에 대해 徐德源과 마찬가지로 수묘제 법령을 새겨 수묘인 집거구역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¹¹³⁾

110) 王健群, 1984, 앞의 글, 191쪽.

111) 徐德源, 1997, 「高句麗好太王碑鑿立之原委與性質重探」,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112) 曹德全, 2001, 「“太王陵爲廣開土王墓”質疑」, 『高句麗史探微』, 中華國際出版社, 209~210쪽.

113) 耿鐵華, 2003, 앞의 책, 5~8쪽.

따라서 耿鐵華 역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 역시 '묘비'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일종의 기공비 겸 수묘비 성격의 비석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초기부터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다양하게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호칭 또한 다양하였다. 1980년대 王健群은 '묘비' 성격을 강조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수묘비' 겸 '기공비'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단지 수묘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기공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지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3) 건국신화

광개토왕비문은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건국신화' 문헌자료로서, 이 분야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王健群의 연구에서는 별도로 건국신화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第6章 好太王碑碑文譯注' 부분에서 비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신화 장면에 주석을 붙여 인명, 국명, 지명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폈다. 흥미로운 점은, 비문 첫머리의 "出自北夫餘天帝之子"를 "북부여천제의 이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석하고, 여기서 '北夫餘天帝'란 『三國史記』 기록의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解慕漱'라고 보았다는 것이다.¹¹⁴⁾ 이는 "북부여에서 나왔으며, 천제의 아들이다"라는 현재 보편적인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필자는 앞선 연구에서 집안고구려비문에 등장하는 '元王'의 실체에 대해 '解慕漱'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¹¹⁵⁾ 그렇다면 王健群의 이러한 해석도 다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朴眞奭은 비문 속 건국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화'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고구려 출자와 건국연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몽이 실재한 인물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朴眞奭은 주몽 출자를 검토

114) 王健群, 1984, 앞의 책, 203~204쪽.

115) 조우연, 2013,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169쪽.

함으로써 주몽이라는 인물에 의한 건국이 역사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¹¹⁶⁾

이어서 고구려 건국 시점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삼국사기』의 기원전 37년을 신뢰하면서 또한 문헌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건국 900년설에 대해 고구려 건국 이전에 이미 이른바 ‘高句麗小國’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된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¹⁷⁾

朴眞奭은 관련 내용을 「朱蒙王의出身及其建立高句麗的年代」(『高句麗好太王碑研究』 第2章, 1999, 33~55쪽) 부분에서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04년 趙玉敏이 발표한 「好太王碑載高句麗族源神話考」이다. 이 글에서는 비문에 등장하는 ‘天帝之子’, ‘生而有聖德’, ‘連葭浮龜’, ‘履龍首昇天’ 등 신화 모티프에 초점을 맞춰 고구려와 중원의 문화적 연관성을 살폈다.¹¹⁸⁾

(4) 지명

1996년에 傅朗雲이 비문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일부 간추려 정리하는 과정에서 ‘古地名與古民族’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¹¹⁹⁾ 다만 이 글은 소략한데다가 고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학술적 가치는 높지 않다.

이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徐德源은 비문에 등장하는 ‘來□城’, ‘彌鄒城’, ‘大山韓城’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지리적 위치를 각각 遼寧省 鳳城縣 경내, 인천 및 충남 鴻山으로 비정하였다.¹²⁰⁾ 비록 2쪽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기는 하나 앞의 傅朗雲과는 달리 여러 문헌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논거로 제시

116) 朴眞奭, 1989, 「好太王碑文中的朱蒙王及其出身」, 『朝鮮學研究』 第2期.

117) 朴眞奭, 1999, 「通過好太王碑看朱蒙建立高句麗國的年代」, 『延邊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118) 趙玉敏, 2004, 「好太王碑載高句麗族源神話考」, 『東北史地』 第10期.

119) 傅朗雲, 1996, 앞의 글.

120) 徐德源, 2004, 「好太王碑銘文三個地名今址考析」, 『東北史地』 第3期.

하였다.

張福有는 비문에 등장하는 ‘평양성(平壤城)’에 주목하여 그 실체를 살폈다. 그는 비문에 서로 다른 두 평양, 즉 ‘하평양(下平壤)’과 평양성이 확인되는데, 이른바 ‘하평양’은 압록강의 왼쪽(동쪽)에 위치하고, ‘평양성’은 압록강의 오른쪽(서쪽)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하평양’의 ‘下’는 방위(下=南)를 의미하므로, 이는 압록강 왼쪽, 즉 한반도에 있는 평양을 의미하며, 이 ‘평양’에는 ‘城’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성’의 위치는 지금의 集安 良民에 위치하는데, 문헌에서 확인되는 이른바 “國之東北大鎮” 新城이라고 보았다.¹²¹⁾

사실 앞서 王健群의 비문 역주(1984)에서 이 구절에 대해, “왕이 남쪽으로 평양에 행차하였다”로 해석하면서도, ‘하평양’이 지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¹²²⁾ 아마 이 언급이 이 글의 단초가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글에서 王健群의 견해를 참조하였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 1996년에 叢文俊의 연구에서는 ‘하평양’을 지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는데, 그는 무릇 도읍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을 모두 ‘내려가다(下)’로 표현한 만큼, 이 구절에서 ‘下’ 역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¹²³⁾ 하지만 이 주장 역시 張福有의 글에 언급되지 않고 있다.

(5) 기타(대외관계, 왕호)

梁啓政은 비문에 요동 관계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선 연구자들이 제시한 여러 설들을 살폈다.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첫째, 언급 기 피설(丁謙), 둘째, 對 요동 戰事 부정설(王健群), 셋째, 전과가 크지 않았거나 북연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이라는 주장(耿鐵華), 넷째, 후연의 지위가 높았으므로 요동 전과를 주요 공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주장(朴真奭) 등 4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광개토왕 당시 요동을 차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

121) 張福有, 2007, 「好太王碑中的“平壤城”考實」, 『社會科學戰線』第4期.

122) 王健群, 1984, 앞의 책, 215쪽.

123) 叢文俊, 1996, 앞의 글, 329쪽.

하면 王健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북한, 일본의 관련 주장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千寬宇를 일본학자로 소개하는 등¹²⁴⁾ 외국 연구에 대한 파악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羅新은 고구려 왕호제도에 대한 검토¹²⁵⁾를 심화시켜 비문의 고구려 왕호의 의미를 살폈다. 그는 漢代 이래의 격식화된 書面語를 통해 非한어권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여 그 속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는데, 당시 중원제국의 주변부에 해당하였던 고구려 역시 漢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중심을 자처하였다고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고구려식 書面語가 완성되는데, 왕호 속에 관련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비문에 기술되어 있는 광개토왕 왕호에 대해, 현전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왕호 기록으로 보고 그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는 일종의 복합적 성격의 호칭으로서, 왕릉 소재를 명시한 ‘國岡上’과 諡號 성격의 ‘廣開土境平安好’, 그리고 官稱을 나타내는 ‘太王’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 이 세 가지 속성은 서로 다른 의미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구려 官號 제도에 내륙아시아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傳統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¹²⁶⁾

羅新은 魏晉 시기 북방민족사 전공자로서, 비교를 통해 내륙아시아 민족과 고구려의 문화적 유사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고구려 전공자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특히나 그가 이 글에서 제시한 ‘중심-주변부’ 이론은 광개토왕을 전후한 시기 고구려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도이기도 하다.

124) 梁啓政, 2004, 「略述中外學者對好太王碑未記載好太王時期高句麗攻略遼東一事的研究」, 『東北史地』第6期.

125) 羅新, 2012, 「有關高句麗王號制度的幾點推測」, 『한국고대사연구』 67.

126) 羅新, 2013, 「好太王碑與高句麗王號」, 『中華文史論叢』第3期.

5) 서체 연구

1980년대 이후 段成桂가 처음으로 능비 서체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서예잡지에 발표한 1쪽 분량의 간략한 광개토왕비 소개에서 서체에 대해 대체적으로 해서와 비슷하면서도 또 예서와 닮아 있어 前秦의 「鄧太衛祠碑」나 「廣武將軍碑」의 서체와 흡사한 고풍스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¹²⁷⁾

서체에 대해 처음 자세히 논한 학자는 역시 王健群이다. 그는 1984년 자신의 저서에서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의 하나로 서체 문제를 다뤘다. 그는 우선 초기 금석문 학자들의 여러 설들을 검토하여 비판하였는데, 특히 鄭文焯이나 歐陽輔가 주장한 ‘八分隸體’, ‘眞書’설을 부정하였다. 그에 비해 榮禧나 顧燮光이 주장한 예서와 해서 사이라는 주장이 타당성 있기는 하나 엄밀히 따져 예서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았다. 또 한편으로, 많은 필획이 草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문의 서체는 전반적으로 예서체이나 거기에 초서체가 일부 가미된 형태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서 일부 글자를 예로 제시하고, 또 특이한 字形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¹²⁸⁾

그다음 羅繼祖와 叢文俊의 연구¹²⁹⁾에서는 고구려로 망명한 한족 출신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비문 찬술자가 한족 출신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다만 이 역시 고구려 문화의 범주로 이해해야 마땅하며, 사실 비문 書寫와 석각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대강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雙鉤式이 아닌 單線조각법으로 조각하였으며, 필획에 波挑나 蠶頭燕尾 등 기법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물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127) 段成桂, 1981, 「“好太王碑”述略」, 『書法』第3期.

128) 王健群, 1984, 「好太王碑的書體」,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7~201쪽.

129) 원래는 叢文俊이 단독으로 연구한 「試論好太王碑字體」라는 제목의 논저였으나, 羅繼祖에게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첨삭이 이루어지고, 제목 또한 「簡談好太王碑字體」로 교체되어 공동연구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서체는 전서, 예서, 초서, 해서체의 일부 특징들을 두루 갖고 있는, 이도저도 아닌 일종의 혼잡스러운 '雜體'인데, 구태여 명명하자면 예서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서체는 前漢 시기 일부 청동기나 석각의 기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데, 편벽한 변경 지대의 석각에 동시대 중원지역에서 유행한 세련된 서체가 등장할 리 만무하다고 하였다.¹³⁰⁾

이어서 1996년에 한국에서 발표한 글에서 叢文俊은 여전히 고구려 문화의 후진성을 전제로 석각 서체에 있어서 시대의 유행에서 뒤떨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른바 '舊體銘石書'로 완곡히 표현하였다. 당시 중원 지역에서는 이미 '石銘書'라고 불린 八分隸書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고구려는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구려의 지역적 한계와 폐쇄성과 연관이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 스스로가 옛것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북위가 전면적인 한화(漢化)를 택한 데 반해 고구려는 중원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중원 지역에서 유행한 서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비문에서 옛 석각 서체(이른바 '舊體銘石書')를 따른 것은 결국 고구려인들의 '선택'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¹³¹⁾ 이는 입비를 전후한 시기, 당시 북방왕조의 '유행'보다는 '고전으로의 회귀'¹³²⁾를 지향하였던 고구려 思潮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또 고구려 서체의 '낙후성'은 결국 '한화' 정도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평양천도 이후 '한화' 속도가 더 늦춰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문에 능한 소수 한족 엘리트 집단만이 구상한 한자문화를 가지고 사회의 보편적 문화수준을 논하기 어렵다고 하여 우회적으로 고구려 사회의 '후진성'을 역설하였다.¹³³⁾

130) 羅繼祖, 叢文俊, 1986, 「簡談好太王碑字體」, 『博物館研究』 第1期.

131) 叢文俊, 1996, 앞의 글, 346~347쪽.

132) 필자는 集安高句麗碑文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개토왕을 전후한 시기 '古典으로의 회귀' 사회적 풍조가 감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우연, 2013, 앞의 글.

133) 叢文俊, 2004, 「好太王碑書法及其相關問題略論」, 『東北史地』 第1期, 52~53쪽.

탁본 전문가인 周榮順은 초기 금석문 연구자들의 서체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입비 당시 중국 석각의 전개를 살펴 광개토왕비 서체 나름대로의 특징을 종합해냈다. 또 그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비문의 서체를 秦·漢 시기 예서체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方正類隸書’로 명명하기도 하였다.¹³⁴⁾

李樂營은 비문 서체를 ‘古禮體’로 보고, 옛 서체를 선택한 것은 문화적인 낙후성보다는 비석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중국 북방 소수민족이었던 고구려는 남·북방의 문자문화를 널리 수용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¹³⁵⁾ 저자는 고구려 종교 전공자로서, 이 글에서 서체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증원문화의 수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에 서예 평론가 陳仲明과 화가 王純信 사이의 비문 서체를 둘러싼 간략한 논쟁이 신문지면을 통해 이루어졌고, 스스로 號를 ‘高句麗人’이라고 칭한 吉林省 출신의 서예가 秦維國 또한 여러 신문에 비문 서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¹³⁶⁾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광개토왕비 서체를 소개한 글 몇 편이 신문잡지에 발표되었다.¹³⁷⁾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러한 글들은 간략한 소개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술사적 의미는 크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문 서체 연구에서 유형 규명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중국문화의 수용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를 전개한 叢文俊의 연구가 시사해주는 바가 큰데, 필자는 ‘선택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비문의 ‘古典的’ 서체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34) 周榮順, 1993, 「好太王碑書法淺談」,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35) 李樂營, 1996, 「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 『通化師院學報』第1期.

136) 陳仲明, 1990, 「粗獷雄渾的高句麗書法」, 『書法報』; 王純信, 1990, 「高句麗, 高麗及〈好太王碑〉—兼與陳仲明先生商榷」, 『書法報』; 秦維國, 1991, 「刻在“關東第一石”上的珍貴曆史和書法」, 『聯合早報』(싱가포르); 秦維國, 1991, 「好太王碑及其書法藝術」, 『商報』(필리핀); 秦維國, 1992, 「好太王碑筆法淺談」, 『企業文化報』.

137) 丁一, 2005, 「“渾穆高古, 迥異流俗”—秦維國太王碑體書法藝術賞析」, 『新長征』第20期; 鄭志剛, 2008, 「〈好太王碑〉紫氣深吞心似海, 甘霖飽飲體如鯨」, 『青少年書法』18期.

6) 기타

이 절에서는 초기 연구자에 관한 언급, 유적 소개 및 보호, 연구 略史, 서평에 관한 글을 대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초기 금석문 연구자들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관한 언급

이 분야와 관련해서, 우선 주목된 인물은 葉昌熾인데, 그는 潘祖蔭의 제자로서 이른 시기부터 탁본을 접해온 인물이다. 그는 「奉天一則」(『語石』 卷2, 1901)의 저자로 유명하였으나, 2003년 새로 발견된 반조를 소장본 탁본에서 1884년에 그가 붙인 장편의 발문이 확인되면서, 가장 이른 시기 광개토왕비 연구, 나아가 고구려사 연구로 지목되고 있다.

1985년에 吳琦幸은 업창치를 중심으로 초기 탁본에 관여된 여러 인물들이 남긴 복잡한 언급을 검토하여 여러 사건의 시간적 선후순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¹³⁸⁾

그 다음 王健群의 申采浩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에서 선비족(燕) 정벌에 관한 언급이 비문에 등장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현장 답사를 근거로 제기한 '조작설'¹³⁹⁾을 비판하였다. 그는 신채호의 글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신채호가 비석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향간의 뜬소문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¹⁴⁰⁾

耿鐵華는 羅振玉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羅振玉은 중국 근대 유명한 금석문학자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 석문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 검토를 진행한 학자이기도 하다. 耿鐵華는 羅振玉의 석문 및 비문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好太王碑新考』(1994)를 통해 발표한 자신의 석문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¹⁴¹⁾

138) 吳琦幸, 1985, 「葉昌熾與好太王碑研究」, 『社會科學戰線』 第4期.

139) 신채호(박기봉 옮김), 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310~311쪽.

140) 王健群, 1986, 「申采浩對好太王碑的討論和他輯安紀聞」, 『博物館研究』 第3期.

141) 耿鐵華, 1997, 「羅振玉先生與好太王碑研究」,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

2008년에 李雲從의 精拓本 사진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서, 탁본 작업자 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탁공 李雲從의 행적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앞선 시기 李雲從이라는 인물에 관한 자료가 아주 소략하여 그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耿鐵華의 이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李雲從의 탁본 제작을 몇 번 다녀왔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어 왔는데, 耿鐵華는 ‘再往返’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2회에 걸쳐 탁본을 제작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최근에(2008년 전후) 北京, 石家莊, 長春 등지 경매시장에서 冊으로 裝訂된 雙鈎加墨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李雲從이 작업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¹⁴²⁾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현재 소재 파악은 어려우나, 아직 여러 초기 판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範犁, 楊春吉은 王志修의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 주석을 붙이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글이 詩歌 형태로 찬술되었기에 광개토태왕비 연구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사실 이 글에서 능비의 위치, 당시 외형, 비문 상태 등에 관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높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王志修의 글에 자세한 주석을 붙여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의 핵심 내용에는 耿鐵華의 주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어 연구사적 의미를 반감시킨다.

예를 들어, 王志修가 언급한 은나라 시조 설화와 주몽신화의 ‘卵’ 모티프의 유사성을 근거로, 고구려와 은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耿鐵華가 이른 시기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다. 그리고 王志修 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비문 발견연대를 둘러싼 논쟁에서 耿鐵華가 주로 王志修의 글에 근거하여 광서3년설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능비의 발견연대를 광서3년이라고 보고 있다.¹⁴³⁾

3. 哈爾濱出版社.

142) 耿鐵華, 2008, 앞의 글, 11쪽.

143) 範犁, 楊春吉, 1998, 앞의 글, 51~57쪽.

(2) 유적 소개

1958년에 新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중앙학술지인 『文物參考資料』(『文物』誌 전신)에 광개토왕비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가 게재되었다.¹⁴⁴⁾ 그 후, 1960~1970년대 학술 침체기를 맞아 한동안 언론이나 매체에 언급되지 않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다시 신문잡지에 간략한 글 몇 편이 소개되었다.¹⁴⁵⁾

그리고 2000년대에도 유적 소개 성격의 글이 신문잡지에 게재되었는데,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실도 언급되고 있다.¹⁴⁶⁾

(3) 연구 약사

그동안 진행된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사는 앞부분에서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연구사를 간략하게 언급한 글도 몇 편 있다. 1980년대에 李德山은 비석 발견초기 연구, 1930년대 일본의 연구,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연구, 해방 후 중국의 연구, 북한의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연구 내용을 살피고 논쟁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다.¹⁴⁷⁾

1990년대 초에는 國家文物國에서 발행하는 중앙지인 『文物天地』에 연구 약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¹⁴⁸⁾ 2000년대 초, 祝立業은 발견시점, 초기탁본 제작과 流轉, ‘석회도포작전’, 신묘년조 기사 등 쟁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진행돼 온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¹⁴⁹⁾

그리고 耿鐵華도 능비건립 1590주년을 기념하여 유적 보호 현황, 석문과 탁본 연구 등 분야의 약사를 정리해 발표하였다.¹⁵⁰⁾

144) 張馭寰, 1958, 앞의 글.

145) 王健群, 1992, 「集安高句麗好太王碑」, 『中國文物報』; 王會庵, 1992, 「漫話〈好太王碑〉」, 『中國文物報』; 範犁, 楊春吉, 1996, 「好太王碑在集安」, 『新文化報』; 張世恩, 1999, 「目擊好太王碑」, 『書畫藝術』 第4期.

146) 常雅, 2009, 「“海東第一碑”好太王碑」, 『新長征(黨建版)』 第1期; 程遠, 2010, 「古城古碑與古刹」, 『東北史地』 第2期.

147) 李德山, 1989, 「好太王碑研究綜述」, 『古籍整理研究學刊』 第5期.

148) 錢星博, 1993, 「高句麗好太王碑研究概述」, 『文物天地』 第5期.

149) 祝立業, 2003, 「與好太王碑有關的幾個問題」, 『東北亞研究』 第4期.

150) 耿鐵華, 2005, 「好太王碑一千五百九十年祭」, 『中國邊疆史地研究』 第3期.

(4) 서평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서에 대한 서평과 책 소개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표적 연구서인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1984)에 대한 서평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간략한 책 소개 몇 편이 확인된다. 우선 1999년에 劉麗霞가 중국의 대표 연구서 세 권에 대한 소개를 발표하였는데,¹⁵¹⁾ 章節별 내용 소개와 더불어 말미에 간략한 평가와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 글에서는 朴眞奭의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1993)와 耿鐵華의 『好太王碑新考』(1994)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003년에 출판된 耿鐵華의 저서에서도 이들 세 저서의 내용을 축약하여 소개하였다.¹⁵²⁾

서평은 耿鐵華의 『好太王碑新考』에 관한 2편이 확인되는데,¹⁵³⁾ 저자인 趙福香과 人傑¹⁵⁴⁾은 耿鐵華의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耿鐵華가 주도하여 편찬한 연구사 성격의 『高句麗研究史』(2012)에서도 대표적인 연구서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¹⁵⁵⁾ 耿鐵華의 『好太王碑新考』,¹⁵⁶⁾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2003),¹⁵⁷⁾ 朴眞奭의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¹⁵⁸⁾ 『高句麗好太王碑研究』(1999),¹⁵⁹⁾ 『好太王碑拓本研究』(2001)¹⁶⁰⁾ 등이 언급되어 있다.

151) 劉麗霞, 1999, 「我國學者研究好太王碑的三部著作及評價」,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52) 耿鐵華, 2003, 「제6장 我國學者研究的新成果」,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3) 趙福香, 1996, 「好太王碑研究的新成果－評《好太王碑新考》」, 『通化師院學報』 01期; 人傑, 1996, 「推陳出新的《好太王碑新考》」, 『吉林日報』.

154) ‘人傑’이라는 필명이나 耿鐵華와의 인적 관계로 미루어, 저자가 孫仁傑일 것으로 짐작된다.

155) 耿鐵華, 李樂營, 2012, 앞의 책, 160~161쪽.

156) 耿鐵華, 李樂營, 2012, 위의 책, 172~174쪽.

157) 耿鐵華, 李樂營, 2012, 위의 책, 313~314쪽.

158) 耿鐵華, 李樂營, 2012, 위의 책, 174~175쪽.

159) 耿鐵華, 李樂營, 2012, 위의 책, 176쪽.

160) 耿鐵華, 李樂營, 2012, 위의 책, 302~303쪽.

V. 맺음말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개요 및 경향내지는 문 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재발견 초기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전통시대 지식인들의 금석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금석문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탁본 제작과 석문, 서체 연구, 광개토왕비 성격 규명, 지명 해석 등 작업이 진행되었다. 19세기 말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28종의 의미 있는 논저가 찬술되면서 능비 연구의 학문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십계도 기술이 혼란스러워 능비 발견 초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 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초기 저술자들의 인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초기 탁본 작업과 연구의 핵심 인물들을 추정해봤다.

다음으로 1940년대에서 1980년대 이전, 즉, 중일전쟁, 내전, 문화혁명기간 동안 능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현장조사와 보존조치, 그리고 유적 소개나 사회성격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불안정하였던 당시 사회적 환경과 연관이 있다.

그다음 1980년대 이후, 즉 개혁·개방 이후부터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시초가 된 상징적인 연구는 王健群의 『호태왕비연구』(1984)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서에서는 1930년대 이후부터 거의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중국 학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남북한과 일본에서 축적된 성과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접근과 태도는 결국 이 저서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행본(탁본집 포함) 23권과 논문 158편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저에서는 재발견시점 검토, 탁본과 석문 연구, 쟁점기 사 검토,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서체연구, 관련 인물, 연구 역사, 서평, 유적소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

출되었다.

이 시기 비록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은 경향 내지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1) 전체 연구의 38%를 차지할 만큼, 석문과 탁본 연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의 대표 연구서 2권(朴眞奭, 2001, 徐建新, 2006) 모두 탁본연구서라는 점이 그러한 경향을 잘 드러낸다.
- 2) 비문은 판독에서는 다양성이 확인되나, 신묘년조 기사와 같은 쟁점기사 해석에 있어서 초기부터 거의 단일한 견해만 존재해왔다.
- 3)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핵심 연구자들이 대거 별세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사라지고 몇몇 연구자의 특정 학설이 확고히 '통설화'되어가고 있다.
- 4) 1990년대 말 이후부터 비문 연구에 있어 중원문화와의 연관성에만 주목한다던지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한반도 내 '倭地'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시각도 확인되어 우려스럽다.
- 5) 연구세대의 단절이 심각한데, 원로 연구자를 제외하고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가 드물다. 연구 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졌으나, 연구 수준에 있어서는 앞선 세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격차가 심하다.
- 6) 1980년대에는 남북한, 일본의 연구 성과를 가능한 자세히 검토하여 비판 혹은 수긍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거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학계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 학계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광개토태왕비 대표학자의 부재부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연구자 세대 단절이 심각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한·중·일의 연구 성과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려는 학문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데, 금번 기획 연구 또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이자면, 광개토왕비 관련 초기 연구자들의 저술은 현재 影印本 혹은 사진자료로만 전해지고 있어 해독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 초기 연구의 사학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텍스트화 및 번역 작업을 통해 자세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부록 1〉 1980년대~2014년 연구 성과(단행본)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저서				
1	1984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임동석 역, 『광개토왕비연구』, 역민사, 1985.	종합연구
2	1993	朴眞爽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 延邊大學出版社; 『호태왕비와 고대 조일관계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쟁점기사 검토, 석문
3	1994	耿鐵華	耿鐵華,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1994.	종합연구 (논문집)
4	1999	朴眞爽	『고구려 호태왕비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6; 李東源 譯, 『高句麗好太王碑研究』, 延邊大學出版社.	종합연구
5	2003	耿鐵華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종합연구
6	2012	耿鐵華 (編)	『高句麗好太王碑』, 吉林大學出版社.	종합연구 (논문집)
탁본 연구				
1	2001	朴眞爽	『好太王碑石本研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탁본 연구
2	2004	張福有 等	『好太王碑』(拓本), 吉林文史出版社.	탁본 연구
3	2006	徐建新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社(일본).	탁본 연구
4	2014	耿鐵華, 李樂營	『通化師範學院藏好太王碑拓本』(拓本), 吉林大學出版社.	탁본 연구
탁본				
1	1982		『好太王碑』(拓本), 遼寧省博物館.	書帖
2	1992		鄒宗緒 選編, 『好大王碑』(拓本), 陝西旅遊出版社.	拓本集
3	1992		李惠芬, 『好大王碑』(拓本), 四川美術出版社.	書帖
4	1999		馬超, 『高句麗好太王碑集聯』(拓本), 天津人民美術出版社.	書帖
5	1999		孫寶文, 『好太王碑』(中國著明碑帖選集27)(拓本), 吉林文史出版社.	書帖
6	1999		胡祖輝, 『好太王碑』(上·下)(拓本), 古吳軒出版社.	書帖
7	2003		任石昆 等, 『好太王碑文印稿』(拓本), 時代藝術出版社.	書帖
8	2007		『好太王碑』(拓本), 四川美術出版社.	書帖
9	2007		『好太王碑』(拓本), 人民美術出版社.	書帖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10	2012		劉運峰, 『中國曆代碑帖集聯-晉高麗好大王碑集聯』(拓本), 天津人民美術出版社.	書帖
11	2012		杜鵬飛, 『中國曆代經典碑帖集聯系列-好大王碑集聯』(拓本), 河南美術出版社.	書帖
12	2013		邱振中, 『中國古代碑帖經典彩色放大本-好大王碑』(拓本), 江西美術出版社.	書帖
13	2013		鄒宗緒, 『晉好大王碑』(拓本), 江蘇美術出版社.	書帖



〈부록 2〉 건국 이후~2014년 연구 성과(연구논문)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¹⁶¹⁾
1	1958	張馮寶	「集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 『文物參考資料』 第4期.	기타(유적소개)
2	1958	劉節	「好大王碑考釋」, 『古史考存』, 人民出版社, 1958(1928).	석문 및 탁본
3	1962	周一良	周一良, 吳於廑, 「高句麗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世界通史資料選輯(上古部分)』, 商務印書館.	석문 및 탁본
4	1981	劉永智	「好太王“辛卯年”記事初探」, 『學術研究叢刊』 第2期;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1997(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5	1981	朴眞奭	「試論廣開土王碑文的“辛卯年記事”」, 『朝鮮史通訊』 第3期; 朴眞奭,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6	1981	段成柱	「好太王碑」述略」, 『書法』 第3期; 段成柱,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서체연구
7	1981	劉景文	「好太王碑與好太王陵」, 『吉林文物』.	기타(유적소개)
8	1981	劉永智	「從好太王碑看高句麗社會性質」, 『朝鮮史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9	1982	王健群	「好太王碑乙未年紀事考釋」, 『博物館研究』 第1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10	1983	劉永智	「關於好太王碑爭論的問題」, 『東北史研究』 第1輯; 劉永智,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11	1983	王健群	「好太王碑文譯注(上)」, 『博物館研究』 第1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석문 및 탁본
12	1983	王健群	「好太王碑文譯注(下)」, 『博物館研究』 1 第3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석문 및 탁본
13	1983	高明士	「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 『韓國學報』 3; 高明士, 1984, 『韓國史研究』 45; 高明士, 1984, 『邪馬台國』 22(재수록).	석문 및 탁본
14	1983	高明士	「訪勞貞一院士談高句麗好太王碑」, 『韓國學報』 第3期.	석문 및 탁본
15	1983	王健群	「好太王碑六年丙申, 八年戊戌條考釋」, 『學習與探索』 第4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16	1983	王健群	「好太王碑的發現和捶拓」, 『社會科學戰線』 第4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발견시점 검토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17	1984	耿鐵華	「好太王碑(석문)」, 『集安縣文物志』 第2章 遺蹟碑碣 第3節 碑碣石刻,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석문 및 탁본
18	1984	明智 ¹⁶²⁾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初評」, 『學術研究叢刊』 第1期; 明智,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19	1984	高明士	「〈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補述」, 『韓國學報』 4; 高明士, 1985, 『邪馬台國』 26(재수록).	석문 및 탁본
20	1984	耿鐵華	「高句麗好太王碑—兼記高句麗王朝和好太王」, 『文物天地』 第6期;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耿鐵華,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21	1985	劉永智	「好太王碑的發現及其它」, 『社會科學戰線』 第1期; 劉永智,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발견시점 검토
22	1985	王健群	「和好太王碑研究有關的幾個問題」, 『博物館研究』 第1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기타(종합연구)
23	1985	王健群	「好太王碑文中“倭”的實體」, 『博物館研究』 第3期; 王健群,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王健群, 1996,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24	1985	吳琦幸	「葉昌熾與好太王碑研究」, 『社會科學戰線』 第4期; 吳琦幸,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석문 및 탁본
25	1985	王健群	「關於九州大學藏好太王碑拓本的拓制年代」, 『好太王碑—四, 五世紀的東亞與日本』, 日本東方書店.	석문 및 탁본
26	1985	耿鐵華	「高句麗好太王碑及高句麗王朝與好太王」, 『市民的古代』 第7集.	발견시점; 기타(종합연구)
27	1985	高明士	「高句麗好太王碑研究の近況を展望する(高句麗好太王碑研究の近況與展望)」, 『邪馬台國』 第26號.	기타(연구사)
28	1985	陳久仁	「對《好太王碑研究》一書引用吉林省地方志資料失誤處的訂正」, 『圖書館學研究』 第3期.	기타(서평, 자료학)
29	1986	羅繼祖, 叢文俊	「簡談好太王碑字體」, 『博物館研究』 第1期; 羅繼祖, 叢文俊,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서체연구
30	1986	王健群	「申采浩對好太王碑的討論和他輯安紀聞」, 『博物館研究』 第3期.	기타(관련인물)
31	1986	劉永智	「〈高句麗碑出土記〉芻議」, 『學術研究叢刊』 第4期.	발견시점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32	1986	耿鐵華	老田裕美 日譯, 1986, 『好太王碑新考』, 『好太王碑爭論之解明』(藤田友治, 新泉社(일본)).	석문 및 탁본
33	1987	朴眞奭	「關於任那日本府的存在與否問題」, 『朝鮮曆史研究論叢』 第1期.	쟁점기사 검토
34	1988	耿鐵華	「好太王碑火前無完整拓本」, 『考古與文物』 第1期;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耿鐵華,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석문 및 탁본
35	1988	耿鐵華	「好太王碑的國煙看煙及其身份問題」, 『求是學刊』 第4期;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耿鐵華,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36	1988	耿鐵華	「好太王碑發現時間新探」, 『市民の古代』 1, 第10集.	발견시점 검토
37	1988	薛英	「高句麗好太王碑」, 『楊守敬集』 9, 湖北人民出版社.	기타(약술)
38	1988	楊守敬	「高句麗好太王碑釋文」·「高句麗好太王碑」·「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楊守敬集』 第9冊, 湖北人民出版社, 1988(1909).	석문 및 탁본 기타(약술)
39	1989	朴眞奭	「好太王碑文中的任那日本府的存在與否問題」, 『曆史科學』 第1, 2期.	쟁점기사 검토
40	1989	朴眞奭	「關於朝鮮半島內的倭地說—與古田先生商榷」, 『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41	1989	朴眞奭	「好太王碑文中的朱蒙王及其出身」, 『朝鮮學研究』 第2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42	1989	李德山	「好太王碑研究綜述」, 『古籍整理研究學刊』 第5期.	기타(약사)
43	1990	陳仲明	「粗獷雄渾的高句麗書法」, 『書法報』.	서체연구
44	1990	朴眞奭	「關於好太王碑的永樂年號」, 『渤海史研究』.	쟁점기사 검토
45	1990	耿鐵華	「好太王碑的保護與現狀」, 『文博』 第2期;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耿鐵華,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기타(유적보호)
46	1990	王純信	「高句麗, 高麗及(好太王碑)—兼與陳仲明先生商榷」, 『書法報』.	서체연구
47	1990	王仲殊	「關於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 『考古』 第11期; 王仲殊,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48	1991	秦維國	「刻在“關東第一石”上的珍貴曆史和書法」, 『聯合早報』(싱가포르); 秦維國, 2008, 『書畫市場報』 第89期(재수록).	서체연구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49	1991	秦維國	「好太王碑及其書法藝術」, 『商報』(필리핀).	서체연구
50	1991	王仲殊	「再論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 『考古』第12期; 王仲殊,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 卷3(제수록).	쟁점기사 검토
51	1992	王健群	「集安高句麗好太王碑」, 『中國文物報』.	기타(유적소개)
52	1992	王會庵	「漫話〈好太王碑〉」, 『中國文物報』.	기타(유적소개)
53	1992	耿鐵華	「好太王碑“辛卯年”句考釋」, 『考古與文物』第4期;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耿鐵華,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 卷3(제수록).	쟁점기사 검토
54	1992	秦維國	「好太王碑筆法淺談」, 『企業文化報』.	서체연구
55	1992	朴眞爽	「關於好太王碑文的東夫餘」, 『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쟁점기사 검토
56	1993	王培眞, 徐建新	「好太王碑原石拓本的新發現及其研究」, 『世界曆史』.	석문 및 탁본
57	1993	錢星博	「高句麗好太王碑研究概述」, 『文物天地』.	기타(연구略史)
58	1993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述」, 『世界史研究動態』.	석문 및 탁본
59	1993	周榮順	「好太王碑書法淺談」,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周榮順,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 卷3(제수록).	서체연구
60	1993	耿鐵華	「集安高句麗曆史與好太王碑」,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耿鐵華,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 卷3(제수록).	기타(유적소개)
61	1994	耿鐵華	「中國學者對好太王碑的研究」, 『KOREA學研究』第1期. 「호태왕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고구려문화국제 학술회논문집』, 해외한민족연구소.	기타(연구사)
62	1994	徐建新	「北京收藏的好太王碑原石拓本及其意義(北京の好太王碑原石拓本とその意義)」, 『日本明治大學國際交流基金事業招請外國人研究者講演錄』.	석문 및 탁본
63	1994	徐建新	「北京現存好太王碑原石拓本的調查與研究—以王少箴舊藏本和北京圖書館藏本爲中心」, 『韓國研究』第1輯; 徐建新, 1994,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王少箴舊藏本と北京図書館藏本を中心にして」, 『史學雜誌』第103編 第12號.	석문 및 탁본
64	1994	劉子敏	「關於好太王碑“辛卯”句的語法分析」, 『延邊教育學院學刊』第1, 2期.	쟁점기사 검토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65	1994	王健群	「高句麗好太王碑」, 『文史知識』 第6期.	기타(유적소개)
66	1994	朴眞奭	「關於好太王碑文別體字的考證」, 『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議論文集』, 韓國海外韓民族研究所.	석문 및 탁본
67	1995	方起東	「好太王碑釋文一得」, 『博物館研究』 第1期; 方起東,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석문 및 탁본
68	1995	徐建新	「關於北京發現的六種好太王碑原石拓本」, 『當代韓國』 第1期.	석문 및 탁본
69	1995	徐建新	「關於北京大學圖書館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 『世界曆史』 第2期.	석문 및 탁본
70	1995	徐建新	「好太王碑碑字的再考察」, 『“走向國際化的日本”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天津人民出版社.	석문 및 탁본
71	1995	徐建新	「關於北京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北京に所藏される好太王碑原石拓本について)」·「日本古代史(謎)の最前線」, 『歴史読本』 別冊, 春季號.	석문 및 탁본
72	1995	趙福香, 孫會艷	「清末遼東局勢與好太王碑的發現」, 『通化師院學報』 第3期; 趙福香, 孫會艷, 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趙福香, 孫會艷,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공동저자가 孫會艷에서 潘秀珍으로 교체됨).	발견시점 검토
73	1996	趙福香	「好太王碑研究的新成果—評《好太王碑新考》」, 『通化師院學報』 1期; 趙福香, 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재수록).	기타(서평)
74	1996	人傑	「推陳出新的《好太王碑新考》」, 『吉林日報』.	기타(서평)
75	1996	李樂營	「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 『通化師院學報』 第1期; 李樂營, 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李樂營,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서체연구
76	1996	徐建新	「北京現存好太王碑原石拓本的調查與研究—北京大學所藏拓本爲中心(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北京大學所藏拓本を中心に)」, 『朝鮮文化研究』 第3號.	석문 및 탁본
77	1996	傅朗雲	「〈好太王碑〉所載相關問題的思考」, 『社會科學戰線』 第4期; 傅朗雲,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재수록).	쟁점기사 검토
78	1996	劉永智	「好太王碑綜述」, 『東北亞研究動態』 第1, 2期.	기타(종합연구)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79	1996	高明士	「台灣的好太王碑拓本以及碑文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高明士, 2004, 『東亞古代의 政治與教育』, 臺灣大學出版中心, 附錄; 高明士, 2008, 『天下秩序與文化圈的探索』, 上海古籍出版社, 附錄(재수록).	석문 및 탁본
80	1996	叢文俊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叢文俊, 1999, 『叢文俊書法研究文集』, 中國文聯出版社(재수록).	서체연구
81	1996	徐建新	「中國學界對高句麗好太王碑文及拓本의 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석문 및 탁본
82	1996	朴眞爽	「辛卯年紀事再論」,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쟁점기사 검토
83	1996	劉永智	「好太王碑之發現與釋文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석문 및 탁본
84	1996	範犁, 楊春吉	「好太王碑在集安」, 『新文化報』.	기타(유적소개)
85	1997	範犁, 楊春吉	「初氏父子與好太王碑」, 『新文化報』.	기타(관련인물)
86	1997	徐德源	「高句麗好太王碑鑿立之原委與性質重探」,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87	1997	耿鐵華	「好太王碑建立及相關問題」,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88	1997	耿鐵華	「羅振玉先生與好太王碑研究」,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기타(관련인물)
89	1997	耿鐵華	「集安博物館藏好太王碑拓本」,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석문 및 탁본
90	1997	耿鐵華	「好太王碑의 史料價値」,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기타
91	1997	耿鐵華	「好太王碑記載의 神話傳說及其科學意義」,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92	1997	耿鐵華	「王健群先生好太王碑識讀比較誤差及說明」,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석문 및 탁본
93	1997	耿鐵華	「(好太王碑研究)札記」,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기타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94	1998	湯燕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版本概況」, 『書法叢刊』 第1期.	석문 및 탁본
95	1998	範犁, 楊春吉	「王志修〈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注釋與說明」, 『通化師院學報』 第2期.	기타(관련인물)
96	1998	徐建新	「好太王碑論爭と原石拓本」, 『古代史研究最前線』, 日本新人物往來社.	석문 및 탁본
97	1998	朴眞奭	「關於好太王碑文中守墓人煙戶的身份」, 『朝鮮學·韓國學論叢』(6), 延邊大學出版社; 朴眞奭, 1999,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재수록).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98	1998	朴眞奭	「關於好太王碑永樂五年條“碑麗”的考證」, 『延邊大學朝鮮問題研究所建所20周年論文集』.	쟁점기사 검토
99	1999	朴眞奭	「通過好太王碑看朱蒙建立高句麗國的年代」, 『延邊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00	1999	範犁(耿鐵華)	「好太王碑文煙戶、奴客諸詞語補釋」,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範犁(耿鐵華), 2002, 『通化師院學報』 第1期(재수록).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01	1999	徐建新	「好太王碑論爭與原石拓本」,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석문 및 탁본
102	1999	劉麗霞	「我國學者研究好太王碑的三部著作及評價」,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기타(책 소개)
103	1999	朴眞奭	「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拓本采拓年代考證」, 『史學論叢』.	석문 및 탁본
104	1999	張世恩	「目擊好太王碑」, 『書畫藝術』 第4期.	기타(유적소개)
105	1999	新華	「秦維國的好太王碑體書法」, 『文化月刊』 第8期.	서체연구
106	1999	高明士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藏高句麗好太王碑乙本原石拓本的史學價值」, 『古今論衡』 第3期; 高明士, 2004, 「高句麗好太王碑傳館藏乙本原石拓本整本」, 『東亞古代的政治與教育』, 臺灣大學出版中心, 附錄; 高明士, 2008, 「傳館藏好太王碑原石拓本乙本完整的發現」, 『天下秩序與文化圈的探索』, 上海古籍出版社, 附錄.	석문 및 탁본
107	2000	朴眞奭	「關於好太王碑拓本的初期編年性質」, 『韓國春史大麟錫教授停年紀念論叢』.	석문 및 탁본
108	2001	陳中遠, 王宇	「好太王碑乙未歲鐫文補識」, 『博物館研究』 第1期.	쟁점기사 검토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109	2001	朴眞夷	「북경에서 새로 발견된 일부 호태왕비탁본의 採拓年代 고증」, 『韓國宗教』 25, 圓光大 宗教問題研究所.	석문 및 탁본
110	2001	耿鐵華	「王少箴舊藏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 『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석문 및 탁본
111	2002	耿鐵華	「好太王碑拓本收藏著錄及其年代」, 『社會科學戰線』 第1期.	석문 및 탁본
112	2002	孫麗萍	「黑龍江省博物館館藏〈好太王碑〉碑拓賞析」, 『北方文物』 第2期.	석문 및 탁본
113	2003	耿鐵華	「近年來好太王碑研究現狀」, 『東北工程通訊』 第2期.	기타(연구사)
114	2003	金在善	「好太王碑文研究」, 『宣賓學院學報』 第2期.	기타(연구사)
115	2003	孫仁傑	「好太王碑現狀觀測與保護的思考」, 『博物館研究』 第3期.	기타(유적보호)
116	2003	祝立業	「與好太王碑有關的幾個問題」, 『東北亞研究』 第4期.	기타(연구약사)
117	2003	張福有	「好太王碑雜識及碑文考箋」, 『學問』 第10期.	석문 및 탁본
118	2003	叢文俊	「好太王碑書法及其相關問題略論」, 『中國書法』 第9期; 叢文俊, 2004, 『東北史地』 第1期(제수록).	서체연구
119	2004	方起東	「好太王碑碑文解說」, 『東北史地』 第1期.	석문 및 탁본
120	2004	方起東	「好太王碑釋讀一見」, 『東北史地』 第2期.	석문 및 탁본
121	2004	徐德源	「好太王碑銘文三個地名今址考析」, 『東北史地』 第3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22	2004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早期拓本制作者李雲從考」, 『中國學術』 3~4期(總第19, 20合輯).	석문 및 탁본
123	2004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制作和流傳(1880~1888年)」, 『文史』 第4期.	석문 및 탁본
124	2004	梁啓政	「略述中外學者對好太王碑未記載好太王時期高句麗攻略遼東一事的研究」, 『東北史地』 第6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25	2004	趙玉敏	「好太王碑載高句麗族源神話考」, 『東北史地』 第10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26	2004	劉節	「好太王碑考釋」, 『劉節文集』, 中山大學出版社, 1928(2004 再版).	석문 및 탁본
127	2005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發現—對1884年潘祖蔭藏本的初步調查」, 『中國史研究』 第1期.	석문 및 탁본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128	2005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初期拓本研究」,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 세계』, 고구려연구회.	석문 및 탁본
129	2005	高明士	「傳館藏好太王碑原石拓本乙本完整的發現」,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 세계』, 고구려연구회.	석문 및 탁본
130	2005	耿鐵華	「중국 好太王碑 연구의 현황과 추세」,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 세계』, 고구려연구회.	기타(연구사)
131	2005	耿鐵華	「好太王碑一千五百九十年祭」, 『中國邊疆史地研究』 第3期.	기타(연구略史)
132	2005	丁一	「“渾穆高古, 迥異流俗”—秦維國太王碑體書法藝術賞析」, 『新長征』 第20期.	기타(유적소개)
133	2006	耿鐵華	「潘祖蔭藏好太王碑早期拓本芻議」, 『東北史地』 第4期.	석문 및 탁본
134	2007	徐建新	「清末北京の碑帖商人と好太王碑原石拓本」, 日本関西大學アジア文化交流研究センター編, 『アジア文化交流研究』 第2號.	석문 및 탁본
135	2007	張福有	「好太王碑中的“平壤城”考實」, 『社會科學戰線』 第4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36	2008	徐德源	「好太王碑銘文選釋選考」, 『遼寧大學學報』 第1期.	석문 및 탁본
137	2008	耿鐵華	「李雲從與好太王碑拓拓」, 『東北史地』 第4期.	기타(관련인물)
138	2008	耿鐵華	「好太王碑釋文補字略說」, 『通化師範學報』 第9期.	석문 및 탁본
139	2008	鄭志剛	「〈好太王碑〉紫氣深吞心似海, 甘霖飽飲體如鯨」, 『青少年書法』 18期.	서체연구
140	2009	徐建新	「高句麗好太王碑拓本의 分期與編年方法」, 『古代文明』 第1期.	석문 및 탁본
141	2009	常雅	「海東第一碑“好太王碑」, 『新長征(黨建版)』 第1期.	기타(유적소개)
142	2010	程遠	「古城古碑與古刹」, 『東北史地』 第2期.	기타(유적소개)
143	2010	陸麗華	「好太王碑證史與補史作用」, 『通化師範學院學報』 第11期.	기타(유적소개)
144	2011	李德山	「再論好太王碑之“倭”」, 『社會科學戰線』 第5期.	쟁점기사 검토
145	2011	耿鐵華	「好太王碑辛卯年條與相關問題」, 『社會科學戰線』 第11期.	쟁점기사 검토
146	2013	韓辰飛	「大連圖書館館藏〈好太王碑〉拓本釋讀與鑒定」, 『圖書館學刊』 第5期.	석문 및 탁본
147	2013	羅新	「好太王碑與高句麗王號」, 『中華文史論叢』 第3期.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No.	연도	저자	연구 성과	연구주제
148	2014	李樂營, 耿鐵華	「關於好太王碑拓本的幾個問題-紀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師範學院學報』 3月號.	석문 및 탁본
149	2014	耿鐵華	「好太王碑發現初期的捶拓與研究」,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고구려발해학회.	석문 및 탁본
150	2014	徐建新	「근년 중국소견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연구자료」,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겨울철 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석문 및 탁본
151	2014	耿黎	「好太王碑發現時間及相關問題研究」, 『通化師範學院學報』 2014年第5期.	기타 (초기 연구사)
152	2014	朴眞爽	「關於好太王碑和集安高句麗碑的幾個問題的考證」, 『紀念好太王碑建立1600周年國際學術會議』, 中國社會科學院.	쟁점기사 검토
153	2014	耿鐵華	「好太王碑與集安高句麗碑」, 『紀念好太王碑建立1600周年國際學術會議』, 中國社會科學院.	기타(비교검토)
154	2014	徐建新	「近年來中國大陸所見好太王碑的研究資料」, 『紀念好太王碑建立1600周年國際學術會議』, 中國社會科學院.	석문 및 탁본
155	2014	姜維公	「全文-好太王碑及其始祖傳說模式的意義」, 『紀念好太王碑建立1600周年國際學術會議』, 中國社會科學院.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56	2014	劉炬	「好太王碑在高句麗史學史上的地位」, 『紀念好太王碑建立1600周年國際學術會議』, 中國社會科學院.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157	2014	耿鐵華	「通化市博物館藏好太王碑拓本」,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석문 및 탁본
158	2014	徐建新	「關於好太王碑發現和早期拓本制作的新史料-以李超瓊的《遼左日記》爲中心」,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탁본(연구사)

161) 제Ⅳ장의 '2. 주제별 연구' 분류에 따라 구분함.

162) '明智'는 필명이다. 사실 이 글은 당시 吉林省社會科學院 朝鮮研究所에서 근무하던 顧銘學과 劉永智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제Ⅳ부 문화 5. 금석문 5-1. 광개토왕비」, 『고구려사 연구 논저 목록』, 고구려연구재단.
- 고광의, 2004, 「중국학계의 廣開土王碑 연구 현황-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고광의, 2005, 「중국의 廣開土王碑 釋文 연구 현황과 검토」,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朴時亨,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 신재호(박기봉 옮김), 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 耿鐵華, 2000, 楊春吉, 『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目錄 1950~2000』, 吉林文史出版社.
- 耿鐵華, 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耿鐵華, 2012, 「高句麗好太王碑研究綜述」, 『高句麗好太王碑』, 吉林大學出版社.
- 耿鐵華, 李樂營, 2012, 『高句麗研究史』, 吉林大學出版社.
- 耿鐵華, 李樂營, 2013, 『高句麗研究文獻目錄 1952~2012』, 吉林大學出版社.
- 耿鐵華, 李樂營, 2014, 『通化師範學院藏好太王碑拓本』, 吉林大學出版社.
- 金毓黻, 1944, 『東北通史』, 五十年代出版社(1981 再版).
- 劉永智, 1996, 「好太王碑之發現與釋文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 馬彥, 華陽, 2009, 『國內外高句麗研究論文論著目錄』, 香港亞洲出版社.
- 朴眞爽, 1993, 『好太王碑與古代朝日關係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朴眞爽, 1999, 『高句麗好太王碑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朴眞爽, 2001, 『好太王碑拓本研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徐建新, 1996, 「中國學界對高句麗好太王碑碑文及拓本的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 徐德源, 1997, 「高句麗好太王碑鑿立之原委與性質重探」, 『高句麗渤海研究集成』 高句麗 卷3, 哈爾濱出版社.
- 倪軍民, 耿鐵華, 楊春吉, 1998, 『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彙錄』, 吉林人民出版社.

-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王靖憲 主編, 2009, 『中國碑刻全集1—戰國 秦 漢』, 人民美術出版社.
- 劉節, 1958, 「好大王碑考釋」, 『古史考存』, 人民出版社.
- 劉節, 2004, 「好大王碑考釋」, 『劉節文集』, 中山大學出版社.
- 曹德全, 2001, 「“太王陵爲廣開土王墓”質疑」, 『高句麗史探微』, 中華國際出版社.
- 趙超, 2003, 『墓誌考古通論』, 紫禁城出版社.
- 周榮順, 1993, 「好太王碑書法淺談」,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周一良, 1962, 「高句麗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世界通史資料選輯(上古部分)』, 商務印書館.
- 叢文俊, 1996,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 年』, 학연문화사.
- 崔蓮, 金順子, 1995, 『中國朝鮮學—韓國學研究文獻目錄 1949~1990』,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古田武彦, 1990, 「「倭地」の史料批判—朝鮮半島内の「倭地」に關し, 中国, 延邊大学の朴ジンソク氏の批判論文に答える」, 『昭和薬科大学紀要』 24.
- 佐伯有清, 1974, 『研究史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논문

- 耿鐵華, 2014, 「好太王碑發現初期的捶拓與研究」,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고구려발해학회.
- 공석구, 2013, 「《광개토왕릉비》守墓人 烟戶 記事의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47.
-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2.
- 羅新, 2012, 「有關高句麗王號制度的幾點推測」, 『한국고대사연구』 67.
-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70.
- 이성제, 2013, 「集安 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0.
-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의 성격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研究』 72.
- 조우연, 2013,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

- 史研究』72.
- 耿鐵華, 2014, 「關於好太王碑拓本的幾個問題－紀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師範學院學報』, 3月號.
- 耿鐵華, 2008, 「李雲從與好太王碑捶拓」, 『東北史地』第4期.
- 耿鐵華, 2006, 「潘祖蔭藏好太王碑早期拓本芻議」, 『東北史地』第4期.
- 耿鐵華, 2008, 「好太王碑釋文補字略說」, 『通化師範學院學報』第9期.
- 耿鐵華, 2011, 「好太王碑辛卯年條與相關問題」, 『社會科學戰線』第11期.
- 高明士, 1983, 「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 『韓國學報』第3期.
- 金在善, 2003, 「好太王碑文研究」, 『宜賓學院學報』第2期.
- 段成桂, 1981, 「“好太王碑”述略」, 『書法』第3期.
- 羅繼祖, 叢文俊, 1986, 「簡談好太王碑字體」, 『博物館研究』第1期.
- 羅新, 2013, 「好太王碑與高句麗王號」, 『中華文史論叢』第3期.
- 梁啓政, 2004, 「略述中外學者對好太王碑未記載好太王時期高句麗攻略遼東一事的
研究」, 『東北史地』第6期.
- 劉永智, 1983, 「關於好太王碑爭論的問題」, 『東北史研究』第1輯.
- 劉永智, 1981, 「好太王“辛卯年”記事初探」, 『學術研究叢刊』第2期.
- 劉永智, 1985, 「好太王碑的發現及其它」, 『社會科學戰線』第1期.
- 劉子敏, 1994, 「關於好太王碑“辛卯”句的語法分析」, 『延邊教育學院學刊』第1, 2期.
- 李德山, 2011, 「再論好太王碑之“倭”」, 『社會科學戰線』第5期.
- 李德山, 1989, 「好太王碑研究綜述」, 『古籍整理研究學刊』第5期.
- 方起東, 2004, 「好太王碑釋讀一見」, 『東北史地』第2期.
- 範犁, 楊春吉, 1998, 「王志修《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注釋與說明」, 『通化師範學院學報』第2期.
- 傅朗雲, 1996, 「〈好太王碑〉所載相關問題的思考」, 『社會科學戰線』第4期.
- 徐建新, 1993, 「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述」, 『世界史研究動態』第10期.
- 徐建新, 2005,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發現－對1884年潘祖蔭藏本的初步調查」, 『中國史研究』第1期.
- 徐建新, 1994, 「北京收藏的好太王碑原石拓本及其意義」, 『日本明治大學 國際交流基金會 金事業招請 外國人研究者講演錄』第2號.
- 徐德源, 2004, 「好太王碑銘文三個地名今址考析」, 『東北史地』第3期.
- 徐德源, 2008, 「好太王碑銘文選釋選考」, 『遼寧大學學報』第1期.

- 孫仁傑, 2003, 「好太王碑現狀觀測與保護的思考」, 『博物館研究』第3期.
- 楊昭全, 1998, 「中國朝鮮古代史研究概述」, 『韓國研究論叢』第4輯.
- 吳琦幸, 1985, 「葉昌熾與好太王碑研究」, 『社會科學戰線』第4期.
- 王健群, 1986, 「申采浩對好太王碑的討論和他輯安紀聞」, 『博物館研究』第3期.
- 王健群, 1985, 「好太王碑文中“倭”的實體」, 『博物館研究』第3期.
- 王培真, 徐建新, 1993, 「好太王碑原石拓本的新發現及其研究」, 『世界曆史』第2期.
- 王禹浪, 程功, 劉加明, 郭叢叢, 2012, 「近十年來中國高句麗民族歷史問題研究成果宗
述」, 『哈爾濱學院學報』第12期.
- 王仲殊, 1990, 「關於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 『考古』第11期.
- 王仲殊, 1991, 「再論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 『考古』第12期.
- 劉永智, 1985, 「好太王碑的發現及其他」, 『社會科學戰線』第1期.
- 李樂營, 1996, 「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 『通化師院學報』第1期.
- 張福有, 2003, 「好太王碑雜識及碑文考箋」, 『學問』第10期.
- 張福有, 2007, 「好太王碑中的“平壤城”考實」, 『社會科學戰線』第4期.
- 張馭寶, 1958, 「集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 『文物參考資料』第4期.
- 錢星博, 1993, 「高句麗好太王碑研究概述」, 『文物天地』第5期.
- 趙玉敏, 2004, 「好太王碑載高句麗族源神話考」, 『東北史地』第10期.
- 池內宏, 1938, 「廣開土王碑發見的由來と碑石の現狀」, 『史學雜誌』第49編 第1號.
- 叢文俊, 2004, 「好太王碑書法及其相關問題略論」, 『東北史地』第1期.
- 祝立業, 2003, 「與好太王碑有關的幾個問題」, 『東北亞研究』第4期.
- 韓辰飛, 2013, 「大連圖書館館藏《好太王碑》拓本釋讀與鑒定」, 『圖書館學刊』第5期.
- 古田武彦, 1986, 「好太王碑の史料批判－共和国(北朝鮮)と中国の学者に問う」, 『昭
和薬科大学紀要』20.
- 關野貞, 191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4.

[국문 초록]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 성과 검토

조우연

이 글에서는 광개토왕비가 재발견된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학계에서 진행해온 관련 연구를 시기별·주제별로 나누어 살폈다.

우선 연구사적인 시기구분을 능비가 재발견되어서부터 1930년대까지, 1940~1970년대, 1980년대~현재까지로 삼분하였다. 이는 해방 전, 해방·文革, 개혁개방 이후로 구분되는 고구려 연구사의 흐름과도 유사하다. 초기는 전통시대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중기는 전란·침체기 속에서 '遼東', '滿洲'라는 앞선 시기 표현이 '東北'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대체되는 등 인식의 전환기였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식의 정립기로서, 능비 연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획기적인 대작이 발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초기 연구는 금석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拓本, 釋文 등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능비에 관한 다양한 언급이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기 논저를 자세히 정리하고 저자들 사이의 인맥 관계를 살핌으로써 초기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그다음으로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1940~1970년대의 연구에 대해서는 소략하게나마 시대적인 흐름과 경향에 대해 살폈다.

마지막으로 대량으로 축적된 1980년대 이후의 연구 논저를 目錄化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자, 그리고 시대적인 연구경향에 대해 살폈다. 이어서 그동안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온 재발견 시점 검토, 탁본과 釋文 연구, 쟁점기사 검토,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논의, 서체연구, 관련 인물, 연구 略史, 서평, 유적소개 등 분야의 대표적인 논저를 자세히 검토하여 주요 논지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고구려, 광개토왕비, 중국학계, 연구사, 논저목록



[ABSTRACT]Review of Historical Research on the King Gwanggaeto
Stele by Chinese Academics

Cho Wooyun

In this paper, we review research on the King Gwanggaeto Stele(廣開土王碑) by Chinese academics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1) from the rediscovery of the stele until the 1930s (before liberation); 2) from the 1930s to the 1970s (liberation and the Cultural Revolution(文革); and 3) from the 1980s until present (reform). This periodiza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history of Koguryo(高句麗) research.

The first period can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era. During the second period were war and recession, and this period also was a turning point in awareness. The terms “Liaodong”(遼東) and “Manchuria”(滿洲) were replaced by the new concept of “Dongbei”(東北). And since the 1980s, a new awareness has been established, research has increased in volume, and a famous study was published.

During the first period, epigraphists led the research. They prepared rubbings of the stele and undertook textual analyses(釋文). This article undertook a detailed listing of the initial publications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authors. The section on the second period outlines the academic development from the 1940s to the 1970s. And last, from the 1970s much research has accumulated. In this paper, we list the publications in detail and provide statistical information regarding them. Further, we sought to grasp the principal research

topics, scholars, and research trends. Popular topics include the site of the rediscovery, rubbings(拓本), textual analysis, controversial issues, Koguryo history, calligraphy, and others.

Keywords

Koguryo(高句麗), King Gwanggaeto Stele(廣開土王碑), Chinese academics, Historiographical review, Publication lis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학계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노우에 나오키 ||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문학부 역사학과 준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고도인 吉林省 集安에 우뚝 솟아있는 광개토왕비가 懷仁縣 知縣인 章樾의 幕客으로 사설비서였던 關月山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것은 1880년의 일이었다. 높이 6.39m, 무게 약 30t에 이르는 이 거대한 비석은 금석애호가들의 눈에 띄어, 1881년경부터 天津에서 拓工이 파견되었다. 탁공들은 비석 주위에 설치된 발판에 서서, 먼저 백수십 매의 拓紙에 拓出하고 이어서 2,000자 가까운 글자를 하나씩 석문하며 마지막으로 탁출한 백수십 매의 종이 조각에 한 글자씩 엮은 먹으로 자획을 着墨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막대한 노력·시간·비용을 들여서 석문한 글자를 선명하게 써내는 墨水廓填本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奉天이나 吉林 등 해당 지역 知縣의 네트워크를 타고 北京의 관료에게도 전해졌다. 이윽고 北京에서 拓工 李雲從이 파견되어 비면이나 글자를 그대로 탁출하는 원석탁본이 생산되기에 이르고,¹⁾ 광개토왕비는 清朝의 금석

※ 투고: 2015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서 論及되었다.²⁾

한편, 일본에서도 광개토왕비 발견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참모본부의 군사정보부원이었던 사코우 가게노부[酒匂景信] 중위에 의해 목수곽전본이 전래되어 연구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왕비는 해당 시기에, 나아가서는 그 후 일본 역사학계의 여러 문제와도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그 연구기간은 넉넉히 100년을 넘었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 기간에도 필적하고, 그 간의 연구성과는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남한과 북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성과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연구를 받아들이고 또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연구를 더욱 진행해 가는 것이 이후에도 필요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서 어떻게 광개토왕비가 연구되고 거기에서 어떠한 연구성과가 나왔는지, 또 그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등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말~1970년대에 광개토왕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明治 이후 광개토왕비 연구의 실태가 비판적으로 검증되어 왔다.³⁾ 그 연구성과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기왕의 연구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가 1960~1970년대에 행해진 것도 있고, 그 이전의 연구에 한정되기 쉬워서 일본에서 광개토왕비 연구가 가장 번성하였다고 생각되는 1960~1970년대, 나아가서는 그 후의 연구상황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연구동향에 대해서 論及한 것이 없었을 리는 없지만, 그것은 광개토왕비 탁본 연구에 한정된 것이거나 반드시 근년의 새로운 연구성과에까지 충분히 논해진 것이 아니어서 최신 연구성과에 입각한 연

- 1)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 2) 19세기 중국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해서는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徐建新, 2013, 『好太王碑發見史と早期拓本制作史の新史料 - 李超瓊『遼左日記』の發見』,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 武田幸男, 2007,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 등을 참조할 것.
- 3)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佐伯有清, 1976,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 吉川弘文館 등.

구사 정리가 필요하다.⁴⁾

이 글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면서 다시 광개토왕비 묵본(墨本)이 전래된 明治期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정리하고, 그 연구의 특질, 나아가서는 그 과제를 밝혀서 향후 광개토왕비 연구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II. 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

1_ 광개토왕비 연구와 군부

明治 16년(1883) 4~8월, 集安에 잠입해 있었던 육군 참모본부의 군사첩보원이었던 사코우[酒匂] 중위는 현지의 탁공에게 묵수곽전본을 구입하여 같은 해 가을에 귀국하였다. 사코우가 묵수곽전본을 가지고 귀국한 것은, 그것이 당시 참모본부의 주요한 임무인 조선에서 중국 연해에 이르는 ‘地理政誌를 상세히’ 밝히기 위한 조사자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⁵⁾

이렇게 해서 사코우가 가져온 광개토왕비 묵수곽전본(이하 사코우본)은 군부에 의해 곧바로 연구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사코우가 귀국한 다음 해인 明治 17년(1884), 해군 御用掛인 아오에 히이즈[靑江秀]는 『東夫余永樂大王碑銘解』를 저술하여 광개토왕비가 414년에 건립된 것 등을 지적하고 주석을 붙였다.⁶⁾ 아오에는 같은 해 2월부터 국내외의 전쟁사나 외국의 병제에 관한

4) 武田幸男, 1993, 「その後の廣開土王碑研究」, 『年報朝鮮学』 3; 武田幸男, 2009, 앞의 책은 1970년대 이후의 연구에 대해 논하지만, ‘광개토왕비’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井上直樹, 2008,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先史와 古代』 28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고구려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 후에도 고구려사에 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이들 최신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5) 佐伯有清, 1976, 앞의 책.

사항, 해군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도서의 편찬·수집·번역 등을 맡고 있었던 해군성 군사부 제5과에 근무하고 있어, 광개토왕비의 조사에 착수한 것이었다.⁷⁾

한편, 사코우는 귀국 전년인 1882년에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任那考』(明治 15년 8월, 無窮會圖書館)를 저술하였는데,⁸⁾ 한국고대사·고대한일관계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육군 참모본부에서도 사코우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편찬과의 요코이 타다나오[横井忠直]가 『高麗古碑考』(1884)를 집필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⁹⁾ 여기에서는 비를 세운 연대를 보여주는 甲寅을 元徽 2년(474)이라고 하여 아오에의 『東夫余永樂大王碑銘解』와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나 아오에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는 곳도 인정된다.¹⁰⁾ 요코이는 아오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상세한 주해를 붙인 것이었다. 특히 그 후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상 주목된 소위 신묘년조로 알려진 “破百殘□□新羅以爲臣民” 부분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신복한 것이라고 보인다. 종래 그 나라의 역사 기록【『東國通鑑』 등】(【 】는 할주. 이하 마찬가지)에 매번 우리 병사의 침략을 기록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신민으로 삼았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아직 일찍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바가 있게 하지만, 지금 이 비문이 그 시대 그 나라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그 말이 딱 우리 옛 역사와 맞았다. 즉 천고에 비할 바 없는 좋은 증거이다. 또한 유쾌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전후는

6) 青江秀, 1884, 『東夫余永樂大王碑銘之解』(國立國會圖書館 소장).

7) 佐伯有清, 1976, 앞의 책.

8) 參謀本部 編纂課, 1882, 『任那考』, 無窮會圖書館藏.

9) 横井忠直 述, 1884, 『高麗古碑考』(宮内庁 書陵部本·早稲田大學圖書館本·都立日比谷圖書館本). 다만, 日比谷圖書館本에는 早稲田大學圖書館藏本에 있는 「高麗古碑本之由來」가 보이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10) 요코이는 직접 아오에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高麗古碑考』 등에서 ‘或人’ 운운이라고 서술하여, 그 견해를 ‘따를 만하지 않다’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或人’이 아오에임은 佐伯有清, 1974, 앞의 책이 지적하듯이, 그 내용으로 보아 분명하다.

의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서술하여, 백제·신라가倭의‘臣民’이 된 것을 광개토왕비에 의거하더라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日本書紀』의 ‘삼한 정벌’ 등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광개토왕비에 기초한 『日本書紀』의 고증, 고대 한일관계의 추구는 그 후의 연구에서도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의 고증학적 연구의 원점은 이 연구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왕비 연구는 군부에 의해 먼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고스기 스키무라[小杉櫛郎], 구리타 히로시[栗田寛] 등은 아오에에게 사본을 받아서, 그 연구성과에 고찰을 가하였다.¹¹⁾ 그러나 아오에나 요코이의 연구는 공간된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연구를 다룬 것은 일부 연구자들 뿐이고,¹²⁾ 아직 많은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없었다. 당시 광개토왕비 연구는 극히 일부 한정된 연구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서, 그 연구성과가 널리 세상에 문제시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상황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이즈음 활발히 논의된 기년논쟁이다. 다음에서 기년논쟁과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1) 고스기 예전 소장 靑江秀, 1884, 『東夫余永樂太王碑銘之解』(國立國會圖書館藏本)에는 구리타와 나카무라 후노사이[中村不能齋]의 자필 첨부쪽지가 있고, 고스기에게서 아오에의 연구성과를 보게 된 구리타와 나카무라가 아오에의 연구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스기 예전 소장 靑江秀, 1884, 위의 책의 말미에는 “위의 古碑 주해는 郷友 아오에[靑江]씨가 명령을 받들어 시험삼아 기록한 바이다. 주해의 述意에 내 의견을 보여주는 곳이 있었기에 그 원고 상태로 필사시켜 기증받은 것이다. 明治 18년(1885) 2월 18일”이라고 하여, 고스기는 아오에에게서 광개토왕비 연구에 관해서 질문을 받아 사건을 제시한 듯하다.

12) 佐伯有清, 1974, 앞의 책에 의하면, 요코이의 연구는 그 후 東京大學 史料編纂所の 전신인 修史館에서 검토되고, 그 성과는 明治 17년(1884) 12월본(早稻田大學圖書館本·都立日比谷圖書館本) 등에 반영되어 있어, 修史館의 학자도 요코이의 연구를 언급한 것이 된다.

2_ 기년논쟁과 광개토왕비 연구

이즈음 광개토왕비 연구에 큰 영향을 준 기년논쟁이란 『日本書紀』 연대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연구자에 의해 전개된 논의를 말한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은 나가 미치요[那珂通世]가 『日本書紀』의 고대 기년을 ‘역사가의 妄撰’이라고 하여, 神功·應神紀의 연대는 한국 역사서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하고,¹³⁾ 이것을 이어받아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가 연구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함을 하소연하였기 때문이다.¹⁴⁾

이렇게 해서 神功紀·應神紀의 기년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의견이 밀려왔다. 그중 한 사람인 아베 코조[阿部弘藏]는 「征韓考」에서 광개토왕비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보이는 신묘년조를 “이때 츠쿠시[筑紫] 인종, 즉 지금의 일본인이 항해하여 이 나라에 공격해 들어간 것을 세상에서 황후가 친정하셨다고 떠들어댈 만할 것이다”라고 하고, “征韓의 일인 이 신묘의 전역이라는 것을 역사가가 그럴 듯하게 날조하여, 황후의 일로 변안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하였다”고 서술하여 神功皇后의 ‘삼한 정벌’이 날조기사라고 지적한 것이다.¹⁵⁾

요시다 도고[吉田東伍]는 「年代考付録 那珂氏年代考ニ抛リテ征韓ノ年次ヲ証ス」에서 “근년 우리 참모본부가 저 나라에서 얻었다고 하는 광개토왕 담덕 묘비문 중에 ‘倭以辛卯來渡海, 破百濟□□新羅, 以爲臣民’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고 하여, 광개토왕비를 근거로 應神紀 辰斯王 관계기사의 사실성을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요시다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국사는 전부 신뢰받을 만하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그렇지만 선현의 이러한 어려움에까지 이르러서, 이것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한국사에는 본래 「魏志」, 「晉書」 등의 대조할 것이 있어 그 魏晉 간의 기년에는 그렇게까지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사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¹⁶⁾

13) 那珂通世, 1888, 「日本上古代年考」, 『文』 1-8.

14) 三宅米吉, 1888, 「日本紀元ノ正否」, 『文』 1-9.

15) 阿部弘藏, 1888, 「征韓考」, 『文』 1-11.

16) 吉田東伍, 1888, 「年代考付録 那珂氏年代考ニ抛リテ征韓ノ年次ヲ証ス」, 『文』

이렇게 기년논쟁의 과정에서 4세기 倭의 동향을 전하는 광개토왕비는 『日本書紀』 고증상 극히 중요한 동시대 사료로서 왕성하게 깊이 밝혀 논해지고, 그것에 기초하여 『東國通鑑』 등 한국사료가 『日本書紀』보다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고나카무라 요시카타[小中村義象]는 「再タビ那珂氏ノ駁論ヲ駁ス」에서 “최근 세상에 나온 고구려 고비문에 의하면, 일찍이 한국사에 보이지 않은 平安好太王과 같은 것이 우리 姓氏錄에서 고구려 好太王과 관련시키기에 잘 맞는 것을 보더라도, 고서가 올바른 것을 알 만하다. 또 망명되어 고서를 개찬하는 일이 없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서술하여,¹⁷⁾ 『日本書紀』 등 일본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기년논쟁 속에서 광개토왕비는 중요시되었지만, 이러한 논의 속에서 요코이는 明治 21년(1888), 『高句麗古碑考』의 개정판을 작성하였다.¹⁸⁾ 이것은 東京의 無窮會圖書館만이 소장하고 있는데,¹⁹⁾ 이 책에서 요코이는 그 때까지의 광개토왕비 474년 건립설을 철회하고 234년 또는 294년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東國通鑑』이나 『三國史記』에는 ‘好太王’이 발견되지 않아서, 비문의 ‘十七世孫’을 실마리로 하여 1세를 16년으로 하여 생각하면 17세는 고구려 건국인 기원전 37년부터 272년 후의 甲寅인 234년에, 1세를 20년이라고 생각하면 기원전 37년부터 332년 후인 294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⁰⁾ 이

1-15.

17) 小中村義象, 1888, 「再タビ那珂氏ノ駁論ヲ駁ス」, 『文』 1-24.

18) 横井忠直, 1888, 『高麗古碑考』, 無窮會圖書館本.

19) 필자는 明治 21년(1888) 작성된 『高麗古碑考』 수정판을 실견·조사하면서 無窮會 專門圖書館館長 이시다 하지메[石田肇] 선생에게서 편의를 제공받았다. 여기에 기록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보이고자 한다.

20) 横井忠直, 1888, 앞의 책에는 “好太王 韓史【指東國通鑑·三國史記等, 以下皆準之】逸名, 故所謂甲寅, 不知當我何代, 試據其十七世, 以臆斷之, 其在豐浦宮·明宮之際乎, 蓋漢韓之史, 以高句麗始祖即位之年, 爲東漢永光壬午, 乃以一世十六年算, 其十七世, 則壬午後二百七十二年甲寅乎【我神功攝政三十四年】, 或以廿年爲中數, 則壬午三百卅二年之甲寅乎【我明宮二五年】, 則此碑之距今, 一千六百四十五年, 若一千五百八十五年也【韓史多誤謬, 漢籍所記, 亦訛伝不少, 永光壬午, 未可知其信否, 然他無可爲標準, 因姑從之】”이라고 한다.

연대는 神功皇后 섭정시대나 應神天皇代에 해당하고, 기존의 474년 건립설보다 180~240년이나 소급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처치가 취해진 것은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도 지적하듯이,²¹⁾ 비문의 내용을 神功皇后紀와 합치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요코이는 여기에서 ‘한국사는 오류가 많다’고도 서술하여, 광개토왕비의 기술과 한국 역사서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기년논쟁 속에서 평가가 높아진 사료들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요코이의 예전 논문 개정은 『記紀』의 기술은 신용할 수 없고 한국사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나가 등의 견해를 받아 그것에 반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²²⁾ 기년논쟁이 요코이의 광개토왕비 재고를 재촉한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明治 22년(1889) 6월, 「高句麗古碑考」·「高句麗古碑文(写真石版)」·「高句麗碑出土記」·「各書參考」·「高句麗古碑積文」의 5부로 구성된 『會余錄』 제5집이 광개토왕비문 연구의 특집호로 간행되었다.²³⁾ 여기에서는 목본을 사코우 중위가 가지고 돌아온 것이 삭제되었지만, “韓史多誤謬” 등 한국사료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기재되었다. 그 한편으로 “何其碑之能與我古書吻合也” 등이라고 기록되어 ‘古書’, 즉 일본사료의 사실성이 평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요코이의 개정판 「高句麗古碑考」는 기년논쟁을 거쳐 한국사료의 두찬, 일본사료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실은 해당 시기의 광개토왕비 연구가 기년논쟁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佐伯有清, 1974, 앞의 책, 70쪽.

22) 佐伯有清, 1974, 위의 책, 70쪽.

23) 亜細亜協會, 1889, 『會余錄五集 高句麗好太王碑文』, 亜細亜協會.

3_ 새로운 광개토왕비 연구: 탁본에 대한 불신과 현지조사

기년논쟁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까지 미공개였던 사코우본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광개토왕비 연구상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일부 연구자들만이 겨우 알 수 있었던 사코우본의 전모가 이것에 의해 대다수 연구자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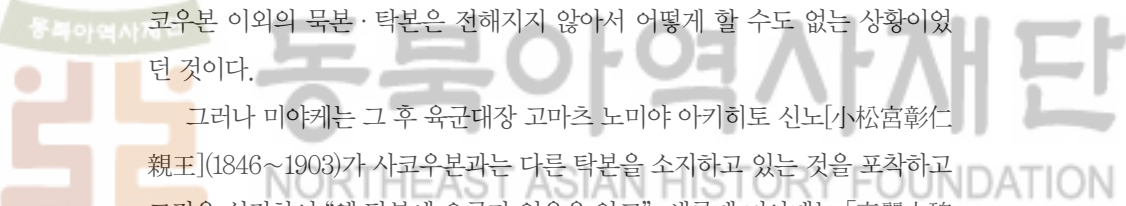
이것에 의해 지금까지 광개토왕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연구자들은 곧바로 사코우본에 기초한 광개토왕비 연구에 착수하여, 간 마사모토[菅政友]의 「高麗好太王碑考」(『史学会雑誌』 22~25, 1891)와 나카의 「高句麗古碑考」(『史学雑誌』 47~49, 1893), 미야케의 「高麗古碑考」(『考古学会雑誌』 2-1~3, 1898)와 「高麗古碑考追加」(『考古学会雑誌』 2-5, 1898) 등 광개토왕비에 관한 논고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초기 광개토왕비 연구로서 경시할 수 없지만, 간[菅]이 “한국사료는 어떤 것도 멀리 후세가 되는 것이므로 오류가 많고”, “한국 사료는 믿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논하였으며, 나카도 광개토왕비를 ‘역사상의 고증’에 중요하다고 하고, 미야케도 광개토왕비의 내용과 한국·일본의 사서를 비교하면서 여러 사료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연구도 기년논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경시할 수 없는 것은 간·나카가 『会余録』에 게재된 사코우본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에 비해서, 미야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새로운 석문을 제시한 것이다. 실은 간이나 나카는 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간은 그 이유를 “대체로 자국 관용의 말과 또 토속의 습관이 되는 일종의 작법 등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역시 한문의 용법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 쪽도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²⁴⁾ 나카도 또한 “자국 관용의 숙어가 있는 것과 자국의 문법에 이끌려 한문 문법에 어긋나는 자가 섞이는 것에 연유하였다”고 지적하여,²⁵⁾ 고구려의 한문 능력이 낮음에 기인한다고

24)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学会雑誌』 22.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에 비해서 미야케는 「高麗古碑考」에서 먹으로 자획을 선명하게 하려고 한 결과 “다소의 점획을 증감시켜 본래의 자형을 잃어버리게 한 것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서술하여, 문자가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는 사코우본이 약 140매의 작은 종이를 붙여 만든 것은 ‘적지 않은 노고를 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비로소 원문을 복원할 수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다소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고 서술하여, 사코우본의 복원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²⁵⁾ 이렇게 해서 미야케는 공개된 사코우본 자체에 의문을 주장한 것이고, 향후 연구의 새로운 코스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야케가 “그렇더라도 자형과 문자의 배치에 대한 의문은 다시 정확한 탁본을 얻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듯이, 당시 일본에는 사코우본 이외의 목본·탁본은 전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그러나 미야케는 그 후 육군대장 고마츠 노미야 아키히토 신노[小松宮彰仁親王](1846~1903)가 사코우본과는 다른 탁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실견하여 “옛 탁본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새롭게 미야케는 「高麗古碑考追加」(『考古学会雜誌』 2-5, 1898)을 발표하였다.

미야케가 실견한 탁본은 본래 참모본부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고마츠가 참모총장 재임 중에 입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²⁷⁾ 현재는 소재 불명이지만, 미야케에 의하면 그것은 “이 새 탁본은 뜬 대로 석면의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자형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많고 매우 읽기 어려운 곳이 있어서 더욱 유감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²⁸⁾ 이것은 목수곽전본에 이어서 작성된, 비면을 충실히 탁출한 원석탁본이었다고 추정된다.²⁹⁾ 미야케는 이 새

25) 那珂通世, 1893, 「高句麗古碑考」, 『史学会雜誌』 47.

26)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 『考古学会雜誌』 2-1.

27) 佐伯有清, 1974, 앞의 책.

28)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学会雜誌』 2-5.

29)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탁본이 사코우본과는 달리, “비의 4면을 각각 1매에 베꼈으므로 문자의 위치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에 입각하고, 이 탁본에 기초하여 사코우본의 오류를 지적하며 새 석문을 제시하여 광개토왕비 연구를 크게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왕비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明治 38년(1905) 11월,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集安 지역을 방문하고 광개토왕비를 실견·조사하여 비의 입지상황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³⁰⁾ 도리이에 이어서 현지에 이르러 비문을 직접 실견하고 글자를 검토한 연구자는 세키노 타다시[関野貞]와 이마니시 류[今西龍]였다. 大正 2년(1913) 9~12월의 고구려 유적조사과정에서 11일 간 集安을 답사한 그들은 광개토왕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행하여, 세키노의 「滿洲輯安県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1), (2)」(『考古學雜誌』 5-3·4·5, 1914)와 이마니시의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訂正増補 大日本時代史(古代付録)』, 早稲田大學出版部, 1915)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보고가 광개토왕비 연구상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당시의 답사에 의해 석비의 표면에 석회가 도포되어 탁공에 의해 글자가 고쳐져 있는 것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즉 세키노는 “석면이 지나치게 거칠어 탁본의 글자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10년 전부터 문자 주위의 사이에 석회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왕왕 자획을 보완하였고, 또 완전히 새롭게 석회 위에 문자를 새긴 것도 있으며, 더구나 이들의 보완은 대체로 원래 글자를 잘못되게 하지 않은 듯하다. 그렇더라도 절대적 믿음은 두기 어렵다(生口一千人を生白一千人이라고 하듯이)”고 서술하여, 석회가 도포되어 문자가 새롭게 새겨지고 있지만, 대체로 오류는 없으면서도 분명하게 틀린 것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세키노는 실견·조사의 결과 제3면의 행수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기왕의 연구를 “다소의 오독이 있는 듯하다”고 논하여 그 문제점을 설명한 것이다.³¹⁾

30) 史学会 編, 1906, 「鳥居龍藏氏の滿洲調査復命書(1)~(3)」, 『史學雜誌』 17編 2·3·4.

31) 関野貞, 1941, 「滿洲国輯安県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 『朝鮮の建築と芸術』, 岩波書店(初出) 関野貞, 1914, 「滿洲輯安県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

세키노는 그 이상의 고찰은 이마니시에게 맡긴다고 하고 더 이상의 논급은 피하였지만, 이마니시도 비면의 현상에 대하여 “원비면 대로 탁본을 만들어서는 선명하지 못함이 심하고 자형도 명료하지 않은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비면이 깊이 결락된 제1면의 일부 같은 것은 진흙으로 메우고, 역시 4면 모두 석회를 발라 자형만을 나타내며, 글자 밖 면의 작은 요철을 메워 평평하게 하고, 오직 탁본을 선명하게 하는 것만 노력하였다. 그래서 문자 중 완전히 공인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 있으며, 일부분을 보수한 것은 매우 많다”고 서술하여, 진흙과 석회에 의해 표면이 가공되고 글자가 보수된 것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보수할 때 원래 글자의 자획에도 많은 주의를 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이 비문을 역사를 고증하는 사료로서 이용하는 것은 깊은 경계를 요한다”라고도 서술하여, 공인의 글자 수정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신중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 석회탁본을 이용한 연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렸다.³²⁾ 더욱이 이마니시는 그 후 집필한 「百濟史講話」에서 “나는 大正 2년(1913)에 세키노 박사를 수행하여 이 지역에 도착하고, 비 주변을徘徊하며 만지는 일이 2·3일에 이르렀다. 비면에는 탁본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회반죽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것을 떼어서 조사하였다. 유포되어 있는 탁본에서는 문자의 진짜 형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라고 서술하여, 회반죽을 떼어서 조사해 보면 탁본과 다른 문자인 것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³³⁾ 현지에서의 비면 관찰에 의해 비면의 현상 및 석회탁본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비면의 석회 도포와 글자의 문제는 大正 7년(1918)에 현지를 방문한 구로이타 가즈미[黑板勝美]도 지적하였다. 구로이타는 당시 조사의 강연 중에서 “탁본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회반죽을 칠하였다”고 서술하여 회반죽에 의해 표면이 가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⁴⁾ 구로이타는 “그러나 이 회반죽에

時代の遺跡」, 『考古学雑誌』 5-3·4].

32) 今西龍, 1937,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朝鮮古史の研究』, 近沢書店[(初出) 今西龍, 1915, 『訂正増補大日本時代史(古代)附録』, 早稲田大學出版部].

33) 今西龍, 1934, 「百濟史講話」, 『百濟史研究』, 近沢書店.

의해서 분명해진 문자는 과연 모두 원래 글자 대로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면을 씻고 서양뿔으로 두들겨서 회반죽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지만, 일이 원래부터 용이하지 않으므로 먼저 의미가 의심스러운 문자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하고, 회반죽을 떨어뜨려 과연 재미있는 발견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至塩水上破其丘部落七百’의 ‘上’은 ‘丘’가 되고, ‘其丘’는 ‘集在’가 되어 나타나며, ‘=遊’는 ‘狗遊’가 되고, 종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매끈하게 술술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서술하여, 서양뿔으로 회반죽을 떨어뜨린 결과 다른 문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의미가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렇게 세키노·이마니시·구로이타 등 현지조사에 의한 석회 도포 후의 탁출 문자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게 되어 석회탁본에만 의거한 광개토왕비 연구의 위험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이때 강연회에서는 오시아게 모리조[押上森藏] 육군중장의 강연도 있어, 오시아게가 광개토왕비 운반 계획에 관계하고 있었고, 목본을 최초로 가져온 자가 ‘故 포병대위 사코우 가게아키[酒匂景明]였음이 밝혀졌다. 사코우 가게아키는 사코우 가케노부의 오류였지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광개토왕비를 가져온 자가 이때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³⁵⁾

그 후 광개토왕비의 현지조사는 중단된다. 大正 8년(1919)의 3·1독립운동 이후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격화되어 학술조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³⁶⁾ 치안의 악화 때문에 현지조사는 만주국 건국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昭和 10년(1935)·11년(1936), 集安에서의 현지조사가 행해졌다. 그것에 참가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廣開土王碑発見の由来と碑

34) 歴史地理編集部, 1918, 「例会記事」, 『歴史地理』 32-5.

35) 歴史地理編集部, 1918, 위의 글. 이 회보에는 “마침내 오시아게 씨는 好太王碑 발견자 故 포병대위 사코우의 이름을 듣고, 또 씨가 현역 시절 호태왕비를 운반할 기 획이 있었으나, 너무 큰 까닭에 운반이 곤란하고 또 글자면 손상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였다는 이유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36)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宝刊行会.

石の現状」(『史学雑誌』 49-1, 1938)을 저술하고, 요코이의 「高句麗碑出土記」 및 『高麗古碑本之来由』 등에 기초하여 비문 발견의 경위를 재검증함과 함께 탁본 탁출의 역사에 대한 검토를 가하였다. 또 이케우치는 大正 7년(1918) 오시아케 육군중장의 강연에서 사코우가 탁본을 가져온 자로 알려져 있었던 ‘사코우 아무개[酒匂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비문을 가져온 자를 비롯하여 광개토왕비 발견의 경위나 탁본의 제작과정을 중국사료를 이용하여 고구한 것은 이케우치가 처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케우치의 연구는 광개토왕비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연구사상 의의가 있다.

한편, 이케우치는 광개토왕비를 실견하여 “회반죽으로 자획의 결손을 보충하고 혹은 완전히 불분명한 글자를 보전하는 일조차 감히 하고 있다. 이것도 학술상의 입장에서 이미 몇 번인지 식자를 슬프게 한 바이다”라고 서술하여 글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비문의 이동 등 구체적인 비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글자의 문제는 당시에 조사에 참가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도 지적하는 바여서, 후지타는 “오목한 면에는 회반죽을 넣어서 평탄하게 하여 새롭게 문자를 조각하고, 혹은 명료하지 않은 문자를 못 모양의 것으로 새긴 흔적이 뚜렷하다”라고 서술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사료개작”이라고 결론지었다.³⁷⁾ 세키노 이래 현지를 방문한 연구자들은 모두 빠짐 없이 탁본 제작을 담당하여 글자가 고쳐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탁본에 기초한 연구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각종 탁본의 종합적인 비교검토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그렇다기보다도 이때의 이케우치나 후지타 이후 광개토왕비 연구는 완전히 두절되어 버렸던 것이다. 중일전쟁의 확대 등에 의해 한국사학 그 자체가 부진하게 된 것도 이러한 원인일 것이지만,³⁸⁾ 제2차

37) 藤田亮策, 1936, 「満洲国安東省輯安県に於ける高句麗遺蹟の調査」, 『青丘学叢』 23.

38) 예를 들어 赤木仁兵衛, 1940, 「回顧と展望 朝鮮史」, 『歴史学研究』 76에서는 “작년도(1939년: 저자)의 조선사학계 회고를 시도한다. 현재는 우리 국민의 관심이 전

세계대전에 의해 현지연구 등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도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다.

III.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연구

1_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 정체와 미즈타니 테이지로

앞서 서술하였듯이 昭和 11년(1936) 현지에서의 비문 조사 이후, 일본에서는 광개토왕비에 관한 연구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동안 마찬가지였다. 광개토왕비가 우뚝 선 集安 지역에 일본에 의해 건국된 만주국이 해체되어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 조선의 해방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혼란과 이에 따라 광개토왕비 연구를 둘러싼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도 연구 저조의 원인이었다. 그 후 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의 「好太王碑面の地名について」(『朝鮮學報』 8, 1955)가 발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표제에도 있듯이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지명을 고증한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케우치 등이 지적한 글자의 문제점에 입각한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와는 좀 먼 것이어서 연구의 저조함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체적으로 중국을 향해 쏟아져 있고, 따라서 동양사학계가 매우 주목되고 또 활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조선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조선사의 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39)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조선사학·광개토왕비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井上直樹, 2008, 앞의 논문; 井上直樹, 2010, 「戦後日本の朝鮮古代史研究と末松保和・旗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광개토왕비 연구에도 관련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역사 연구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황국사관이 부정되어 『記紀』의 사료비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미 논급해왔듯이,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記紀』의 사료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記紀』에 대한 사료비판 과정에서 광개토왕비의 내용도 음미대상이 되어야 했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에키는 그 이유를 광개토왕비는 동시대 사료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도 없어서 사료비판의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⁴⁰⁾ 이 지적은 아마도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보다 상당히 나중의 일이 되지만, 토마 세이타[藤間生大]는 김석형(金錫亨)이 분국론을 주장하였을 즈음에 “대부분의 일본 연구자가 역시 전통적인 한국사관에 안주하여 김석형 논문을 계속 백안시해왔던 원인의 하나는 ‘호태왕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서술하고 있듯이 광개토왕비의 내용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¹⁾ 광개토왕비의 내용, 특히倭와 백제·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는 신빙성이 충분한 것이고 의문의 여지도 없어서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 등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스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는 비문 발견 시점으로부터 1960~1970년대 즈음까지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제2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전후 2기로 나누어 “전의 60년은 비문 긍정의 시기이고, 후의 30여 년은 비문 회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논하였지만,⁴²⁾ 이 단계에서는 ‘비문 긍정’의 이해가 지배적이었다.

田巍,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8도 참조할 것. 또한 이 글의 제2차 세계대전 후 연구사정리에 대해서는 이들 井上直樹에 의거한 부분도 다수 있음을 미리 분명히 해 둔다.

40) 佐伯有清, 1974, 앞의 책, 233쪽.

41) 藤間生大, 1970, 「現在における思想状況の課題として一金錫亨著『古代朝日関係史』について」, 『歴史学研究』 361.

42) 末松保和, 1977, 「水谷悌二郎著『好太王碑考』解説」, 『好太王碑考』, 開明書院.

다만 모든 연구자들이 기왕의 연구에 따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 예를 들어 스에마츠는 「解説「高句麗好太王碑文」」 속에서 “이 비문(광개토왕비문: 저자) 석독의 어려움은 오늘날 여전히 말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그 비문의 난해함을 지적함과 함께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끝맺어 연구가 아직 진행중임을 지적하고 있었다.⁴³⁾ 그러나 스에마츠도 후술하듯이 본격적으로 비문의 재검토를 시작하는 것은 광개토왕비의 탁본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강하게 주장된 후의 일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비문의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광개토왕비 비문의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저절로 나오기 어려웠다. 그 결과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저조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전 이래의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보여주는 사료적 근거로서 광개토왕비는 반쯤 ‘신성시’되어, 후술하듯이 그것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도화선은 일본 연구자가 아닌 해외 연구자에게서 일어났다.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해외의 연구자에게서의 지적을 받아서 비로소 재검증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특질을 일부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속에서 착실히 광개토왕비 연구를 행하고 있었던 연구자도 존재하였다. 그것이 미즈타니 테이지로[水谷悌二郎]였다.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朝鮮銀行에 근무한 후, 퇴직하여 광개토왕비 연구에 착수한 미즈타니는 昭和 초년부터 착수한 30년여의 연구성과인 「好太王碑考」를 발표하였다.⁴⁵⁾ 개인적으로 수집한 원석탁본을 비롯한 탁본에 기초한 치밀한 연구였다. 미즈타니는 지금까지 불문에 부쳐온 비의 원문을 추구하고, 그 연구는 나중에 스에마츠로 하여금 “비문 연구의 흐름을 일변시킨 문자 그대로 획기

43) 末松保和, 1959, 「解説「高句麗好太王碑文」」, 『歴史教育』 7-4.

44) 스에마츠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해서는 末松保和, 1996,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3 高句麗と朝鮮古代史』, 吉川弘文館; 井上直樹, 2010, 앞의 논문 참조.

45)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 미즈타니의 연구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2007, 「水谷悌二郎の廣開土王碑研究—いちずに描いた大きな軌跡」,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를 참조할 것.

적인 논문”이라고 칭찬하게 하였던 것이다.⁴⁶⁾

그렇지만 이 광개토왕비 연구상 획기적인 미즈타니의 연구성과는 당초 『考古学雑誌』에 게재될 계획이었지만 수록되지 않고, 그 후 서도전문잡지 『書品』에 게재되었다. 그 때문에 역사학계는 미즈타니의 연구성과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학계에서 중요시된 것은 미즈타니 논문이 처음으로 공표되고 나서 10년 이상 지난, 광개토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1972년의 일이었다.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다시 미즈타니 연구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게 한 것이다. 역사학계가 미즈타니 연구의 존재를 누구 한 사람 다루지 않고 그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저조하였던 것이다.

2. 기존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한 비판과 광개토왕비 개찬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상황은 1960년대가 되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그 계기의 하나는 김석형의 논문인 「三韓・三国時代の日本列島内の分国について」의 발표였다. 그 논문은 하타다 다카시[旗田巍]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における古代日朝關係史の研究」(『歴史学研究』 284, 1964)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아 같은 해 일본어역이 간행되었다.⁴⁷⁾ 일본열도 내에 삼한, 삼국의 분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견해는 그 때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일본 학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⁴⁸⁾ 이러한 이해는 광

46) 末松保和, 1977, 앞의 글.

47) 金錫亨 著·鄭晋和 訳, 1964, 「三韓・三国の日本列島内の分国論について (1)・(2)・(3)」, 『歴史評論』 165・168・169. 나중에 金錫亨 著·朝鮮史研究会 訳, 1969, 『古代朝日關係史: 大和政權と任那』, 勁草書房으로 간행되었다.

48) 예를 들어, 李進熙는 金錫亨 논문을 “일본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부르고 있다”고 서술하였고(李進熙, 1964, 「考古学的にみた4~6世紀の朝・日關係」, 『朝鮮史研究會會報』 9), 이노우에 미즈사다[井上光貞]는 김석형설에 입각하여, “과거의 제국주의적 일본의 망상이 무의식 속에 계승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 책 저자의 경고를 나는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여, 그 견해를 “자극적인 가설로 높게 평가하고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井上光貞, 1970, 「刺激的な假説の歴史像」, 『ア

개토왕비를 역사적 근거의 하나로 하여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상정하는 해당 시기 일본의 통사적 견해와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광개토왕비의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칠 터였다. 김석형의 논문이 기존 고대한일관계사 이해에 큰 충격을 야기하기는 하였지만, 사료해석에서 ‘견강부회가 눈에 띄는’ 등이라고 이야기되어⁴⁹⁾ 일본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⁵⁰⁾ 오히려 앞서 서술하였듯이 기왕의 광개토왕비 해석에 의거하여 김석형설이 비판되고 있었다.⁵¹⁾ 그 때문에 김석형설을 계기로 일어난 광개토왕비의 재검토 움직임은 일본고대사·한국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상제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이 견해는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후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큰 영향을 주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박시형(朴時亨)의 『광개토왕릉비』(사회과학원, 1966)가 간행되고, 다음 해인 1967년 『朝鮮研究年報』에 그 抄譯이 소개된 일이다.⁵²⁾ 이 견해도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지만,⁵³⁾ 반응은 의외로 작은 것이었다.⁵⁴⁾ 그러나 이 견해도 또한 김석형설과 마찬가지로 한국근현대사 연구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북한의 연구자들에 의한 자극적인 학설은 발표 직후에는 사료해석

ジアレビュー』2). 김석형 논문에 대한 해당 시기 일본학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井上直樹, 2010, 앞의 글을 참조할 것.

49) 鈴木靖民, 1970, 「1969年の歴史学界 回顧と展望」, 『史学雑誌』 79-5 등.

50) 예를 들어, 앞서 서술한 井上光貞, 1970, 앞의 글은 김석형 논문을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저자가 이 관점에서 서서 관계사료를 정리하고 구축한 일본 국가 성립의 약식 도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증과정상 대부분 전혀 안타깝게도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서술하여, 그 견해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김석형설에는 사료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많은 일본인 연구자가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김석형설에 대한 비판이 되어 나타났다.

51) 이즈음 일본학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井上直樹, 2010, 앞의 글 참조.

52) 井上秀雄·永島暉臣 抄訳, 1967, 「朴時亨「廣開土王碑」」, 『朝鮮研究年報』 9.

53) 藤間生大, 1970, 「書評 金錫亨(朝鮮史研究会誌)『古代朝日關係史』をめぐの一つの感想」, 『朝鮮史研究会會報』 25.

54) 이즈음 일본학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井上直樹, 2010, 앞의 논문 참조.

등의 문제로 광개토왕비 재검증의 움직임으로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기존의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존재방식과 비문 해석의 재검토의 길이 열리는 단초가 되었다.

그 단서가 1970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제7회 朝鮮史研究會大會에서의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의 보고 「近代日本史学史における朝鮮問題—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였다.⁵⁵⁾ 나카츠카의 보고는 다음 해인 1971년 『思想』에 게재되었는데,⁵⁶⁾ 나카츠카는 이 글에서 『광개토왕비』의 ‘탁본’(목수곽전본)이 청일전쟁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었던 시기에 참모본부의 군인에 의해 전래되고, 더욱이 그것이 참모본부에 의해 해독된 것이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김석형·박시형과 같은 비문 전체에 입각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비문 연구를 행하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문의 倭 관계기사만을 記·紀의 기사와 결부시켜 해석하며, ‘지금까지도 비문의 개찬이나 자의적인 독해방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재생산되고’ 있어 그 연구는 明治 시대와 비교하여 ‘어느 만큼의 진보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근대 일본의 사학사와 그 재검토 없이 일본인의 한국관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서술하여,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존재방식과 해석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나카츠카의 이러한 주장은 박시형의 『廣開土王碑』에 수록된 부록 「陵碑 発見以後, 日帝(日本帝國主義)により遂行された陰謀とその悪辣性」에서 얻어진 지견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같은 책이 초역으로 간행된 후에도 곧바로 그것을 둘러싸고 고대사 연구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근대사 연구자인 나카츠카에 의해 그 중요성이 재빨리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55) 朝鮮史研究会, 1971, 「大会・總會特集」, 『朝鮮史研究会會報』 26.

56) 中塚明, 1971, 「近代日本史学史における朝鮮問題—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 『思想』 561.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나카츠카에게는 이 이외에도 참모본부와 한국 연구에 대한 「參謀本部と歴史研究－近代日本における『朝鮮史像』と関連して」(『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21, 1974)와 「日本近代史の展開と「朝鮮史像」－とくに參謀本部と歴史研究のかかわりについ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 11, 1974)가 있는데, 두 논문의 발표 이후 광개토왕비에 관한 논고가 증가하고 연구상황은 크게 변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광개토왕비 연구에서 나카츠카의 연구에 대한 의의는 대단히 높고, 그 지적을 경시할 수는 없다.

나카츠카의 지적으로 일본에서는 광개토왕비 연구와 참모본부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그것은 먼저 일본에 처음으로 탁본(목수곽전본)을 가지고 온 사코우 가케노부의 경력·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나카츠카의 문제 제기를 받은 사에키는 1972년에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再検討のための序章」, 『日本歴史』 287을 발표하여 탁본(목수곽전본)을 가져온 '포병대위 사코우 아무개', '사코우 가케아키'가 '사코우 가케노부'임을 밝혀내고, 그가 참모본부의 스파이로서 集安으로 향하였음을 분명히하였다. 또 나가이 테츠오[永井哲雄]의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将来者をめぐる一・二の史料追加について」(『日本歴史』 296, 1972)에 의해 사코우에 관한 새로운 사료도 소개되었다.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계기가 된 목수곽전본을 최초로 일본에 가지고 돌아온 사코우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사코우가 비문을 가져오고 나서 약 90년 후가 되어 서야 비로소 밝혀졌고, 여기에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될 것이다.

사에키는 더욱이 참모본부 편찬과원인 요코이가 집필한 『高句麗古碑考』나 참모본부의 고대 한일관계사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그것들의 연구성과는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吉川弘文館, 1976)로 결실을 맺었다. 이들 일련의 연구에 의해 광개토왕비 연구에서의 일본 군부의 관여가 부각되고, 근대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격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또 이러한 연구와 연동하여 광개토왕비의 연구사를 정리한 사에키의 『研究史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1974)도 간행되었다.

한편, 하타다의 「廣開土王陵碑文の諸問題」(『アジア・レビュー』 14, 1973)는 광개토왕비 연구를 포함하는 한국사 연구가 대륙정책과 관계 있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종래의 연구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여, 광개토왕비 연구의 문제를 근대사학사의 특질을 검증하는 것으로 계속 문제삼았다.⁵⁷⁾

이렇게 근대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 실태가 해명되고 있었던 와중에 광개토왕비 연구에 더욱 큰 파문을 던진 것이 1972년 이후 발표된 이진희(李進熙)의 일련의 논고였다. 이진희는 나카츠카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받아서 그 이듬해에 「廣開土王陵碑文の謎－初期朝日關係研究史上の問題点」(『思想』 575, 1972)을 발표하였다. 이진희는 사코우본 외 수십 차례에 이르는 한중일의 탁본, 비문사진을 자세히 조사하고 탁본의 편년을 행하여 사코우본이 사코우에 의해 개찬되고 있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참모본부에 의해 1900년경 비면에 석회를 도포하여 글자를 고치는 '석회도포작전'이 행해졌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한 것이다. 게다가 광개토왕비 연구 사상의 문제점을 논급한 「廣開土王陵碑文研究上の問題点」(『考古学雑誌』 58-1, 1972)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논고들에 더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록한 『廣開土王陵碑の研究』(吉川弘文館, 1972)가 간행되었다. 이진희가 이러한 연구를 행한 것은 일본 학계에서 “광개토왕비”에 대한 종전의 해석에 ‘전혀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인식되어 ‘황국사관과 그 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인 ‘공화국의 역사가가 제기한 일련의 문제가 일본 학계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광개토왕비’의 재검토 없이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김석형·박시형 등의 연구에 의해 주목되어 온 고대한일관계사에 대한 관

57) 하타다는 이 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동양사 연구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고(旗田巍, 1962,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学の伝統」, 『歴史学研究』 270),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한 하타다의 지적도 그러한 일련의 문제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져,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하타다의 문제의식 등에 대해서는 井上直樹, 2010, 앞의 글 참조.

심은 이진희의 지적에 의해 더욱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하에서 광개토왕비 연구는 두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개찬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검증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원비 글자의 추구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기초한 비문의 석문을 행하고 게다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가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이진희의 비문개찬설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때문인지, 먼저 전자에 관한 논고가 다수 제출되었다.

이진희가 설명하는 개찬설에 대해서는 후루다 다케히코[古田武彦]의 「好太王碑文『改削』説の批判－李進熙氏『廣開土王陵碑の研究』について」(『史学雑誌』 82-8, 1973)가 이진희설 비판을 전개하고, 사에키의 「高句麗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諸問題－李進熙氏の所論によせて」(『歴史学研究』 401, 1973)와 하마다 고사쿠[浜田耕策]의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虚像と実像」(『日本歴史』 304, 1973) 등도 반론하여, 그 후에도 이진희설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笠井倭人, 1978, 「廣開土王碑に対する石灰塗付作戦説への疑問」,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등).

이들 비판에 대해서 이진희도 「廣開土王陵碑研究をめぐる諸問題」(『史学雑誌』 83-7, 1974), 「廣開土王陵碑研究の現状と課題」(『歴史学研究』 410, 1974), 「廣開土王陵碑と酒匂景信」(『日本歴史』 307, 1973)을 발표하였다.(모두 李進熙, 1977, 『好太王碑と任那日本府』, 学生社에 수록). 또한 『好太王碑の謎－日本古代史を書きかえる』(講談社, 1973) 등도 발표하여 그것들을 재비판하고, 더욱이 『광개토왕비』의倭 관계기사는 참모본부에 의해 개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여 논해져 온 지금까지의 '임나일본부'를 비롯한 고대 한일관계사 이해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석회 도포·개찬설이 주목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그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주시되었던 것이 미즈타니의 연구였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미즈타니는 개인적으로 묵본·탁본을 집성하여 그것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서도 관계의 잡지에 게재되고 있었던 것도 있어서, 그 성과는 오래도록 역사학자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왕비에의 관심이 높아지자, 다시 그 연구가 주목되어 그 연구성과

는 『好太王碑考』(開明書院, 1977)로 복각되었다. 원래 글자를 추구하고 원석 탁본에 기초한 연구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스에마즈에 의해 '비문 연구의 흐름을 일변시킨,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논문'⁵⁸⁾이라고 칭찬받았다. 이 단계가 되어 비로소 미즈타니의 연구가 평가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형구(李亨求)·박노희(朴魯姬)에 의해 신묘년조의 '倭'까지도 개찬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것도 있어서, 여전히 비문의 개찬설에 관한 논의, 반론이 그 후에도 당분간 이어졌다(星野良作, 1983, 「廣開土王碑文研究の新展開-李亨求氏の新説に接して」, 佐伯有清 編, 『日本古代政治史論考』, 吉川弘文館; 山崎昭一郎, 1983, 「廣開土王碑の問題点」, 『藤沢一夫先生古稀記念論集・古文化論叢』 등). 이러한 와중에 원비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었지만, 드디어 현지조사에 기초한 연구성과인 왕젠첸(王健群)의 『好太王碑の研究』(雄渾社, 1984)가 간행되었다.

왕젠첸은 실비조사에 기초한 석문을 제시함과 함께 청취조사의 결과 군부에 의한 석회도포는 실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광개토왕비가 '봄'이 되고,⁵⁹⁾ 이듬해인 1985년에는 「四、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이라고 제목을 붙인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그 내용은 東方書店에서 책으로 간행되었다. 또 박시형의 연구가 全浩天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朴時亨·全浩天訳, 1985, 『廣開土王陵碑』, そして).

다만, 이 '봄'은 '매스컴의 선행이 눈에 띄고, 또 왕젠첸의 연구 검토로 끝난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되어⁶⁰⁾ 원비 조사에 기초한 왕젠첸의 견해도 반드시 연구자의 동의를 얻었을 리는 없었다.

그 후 후루하타[古畑徹]의 「廣開土王碑の発見・採拓に関する若干の史料紹介」(『朝鮮学報』 123, 1987)이나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의 「碑文之由来

58) 末松保和, 1977, 앞의 논문.

59) 古畑徹, 1985, 「1984年の歴史学界: 回顧と展望-朝鮮」, 『史学雑誌』 95-5는 "(『광개토왕비』) 봄은 1983·1984년에 중국 왕젠첸의 연구성과가 공표되었던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다.

60) 古畑徹, 1985, 앞의 논문.

記」考略－廣開土王碑発見の実相」(『榎博士頌寿記念 東洋史論叢』, 汲古書院, 1988)이 발표되어 광개토왕비 발견·채석에 관한 사료가 소개되고, 발견 경위 등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에서 광개토왕비 비면의 보호를 위해 화학수지가 비면에 도포되어서 실비 조사가 곤란하게 되었고, 석회 도포 이전의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원석탁본의 조사·탐구가 절실한 과제가 되는 가운데 원석탁본을 계속 추구한 것이 다케다였다. 다케다는 「廣開土王碑の拓本を求めて」(『朝鮮學報』 126, 1988)를 발표하여 미즈타니 탁본에 석회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 지목이 옛 색을 띠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그것을 원석탁본이라고 판단하고, 그것과 같은 솜씨의 원석탁본이 6본 존재함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인 任昌淳本에 붙여진 蔡右年의 발문에서 이것들이 「光緒己丑(1889년)」에 李雲從에 의해 탁출되었음을 밝혔다. 게다가 다케다에 의해 원석탁본의 사진 도판인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1988)도 간행되었다. 글자를 그대로 탁출한 원석탁본의 가치는 높아서 위 책의 발간에 의해 원래 글자 추구의 사료적 기반이 정비된 것이어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위 책에는 광개토왕비의 발견 경위나 탁본의 편년 등을 상세히 논한 다케다의 「廣開土王碑研究の現段階」도 첨부되었다.

그 후에도 다케다는 「中国最初期の廣開土王碑文研究」(『西巖趙桓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92), 「天理図書館藏「高句麗廣開土王陵碑」拓本について」(『朝鮮學報』 174, 2000), 「「水谷旧蔵精拓本」の実像を求めて」(『朝鮮文化研究』 7, 2000), 「廣開土王碑の土難・水難・火難説」(『朝鮮學報』 176・177, 2000)을 잇달아 발표하여 광개토왕비 발견 당초의 상황을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다케다의 목본·탁본에 대한 연구는 『廣開土王碑との対話』(白帝社, 2007)와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吉川弘文館, 2009)로 결실을 맺었다. 이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다케다는 근년 보다 정력적으로 석회탁본의 조사도 진행하여 「廣開土王碑「多胡碑記念館本」の調査報告」(『汲古』 65, 2014)를 저술하고, 게다가 다케다를 비롯하여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나 쉬젠신[徐建

新] 등도 조사를 행한 お茶の水女子大學本에 관한 연구성과인 후루세 나츠코 [古瀬奈津子]의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同成社, 2013)도 간행되었다.

한편, 北京에 잔존하는 탁본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행해온 것이 쉬젠신이었다. 쉬젠신은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王少箴旧蔵本と北京図書館蔵本を中心として」(『史学雑誌』 103-12, 1994)와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北京大學所蔵拓本を中心に」(『朝鮮文化研究』 3, 1996) 등을 발표하여, 탁본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진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코우본 이전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潘祖蔭旧蔵本이 발견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개찬은 없었다고 하는 견해 등을 포함하는 논고를 정리한 쉬젠신의 『好太王碑拓本の研究』(東京堂, 2006)가 출판되었다. 중국인 연구자인 쉬젠신의 저작이 일본에서 간행된 것은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에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역시 쉬젠신은 그의 논문(2013)에서 리차오치웅[李超瓊]의 『遼左日記』가 묵수곽전본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임을 지적하는 등 근년에는 묵수곽전본 제작에 관한 조사도 정력적으로 행하고 있어, 그 새로운 성과를 광개토왕비 연구상 경시할 수 없고 이후의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글자를 둘러싼 문제는 1980년대의 원석탁본 조사연구에 의해 크게 진전되어 연구 기반이 정비되고 있었고, 근년에는 사코우본 이전의 묵수곽전본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석탁본에 기초한 광개토왕비의 내용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다음에서는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다.

3_ 『광개토왕비』의 해석을 둘러싼 연구상황

일본에서는 박시형의 책(1966)에서 “而倭以辛卯年来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의 ‘破’의 주체를 고구려라고 해석한 이래, 한일관계사 이해에서 사료적 근거로 되어 있던 신묘년조가 다시 주목되었다. 이러한 박시형의 연구를 이어 받아 신묘년조는 그 이후의 ‘왕의 훈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의 전사적

의미를 가지는 삽입문'이라고 이해하여 박시형설을 비판하고 '破'의 주체는倭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마에자와 가즈유키[前沢和之]의「廣開土王陵碑文をめぐる二・三の問題－辛卯年条を中心として」(『続日本紀研究』159, 1972)가 발표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에키는「廣開土王陵碑文の再検討」(『続日本古代史論集』, 吉川弘文館, 1972)에서倭가 '임나가야는 물론 백제·신라를 깨뜨린 사실을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주체를倭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박시형설을 지지하여 그 주체를 고구려라고 하고,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를 깨뜨렸다. 신라를 …… 함으로써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이어받아 사카모토 요시타네[坂元義種]는「書評・佐伯有清「廣開土王陵碑文の再検討」, 『続日本古代史論集』上巻」(『史学雑誌』82-6, 1972)에서 '王躬率'이 광개토왕의 친정을, '教遣'이 부하의 파견을 의미하여 전투기사에 주어를 고구려라고 하는 것 같은 애매한 표기는 없고, '渡'의 주어는倭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반론을 가하였다. 또 후쿠다는『失われた九州王朝』(朝日新聞社, 1973)도 '躬率', '教遣'의 유별을 지적하였는데, 신묘년조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석독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조를 이해하는 데에 획기가 된 것이 하마다의 책(1973)이었다. 하마다는 비문의 구조와 성격에 대하여 연구하여, "倭以辛卯年來渡海破"가 6년 丙申條의 왕의 정토를 정당화하는 전치문임을 지적하여 '渡'의 주격은倭여도 좋다고 하고, 이것을 고구려라고 하면 비문의 구조나 전치문의 문맥과 그 기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하여 고구려 주어설을 비판하였다.

하마다는 더욱이 그 이듬해,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11, 1974)를 발표하여 신묘년조가 6년 병신조 뿐만 아니라 그 후의 9·10·14·17년에 걸리는 '대전치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년 병신조의 앞에 기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신묘년조의 내용은 백제 정토, 신라 구원, 왜구 궤멸, 패전에 이르는 대전제로서 설정된 허구이기 때문에, 광개토왕비에 기초하여 해석된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을 전제로 하여 고대한일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일련의 지적은 비문의 구조와도 모순되지 않고 또 그것을 정합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 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어서 광개토왕비 연구상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이 지적은 비문의 구조에서 개찬설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여 그 재고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다케다의 「廣開土王碑辛卯年條の再吟味」(『井上光貞博士還曆記念 古代史論叢 上』, 吉川弘文館, 1978)는 비문 구조로 보아 신묘년조의 주체를倭라고 간주하는 견해가 성립할 여지는 없음을 입증하였다. 또 신묘년조가 과장을 포함한 허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전치문 속에서 신묘년조에만 특정연대가 추가된 것은 신묘년이 고구려에게 특별한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신묘년조의 내용에 과장은 있어도 허위로서 부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4세기 말 동아시아사의 한 토막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묘년조倭의 활동을 허위라고 간주하는 하마다설과는 해석이 다르면서도, 이것에 의해 한층 신묘년조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어 연구가 진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이어받으면서 신묘년조의 독해방식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내세운 것이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廣開土王辛卯年條の読み方について」(『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文集 歴史編』, 平凡社, 1985)였다. 니시지마는 “來渡海”의 ‘來’를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조사로 생각해야 하고, “而倭以辛卯年來”는 “그런데도 倭는 신묘년부터 이래로”라고 석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⁶¹⁾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신묘년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倭의 실태를 둘러싸고 논의가 나뉘면서도 연구의 진전에 따라 일단의 결착을 본 것이다.

이렇게 1970년대 이후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는 倭의 동향을 보여주는 신묘년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를 고구려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해 온 것이 다케다였다. 다케다의 「高句麗好太王碑文に

61) 또한 니시지마의 이 견해는 니시지마 자신이 철회하고 있다. 그 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2007, 「わたしの「辛卯年」条解釈」,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 290~291쪽 참조.

みえる帰王について」(『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1978)는 4~5세기의 고구려 세력권이 고구려령인 '土境'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연에 안정적인 예속관계인 '朝貢=屬民', 게다가 그 외연에 불안정한 '歸王'이라는 종속형태로 구성된다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하였다.

또 다케다의 「高句麗廣開土王紀の對外關係記事」(『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 東洋史・考古學論集』, 朋友書店, 1979)는 광개토왕비와 『三國史記』의 廣開土王紀의 대외기사를 비교·검토하여, 광개토왕기를 2~5년 늦추는 등의 수정 조작에 의해 양자의 기사는 합치하게 되고, 그 때문에 광개토왕기의 내용은 '확실한 사실'로 인정되며, 비문에는 보이지 않는 광개토왕기의 대외관계 기사도 경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다케다의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 1979)는 비문의 내용에서 4~5세기 고구려의 복잡·다용한 영역 지배의 실태를 상세히 논하고, 해당 시기의 고구려에서는 재지의 성과 촌의 관계를 온존하면서 영역화가 진행되었던 것, 고구려 구민 영역의 전통적인 읍지배, 城村 지배, 종족(집단) 지배 등 여러 유형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 원초적·전통적인 곡 지배에서 그것보다도 한층 정치적인 성 지배가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對倭關係 기사만이 주목되어 온 광개토왕비를 동시대 사료로 위치지어 고구려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명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왕비 연구는 착실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다케다의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説』(岩波書店, 1989)이 간행된 것이다. 이것은 기발표논문을 그 후의 연구성과에 입각하여 수정한 것이나 신고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치밀한 사료 고증에 뒷받침된 위 책에서 제시된 여러 논점은 현재에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후 일본의 고구려사 연구에 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도 비문 '倭'자의 석독을 검토하여 그 활동을 총괄한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의 「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東アジア古文書

의史的 연구』, 刀水書院, 1990), “安羅人戍兵”을 “순라병”인 신라인을 편안히 하여 戍兵하게 하였다고 해석한 고관민(高寬敏)의 「永樂10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 27, 1990), 신묘년조를 광개토왕에 의한 남방 정토의 총괄문이라고 하여 고구려 중심의 석독을 시도한 고관민의 「廣開土王碑文のいわゆる辛卯年条について」(『年報(大阪經濟法科大・アジア研)』 2, 1991), 이성시(李成市)의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思想』 842, 1994), 신조 마사미치[新藏正道]의 「廣開土王碑永樂六年条に関する考察」(『ヒストリア』 155, 1997), 오길환(吳吉煥)의 「『廣開土王碑文』紀年記事にみえる廣開土王の軍事行動」(『古代文化』 57-1, 2005), 오길환의 「『廣開土王碑文』「守墓人烟戶」条の再検討-「新來韓穢」三六地域を中心に」(『メトロポリタン史学』 2, 2006) 등이 발표되어 광개토왕비 연구는 착실히 진전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이성시의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이다. 이성시는 논문에서 광개토왕비를 근대의 텍스트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5세기 전반 고구려의 문맥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광개토왕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근대의 문맥 속에서 논해지고 농락되어 왔던 것인가를 의미하고 있어서, 그것은 본문에서 지금까지 논해 온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나카츠카가 일찍이 지적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지적이 이루어진 것은 광개토왕비 연구가 근대의 문맥에서 반드시 탈각할 수 있지 않아서, 그 일의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북한·중국을 휩쓴 근대 이후 광개토왕비 연구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그 후에도 정력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다케다는 책(2007)을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탁본 연구 등에서 ‘渡’, ‘東’을 보완하여 “왜는 신묘년에 와서 바다를 건너 百殘을 깨뜨리고 동쪽의 신라를 □하여 신민으로 삼았다”고 석독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이성시의 「石刻文書としての廣開土王碑」(『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伝達』, 汲古書院, 2011)는 국연 3가와 간연 30이 합하여 33가 하나의 왕묘 묘지기가 된다는 견해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도 광개토왕비 관계의 논고가 발표되었다. 이 논고들 중에는 광개토왕비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논점도 포함되어 있어서 경시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의 진전과 원석탁본의 조사·해명을 진행하는 취진의 착실한 연구성과 등 광개토왕비 연구는 한 단계 진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1990년대 이후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1970~1980년대와 비교하여 성황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광개토왕비에 대한 논의가 다 나온 느낌이 있는 것, 거기에서의 논의가 실증적으로 또 사료에 기초한 정치한 연구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새로운 탁본의 연구나 기존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해 가는 것은 광개토왕비 연구를 향후에도 진행해 가는 데에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가 후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광개토왕비 연구의 과제와 문제점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에 대해서 논급해 왔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記紀』, 일본고대사와의 관계 속에서 '의심할 수 있는 고전'에 비해 '의심할 수 없는 古碑'⁶²⁾로서 주목되어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광개토왕비가 고구려 사료로서의 광개토왕비가 아니라 시종일관 일본고대사 자료로서의 광개토왕비였음을 의미한다. 1960~1970년대 광개토왕비 연구의 중심이 미즈타니의 연구 이외에 대부분 신묘년조나倭의 활동에 주안을 두었던 것이었음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광개토왕비 연

62) 末松保和, 1933, 「日本上世紀年考批判」, 『靑丘學叢』 13.

구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정력적으로 연구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시점까지 일본에서 광개토왕비는 결코 고구려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고구려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해명하는 고구려의 사료로서 종합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다케다에 의한 일련의 연구성과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방대한 광개토왕비 연구에 관한 저작 중 비문 전체의 상세한 연구성과가 다케다의 책(1989)뿐이었음이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광개토왕비 연구상의 과제는 그것과 관련하여 먼저 고구려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추구하는 사료로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일일 것이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근년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저조하다. 그렇지만 광개토왕비 연구는 글자의 확정 등 아직 추구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근년 광개토왕비가 우뚝 서 있는 集安 지역에서는 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정력적으로 조사가 행해져 광개토왕비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금석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그것들은 광개토왕비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러한 사료를 연구하고 그것과 상호 비교 관련시키면서 광개토왕비를 보다 종합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도 중요하여, 이것을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1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 광개토왕비 연구상 극히 중요한 목본·탁본의 연구 또한 진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근년에는 お茶の水女子大學 소장의 광개토왕비 탁본(석회탁본)을 둘러싸고 조사·심포지엄이 행해져 그 성과가 후루세의 책(2013)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北京에서는 쉬젠신의 논문(2013)에 의해 신출자료에 기초한 광개토왕비 초기 목본의 작성과정 등의 일단이 밝혀지고 있다. 광개토왕비의 연구 진전을 위해서 신출사료에 기초한 탁본 제작의 경위, 탁본의 성격 연구 등의 기초작업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2의 과제로 들겠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는 광개토왕비 탁본이 일본에 전래되는 과정에 대한 해명과 근대 일본에서 광개토왕비의 의의를 밝히는 일이다. 상세히 서술

했듯이 광개토왕비 연구는 근대 일본의 발걸음, 아시아 인식과도 밀접하고 불가분하다. 그 때문에 광개토왕비의 탁본은 근대 일본 속에서 주목되어 적지 않은 탁본이 일본에 전래되고 때로는 판매되었다.⁶³⁾ 이것은 『記紀』 비판 등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 등과도 관련되는 것이었지만, 마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의 「廣開土王碑石灰拓本の「來歴」-近現代における石灰拓本の広まりとその背景」은 광개토왕비가 일본 해당 지역에서의 진출과도 관련되어 주시되었음을 중시하여, 근대에 있어서 광개토왕비가 지닌 의미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세히 서술했듯이 광개토왕비 연구가 군부에 의해 시작되는 등 광개토왕비의 목본·탁본의 전래 및 그 연구는 일본의 아시아 진출과도 밀접하고 불가분하였다. 이러한 광개토왕비 연구의 이면에 존재하는 일본의 아시아관 또한 광개토왕비 연구에서는 인정되는 것이어서, 광개토왕비 연구와 관련시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사학·한국사학·동양사학의 존재방식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초 나카즈카의 문제 제기 이후, 비문 연구의 재검증 등에 의해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밝혀졌듯이, 이러한 작업은 저절로 사학사의 해명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광개토왕비의 비문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증에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광개토왕비 연구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괄한 근대·현대 일본의 한국사학·동양사학의 존재방식을 묻는 것으로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것을 제3의 과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근년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저조하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아직 해명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는 일이 이후에도 중요할 것이다.

63) 이미 일본에서는 광개토왕비 탁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1910년 단계에 이미 축인판이 2엔 30전으로 한정판매되고 있다. 史学会 編, 1910, 「好太王碑精拓本の縮印印刷」, 『史学雑誌』 21-5.

참고문헌

- 古畑徹, 1985, 「1984年の歴史学会: 回顧と展望—朝鮮」, 『史学雑誌』 95-5.
- 関野貞, 1941, 「満洲国輯安県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朝鮮の建築と芸術』, 岩波書店[(初出) 関野貞, 1914, 「満洲輯安県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学雑誌』 5-3・4].
-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学会雑誌』 22.
- 今西龍, 1934, 「百濟史講話」, 『百濟史研究』, 近沢書店.
- 今西龍, 1937,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朝鮮古史の研究』, 近沢書店[(初出) 今西龍, 1915, 『訂正増補大日本時代史(古代)附録』, 早稲田大學出版部].
- 旗田巍, 1962,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学の伝統」, 『歴史学研究』 270.
- 吉田東伍, 1888, 「年代考付録 那珂氏年代考ニ抛リテ征韓ノ年次ヲ証ス」, 『文』 1卷 15号.
- 金錫亨著・鄭晋和訳, 1964, 「三韓, 三国の日本列島内の分国論について (1)・(2)・(3)」, 『歴史評論』 165・168・169.
- 那珂通世, 1888, 「日本上古代年考」, 『文』 1卷 8号.
- 那珂通世, 1893, 「高句麗古碑考」, 『史学会雑誌』 47.
- 藤間生大, 1970, 「書評 金錫亨(朝鮮史研究会訳)『古代朝日関係史』をめぐの一つの感想」, 『朝鮮史研究会会報』 25.
- 藤間生大, 1970, 「現在における思想状況の課題として—金錫亨著『古代朝日関係史』について」, 『歴史学研究』 361.
- 藤田亮策, 1936, 「満洲国安東省輯安県に於ける高句麗遺蹟の調査」, 『青丘学叢』 23.
- 歴史地理編集部, 1918, 「例会記事」, 『歴史地理』 32-5.
- 鈴木靖民, 1970, 「1969年の歴史学界 回顧と展望」, 『史学雑誌』 79-5.
- 李進熙, 1964, 「考古学的にみた4~6世紀の朝・日関係」, 『朝鮮史研究会会報』 9.
- 末松保和, 1933, 「日本上世紀年考批判」, 『青丘学叢』 13.
- 末松保和, 1959, 「解説「高句麗好太王碑文」」, 『歴史教育』 7-4.
- 末松保和, 1977, 「水谷悌二郎著『好太王碑考』解説」, 水谷悌二郎, 『好太王考』, 開明書院.
- 末松保和, 1996,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3 高句麗と朝鮮古代史』, 吉川弘文館.

-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宝刊行会.
- 武田幸男, 1993, 「その後の廣開土王碑研究」, 『年報朝鮮学』 3.
- 武田幸男, 2007, 「わたしの「辛卯年」条解釈」,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
- 武田幸男, 2007, 「水谷悌二郎の廣開土王碑研究—いちずに描いた大きな軌跡」,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
- 武田幸男, 2007,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
-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 史学会 編, 1906, 「鳥居龍藏氏の滿洲調査復命書(1)~(3)」, 『史学雑誌』 17編 2・3・4号.
- 史学会 編, 1910, 「好太王碑精拓本の縮印印刷」, 『史学雑誌』 21-5.
- 三宅米吉, 1888, 「日本紀元ノ正否」, 『文』 1卷 9号.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 『考古学会雑誌』 2-1.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学会雑誌』 2-5.
- 徐建新, 2013, 「好太王碑発見史と早期拓本制作史の新史料—李超瓊『遼左日記』の発見」, 古瀬奈津子 編,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
-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 小中村義像, 1888, 「再タビ那珂氏ノ駁論ヲ駁ス」, 『文』 1卷 第24号.
-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
- 阿部弘藏, 1888, 「征韓考」, 『文』 1卷 11号.
- 亜細亜協会, 1889, 『会余録五集 高句麗好太王碑文』, 亜細亜協会.
- 赤木仁兵衛, 1990, 「回顧と展望 朝鮮史」, 『歴史学研究』 76.
- 井上光貞, 1970, 「刺激的な仮説の歴史像」, 『アジアレビュー』 2.
- 井上秀雄・永島暉臣慎抄訳, 1967, 「朴時亨「廣開土王碑」」, 『朝鮮研究年報』 9.
- 井上直樹, 2008,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先史와 古代』 28.
- 井上直樹, 2010, 「戦後日本の朝鮮古代史研究と末松保和・旗田巍」,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8年.
- 朝鮮史研究会, 1971, 「大会・總會特集」, 『朝鮮史研究会会報』 26.
-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 佐伯有清, 1976,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 吉川弘文館.
- 中塚明, 1971, 「近代日本史学史における朝鮮問題—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 『思想』 561.

参謀本部編纂課, 1882, 『任那考』, 無窮會圖書館藏.

青江秀, 1884, 『東夫余永樂太王碑銘之解』, 國立國會圖書館藏.

橫井忠直, 1888, 『高麗古碑考』, 無窮會圖書館本.

橫井忠直述, 1884, 『高麗古碑考』, 宮内廳書陵部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일본학계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노우에 나오키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일본고대사와의 관계 속에서 ‘의심할 수 있는 고전’에 비해 ‘의심할 수 없는 古碑’로 주목되어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광개토왕비가 고구려 사료로서가 아니라 시종일관 일본고대사 자료였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왕비 연구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정력적으로 연구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시점까지 일본에서 광개토왕비는 결코 고구려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광개토왕비가 고구려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해명하는 사료로서 종합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다케다에 의한 일련의 연구성과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1 과제는 먼저 고구려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추구하는 사료로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광개토왕비 연구상 극히 중요한 목본·탁본의 연구 또한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비의 연구 진전을 위해서 신출사료에 기초한 탁본의 제작 경위, 성격 연구 등 기초작업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2의 과제로 들겠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는 광개토왕비 탁본이 일본에 전래되는 과정에 대한 해명과 근대 일본에서 광개토왕비의 의의를 밝히는 일이다. 광개토왕비 연구는 근대 일본의 발걸음, 아시아 인식과도 밀접하고 불가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왕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괄한 근대·현대 일본의 한국

사학·동양사학의 존재방식을 묻는 것으로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것을 제3의 과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근년 일본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는 저조하지만,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아직 해명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는 일이 이후에도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일본고대사, 근대 일본, 아시아 인식, 광개토왕비 목본, 광개토왕비 탁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sults and Topics in Japanese Research on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Inoue Naoki

Many researchers in Japan have recognized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as an important historical record. Therefore, many Japanese ancient history scholars have inquired positively in ancient history research using the epitaph. This means that many Japanese ancient history researchers did not view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as a historical record of Koguryo. In Japan, the epitaph was not studied as a historical record of Koguryo until the research of Takeda Yukio(武田幸男) in the 1970s. This is one of the individual styles in research in Japan on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Thus the first problem we should research in the future is the study of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as a historical document of Koguryo. The second problem is to push forward with study of the ink copies(J. *mokuhon*/K. *mukbon* 墨本) and the rubbings(拓本). The third problem is to clarify the process when a rubbing of the epitaph was brought to Japan and to demonstrate the significance of the Epitaph of King Gwanggaeto in modern Japan. Recently, research in Japan using the epitaph has not been active.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duct such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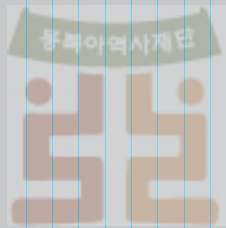
Keywords

Koguryo, Epitaph of King Gwanggaeto, Japanese ancient history,
Modern Japan, Ink copy(*mukbon* 墨本), Rubbings(拓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대 중국 正史에서의 예맥

- '요동예맥'의 자취에 관한 검토로서-

권오중 | 영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민족의 원류를 규명하고자 할 때 예맥은 어떠한 종족보다 중시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예맥에 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녀왔으며 그에 따른 연구성과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예맥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아직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연구내용 가운데 새로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맥에 관해선 예와 맥을 분리하여 예족과 맥족을 서로 다른 종족으로 구분하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예맥을 하나의 명칭으로 보아 단일한 종족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¹⁾ 필자 역

※ 투고: 2015년 4월 30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 1) 濊貊에 관한 종래의 견해나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金貞培, 1968, 「濊貊族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5; 盧泰敦, 1986, 「高句麗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52; 朴京哲, 2004, 「濊貊·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 『高句麗研究』 18; 宋鎬晁, 2007,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高句麗研究』 27.

시 과거엔 예와 맥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종족계통이나 거주 지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²⁾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이 정확한 것이었던가 하는 점에 관해선 현재에 이르러도 자신하기 어렵다.

‘예맥’이 단일한 종족인가 아니면 예와 맥의 두 종족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혼란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예맥의 이름을 둘러싼 해석 문제가 계속되는 데에는 기록의 부족함에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기록의 주체가 동북아지역에서 생활하던 예맥에 관해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중원에 기반을 둔 宮廷史家들이라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예맥에 관한 기록을 전하는 중심 문헌은 ‘四史’로 일컬어지는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의 중국 고대의 正史이다. 예맥과 관련한 중국 정사의 기록 내용은 깨진 그릇의 작은 파편마냥 단편적이어서 전체를 조감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렇더라도 이들 정사의 기록들은 예맥의 존재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맥에 관한 기록을 『삼국지』와 『후한서』를 기준으로 보자면 東夷傳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예맥과 관련한 연구에서 두 정사의 동이전이 지닌 활용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예맥에 관한 문헌 연구에서 고전의 위치에 있다고 할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의 연구 역시 이를 토대로 삼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동이전을 통하여 ‘예맥’이란 단어가 東濊만을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와 부여·고구려·옥저 그리고 동예를 범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고, 범칭으로서의 예맥이 그 일반 의미일 것이라는 주장을 일찍부터 제기하였다.³⁾

예맥을 예족과 맥족의 복합 의미가 아닌 단일한 종족 명칭으로 보았을 경우 여기에 소속된 국가 또는 집단으로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등이 포괄된다는 견해에 대해선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예와 맥의 종족 차이를 주장하는 연구가 맥의 실체로서 내세우는 대상이 고구려인 만큼, 미시나의 주장에 따르자면 예와 맥의 차이성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

2)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 49.

3) 三品彰英, 1952, 「濊貊族小考－民族關係文獻批判に因んで」, 『朝鮮學報』 4.

장에 따르자면 『삼국지』와 『후한서』 동이전에서 소개한 국가나 종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읍루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삼한과 왜를 제외한 모든 종족이 예맥계통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밖에 동이전에 입전되지 않은 현도군이 나 낙랑군 지역도 예맥의 주거 공간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 공간을 망라한 예맥의 분포 범위는 만주의 동부지역에서 한반도 북반부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하겠으나, 예맥의 공간을 위의 공간으로만 한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지역 외에 제3의 공간 역시 예맥의 지역으로 상정되어야 하겠는데, 그 공간으로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요동군 지역이 아닐까한다. 필자는 정사 동이전에 입전되지 못한 예맥이 존재하며, 이들 소외된 예맥 가운데 상당수가 요동군이 설치된 지역이나 그 인근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요동지역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한 예맥에 대하여 편의상 '요동예맥'이라고 부르겠으며, 이 글에선 이들의 존재 여부와 그 역사적 자취에 관해 중국 正史의 기술을 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⁴⁾

正史 東夷傳의 내용에만 의존할 경우 '요동예맥'에 관한 확인이 어려운 것은 동이전이 지닌 속성 때문이다. 한마디로 『후한서』나 『삼국지』의 동이전은 현재 중국 동북지역이나 산둥반도 동쪽 바다 너머에서 생활하던 동이족 전반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한 무제의 조선 원정 결과 중국 군현의 범위는 동이의 지역을 크게 잠식하였다. 중국 군현이 잠식한 지역의 대부분은 종전 예맥을 중심으로 하는 동이 부족이 거주하던 지역임이 분명한데,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새로이 설치한 郡縣의 범위 안으로 편입된 종족에 대해선 기록에서 제외시켰다. 『삼국지』와 『후한서』 모두 옥저와 동예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후한 초기인 光武帝 6년(後 30년)에 두 지역이 낙랑군의 통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⁵⁾ 이로써 보자면 동이전은 중국 군현이 점유한 지역의 외곽에

4) 余昊奎,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93~96쪽에서는 太子河 상류 유역에 거주하던 예맥으로 梁貊을 주목하였는데, 필자의 견지에선 이를 요동군 외곽에 거주하던 '요동예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글에서 필자의 논지는 요동군 범위 안에서 생활하던 예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검토의 대상도 자연 요동군 내부의 예맥에 한정할 것이다.

있던 종족이나 국가만을 상대로 서술한 기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예맥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동이전에 立傳되지 않은 대상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이전을 비롯한 중국 정사의 기록은 이들 예맥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이들이 변경지역을 소란케 하는 변란의 주역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곤 기록을 통해 예맥의 흔적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後漢 후기에 해당하는 “韓·濊가 강성함에 군현이 제압할 수 없었다(韓濊彊盛 郡縣不能制)”라는 기록은 낙랑군 안팎에 거주하던 일부 예맥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일 것이다.⁵⁾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반도의 낙랑지역에서 활동한 예맥에 비해 ‘요동예맥’의 경우는 그 존재에 대한 확인이 보다 용이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요동예맥’이라는 존재를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요동군이라는 지배 형태로 말미암은 장애 때문이었다. ‘요동예맥’을 간과하도록 만든 장애의 하나로서 요동군은 전국시대 이래 만주지역에 개설되어 온 “오래된 군(舊郡)”이라는 인식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맥족은 요동이라는 군현 지배에 동화·융해되어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동예맥’은 다음에서 다룰 내용처럼 종족적 실체로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 중국 군현으로 흡수된 ‘요동예맥’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요동지역에서 ‘예맥족’으로 정체성 유지가 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예맥이 위치한 요동이란 공간이 지닌 정치·사회·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동예맥’의 정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정체 유지는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다음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 내용으로 삼아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四史에 기재된 예맥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5) 『후한서』 85, 동이전(沃沮), 2816쪽; 『삼국지』 30, 동이전, 846쪽.

6) 『삼국지』, 동이전(韓), 851쪽.

II. '四史'에서의 예맥

중국 정사 가운데 예맥에 관한 기록은 四史의 경우가 비교적 나은 편이다. 예맥이 활동한 시기 역시 四史가 다루고 있는 시대와 부합하는 만큼 '요동예맥'에 관한 검토를 위해선 이들 문헌을 중시해야만 할 것이다. 예맥의 존재를 전하는 四史의 기록이 각각 독자적 기록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한서』는 조선열전을 비롯하여 『사기』의 기록을, 그리고 『후한서』 동이전은 『삼국지』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한 내용인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다음에서는 『사기』와 『한서』 그리고 『후한서』와 『삼국지』를 각각 짝 지워 예맥에 관한 표기 형식이나 그 내용에 관해 검토하겠다.

1. 『사기』와 『한서』의 예맥 기록

『한서』의 기록이 한 무제 시기까지는 『사기』를 모본으로 삼았던 만큼 서로 일치되는 내용이 많지만 예맥의 글자 표기에서는 차이가 있다. 『사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맥에 관한 기록은 다음 A-①~③의 내용이 전부이다.

- A-① (흉노의) 여러 左方 王將들은 東方에 거처하였는데 上谷郡 밖에 거주한 자들은 동으로 穢貉⁷⁾ · 朝鮮과 접하였다(卷110, 匈奴傳, 2891쪽).
- ② 漢은 匈奴에 楊信을 使節로 보냈는데, 이때에 漢은 동으로 穢貉과 朝鮮을 쳐서 郡으로 삼았다(위의 책, 2913쪽).
- ③ (燕은) 魚鹽과 棗栗의 풍요로움이 있고, 북으로 烏桓 · 夫餘와 인접해 있으며 동으로 穢貉 · 朝鮮 · 眞番에서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卷129, 貨殖列傳, 3265쪽).

7) 예맥에 밑줄 표시는 필자. 이하 동일함.

예맥에 관한 표기가 후대엔 ‘濊貊’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기』에서는 세 기록 모두 ‘穢貉’으로 표기하였다. ‘穢’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를 표현한 말로 ‘황폐하다’ ‘더럽다’의 의미를 동반한다. ‘貉’은 북방에 서식하는 동물인 ‘오소리’를 뜻하는 단어⁸⁾로 북방 오랑캐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전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풀이하자면 ‘穢貉’은 ‘불결한 북쪽 오랑캐’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름이다. ‘예맥’의 표기가 해당 종족이 지녔던 자체의 이름을 음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3세기를 넘기면서 동이지역에선 이렇다고 할 만한 변화 없이 ‘예맥’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예맥이란 이름은 자칭이 아닌 타칭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예맥’의 어원은 ‘불결한 오랑캐’라는 의미로 고대 중국인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예맥’은 조선이란 이름과는 달리 국가의 의미로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그 개념의 정체는 『삼국지』에서의 鮮卑나 烏桓처럼 종족 또는 부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서』에 나타난 예맥의 용례를 보도록 하자. 『사기』에서는 예맥을 ‘穢貉’이란 字形으로 단일하게 표기한 데 반해 『한서』의 경우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B-①~⑥의 예가 그러하다.

- B-① 여러 左方의 王將들은 東方에 거처하였는데 上谷郡 이동에 거주한 자들은 동으로 穢貉 · 朝鮮과 접하였다(卷94上, 匈奴傳, 3751쪽).
- ② “(前略) 흉노가 굴복하지 않으면 夫餘 · 穢貉이 다시 일어날 것이니 이는 큰 걱정입니다.” 왕망이 위안시키지 않으니 穢貉이 끝내는 반란하였다. 嚴尤에게 詔를 내려 저들을 공격하도록 하였다(卷99中, 王莽傳, 4130쪽).
- ③ 彭吳가 穢貊 · 朝鮮 (통로를) 뚫으니 滄海郡을 설치하였다(卷24, 食貨志, 1157쪽).
- ④ 현도군과 낙랑군은 무제 때 설치하였으니, 모두 朝鮮 · 濊貉 · 高句驪의 오랑캐이다(卷28下, 地理志, 1658쪽).

8) ‘貉’이 오소리를 뜻할 경우 그 품은 ‘맥’이 아닌 ‘학’으로 발음한다.

- ⑤ 漢은 楊信을 시켜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이때에 漢은 동으로 濊貉과 朝鮮을 쳐서 郡으로 삼았다(卷94上, 匈奴傳, 3773쪽).
- ⑥ (孝武皇帝는) 동으로 濊貉과 朝鮮을 평정하여 땅을 넓혀 국경을 개척하고 郡縣을 세웠다(卷 75, 夏侯勝傳, 3156쪽).

기록 B에 의하면 『한서』에서는 예맥을 ‘濊貉’(①, ②), ‘濊貊’(③) 그리고 ‘濊貉’(④, ⑤) ‘濊貉’(⑥)으로 다양하게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濊貉’과 ‘濊貊’이란 표기는 四史 가운데 『한서』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이다. 후대에 일 반화된 ‘濊貊’이란 표기가 『한서』에선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濊貉’은 後漢의 중기 이후에야 형성된 표기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서』에서 예맥 을 표기한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음은 그 만큼 『한서』가 모본으로 삼았던 문헌이 다양하였던 때문일 것이다. B-⑤의 기록은 앞의 『사기』 A-②(흉노 전)의 기록을 베껴 옮긴 것이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濊貉’을 ‘濊貉’으로 표기 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사기』 A의 용례로 보거나, 전한 무제 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封泥 “臨濊丞印”의 예로⁹⁾ 미루어 보자면 적어도 전한 시기엔 ‘濊’의 표기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듯하다. B-⑥의 ‘濊貉’도 『한서』만의 독특한 표현이긴 하나 “夫租濊君” 봉니의 예¹⁰⁾나 『한서』 ‘濊君南閭’ 등의 예¹¹⁾로 보자 면 전한 말기 이후엔 ‘濊’의 표기도 ‘濊’와 아울러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예’를 ‘濊’로 표기한 보기로서 지리지의 경우(B-④)가 주목되는 것은 이 기록이 『사기』에 없는 내용인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 匈奴傳의 ‘濊’가 『한 서』에선 ‘濊’로 다르게 轉寫되었듯이 지리지의 표기 역시 저술 과정의 기록이 라기보다 후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9) “臨濊丞印” 봉니는 요동반도 남부 寶蘭店市 花兒山鄉 張店村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이 지역이 漢 武帝 시기(BC. 128~126)에 설치한 滄海郡 지역이 아닐까 추론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선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輯 참조.

10) 岡崎敬, 1968, 「夫租濊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11) 『한서』 권6, 武帝本紀, “東夷濊君南閭等口二十八萬人降 為蒼海郡”, 169~170쪽.

있겠다.

B-⑤도 그렇지만 B-①도 『사기』의 기록을 베낀 것이다. 이들 기록을 보자면 예맥과 조선이 병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과의 병렬 현상은 왕망 시기의 기록인 B-②만을 제외하고 B의 사료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점은 앞에서 제시하였던 『사기』의 A사료 역시 그렇다. A-①~③의 기록 모두 예맥과 조선을 연칭하여 ‘穢貉+朝鮮’이라는 결합된 형식을 취하였다. 『사기』와 『한서』의 예맥 기사가 앞의 사료A나 사료B에서처럼 조선과 나란히 기록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사기』와 『한서』에서 ‘예맥’과 ‘조선’을 병칭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양자의 지리적 위치와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풀이한 연구가 있다. 예맥과 조선은 서로 구분되는 집단이면서도 종족이나 위치상으로 서로 밀접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¹²⁾ 이에 의하면 북에는 예맥, 그리고 그 이남엔 조선이 상접해 있는 형세이다. 예맥은 요하 이동의 요동지역으로 현재의 요녕성 동부와 길림지역인 반면 조선은 압록강 이남의 서북한지역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¹³⁾

이러한 추론은 앞의 사료 즉 상곡군 동편에 거처한 흉노의 左方과 예맥·조선이 인접하였다던가(사료A-①, B-①) 漢은 동으로 예맥과 조선을 쳐서 郡으로 삼았다는(사료A-②, B-⑤) 내용과 부합한다. 비록 조선의 위치를 압록강 이남의 서북 한반도에 국한시킨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맥의 거주지로서 요하 이동의 요동지역을 주목한 것은 필자 역시 공감한다.¹⁴⁾ 한과 전쟁을 치르기 이전의 조선이란 주변국가와 중국 사이의 교류를 차단할만한 위치였고, 또한 “方二千里”로 표현될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가였다. 이러한 조선의 강역을 압록강 이남으로 한정시킨 것은 앞의 A와 B의 기록 내용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 기원전 2세기 무렵의 조선 강역을 정확히 논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형세는 한반도의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압록강 이북의 요동방

12) 송호정, 2008,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167~168쪽.

13) 송호정, 위의 책, 193~195쪽.

14) 필자는 權五重, 2000, 앞의 논문을 통해 예맥의 분포지역으로 창해군이 개설된 요동반도 남부(遼南)지역을 포함한 요동반도 이동지역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면으로도 어느 정도 돌출돼 있는 형상이 아니었을까 추리해 본다. 그렇다면 조선과 접하였던 예맥의 분포는 요동방면으로 돌출한 조선을 서북방면으로부터 한반도 동북부에 이르기까지 활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세였을 것이다.

기원전 2세기 말, 한 무제가 동으로 병력을 파견한 것은 조선을 공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원정의 실제 모습은 예맥에 대한 공격을 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사료A-②와 B-⑤, B-⑥의 예는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조선 원정이 예맥에 대한 공격을 겸해야 하였던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주목한 바와 같은 조선과 예맥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조선의 북방을 둘러싸고 있는 예맥족의 분포 형태로 보더라도 원정군이 조선을 공략하기 위해선 예맥지역을 통과해야만 하였을 것이다. 왕검성(평양)을 공격하기 위해 평안도 지역에 상륙한 해군의 경우엔 예맥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만주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였던 육군으로선¹⁵⁾ 예맥의 주거지를 전쟁터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과 조선의 전쟁 직전 예맥이 취한 입장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 주변의 예맥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 제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雍關不通”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당시 예맥의 상태는 조선의 물리력으로 강제된 면이 많았다. 조선의 예맥에 대한 통제와 예맥의 복속은 중국의 입장에서 양자의 결합 내지 연대로 판단될 수 있었다. 조선을 공격하던 한 무제가 예맥까지 공격한 일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며, 그 결과 예맥의 지역까지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¹⁶⁾

동이지역에 한 군현이 설치된 역사로 보자면 조선보다 오히려 예맥지역이 앞선다. 조선 땅에 낙랑을 비롯한 한 군현이 설치되었던 기원전 108년보다 정확히 20년 앞서 설립된 滄海郡의 존재는 이를 증명한다. 창해군의 위치에 관해선 혼강(渾江) 유역일대를 중심지로 보는 견해가 통설로 되다시피 하였으나,

15) 요동을 공격 기점으로 삼아 출정한 左將軍 荀彘가 거느린 육로 공격군을 말한다.

16) 한 무제의 출정에서 무풍지대였다고 하면 북방의 부여를 들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부여와 중국은 주변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통설을 따를 경우 중국 군현으로서 창해군이 지니고 있는 고립성이나 그 위치의 편벽됨을 고려하여 필자는 통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⁷⁾ 기존의 통설이 제기되는 데에는 한반도 동쪽해역(東海)이 지닌 ‘滄海’로서의 이미지도 작용한 듯하지만, 중국은 고대로부터 이와는 전혀 다른 지역에 대해 ‘滄海’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고대의 중국인에게 ‘滄海’란 曹操의 유명한 ‘觀滄海’라는 제목의 詩에서도 보듯¹⁸⁾ 발해만 북부의 해역이었다. 이러한 용례에 주목한다면 郡의 이름으로서 ‘滄海’란 한반도 동해안에서 연원한 것이 아니라 요동반도와 연결된 발해만 북부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필자는 창해군의 범위를 요동반도의 남부 ‘遼南지역’에서 한대 요동군의 동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창해군의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맥족이 거주하고 활동하였던 지역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창해군의 위치는 통설로서의 요동군 위치와 중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창해군에 관한 필자의 의견은 요동군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遼東郡移轉說’과 짝하고 있다. 즉 요동군은 戰國시대 燕나라가 군을 처음으로 설치한 시기부터 요하유역 일대에 위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요녕성 이서지역에 자리한 하북지역에서 이전해 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요동군의 위치가 한 무제 때 현재의 天津市 薊縣(漢代의 無終) 일대에서 요동반도와 遼河유역 지대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과거 별도의 글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던 만큼¹⁹⁾ 더 이상 상론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대 요동군이 개설되었던 지역 가운데 遼河 이동지역은 상당 부분이 예맥의 본거지였다는 점이다.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漢武帝 군대

17) 權五重, 2000, 앞의 논문.

18) 207년 遼西의 柳城에 거주하던 烏桓(烏丸)을 원정한 曹操는 회군하면서 발해만 북부에 해당하는 碣石에 이르러 “東臨碣石 以觀滄海(동쪽 갈석에 이르러 창해를 보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觀滄海> 시를 노래하였다.

19) 權五重, 1996,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權五重, 2012, 「제1부 요동왕국의 성립」,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의 경로가 요동에서 예맥의 공간을 경유 조선으로 나아가는 路程(요동 → 예맥 → 조선)을 거쳐야 함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조선과 예맥을 병렬시킨 『사기』와 『한서』의 기록이 대부분 예맥을 앞에 놓고 뒤에 조선을 기록한 것은 두 지역의 위치나 교통상의 경로를 시사해주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_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전의 예맥 기록

『후한서』 동이전을 저술한 시기가 『삼국지』 동이전보다 늦으며, 그 내용 또한 『삼국지』의 그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표현만 일부 고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여기선 『삼국지』 동이전을 먼저 검토하고 『후한서』 동이전을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두 사서에는 동이전을 제외하고도 본기나 열전 부분에 '예맥'과 관련된 주요한 기록이 있지만 다음의 Ⅲ장과 Ⅳ장에서 검토할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선 가끔씩 동이전의 기록만을 문제 삼도록 하겠다.

『삼국지』에서 裴松之의 注에 인용된 기사를 제외하면²¹⁾ '예맥'의 용례는 본기에 3건 열전에 2건 그리고 동이전에 3건 등 모두 합하여 8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맥에 대한 字形은 모두 '濊貊'의 형태로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맥'의 字形이 일정하게 정리된 이유로서 『삼국지』를 저술한 陳壽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삼국지』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문헌의 예를 본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느 특정 인물의 역할로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 『삼국

20)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一潮閣, 150쪽에서는 “후한서 동이전이 삼국지의 기사를 가위로 자르고 모아 꺾땀(剪切·輯綴)으로써 개선보다 개악된 점이 매우 많음”을 결론의 하나로서 지적하였다.

21) 裴松之가 인용한 문헌 가운데 '예맥'을 표기한 것은 「漢晉春秋」, 「魏名臣奏」, 「英雄記」, 「魏書」의 네 문헌으로서 문헌별로 각 1건씩 확인된다. 이들 문헌에선 '예맥'을 모두 '濊貊'으로 표기하여 『삼국지』의 표기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濊貊'의 통일된 형식은 위 문헌들을 인용한 배송지 자신의 표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각 문헌의 표기 형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본다.

지』와 동일한 자형으로 예맥을 표기한 기록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3세기 이후이다.²²⁾ 이로 미루어 ‘濊貊’이라는 단일한 표기는 대략 3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변화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²³⁾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사기』에서 사용한 ‘濊貉’이란 단일한 표기가 『한서』의 단계에선 ‘예’가 ‘濊’, ‘蕞’, ‘濊’의 형태 그리고 ‘맥’은 ‘貉’, ‘貊’의 형태로 혼용되는 복잡한 상태를 거치게 되었고, 이어 3, 4세기 『삼국지』가 저작된 시기에 이르면 다시 ‘濊貊’이라는 글자로 정리되어 통일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면 ‘예맥’의 의미는 어떠할까. 문헌이나 자형의 변화에 따른 의미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앞의 사료A 『사기』에 제시된 ‘예맥’의 용례를 보면 각 문장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A-①~③의 경우 모두 ‘예맥’은 ‘조선’과 연칭되는 구도로서 대략 그 의미는 조선과 이웃해 있던 종족을 지칭한다. 종족 개념으로서 예맥은 『사기』에 이은 『한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비록 ‘예맥’의 자형이 ‘濊貉’, ‘蕞貉’, ‘濊貊’, ‘濊貉’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용례는 『사기』의 경우와 같이 종족의 의미이다. 이러한 ‘예맥’의 용례는 『삼국지』에 이르면 변화를 보인다. 글자의 표기는 ‘濊貊’으로 정리되었음에 반해 그 용례는 오히려 종전 문헌에서와 같은 하나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3건의 기사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① (부여) 나라에는 濊城이라고 이름하는 옛 城이 있으니, 대략 본래 濊貊의 땅인 때문이다. 부여 왕은 그 안에서 산다(卷30, 東夷傳 夫餘, 842쪽).

②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千里에 있는데, 남으론 조선과 濊貊, 동으

22) 진수의 『삼국지』가 저술된 시기가 3세기 후반임에 반해 「영웅기」는 3세기 초, 「위명신주」는 曹魏의 시기(220~265), 그리고 王沈 「위서」는 『삼국지』보다 약 10년가량 앞선 270년 무렵, 習鑿齒 「한진춘추」는 4세기 후반에 저작되었다.

23) 이 글에서 검토할 『후한서』 동이전을 제외하고도 ‘濊貊’의 표기는 『후한서』에서 모두 다섯 곳에서 확인된다(본기 2곳, 열전 3곳). 『후한서』는 劉宋의 范曄(398~445)이 편찬하였던 만큼 당시에는 ‘濊貊’의 표기가 한층 일반화되어 있었으리라고 본다.

론 옥저, 북으론 부여와 접한다(같은 책, 高句麗, 843쪽).

- ③ (동옥저) 그 지형은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어²⁴⁾千里에 달한다. 북으론 읍루와 부여, 남으로는 濊貊과 접한다(같은 책, 東沃沮, 846쪽).

위 C의 기록은 '예맥'을 전하는 『삼국지』 동이전 기사의 전체 모습이다. 먼저 기록 C-②~③의 용례를 보자면 '예맥'의 의미는 앞의 『사기』와 『한서』에서 확인한 예맥의 의미가 아니다. 앞선 문헌의 경우는 종족으로서의 예맥을 뜻하는 개념이었음에 반해 C-②~③의 경우는 고구려(②)와 동옥저(③)의 이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구체적 존재이다. 그 실체가 강원 북부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거주하던 東濊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교적 광범한 종족 개념으로서의 '예맥'이 『삼국지』에 이르러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예맥의 의미가 이렇게 二重의 의미를 지니게 된 요인을 찾기 어렵지만 추측하자면 낙랑군 설치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아닐까 한다. 고대의 중국인들이 요하 이동에 거주하는 이민족을 일컬어 '예맥'이라고 하던 先例에 따라 낙랑군에 거주한 漢人들도 낙랑 동북에 거처하는 동예를 일컬어 '예맥'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동이전에서는 동예를 예맥이라고 하였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용례도 보인다. 위 C-①의 예가 그러하다. 여기서는 '예맥'을 국가로서의 부여가 위치한 지역 원주민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부여 땅의 원주민이었던 예맥이 동예의 의미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일 것이다. 앞에서 예맥족의 분포 범위에 관해 요동방면으로 돌출한 조선을 서북방면으로부터 한반도 동북부에 이르기까지 활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세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렇다면 C-①에서의 예맥은 그 일부인 만주 중부(송화강 유역)에 거처하던 종족으로 이해된다.

『삼국지』 동이전에서 확인된 '예맥'에 관한 이중 개념은 『후한서』 동이전의 경우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다음 『후한서』의 예를 보도록 하자.

24) 원문엔 “東北狹 西南長”이라고 하였지만 이 글에선 필자가 이를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후한서』에서 표기한 ‘예맥’의 글자 형태는 ‘濊貊’과 ‘濊貊’으로 나뉜다. ‘濊貊’은 본기에 5건 열전에 1건이 보이고, ‘濊貊’은 본기에 2건 열전에서 13건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전의 13건 가운데 동이전에 표기된 것이 10건으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이전에 수록된 예맥 기록 10건 모두가 ‘濊貊’으로 표기된 것은 『삼국지』 동이전의 영향일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지』 동이전에서 3건에 불과하였던 ‘濊貊’ 기록이 『후한서』에서 10건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후한서』 동이전은 『삼국지』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후한서』 동이전에서 표기한 10건 ‘濊貊’의 예를 원본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아래 D의 내용과 같다.

- D-① 이때에 遼東太守 祭彤의 위세가 北方을 떨게 하고 (그) 名聲이 海外에 미치었다. 이에 濊貊과 倭·韓이 萬里 (길을 무릅쓰고) 朝貢하였다(『후한서』 85, 東夷傳, 2809쪽).
- ② (고구려는) 南으로 朝鮮·濊貊, 東으로 沃沮, 北으로 夫餘와 접해 있다(앞의 책, 高句麗, 2813쪽).
- ③ (고구려는) 元初5년 다시 濊貊과 더불어 玄菟를 침입하였다(앞의 책, 2814쪽).
- ④ 建光元年 봄, 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 등은 병사를 거느리고 障塞를 나가 공격하여 濊貊의 渠帥를 붙잡아 斬하였다(같은 책).
- ⑤ 가을, (고구려왕) 宮은 마침내 馬韓·濊貊 數千騎를 거느리고 玄菟를 포위하였다(앞의 책, 2815쪽).
- ⑥ “鮮卑·濊貊이 해를 거듭하여 노략질하고 백성을 핍박하고 약탈해서 혼란케 한 것이千의 숫자인데 數十百人만을 헤아려 보낸 것은 向化하려는 마음이 아니다”(같은 책).
- ⑦ (고구려왕) 遂成이 죽고 아들 伯固가 즉위하였다. 그 후 濊貊이 복종하니 동쪽 변경은 일이 적었다(같은 책).
- ⑧ (동옥저는) 北으로 挹婁·夫餘, 南으로 濊貊과 접하였다(앞의 책, 東沃沮, 2816쪽).
- ⑨ 單單大嶺 以東인 沃沮·濊貊은 모두 樂浪에 속하였다. 그 후

境土가 넓고 멀다하여 다시 嶺東7縣을 분할하여 樂浪東部都尉를 설치하였다(앞의 책, 東漢, 281쪽).

- ⑩ 辰韓은 동쪽에 있으며 12國 이다. 그 북쪽은 濊貊과 접하고, 弁辰은 辰韓의 남쪽에 있다(앞의 책, 三韓, 2818쪽).

『후한서』 동이전 D의 기록을 보면 『삼국지』 동이전에 비해 ‘예맥’을 사용한 횡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증가된 내용은 후한시대에 발생한 예맥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지만, 동이지역의 강역이나 각 세력의 경계와 관련해서도 기록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D-②와 D-⑧은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을 옮긴 것이지만 D-⑨와 D-⑩의 경우는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다. 고구려와 동옥저의 남쪽(②, ⑧), 단단대령의 이동(⑨) 그리고 진한의 북쪽(⑩)에 있는 존재가 동예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후한서』 동이전에선 『삼국지』 동이전의 전례에 따라서 동예를 예맥으로 보았다. 그러나 D-①~⑩에서의 ‘濊貊’이 동예의 의미로만 단일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지』 동이전에서 ‘예맥’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활용되었듯이 사료D의 용례 역시 다양한 의미로서의 예맥을 전하고 있다.

앞의 사료 가운데 D-①과 D-③~⑦의 ‘예맥’은 동예가 아닌 제3의 존재로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²⁵⁾ 이들에 관한 기록은 D-①의 기사를 제외하곤 모두 東夷傳 高句麗條에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한시대의 예맥이 그만큼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예일 것이다. 후한시대의 동예 역시 고구려에 복속한 상태였던 만큼 D-③~⑦의 ‘예맥’ 역시 동예라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D-③~⑦의 내용을 동예로 해석하려 한다면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른다. 고구려와 연합하여 현도군을 공략하고(③), 그로 인해 유주자사와 요동·현도태수의 연합 공격을 받는(④) 예맥의 정체를 동예라고 풀이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 예맥은 주로 고구려와

25) D-①의 경우 예맥이 韓·倭와 연칭되었다는 점에서 요동과 멀리 떨어져 있던 동예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나, 요동 인근에 위치한 예맥으로의 이해 역시 가능하리라고 본다.

연합하여 중국 군현을 공격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선 마한(⑤)이나 선비와 회동하기도(⑥) 하였다. 중원의 입장에서 보기에 당시 고구려와 예맥의 움직임은 동북지역의 안정에 직결될 정도였던 만큼,²⁶⁾ D-①과 D-③~⑦사료의 예맥 으론 동예가 아닌 제3의 존재를 상정하는 편이 옳으리라고 본다.

Ⅲ. 『후한서』 安帝紀의 ‘예맥’

‘예맥’을 東濊가 아닌 제3의 존재로 보았을 경우 『후한서』 안제기에 기록된 ‘예맥’ 기사는 이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安帝本紀에 기재된 ‘예맥’ 기사를 근거로 예맥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한다. 우선 안제기에 제시된 예맥 기사를 열거해보면 아래 E의 내용과 같다.

- E-① (安帝元 初5年 118년) 여름 6월, 高句驪가 穢貊과 더불어 玄菟를 侵寇하였다(『후한서』 卷5, 安帝紀, 228쪽).
- ② 建光元年(121년) 봄 정월, 幽州刺史 馮煥은 두 郡의 太守를 이끌고 高句驪·穢貊을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앞의 책, 232쪽).
- ③ (같은 해) 여름 4월, 穢貊이 다시 鮮卑와 더불어 遼東을 侵寇하였다. 遼東太守 蔡諷이 추격하였으나 싸우다 죽었다(같은 책).
- ④ (같은 해) 겨울 12월, 高句驪·馬韓·穢貊이 玄菟城을 포위하니 夫餘王은 아들을 보내 州郡과 힘을 합쳐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앞의 책, 234쪽).
- ⑤ 延光元年(122년) 봄 2월, 夫餘王은 아들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玄菟를 구원하고, 高句驪·馬韓·穢貊을 공격하여 격파

26) 『후한서』 85, 동이전(고구려), 2815쪽에 보이는 “其後濊貊率服, 東垂少事”의 내용은 고구려와 예맥의 활동이 동북 지방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니 (저들은) 마침내 사신을 보내 조공하기에 이르렀다(앞의 책, 234~235쪽).

위 E-①~⑤의 사료²⁷⁾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예맥에 대한 표기 형식과 저들의 활동 내용이다. 우선 '穢貉'이란 형식에 관해 주목하도록 하자. 앞에서 확인한대로 『사기』에서의 '穢貉'이란 단일한 표기는 『한서』의 단계에 이르면 '穢貉', '葦貉', '穢貉', '濊貉'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후한서』 안제기에 보이는 '穢貉'은 『한서』가 제시한 여러 형식 가운데 하나의 형태이다. 四史에서 예맥의 표기가 '穢貉'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濊貉'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자면, 위 '穢貉'이란 표기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濊'와 '穢'의 사전 의미가 종족 개념으로선 동일하지만, '濊'의 경우가 보다 복합적 개념을 지닌 단어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²⁸⁾ 역시 두 단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穢貉'의 표기가 '濊貉'에 선행하는 용례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기를 한 『후한서』 안제기의 기록은 동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사료로 이해된다. 즉 위와 같은 안제기 기록은 3세기 『삼국지』 동이전의 영향을 받은 사료가 아니라 오히려 『삼국지』에 선행하는 사료이거나 또는 안제기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 위 E-①~⑤ 사료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夏六月 高句驪與穢貉寇玄菟.
- ② 建光元年春正月, 幽州刺史馮煥率二郡太 討高句驪·穢貉 不克.
- ③ 夏四月, 穢貉復與鮮卑寇遼東 遼東太守蔡諷追擊, 戰歿.
- ④ 冬十二月, 高句驪·馬韓·穢貉圍玄菟城, 夫餘王遣子與州郡并力討破之.
- ⑤ 延光元年春二月, 夫餘王遣子將兵救玄菟 擊高句驪·馬韓·穢貉 破之 遂遣使貢.

28) 사전을 통해 '穢'와 '濊'의 글자 의미를 비교해보면 종족으로서 '예맥(예)'의 의미라든가 '거칠음' '더러움' '추악함'의 의미는 양쪽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濊'의 경우엔 '穢'의 개념에 추가하여 많거나 깊고 넓은 모양(이 경우 '회'로 읽음), 한테 모임(외), 그물 치는 소리(활), 물 이름(예) 등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글자의 이와 같은 차이는 시대의 선후에 따라 파생된 현상으로 보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穢貉'의 경우가 시간상으로 '濊貉'에 선행하는 표기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참고한 字典은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편, 2007, 『大漢韓事典』.

다음으로 안제기에 기재된 ‘예맥’의 활동 내용에 관해 검토하도록 하자. 안제기의 기록 E-①~⑤를 보면 E-①과 E-②, 그리고 E-④와 E-⑤의 기사는 서로 연결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와 예맥 등이 현도나 요동 같은 漢郡縣을 공격한 내용에 짝하여 군현 세력이 예맥 등을 반격하였다는 내용이다. 기록 E-③은 예맥이 鮮卑와 합세하였다는 내용이 다를 뿐 한 군현과 공격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선 다른 기록과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²⁹⁾ 위 E-①~⑤의 내용에 의하면 요동 일대의 중국 군현과 원주민으로 볼 수 있는 부족(국가) 사이의 전쟁은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전투의 양상도 상당히 치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쌍방 모두 개별 단위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연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거나, 또한 전투의 지휘관이라고 할 요동태수가 전쟁 도중 戰歿하였다는 사실 등은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중국 군현 측에선 요동과 현도 두 군이 회동하였을 뿐 아니라 동북 군현의 후방 지원세력에 해당하는 오늘날 북경지역에 주둔하였던 幽州刺史까지 가세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현지 토착 세력인 부여까지도 지원군을 보내 연합하는 형세였다.

이에 맞선 토착 세력은 고구려를 주축으로 예맥과 마한이 연합하였고, 요동의 서쪽지역에 포진해 있던 선비까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E-③). 동북 만주지역에 포진한 중국 군현에 맞서 현지의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였다는 사실은 ‘東夷’의 역사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하겠다. 당시 고구려는 고대국가의 단계에 도달한 이후였지만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하였던 마한이나 선비까지 연합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점은 한중관계사의 차원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일 것이다. 어떠한 동기에 의해 저들은 한데 힘을 모았으며, 중국 군현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을까. 특히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예맥’이 보이고 있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모습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예맥’의 정체는 기록 E-①, ④에만 의할 경우 고구려에 의해 사역되는 ‘東

29) 『후한서』 권85, 동이전(고구려), 2815쪽에서는 E-③의 내용을 “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 攻遼陰”라고 기재하여 121년 4월의 사건이 濊貊이 아닌 高句麗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E-③번의 기사 내용이다. 즉 “예맥이 다시 鮮卑와 더불어 요동을 侵寇하였다”는 내용은 고구려와 분리된 예맥의 활동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구려의 참여 없이 예맥과 선비의 연합만으로도 요동군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예맥을 일컬어 『삼국지』나 『후한서』 동이전에 立傳되어 있는 예맥, 즉 동예나 옥저 또는 부여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안제기 E-①~⑤의 내용을 통해 추적 가능한 예맥은 고구려 또는 선비와 제휴하였다는 점에서 두 세력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맥의 공격 대상이 요동이나 현도와 같이 만주지역에 포진한 漢 군현이었다는 점에서 저들의 소재지는 요동군이나 현도군과도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부여와 옥저 그리고 동예도 아닌 ‘穢貊’이란 실체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 구체 대상이란 요동지역 일대에 거주하였던 예맥 즉 ‘요동예맥’일 것이다. 그러니까 안제기에 기재된 E-①~⑤의 내용은 동이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등과는 달리 별도의 예맥이 집단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들 요동예맥은 요동군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 군의 안과 밖에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³⁰⁾ 요동군 밖이 아니라 안에서도 예맥의 집단적 분포가 가능하였던 이유로는 漢이 동북 변경지역에서 실시한 部都尉 제도를 연상할 수 있다. 부도위란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夷人(異民族)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東夷와 西南夷 지역의 경우 부도위는 군의 하급기구이면서 몇 개의 縣을 별도로 통치하는 행정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였다.³¹⁾ 군의 행정을 관할하는 태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위를 별도로 설치하였던 것은 변경지대에서 漢 제국의 영역(郡)에 편입된 이인들을 內屬시키기 위해서였

30) 가령 余昊奎, 2002, 앞의 논문에서 주목한 太子河 상류유역에 거주하던 ‘梁貊’도 요동군 외곽에 분포하던 ‘요동예맥’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 權五重, 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88, 12~16쪽, 28~29쪽. 동이와 서남이 지역의 부도위는 원주민인 夷人들의 內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음에 반해, 흉노와 대치하던 북방과 서북 지역(涼州, 并州)의 부도위는 군사적 동원체제로서의 성향이 강하였다.

다.³²⁾ 『한서』 地理志에 의하면 전한시대의 요동군엔 동부·중부·서부의 세 지역에 부도위가 설치돼 있었다. 이들 부도위는 요동군 안에 편입된 이민족 집단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체제였던 바, 예맥은 요동의 부도위 가운데 동부도위와 중부도위에 의해 관리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³³⁾ 부도위 체제는 후한 광무제 때에 이르러 폐지되었고, 부도위가 관리하던 예하 屬縣은 군 태수의 체제로 이관되었다. 그 시기는 建武 6년(後 30)이었는데, 和帝 永元 16년(104)에 이르면 요동군에 다시 서부도위가 설치되었다.³⁴⁾ 광무제 때 폐지한 요동의 부도위 가운데 서부도위만을 설치한 이유는 당시 요동군 서부지역이 당면한 夷人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때문이었다. 和帝 시기에 이르러 동북지역에서 이민 문제가 확산되는 데에는 그 중심에 선비가 있었다.

『후한서』 鮮卑傳에 의하면 和帝 永元(89~104)년간의 선비는 漢軍의 흉노 원정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장군 耿夔가 흉노를 공격하자 北單于는 멀리 도주하였고, 무주공산이 되다시피 한 흉노의 故地를 선비가 대신 점유하였다는 것이다. 흉노의 잔여 인구 10여 만(落)이 모두 선비를 자칭하기에 이르니 이로 인해 선비의 세력은 크게 번성하였다고 한다.³⁵⁾ 部衆의 규모와 세력이 확대된 선비 가운데 그 활동이 단연 돋보이던 대상은 ‘遼東鮮卑’였다. ‘요동선비’의 명칭은 和帝 시기를 출발로 97년, 101년, 115년, 127년 등 연거푸 등장한다.³⁶⁾ 和帝에서 安帝로 이어지는 시기는 ‘요동선비’의 활약이

32) ‘內屬’의 의미에 대해 필자는 일찍이 “이민족 집단이 個體性을 보존한 채 중국에 종속됨을 뜻하는 것으로, 내속은 단순히 인구집단의 종속만이 아닌 空間개념이 동반된 이민족 집단의 종속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바 있다.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 중국 고대 邊郡에 대한 事例的 검토』, 一潮閣, 141~142쪽.

33) 필자는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輯; 權五重, 2005,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5를 통해 요동군 동부도위는 예족 그리고 중부도위는 맥족을 관리하는 체제일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예족과 맥족을 분리 구분하지 않고 본고에서처럼 ‘예맥’으로 통합하여 본다면 요동군의 동부·중부도위는 예맥을 집단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일 遼東屬國都尉로 개편된 요동서부도위는 烏桓과 鮮卑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로 이해한다.

34) 『후한서』 권10, 和帝紀, 193쪽.

35) 위의 책, 권90, 鮮卑傳, 2986쪽.

돈보인 시기로서 '요동선비'란 이름 역시 이 같은 괄목할 활동으로 부여된 명칭일 것이다. 104년 요동서부도위가 재건된 것도 요동선비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기원후 30년 광무제가 전국의 都尉官을 폐지하기 이전의 요동서부도위에 내속한 烏桓인들이 부도위의 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었다.³⁷⁾ 이와 같은 주민의 분포 형태는 요동서부도위가 재건된 104년에도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무제 때 폐지되었던 부도위가 다시 건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요동서부도위의 부활은 해당 주민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현지 주민인 오환이 '요동선비'와 결합하여 반란세력으로 이탈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요동서부도위는 120년 무렵이 되면 일부 선비의 내속이 추가되면서 遼東屬國 체제로 전환되었다.³⁸⁾ 오환 또는 선비의 거주지가 부도위 체제를 거쳐 다시 속국도위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夷인들이 요동군 범위 안에서 집단의 형태로 거주해 왔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요동예맥'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요동예맥'의 경우도 선비나 오환처럼 집단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전한시기 요동예맥의 집단 주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요동군 동부도위나 중부도위가 재건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예맥의 주거지였던 부도위가 요동서부도위처럼 부활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집단으로서 '요동예맥'이란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제시한 E-①~⑤의 기록은 후한 安帝 시기에도 요동예맥이 집단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이해된다. 예맥이 고구려 또는 선비와 제휴하여 현도나 요동군을 공격하였다는 내

36) '요동선비'의 활동 범위를 보자면, 97년엔 遼西郡 肥如縣, 101년엔 右北平·漁陽郡, 115년엔 요동군 無慮縣 그리고 127년엔 요동군과 현도군을 침입하였다.

37) 權五重, 2011, 「後漢 安帝期の 遼東屬國」, 『中國古中世史研究』 25輯, 161~166쪽.

38) 필자가 앞의 논문(주 37)에서 추론한 바에 의하면 120년 요동서부도위는 遼東屬國으로 개편되었고, 이 시기엔 새로이 內屬한 선비족도 屬國의 주민으로 합류하였다. 權五重, 2011, 「後漢 安帝期の 遼東屬國」, 『中國古中世史研究』 25輯, 170~175쪽.

용이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 군현 세력이 예맥을 공격하였다는 기록 역시 예맥 부락의 집단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료 E-①~⑤가 전하는 『후한서』 안제의 기록은 ‘요동예맥’의 존재 자체는 물론 당시의 ‘요동예맥’이 자체적 세력형성이 가능한 집단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한시대 요동예맥은 요동군 체제의 관리 아래 생활하였고, 그런 만큼 郡의 ‘夷民’³⁹⁾으로서 요동 군현의 지배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요동예맥이 후한 중기인 安帝의 治世에 이르러 군현을 공격하는 반란세력으로 변모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맥이 군현에 저항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유로서 집단의 형세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겠지만 이 사실만으로 요동예맥의 저항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요동예맥이 꺾기하는 데에는 예맥 자체의 힘만이 아니라 동북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선비가 직·간접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선비의 部衆 가운데 특히 동이지역에 근접한 ‘요동선비’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만큼 예맥을 포함한 동이의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로서 선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앞의 E사료 가운데 E-③의 경우는 선비와 예맥 군사가 직접 제휴하여 협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와 예맥이 연합하여 군현을 공격하였다는 E-①과 E-④의 기록도 선비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118년과 121년의 요동지역 상황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 역시 요동선비의 활약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사건으로 짐작된다.

『후한서』 동이전 序에 의하면 安帝 永初年間(107~113)은 東夷의 동요가 본격화한 시기였다.⁴⁰⁾ 사료 E-①~⑤에서 확인되는 안제의 시기 ‘요동예맥’의 활동 역시 동북지역에서 일어난 변화의 사례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후한서』 郡國志 玄菟郡 條에 보이는 요동군과 현도군 체제의 개편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임이 분명하다. 『東觀漢紀』에 의하면 전한시대 요동군 屬縣이

39) 여기서 ‘夷民’의 용어는 종족 성분이 漢族이 아닌 夷人으로서 군현체제에 편제된 주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40) 『후한서』 권85, 2810쪽. 여기서서는 고구려와 예맥을 주축으로 한 東夷諸族의 동요를 “逮永初多難 始入寇鈔”로 표현하였다.

었던 高顯·候城·遼陽 세 현은 安帝 때에 이르면 소속 기관이 개편되어 현도군으로 이관되었다.⁴¹⁾ 요동군 소속이었던 세 현을 새롭게 현도군으로 이관시킨 것은 夷民집단의 동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속현의 관리를 개편한 조치가 순전히 '요동예맥'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선비 고구려와 아울러 '요동예맥'의 활동 역시 이러한 변화를 있게 한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현도군 주민의 대개가 예맥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결정은 세 현에 거주하는 주민의 분포와 종족 성분을 고려한 조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요동 3현의 이관 사실을 전하는 『동관한기』의 기록은 '요동예맥'의 존재와 활약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후한서』 安帝本紀의 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IV. 3세기의 '요동예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대 요동지역의 역사에서 3세기라는 시기는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요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정치적 변화를 들 수 있다. 3세기 초기엔 요동의 통제권이 요동의 土豪라고 할 公孫氏에 의해 세습되다가⁴²⁾ 중기에는 제국의 군현으로 다시 편입되었고, 이어 말기에는 漢族이 아닌 夷人 세력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3세기에 발생한 요동지역의 변화가 주민의 일원인 요동예맥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상이 간다. 변화의 기간을 통해 요동예맥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러한 의

41) 『東觀漢記』에 의하면 요동군 속현이었던 위의 세 縣이 현도군 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은 “安帝가 卽位한 해(106년)”라고 하였다. 『東觀漢記』 卷5, 地理志 1면, 武英殿聚珍版.

42) 공손씨가 집권하던 시기(189~238)의 요동은 단순한 지방정권이라기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지녔기 때문에 ‘遼東王國’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관해선 權五重, 2012,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를 참조할 것.

문을 해명하는 일은 이 글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3세기의 '요동예맥'에 관한 기록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욱이 正史에 기재된 예맥에 관한 기록 가운데 3세기의 내용들은 시기상으로도 예맥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본 장의 검토는 필요하다.

우선 3세기의 예맥에 관한 기록 가운데 '요동예맥'으로 이해가 가능한 내용을 추려 제시하면 다음 F의 기록들과 같다. F-①~④의 순번은 시대의 선후 순서를 고려하여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F-① 우리 遼東은 滄海의 동쪽에 있으며 보유한 병력이 百萬인데다 또한 扶餘와 濊貊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강자를 잊자리로 여기고 있는 형세이니 曹操 혼자만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삼국지』 권26, 牽招傳, 730~731쪽).

② (延康元年 3月) 濊貊과 扶餘의 單于 그리고 焉耆와 于闐의 왕들은 모두 각각 使節을 보내 奉獻하였다(『삼국지』 권2, 文帝紀, 58쪽).

③ 高柳 以東으로부터 濊貊 以西의 鮮卑 수십 부락은 比能, 彌加, 素利가 땅을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각기 경계가 있었다(같은 책, 권26 田豫傳, 727쪽).

④ 高句麗와 濊貊은 公孫淵을 원망하여 함께 침입하여 약탈하고 있다. 지금 (공손연은) 밖으론 뜻의 지원을 잃고, 안으론 오랑캐의 침입을 받고 있다(같은 책, 권8 公孫淵傳 257쪽, 裴松之 注에서 인용한 「魏名臣注」).⁴³⁾

43) 본문 F-①~④의 사료를 원문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我遼東在滄海之東 擁兵百萬 又有扶餘·濊貊之用 當今之勢 彊者爲右 曹操獨何得爲是也.
- ② (延康元年, 三月)濊貊·扶餘單于 焉耆·于闐王皆各遣使奉獻.
- ③ 自高柳以東 濊貊以西 鮮卑數十部 比能·彌加·素利割地統御 各有分界.
- ④ 高句麗·濊貊與淵爲仇 竝爲寇鈔 今外失吳援 內有胡寇 心知國家能從陸道 勢不得不懷惶懼之心.

F-①의 기록은 曹操가 수하에 있던 牽招를 동부 烏桓의 중심지였던 柳城(현재의 朝陽)에 파견하였던 204년 무렵의 기록이다. 당시 조조는 최대의 경쟁자인 원소가 사망(202년)한 이후 그 잔여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원소의 아들들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고 있었다. 당시 류성의 오환 수뇌들은 원소의 장남인 袁譚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조조는 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견초를 류성에 파견하였다. 마침 이때엔 요동의 2대 군주인 公孫康(재위 204~221)도 막료인 韓忠을 오환에 사절로 파견하였는데,⁴⁴⁾ 이로 인해 조조와 공손강 양측 사절이 류성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양측 대표 사이에는 어느 쪽이 정통성을 지닌 진정한 사절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위 F-①의 내용은 요동의 위용을 자부하는 한층의 발언으로서 예맥의 존재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F-①의 내용에 의하면 예맥은 부여와 아울러 요동 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병력으로 소개되고 있다. 公孫康에 의한 요동 정권이 수립된 이래 공손씨 정권과 부여는 서로 혼인관계를 맺을 만큼 친근한 사이를 유지하였는데,⁴⁵⁾ 요동이 부여의 병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는 발언일 것이다. 예맥의 경우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공손씨 정권에 복속된 상태였을 것이다. 여기서 예맥의 구체 대상을 고구려나 옥저·동예처럼 요동의 권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 상정하긴 어렵다. 이 경우 역시 예맥의 정체를 요동군의 내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던 '요동예맥'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다. 위 F-①의 내용에선 공손씨가 조조 세력을 향해 반목 대립하는 모습을 확인

44) 204년은 요동왕국의 창립자인 公孫康이 사망하고 그 아들인 公孫康이 2대 군주의 지위를 세습한 해이다. 이 시기 류성을 방문한 요동 사절 韓忠이 오환의 지배자인 峭王(蘇僕延)에게 수여할 印綬를 휴대한 것을 보면, 한층의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公孫康의 즉위를 알림과 동시에 요동왕국의 藩屏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환과의 유대를 강화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권26, 牽招傳, 730쪽 참조.

45) 公孫康은 세력이 강한 고구려와 선비의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여를 도울 목적으로 자신의 문중 여인을 부여왕과 결혼하게 하였다. 『삼국지』 권30, 동이전 夫餘條, 842쪽.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207년 조조가 요서지역에서 오환을 제압한 이후 변화하였다. 조조가 요서에 거류하던 오환을 정벌한 이후 요동 공손씨는 조조 정권을 향해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220년 曹魏 정권이 수립 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F-②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延康元年(220년)이란 조조가 사망하고 그 아들인 曹丕가 실권자의 지위를 계승하였던 해이다. 조비가 漢의 마지막 황제인 獻帝로부터 선양의 형식을 빌어 魏 황제로 등극하는 것은 같은 해 10월이었지만, 그에 앞선 2월엔 이미 모든 조정의 실권이 조비에게 집중돼 있었다. 延康이란 연호가 조비의 승계를 기념하여 반포되었는가 하면, 지방에선 黃龍의 출현과 같이 새로운 ‘王者’의 등장을 예고하는 상서로운 징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⁴⁶⁾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록 F-②에 보이는 같은 해 3월 예맥과 부여가 조공하였다는 기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록일 것으로 풀이된다. 상고 시기 북방의 肅慎이 楛矢를 바쳐 周 武王이 새로운 중국의 王者로 등극한 일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魏나라의 史官들은 동방의 예맥과 부여 그리고 서방의 언기와 우전이 조공한 일을 주목하여 特記하였다. 그렇다고 F-②의 조공 기사를 새로운 왕조의 선전에만 급급한 허구의 기사로만 간주하긴 어렵다. 220년 3월에 있었던 주변민족의 조공을 마치 古典 속의 숙신 고사에 비유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 시기 예맥과 부여가 조공하였다는 사실 자체마저 의례적으로 윤색된 내용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부여와 같은 시기에 예맥이 조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맥’의 정체를 고구려 또는 동예 등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으나 F-②의 기록 역시 ‘요동예맥’의 존재를 전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3세기 무렵의 고구려는 부여를 능가할 정도로 중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만큼 고구려가 조공한 사실을 들어 ‘예맥’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당시의 동예와 옥저는 고구려에 복속한 상태에 있었던 만큼 이들이 고구려를 제치고 중국에 조공하여 예맥으로

46) 『삼국지』 권2, 文帝紀, 57쪽 및 58쪽 3월 기사.

기록되었을 가능성 역시 생각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들도 그렇지만, 특히 필자가 F-②에 보이는 예맥의 실체를 '요동예맥'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던 요동의 정세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세기 말~3세기 초 요동지역의 정치 상황은 공손씨 정권이 중원왕조에서 분리 이탈하여 독립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던 시기였다. 조비가 정권을 승계한 220년은 요동에선 “平州牧”을 자임하던 공손강의 집권 말기에 해당한다. 공손강은 한 때 임의로 군현을 설치한다거나 조조의 적대세력인 袁紹의 아들들을 망명객으로 받아들이는 등 중원 정부에 반목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⁴⁷⁾ 앞의 F-①에 보이는 204년의 공손강은 조조와 맞먹을 만큼 기세등등한 모습을 과시하였지만, 207년 조조의 요서 원정이 성공한 이후엔 중원 정부를 향한 공손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원소의 다른 아들인 원희와 원상은 조조의 류성 원정이 전개되자 류성을 탈출하여 요동으로 가서 공손강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조조가 류성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요동의 목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자, 공손강은 조조에게 자진하여 원소의 두 아들은 물론 이들과 동행해 왔던 烏桓 부족의 영수들까지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전송하는 행동을 보였다.⁴⁸⁾ 중원 정부에 순응하는 공손강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후 조비가 위 왕조를 건국하는 220년에 이르도록 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앞의 F-①에서 확인한 예맥과 부여가 요동 공손씨에게 밀착되어 복속하던 상태는 220년 위 왕조가 등장하는 시점에 이르러도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기록 F-②에 보이는 예맥과 부여가 새로운 왕조가 태동하고 있는 조정을 향해 조공한 일은 두 동이집단의 단독적 처사로 보기 어렵다. 예맥과 부여의 중원지역을 향한 조공은 오히려 요동 정권과 사전 조율을 거친 행위로 읽혀진다. 어쩌면 이 의례는 요동 정권이 예맥과 부여의 조공 의사를 추진한 형식이라기보다 오히려 두 집단의 조공을 유도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예맥의

47) 공손강이 낙랑 남부지역에 대방군을 신설한 일이라든가, 207년 요서의 오환지역에서 도주해 온 袁熙와 袁尙을 받아들인 일 등은 중원정부의 이해와 상충하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48) 『삼국지』 권1, 武帝紀, 29~30쪽.

자발적 결정에 의한 조공이라기보다 공손씨가 기획하고 조종한 조공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시 요동 정권의 입장으로 보아, 예맥과 부여의 조공은 단순히 동이집단 자체의 의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손씨와 曹魏 집단의 관계로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손강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예맥과 부여의 조공을 주선함으로써 지배자의 위치를 새롭게 승계한 조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고 싶었을 것이다.

‘요동예맥’의 존재를 전하는 F-①~②에 이어 F-③의 내용은 3세기 요동 예맥이 거주하였던 지역의 위치를 어렵פות이나마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은 전체 鮮卑部衆 가운데 東部に 속한 부족들에 관한 기록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魏文帝(220~226)에서 明帝(226~239)에 이르는 사이 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 선비 동부의 범위는 서쪽의 高柳(漢代 代郡 소속, 현재의 山西省 陽高縣)로부터 동으로 濊貊에 이르는 구간이라고 명기하였다. 기록 F-③에서 제시한 서쪽 경계인 高柳는 그 위치가 분명하지만 예맥은 지명이 아닌 까닭에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 어렵다. F-③의 기록보다 시기가 앞선 『후한서』 선비전의 기록 역시 선비의 세 집단(三部)에 관해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G와 같다.

G (檀石槐는) 스스로 그 땅을 三部로 나누어 右北平郡으로부터 동으로 遼東郡에 이르기까지 夫餘와 濊貊에 접하는 20餘 邑을 東部로 삼았다(권90, 2989~2990쪽).⁴⁹⁾

위 G의 기사는 후한의 쇠퇴기인 桓帝(146~167) 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선비의 영웅 檀石槐가 출현하여 동쪽 요동에서 서편의 敦煌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해 있던 선비를 통솔하고 이를 東·中·西의 3部로 나누었던 때였다.

49) 위 사료의 원문과 이와 연결된 선비의 中部와 西部에 관한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自分其地爲三部 從右北平以東至遼東 接夫餘·濊貊二十餘邑 爲東部. 從右北平以西至上谷 十餘邑 爲中部. 從上谷以西至敦煌·烏孫二十餘邑 爲西部. 各置大人主領之 皆屬檀石槐”.

이 기록에 의하자면 앞의 F-③ 기사는 선비의 東部に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두 기록 사이의 시차를 보자면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다. 3세기 F-③ 시기에는 동부 출신인 軻比能이 왕성하게 활동하였고, 그 결과 東部の 서쪽 경계는 G의 시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단석괴 시절 선비 동부는 우북평을 서쪽 경계로 삼았었지만, 가비능이 활약하던 3세기 초에 이르면서 서쪽 경계가 우북평 서편에 있는 漁陽, 廣陽, 上谷을 넘어 代郡의 서북단에 위치한 高柳에 이르는 선까지 확장되었다. 3세기 초 東部鮮卑의 강역이 서쪽으로 크게 확장되었던 것에 반해 동쪽 경계는 앞선 단석괴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예맥과 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선비 동부와 경계를 이루었다는 예맥의 소재지는 어디였을까. “高柳以東~濊貊以西”라고 한 F-③의 기록과 “右北平以東至遼東 接夫餘·濊貊”이라는 G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동쪽의 경계지역으로 주목한 예맥은 ‘요동예맥’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선비 동부는 요동예맥과 그 북방의 부여를 연결하는 선 그以西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魏 왕조가 수립되었던 3세기 초엽 요동지역엔 공손씨 왕국이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동부의 선비가 가비능이 활동하던 시기를 통해서도 동쪽 요동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것은 요동의 군주 위치에서 요동예맥을 관리 보호하고 있던 공손씨 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요동예맥은 위치상 서쪽으론 선비와 연결되고, 북쪽으론 부여와 연결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동군의 관리를 받는 상태이었음을 감안할 때 요동예맥의 소재는 자연 요동군 북부지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동예맥의 소재가 요동군 북부지역일 것이라는 점에서 연상되는 것은 遼東郡 中部都尉라는 존재이다. 전한시대로부터 후한 초기에 걸쳐 요동군 북부지역에는 요동군 중부도위라는 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부도위는 앞 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군현으로 편입된 이민족 원주민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기구이다. 요동군 중부도위가 관할한 구역은 오늘날 沈陽市 일대로서 候城·高顯·遼陽의 세 縣이 분포되었던 요동군 북부지역이었다.⁵⁰⁾ 필자가 과거 요동군 중부도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당시엔 중부도위 주민의 대체를 맥

족으로 추정하였으나 과거에 시도하였던 ‘예’와 ‘맥’에 따른 차별과 구분은 이 기회를 빌어 철회해야만 하겠고, 대신 ‘예’와 ‘맥’을 통합한 의미로서 ‘예맥’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⁵¹⁾ 漢代 요동중부도위 구역에 거주하였던 예맥은 그야말로 요동군에서 생활하였던 예맥인 만큼 ‘요동예맥’으로 불러 마땅할 것이다. 과거 요동중부도위의 통치구역으로서 ‘요동예맥’의 주거공간이었던 候城·高顯·遼陽의 세 縣은 후한 안제 때 현도군 관할로 이관되었고,⁵²⁾ 이러한 상태는 魏 왕조로 이어졌다.⁵³⁾

다음으로 F-④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예맥과 고구려가 요동 정권의 마지막 군주인 公孫淵과 적이 되어 공격하였다는 기록 F-④의 내용은 233년의 사정을 전한다. 이 기록은 공손탁 열전 裴松之 注에서 인용한 「魏名臣奏」의 내용으로 正史의 기초 사료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⁵⁴⁾ 정사보다 한층 생생하게 3세기 중엽 요동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당시 공손연은 중국제국이 魏·蜀·吳 삼국으로 분할된 구도 속에서 요동의 지구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요동과 경계가 맞닿아있던 위 제국의 고압적 자세를 벗어날 요량으로 공손연은 232년 강남의 손권에게 사절을 파견하였다. 孫吳 정권은 요동사절을 극진히 환대함과 아울러 공손연에게 “燕王”이라는 큼직한 작위마저 부여하였다. 그렇지만 1년 뒤인 233년 오나라의 답례와 책봉을 겸한 사절이 요동에 도착하였을 무렵

-
- 50) 權五重, 2005, 「遼東郡 中部都尉와 高句麗의 新城」,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연구총서 5, 26~31쪽. 이 논문을 서술할 당시 필자는 모호한 상태이나 마 ‘濊族’과 ‘貊族’을 분별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예’와 ‘맥’을 구분하지 않고 ‘예맥’으로 통칭하는 입장을 택하였다.
- 51) 필자가 과거 ‘濊’와 ‘貊’을 구분하던 입장을 버리고 새로이 ‘濊貊’이라는 통합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맥족과 예족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예와 맥이 ‘예맥’으로 통칭해도 무방할 정도의 근사성을 지니고 있는 때문이다.
- 52) 위의 세 현은 安帝 永初元年(107) 현도군으로 이관되어 새롭게 개편되었다. 이처럼 요동군 속현이 현도군으로 이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예맥’이라는 주민의 성분 문제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의 논문(注 50), 20~21쪽.
- 53) 魏 少帝(高貴鄉公) 甘露2년(257) 기사에 玄菟郡 高顯縣 吏民의 반란을 전하는 기사를 보면 위의 세 현 지역은 여전히 요동군이 아닌 현도군에 편제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권4, 三少帝紀, 139쪽.
- 54) 이 기록은 233년 당시의 中領軍 夏侯獻이 올린 상서(表)의 일부 내용이다.

공손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져 있었다. 자신을 알아주고 환대해주는 것은 강남 쪽이었지만 이 세력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거니와 힘도 조위에 비해 열약한 상태였다. 조위가 비록 자신을 압박하는 불편한 대상이긴 하더라도 언제든 지 육로를 통해 요동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 상대였던 만큼 조위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 공손연이 내린 최종의 결정이었다.

그 결과 공손연은 오나라 사절을 참수하여 그 목을 위나라 조정으로 보냈다.⁵⁵⁾ 이 일로 공손연은 오나라 손권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고 대신 魏로부터는 大司馬 樂浪公이라는 지위를 받았다. 대사마란 직책과 공이란 봉호는 역대 中原세력이 요동의 공손씨에게 수여한 타이틀 가운데 최고의 지위였다. 그렇다고 요동 정권을 향한 關中의 시선이 그다지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위나라 신료들 사이에선 요동 정권은 신의 없고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결과적으로 233년의 요동은 손오나 조위 어느 편으로부터도 증오와 불신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요동 정권이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요동 인근의 예맥은 물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던 고구려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F-④에서 확인되는 요동을 향한 고구려와 예맥의 행동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이해된다. 기록 내용처럼 예맥과 고구려가 요동을 향해 직접 적대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손씨 정권을 지원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으로 처신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⁵⁶⁾ “(공손씨가) 밖으론 魏의 지원을 잃고, 안으론 오랑개의 침입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內’의 존재로 거론된 예맥을 ‘요동예맥’으로 해석함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중원의 왕조와 반목하는 상황에 몰린 요동 정권으로선 고구려·부여·예맥 등 주변 東夷諸族의 협력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요동의 ‘內의 존재’이자 구성분자라고 할 요동예맥마저 요동 정권과 유리되었다는 사실은 요동왕국의

55) 『삼국지』 권3, 明帝紀, 101쪽.

56) 강남의 孫吳와 교류하던 고구려가 234년 위나라 幽州刺史의 諷諭를 받아 태도를 돌변하는 것을 보면, 예맥과 고구려가 공손씨와 소원한 관계로 변화하는 이면에는 유주자사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두운 장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중지란이라고 평할 만한 요동 예맥의 이탈 행동은 요동 정권의 결속을 약화시켰고, 이러한 상태에서 요동왕국은 237년에 幽州軍 그리고 238년엔 中央軍의 공격을 받았고⁵⁷⁾ 결국엔 반세기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 정도로 요동예맥의 항배는 요동 정권의 안위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V. 맺음말

고조선 멸망 직전 예맥의 분포 상태를 지역별로 보자면 대략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고조선의 영역 안에서 거주하던 예맥이다. 조선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주 또는 망명해 온 漢人系 주민도 적은 수는 아니었으나 인구의 다수는 토착원주민인 예맥이었다. 둘째는 조선의 동북지역에서 생활하던 예맥으로서, 이들은 후일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전의 주인공인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등의 先代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조선의 북방에서 생활하던 예맥으로서, 이들은 漢代의 요동군 체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요동예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의 세 부류 예맥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요동예맥으로서, 요동군 안에서 활동하던 저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동예맥’은 정사 列傳의 立傳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그 존재를 간과하기 쉽지만 정사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서도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된 내용이 단편적이었지만 그래도 요동예맥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군현으로 흡수 편입된 蠻夷系 원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部都尉제도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요동군 안에서 요동예맥이 유지할 수 있었던 집단의 생활방식 때문이다. 군 안에서 원주

57) 『삼국지』 권8, 公孫度傳, 253~254쪽; 같은 책 권28, 毋丘儉傳, 762쪽.

민에게 부족 고유의 관습과 기율을 허용하던 부도위제는 후한 초기에 폐지되었지만, 원주민 재래의 전통은 부도위제가 폐지된 이후로도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한 중기 이후에 이르러도 '요동예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이들 예맥이 지녔던 정체성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는 안제의 시기 이후이다. 이때는 선비가 세력을 키워 동북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는데, 요동예맥은 이 기회를 틈타 고구려나 선비 등과 제휴하여 요동군과 현도군 일대를 소란케 하였다. 당시 요동예맥은 하나의 軍團으로 인식될 만큼 병력을 보유하고 집단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요동예맥의 존재는 중원지역에 조위 정권이 들어선 3세기 초반에도 확인된다. 正史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동예맥의 위치는 요동군의 북부지역으로 서쪽으론 선비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3세기 초엽의 요동지역엔 공손씨 정권이 등장해서 독립왕국의 형세를 구축하였는데, 이 시기 요동예맥은 요동왕국을 추종하고 지원하는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공손연 시기 요동 정권이 중원의 국가들과 대립하여 불안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요동예맥은 고구려와 더불어 공손씨에 반목하는 세력으로 처신하기도 하였다. 요동 공손씨 정권이 238년 붕괴하는 데에는 卍丘儉과 司馬懿를 대표로 하는 조위 군대의 연이은 공격이 주효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요동예맥의 이탈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현세력에 의해 요동예맥의 생활공간은 분산되었을 터이지만, 3세기 초에 관한 정사 기록에 의하면 그 일부가 요동군 북부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위치는 동으론 현도군에 연결되며, 북으론 부여 서편으론 선비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다.

요동예맥을 비롯하여 예맥 전반에 관한 정사의 기록은 3세기 중엽의 내용⁵⁸⁾

58) 『삼국지』 권4, 齊芳王紀, 正始 7년(246년) 夏五月 기사, 121쪽에 보이는 “滅貊을 토벌하여 모두 격파하니 韓那奚 등 수십 나라가 각기 종족을 이끌어 항복하였다(討滅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기사는 같은 해 二月에 있었던 卍丘儉의 고구려 원정에 잇달아 기록된 까닭에 예맥의 주체를 동예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선 이 기사를 논외로 하였지만

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단순히 기록이 사라진 현상만을 들어 종족 자체의 소멸을 거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정사에서 예맥에 관한 기록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진 예맥의 후신으로 추정할 만한 대상은 무엇인지. 이에 관한 검토를 위해선 후일 별도의 논고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246년의 예맥 역시 '요동예맥'으로 불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저서

- 權五重, 2012,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一潮閣.
 三上次男, 1978,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孫進己·王綿厚(編), 1988, 『東北歷史地理』, 北方史地叢書.
 嚴耕望, 1974, 『中國地方行政制度史』上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 45.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王子今, 2013, 『秦漢交通事稿』, 中國人民大學出版社.

논문

- 權五重, 2005,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연구총서 5.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 49.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輯.
 權五重, 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88.
 金貞培, 1968, 「濊貊族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5.
 盧泰敦, 1986, 「高句麗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52.
 朴京哲, 2004, 「濊貊·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 『高句麗研究』 18.
 宋鎬晷, 2007,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高句麗研究』 27.
 余昊奎,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岡崎敬, 1968, 「夫祖蕤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三品彰英, 1952, 「濊貊族小考－民族關係文獻批判に因んで」, 『朝鮮學報』 4.
 沈陽故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沈陽鄭家洼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1.
 王綿厚, 1985, 「兩漢時期遼寧建置述論」, 『東北地方史研究』 1985-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沈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 「遼寧沈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報告」, 『考古』 1998-10.

[국문 초록]

고대 중국 正史에서의 예맥
- ‘요동예맥’의 자취에 관한 검토로서 -

권오중

古代 한반도 중부 이북에 살았던 주민의 대개가 濊貊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맥의 분포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에까지 미친다. 고대 漢 王朝는 만주의 중남부 지역에 요동군을 설치하였다. 요동군은 황제의 직할 통치를 위한 행정단위였는데, 그 주민의 상당수는 예맥이었다. 요동군에 편입된 예맥, 즉 ‘요동예맥’은 郡民으로 재편되었을 터인데, 이 글은 이들 요동예맥의 자취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요동예맥 가운데 요동 북부에서 생활하였던 예맥은 군현 체제에서도 부족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첫째는 前漢 왕조가 실시한 部都尉 제도(Sub-Commandery System)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원주민이 지녀온 종족의 관습과 기율을 유지시키는 제도로서, 이로 인해 요동예맥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다. 둘째는 부도위제와 관련하여 원주민이 유지해 온 집단의 생활방식으로, 이로 인해 요동예맥은 부족의 집단행동을 펼칠 수 있었다.

후한에 이르러 부도위가 폐지되었지만 요동예맥의 존재는 확인이 가능하다. 정사의 東夷傳에서는 이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後漢書』 安帝紀 등을 보면 요동예맥의 군사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요동예맥은 고구려나 鮮卑 등과 연합하여 요동군이나 현도군을 공격하였다. 3세기의 요동예맥은 요동에 등장한 공손씨세력에 복종하였지만, 공손씨세력이 약화된 이후엔 오히려 中原王朝의 편을 들어 공손씨를 공격하는 데 협력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예맥(Yemaek Tribe), 정사(The Authentic history), 요동군(Liaodong Commandery), 부도위(Sub-Commandery), 동이전(Records of Eastern Barbarian), 안제기(An Account on Emperor An), 공손씨(Gongsun's Famil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Yemaek Tribe in the Authentic History of Ancient China

Kwon Ojung

It is commonly accepted by many scholars that almost all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northern area of the central Korean Peninsula in the ancient period were Yemaek Tribe. The dispersion of the Yemaek Tribe extended to Manchuria. The Han dynasty established Liaodong Commandery in the south-central region of Manchuria. The Commandery was an administration unit for direct rule by emperors, and the Yemaek constituted a large population. As Liaodong-Yemaek, the Yemaek tribe incorporated into the Liaodong Commandery, and they should have been reorganized as Commandery residents. This paper searches for traces of the Liaodong-Yemaek.

Yemaek Tribe, which lived in the northern Liaodong among the Liaodong-Yemaek, could maintain their own tribal identity under the Commandery system. First, this became possible due to the Sub-Commandery system introduced by the Western Han dynasty. This system upheld the tribal customs and discipline of the native population, thus the autonomy of Liaodong-Yemaek could be guaranteed to a certain degree. Second, this became possible due to the collective lifestyle sustained by the native population regarding the Sub-Commandery system. That is why they took part in tribal-collective actions.

Although the Sub-Commandery was abolished in the Eastern Han dynasty, it is possible to verify the existence of Liaodong Commandery.

While “Records on Eastern Barbarians(東夷傳)” of the authentic history didn't pay attention to Liaodong-Yemaek, the “Account of Emperor An” in History of the Later Han(後漢書) described military activities of the Liaodong-Yemaek. The Liaodong-Yemaek attacked the Liaodong Commandery or the Xuantu Commandery forming the united front with Koguryo and the Xianbei. Although the Liaodong-Yemaek was subjugated to the Gongsun's Family in the third century, they collaborated with the Central Plain Dynasties and helped to attack the Gongsung's family.

동북아역사재단

Keywords

Yemaek Tribe(濊貊), The Authentic history(正史), Liaodong Commandery(遼東郡), Liaodong-Yemaek(遼東濊貊), Sub-Commandery(部都尉), “Records of Eastern Barbarians”(東夷傳), “Account of Emperor An”(安帝紀), Gongsun's Family(公孫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金代 賓禮를 통해 본 宋·高麗·夏의 국제 지위

박윤미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빈례(賓禮)는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독특한 외교 방식이다. 여기서 손님[賓]은 본래 주(周) 왕실의 입장에서 봉건 제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당(唐)대 이후로는 그 범위가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로 확대되었다. 즉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에 규정된 빈례는 번주(蕃主) 또는 번사(蕃使)의 방문을 전제로 하여 영접, 황제알현 날짜 고지, 황제알현, 연회의 의식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¹⁾ 이러한 빈례 규정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제관계의 중심이 당, 즉 중화(中華)에 있음을 확인시키는 무대 장치로 기능하였다.²⁾ 또한 당

※ 투고: 2015년 2월 16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 1) 『大唐開元禮』 79, 賓禮, 蕃國主來朝以束帛迎勞; 遣使戒蕃主見日; 蕃主奉見; 受蕃國使表及幣; 『大唐開元禮』 80, 賓禮, 皇帝宴蕃國主; 皇帝宴蕃國使.
- 2) 唐의 賓禮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金成奎, 2012,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中國古中世史研究』 27.

의 장안성은 각종 의례가 연출되는 무대로서 기능하는 대표적인 도성으로 평가되며, 장안성의 도시 구조는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설계라는 의견도 있다.³⁾

그런데 북송(北宋)의 경우 요(遼)와 동아시아의 패권을 나누면서 세계의 중심이 중화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해 당의 빈례와는 달리 상하관계 뿐 아니라 대등관계, 즉 적례(敵禮)까지 고려한 빈례를 고안해야 하였다. 즉 요에 대해서는 대등관계를 반영한 빈례를, 그 외의 국가-고려·하⁴⁾ 등-에 대해서는 상하관계를 반영한 빈례를 적용하기 위해 국가별로 각각의 빈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요의 빈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중화의 우월성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빈례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송(南宋) 시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남송은 국제 지위가 금보다 낮아지면서 금의 사신을 상국(上國)에 대한 예로 대우하기에 이르렀다.⁵⁾ 반대로 금의 빈례는 ‘중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적(夷狄)이 중심이 되는 예’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천하의 중심이 중화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빈례의 기능이 전복(顛覆)된 것이다.

금의 빈례는 사신이 도착해 황제를 알현하는 의식인 「외국사입현의(外國使入見儀)」(이하 「입현의」로 약칭), 사신을 위한 연회로서의 「곡연의(曲宴儀)」, 사신이 귀국하기 전 하직인사를 올리는 의식인 「조사의(朝辭儀)」로 구성

3) 妹尾達彦, 1992, 「唐長安城の儀禮空間」, 『東洋文化』 72, 8~9쪽.

4) 흔히 西夏로 부르지만, 金代의 기록에는 ‘夏’로 칭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이를 따른다.

5) 1126년 ‘靖康의 變’으로 금(金)에 의해 북송(北宋)이 멸망하고 南遷하여 남송(南宋)을 세운 이후, 송은 금을 압도한 적이 없으며, 1141년(紹興 11) ‘紹興和議’로 금에 대해 稱臣함은 물론 남송 황제는 금 황제의 책봉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후 1165년에는 양국의 관계가 송에게 다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叔姪관계였고, 또 1207년에 개정된 것도 伯姪관계였으므로 縱的관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남송 황제가 金使를 맞이하여 國書를 전달받는 의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趙永春, 1993, 「宋金關於‘受書禮’的鬭爭」, 『民族研究』 1993-6; 趙永春, 1996, 「宋金關於交聘禮儀的鬭爭」,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996-3; 金成奎, 2013, 「金朝의 禮制霸權主義에 대하여-「外國使入見儀」의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86.

되어 있다.⁶⁾ 즉 항목 명으로 볼 때 송·요가 상대국에 따라 별도의 빈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외국사'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의 빈례와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입현의」에 한하여 삼국의 사신이 함께 예를 행하는 순서도 있는데, 이러한 면은 당시 금의 우월한 국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빈례에 반영된 금의 국제 지위를 '예제패권주의'로 정의한 연구도 있다.⁷⁾ 그러나 「입현의」 마지막에 보이는 짧은 순서를 제외하면, 금의 빈례 역시 송·고려·하의 사신이 시간차를 두고 각자 입장하여 저마다 별도로 규정된 절차를 행하였다. 즉 파견 국가에 따라 사신이 행하는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송·요의 빈례와 흡사하며, 이는 외국사라는 동일한 명칭을 붙인 것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당의 빈례뿐 아니라 송·요 빈례의 특징이 오묘하게 반영된 금대 빈례의 '동일한 명칭 속 차등 대우'에 주목하여, 그 차등 대우의 방

- 6) 금의 賓禮는 『금사(金史)』 禮志 및 『대금집례(大金集禮)』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송의 禮書에는 '賓禮'로 명시되어 있고, 요의 경우 『요사(遼史)』 禮志에 '賓儀'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금은 두 기록 모두에서 아무런 구분을 하지 않아 '○○儀'라는 식의 세부적인 편목 및 내용을 통해 빈례를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손님을 대하는 儀禮만을 賓禮로 구분한 『대당개원례』와는 달리, 송·요는 生辰賀禮나 正旦 의식까지 빈례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의식은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嘉禮로 구분해야 하지만 외국의 사신도 참석하기 때문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빈례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여 송·요의 구분법을 배제하고 『대당개원례』 식의 분류에 따라, 『금사』 禮志의 「외국사입현의」·「곡연의」·「조사의」·「신정하사의주(新定夏使儀注)」 및 『대금집례』의 「곡연의」·「인사사현의(人使辭見儀)」를 금의 賓禮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金成奎의 선행연구에서의 金 賓禮 구분법과 동일하다. 또한 『대금집례』의 「곡연의」는 『금사』의 「곡연의」와 완전히 일치하고 「인사사현의」는 『금사』의 「外國使人見儀」·「朝辭儀」를 합한 것이라, 양서의 내용은 사실상 같다. 다만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金史』에는 '鞠躬', '再拜', '北向' 등으로 표현된 것이 『대금집례』에는 '躬身', '兩拜', '面殿' 등으로 표현되는 식이다.
- 7) 金成奎, 2013, 앞의 논문. 이 연구는 장기간 中國의 賓禮를 연구해온 중국사 연구자의 시각에서 金朝 빈례의 내용이 당·송·요의 빈례와 비교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金의 獨尊的인 국제 지위가 빈례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禮制霸權主義로 정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필자는 金成奎의 논지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만 '예제패권주의'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을 정점으로 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송·고려·하의 국제 지위를 살피고, 국제질서를 반영한 금대 빈례의 특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동일한 명칭의 ‘外國使’에 대한 차등 대우

이 장에서는 「입현의」 및 「조사의」의 구도와 절차를 파악하고, 그 속에 드러나는 외국사에 대한 차등 대우를 살펴보겠다.⁸⁾

1. 「입현의」의 구도와 외국사의 지위

「입현의」의 절차는 먼저 송사(宋使), 고려사(高麗使), 하사(夏使)의 순으로 각각 의식을 행하고 난 후, 이어서 삼국의 사신이 한 데 모여 의식을 행한다. 그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입현의」는 황제와 전전반(殿前班)⁹⁾, 신료가 식장에 나아가 각자의 위치에

8) 의식의 구도와 행례절차에 대한 설명은 金成奎의 선행연구와 일부 겹칠 것이다. 그러나 의식의 과정을 살피는 것은 이 글의 논지 전개에 위해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빈례 사료를 통한 연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임을 밝혀두겠다. 다만 선행연구는 금대 빈례의 행례절차를 송·요 등과 비교해 특징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식의 전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의식의 단계를 구분하고 절차의 순서를 설명하는 방식도 필자와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이 글에서는 금의 빈례 가운데 「곡연의」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곡연의」의 절차 중 송과 고려의 從人은 左廊에 자리하고, 夏의 從人은 右廊에 자리하는 점이 외국사의 차등 대우와 관련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요소를 찾을 수 없어 생략한다.

9) 전전반은 殿前都點檢司에 소속된 侍衛軍으로 이때는 露臺의 左右에 서서 황제를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殿前都點檢司는 天眷 元年에 설치되어, 親軍을 관장한다. 正3品の 殿前都點檢, 從3品の 殿前左副都點檢과 殿前右副都點檢, 從6品の 殿前

〈표 1〉 금대 빈례 중 「입현의」의 절차¹⁰⁾

외국사입현의 ¹¹⁾	
I 宋 使 의 례	<p>황제·신료 입장 皇帝卽御座. 鳴鞭, 報時畢. 殿前班小起居畢. 至侍立位. 引臣僚左右入, 至丹墀, 小起居畢. 宰執上殿, 其餘臣僚分班出.</p>
	<p>① 입장 閣門使奏使者入見榜子. 先引宋使副, 出笏捧書左入, 至丹墀, 北向立.</p>
	<p>② 國書진정(閣使대행) 閣使左下接書. 捧書者單跪授書, 拜起, 立. 閣使左上露階, 右入欄內, 奏「封全」, 轉讀畢.</p>
	<p>③ 宋帝 대신 金帝의 안부를 물음 引使副, 左上露階, 齊揖, 入欄內. 揖, 使副鞠躬, 使少前拜跪, 附奏畢, 拜起, 復位立.</p>
	<p>④ 勅旨받음 待宣問宋皇帝時, 並鞠躬, 受勅旨.</p>
	<p>⑤ 宋帝의 안부를 전함 再揖, 鞠躬, 使少前拜跪, 奏畢, 起, 復位, 齊退却.</p>
	<p>⑥ 禮物入出 引使副左下, 至丹墀, 北嚮立. 禮物右入左出, 盡. 揖, 使副傍折通班.</p>
	<p>⑦ 謝禮, 퇴장 再引至丹墀, 舞蹈, 五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再拜. 揖, 使副鞠躬, 使出班, 謝面天顏, 復位, 舞蹈, 五拜. 再揖, 副使鞠躬, 使出班, 謝遠差接伴兼賜湯藥, 諸物等, 復位, 舞蹈, 五拜, 各祇候, 引右出.</p>
	<p>⑧ 퇴장 후 衣 받음 賜衣.</p>
	<p>⑨ 從人 입장, 행례, 퇴장 次引宋人從入, 通名已下再拜, 不出班, 又再拜. 各祇候, 亦引右出.</p>

都點檢判官을 비롯하여 殿前左衛將軍, 殿前右衛將軍, 殿前左衛副將軍, 殿前右衛副將軍이 있으며, 宮禁 및 宿衛 등을 관장한다(『金史』, 志37, 百官2). 한편 鳴鞭도 殿前班的 역할이다(『金史』, 志22, 儀衛上, “殿前班擊鞭一十人”).

외국사입현의	
Ⅱ 高麗使의례	① 입장 次引高麗使左入, 至丹墀, 北嚮略立.
	② 高麗王 대신 金帝의 안부 물음 引使左上露階, 立定. 揖, 橫使鞠躬, 正使少前拜跪, 附奏畢, 拜起, 復位立.
	③ 勅旨 받음 閣使宣問高麗王時, 並鞠躬, 受勅旨畢.
	④ 高麗王의 안부를 전함 再揖, 橫使鞠躬, 正使少前拜跪, 奏畢, 拜起, 復位, 齊退却.
	⑤ 禮物入出 引左下, 至丹墀, 面殿立定. 禮物右入左出, 盡. 揖, 使傍折通班畢.
	⑥ 謝禮 引至丹墀, 通一十七拜. (舞蹈, 五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再拜. 揖, 使副鞠躬, 使出班, 謝面天顏, 復位, 舞蹈, 五拜. 再揖, 副使鞠躬, 使出班, 謝遠差接伴兼賜湯藥諸物等, 復位, 舞蹈, 五拜.) 各祇候, 平立.
	⑦ 左階에서 대기 引左階立.
Ⅲ 夏使의례	① 입장 次引夏使左入, 至丹墀, 北嚮略立.
	② 夏王 대신 金帝의 안부를 물음 引使左上露階, 立定. 揖, 橫使鞠躬, 正使少前拜跪, 附奏畢, 拜起, 復位立.
	③ 勅旨 받음 閣使宣問夏王時, 並鞠躬, 受勅旨畢.
	④ 夏王의 안부를 전함 再揖, 橫使鞠躬, 正使少前拜跪, 奏畢, 拜起, 復位, 齊退却.
	⑤ 禮物入出 引左下, 至丹墀, 面殿立定. 禮物右入左出, 盡. 揖, 使傍折通班畢.
	⑥ 謝禮 引至丹墀, 通一十七拜. (舞蹈, 五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再拜. 揖, 使副鞠躬, 使出班, 謝面天顏, 復位, 舞蹈, 五拜. 再揖, 副使鞠躬, 使出班, 謝遠差接伴兼賜湯藥諸物等, 復位, 舞蹈, 五拜.) 各祇候, 平立.

외국사입현의	
	⑦ 右階에서 대기 引右階立. ¹²⁾
IV 三 使 의 례	① 宋使 재입장 행례 次再引宋使副, 左入, 至丹墀. 謝恩, 舞蹈, 五拜. 各祇候, 平立.
	② 高麗·夏使 丹墀로 이동 次引高麗夏使, 並至丹墀.
	③ 宋·高麗·夏使 동시행례, 퇴장 三使並鞠躬. 有勅賜酒食, 舞蹈, 五拜. 各祇候, 引右出.
	황제·신료 퇴장 次引宰執下殿, 禮畢.

자리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황제는 어좌에 앉고, 전전반은 소기거(小起居)를 한 후 시립위(侍立位)에 서며, 신료는 좌·우로 입장해 단지(丹墀)에서 소기거를 한 후, 재집(宰執)은 전(殿)에 오르고 나머지는 반(班)을 나눠 퇴장한다. 이때 입장의 순서는 황제, 전전반, 신료의 순으로 진행되며, 신료 중 재집을 제외한 신료들은 본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

합문사가 사자입현방자(使者入見榜子)를 아뢰면 본격적으로 사신의 알현 의식이 시작되는데, 먼저 송 사신이 입장한다. 송의 정사와 부사는 홀을 들고 국서¹³⁾를 받든 채 입장해 단지에서 북향하여 선다(여기까지 <표 1>의 I-①).

10) 전술한 바와 같이 『금사』 禮志와 『大金集禮』의 해당 의식의 내용은 같고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金 賓禮 사료는 모두 『금사』를 기본으로 한다.

11) 『金史』 38, 志19, 禮11.

12) “次, 引夏使見如上儀.”라고 되어 있지만 비교를 위해 고려와 같은 예로 반복해서 쓰고, 고려를 하로 바꿨다.

13) 使臣은 반드시 國書를 휴대하였는데, 國書는 국가의 지위와 관계된다. 남송의 경우, 초기에는 ‘國書’를 보냈으나, 紹興和議 후에는 양국관계가 君臣之國으로 정해지면서 ‘表’를 보냈다. 또한 그 내용도 과거 “大宋皇帝”라는 표현에서 大字와 皇字를 빼고 ‘宋帝’라고만 칭하였다. 또한 隆興和議 후에는 양국관계가 叔侄之國으로 규정되면서 문서도 ‘國書’의 칭호를 회복하였다. 다만 金은 ‘叔伯’으로 남송보다 지위가 높고, 南宋의 表에는 “侄宋皇”과 “叔大金”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張申,

합문사가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좌측 계단으로 내려오면 한쪽 무릎을 꿇고 합문사에게 전달하는데, 아마 국서를 받든 자는 정사였을 것이다.¹⁴⁾ 합문사는 국서를 받아 노계(露階)를 올라가 난내(欄內)에 들어가 “봉한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황제께 아뢰고 전독한다(I-②). 여기까지는 송의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이다.

그런 후 송의 정사와 부사가 노계를 올라가 읍한 후 난내에 들어간다. 이때 합문사가 읍을 통해 신호를 주면, 정사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은 채 송 황제를 대신하여 금 황제의 안부를 물은 후¹⁵⁾ 절하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I-③). 그러면 금 황제가 송 황제의 안부를 묻고 칙지를 주는데(I-④), 안부를 묻는 것은 황제가 직접 물은 것으로 보이지만 칙지의 전달은 합문사를 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어서 합문사가 다시 읍하여 신호를 주면, 정사는 다시 조금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은 채로 송 황제를 대신해 대답을 아뢰고¹⁷⁾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I-⑤). 여기까지의 절차는 송·금 황제의 상호 안부를 묻는 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송의 정사와 부사가 함께 난내에 들어가서, 정사가 안부를 묻는 행위를 하는 동안 부사는 국궁한 상태로 서있다. 또한 정사가 안부를 묻는 행위는 합문사의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호를 주는 방법이 ‘읍(揖)’이라는 점이 좀 특이하다. 대체로 신호를 주는 행위는 직접 소리치는 ‘갈(喝)’이나 조용히 몸짓으로만 신호를

2013, 「金朝外交礼仪制度研究」, 安徽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 14) 『金史』 38, 志19, 禮11, 新定夏使儀注, “使奉書, 副出笏後隨”.
- 15) 해당 원문은 단지 “附奏”라고 되어있을 뿐, 어떤 말을 아뢴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燕雲奉使錄』에는 “至國主張前面北立, 閣門官傳國書入, 引至帳內, 跪奏, 問大金皇帝聖躬萬福, 奏訖, 拜起復跪, 問南朝皇帝聖躬萬福.”이라 하였고, 『금사』, 「신정하사의주」에는 “弟大夏皇帝致問兄大金皇帝聖躬萬福”이라고 아뢴다는 설명이 있다. 이를 참고로, 송 사신 역시 같은 식으로 안부를 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16) 해당 원문은 “宣問”으로만 되어 있는 데 비해, 이후 진행될 고려사 의례에서는 “閣使宣問”이라고 되어 있다. 즉 宋使에게는 황제가 직접 선문하고 고려사에게는 합문사가 대신 선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7) 『금사』, 「신정하사의주」에 따르면, “弟大夏皇帝聖躬萬福”이라 대답한 것이 보이는데, 宋使 역시 이런 형식으로 대답하였을 것이다.

주는 ‘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사신에 대한 신호는 읍으로 전달된다. 아마 사전 연습을 통해 사신이 절차를 숙지한 상황이라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이후 정·부사가 함께 노계를 내려가 단지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면, 송사의 예물진상 순서가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禮物右入左出”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예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I-⑥). 또한 빈례 전체에서 의식참여자는 왼쪽으로 입장해서 오른쪽으로 퇴장하는데, 예물은 사람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가는 점이 눈에 띈다. 예물이 모두 나가고 나면 정사와 부사는 ‘방절통반(傍折通班)’하는데, 이 절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필자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절차는 송이나 요에서는 행하는 예(例)가 없고, 금의 의례 중에서도 빈례에만 보인다. 또한 방절통반한 다음에는 항상 단지로 재입장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문 밖으로 완전히 퇴장하지는 않고 단지에서만 물러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다.

이어서 정사와 부사는 다시 단지로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의식이 송 황제를 대신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퇴장 전까지의 절차는 금에 입국한 송의 사신단을 대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무도(舞蹈), 5배(五拜)한 후 ‘성공만복(聖躬萬福)’을 아뢰고 재배한 후, 합문사가 읍하여 신호를 주면 정사는 반열을 나와 황제(天顏)를 뵈는 것에 사례(謝禮)하고 자리로 돌아와 무도, 5배한다. 다시 합문사가 읍하여 신호를 주면 정사가 재차 반열을 나와, 멀리까지 나와 접반한 것(遠差接伴)과 탕약 및 여러 물품을 사여한 것(賜湯藥諸物等)에 사례한 후 제자리로 돌아와 무도, 5배한 후 정사·부사가 함께 오른쪽으로 퇴장한다(I-⑦).

퇴장 후에는 옷[衣]을 하사하는데, 이 절차는 고려와 하의 사신에게는 보이

18) 「입현의」에는 행사 당일의 의식만 기록되어 있지만, 「신정하사의주」에 따르면 알현일 전날 習儀라는 사전 연습 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金史』 38, 志19, 禮11, 新定夏使儀注. “館伴閣副傳示, 使副來日入見, 例當習儀. 來使副回傳示, 習儀畢”.

지 않는 절차이다(I-⑧). 아마 삼사(三使) 의례를 하기 위해 재입장을 할 때는 이때 받은 옷으로 갈아입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것으로 송의 정사·부사의 의례는 일단락되고, 이어 송의 인종(人從)이 입장하여 행례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인종은 상절(上節)·중절(中節)·하절(下節)로 ‘삼절인종(三節人從)’을 말하며¹⁹⁾, 통명이하(通名已下)가 재배하고 또다시 재배한 후 오른쪽으로 퇴장한다(I-⑨).

다음으로는 고려의 정사와 부사가 입장해 단지에서 북향하여 선 후(II-①), 노계를 올라가 고려국왕을 대신하여 안부를 묻는 의식을 행한다. 즉 정사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은 채 고려국왕을 대신해 금 황제의 안부를 물은 후, 다시 절하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II-②). 그러면 합문사는 황제를 대신해 고려국왕의 안부를 묻고 칙지(勅旨)를 준다(II-③). 정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고려국왕을 대신해 대답을 아뢴 후 돌아와 정사와 부사가 나란히 노계를 내려가는 절차(II-④)가 이어지는 것은 앞서 송 사신의 의례와 같으며, 합문사가 읊을 통해 정사가 행할 절차를 알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어서 예물의 진상이 이어지고(II-⑤) 정사와 부사는 방절통반한 후 다시 단지로 나와 송사와 마찬가지로 사신단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는 절차를 행한다. 이 부분은 원문에 “通一十七拜”로 쓰여 있는데, 이는 앞서 송사가 행한 예와 같이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이렇게 의식을 마친 후에는 퇴장하지 않고 좌계(左階)에 선다(II-⑥).

다음으로 하의 정사와 부사가 입장하여 고려사와 똑같이 의식을 행한 후 우계(右階)에 섬으로써, 송·고려·하 사신의 개별적인 의례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III). 그리고 이어서 송의 정사와 부사가 재입장해 단지에서 사은(謝

19) 『金史』 38, 志19, 禮11, 新定夏使儀注, “上節中節各五, 下節二十四, 謂之三節人從”.

20) 즉 舞蹈, 5배 후 ‘聖躬萬福’을 아뢰고 再拜, 황제를 빈 것에 사례하고 舞蹈, 5배하며 멀리까지 나와 접반한 것과 탕약 및 諸物 등의 하사에 대한 謝禮 후 다시 舞蹈, 5배를 하는 것을 뜻한다. 拜數를 계산하면 5배가 세 번 있고, 再拜가 한 번 있어 총 17배가 된다.

恩), 무도, 5배한 후(Ⅳ-①) 좌계에 있던 고려 사신과 우계에 있던 하의 사신이 동시에 단지로 이동한다(Ⅳ-②). 그리고 송·고려·하의 사신이 함께 국궁하고 무도, 5배한다. 이처럼 삼국의 사신이 함께 행례한 후 오른쪽으로 퇴장하면(Ⅳ-③), 전상(殿上)에 있던 재집이 전을 내려오는 것으로 「입현의」가 마무리된다. 전전반과 황제의 퇴장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보면 「입현의」에는 송·고려·하사를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행례하도록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의례의 순서이다. 의례의 순서는 같은 날에 예를 행할 경우 『대당개원례』에 ‘국가의 대소(大小)에 따라’ 행한다고 하였고,²¹⁾ 송 역시 『송사』 예지(禮志) 및 『정화오례신의』에 ‘하국(夏國), 고려(高麗), 교지(交趾), 해외번객(海外蕃客), 제만(諸蠻)’의 순으로 행한다고 명시된 것을 볼 때²²⁾ 사신의 순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의 「입현의」에서는 송-고려-하의 순으로 의식을 행하며, 이는 외국사의 지위가 송-고려-하의 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례 절차에 있어 송사 의례에만 있고 고려·하사 의례에는 없는 절차가 존재한다. 즉 송사만 식장에서 국서를 진정한다. 고려와 하는 국서진정의 과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신이 표(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정(殿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표를 진정하였을 것이며, 그 장소는 객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사와 부사가 퇴장 후 재입장하는 절차 및 종인(從人)의 행례 순서 역시 송사의 경우에만 있다. 이처럼 송사가 행하는 절차가 더 많은 것은 송사 우대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사여(賜與)의 문제이다. 송사 의례 과정 중에는 정사와 부사가 퇴장한 후 ‘사의(賜衣)’로 표현되는 절차가 있다.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고려·하사와는 달리 송사에게만 옷을 하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송사는 이 때 옷을 갈

21) 『大唐開元禮』 79, 賓禮, 蕃主奉見, “若更有諸蕃, 以國大小爲敘”.

22) 『宋史』 119, 禮22, 賓禮4, 夏國進奉使見辭儀, “蕃使見辭, 同日者, 先夏國, 次高麗, 次交趾, 次海外蕃客, 次諸蠻”.

아입고 이후 삼사 의례를 행하기 위해 재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고려·하사와 함께 서서 동시에 행례할지라도 시각적으로 그들과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송사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절차를 감수할 타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공간의 문제이다. 난내에서 예를 행하는 외국사는 송사뿐이다. 그런데 송사라고 해서 빈례의 모든 과정을 난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안부를 교환하는 예를 행할 때만 난내에서 행하고 나머지 절차는 단지에서 행한다. 고려·하사의 경우는 안부 교환 의식을 노계에서 행하며 역시 다른 예는 단지에서 행한다. 이를 통해 빈례의 전 과정 중 사신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는 안부교환의 절차인 것으로 보인다.

2. 「조사의」의 구도와 외국사의 지위

「조사의」는 「입현의」와는 사신의 입장 순서가 반대라는 점이 독특하다. 즉 하사, 고려사, 송사의 순으로 입장해서 행례한 후 퇴장하며, 삼사의 동시 의례는 없다. 「조사의」의 구도와 행례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앞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조사의」 역시 황제의 입장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전전반이 소기거한 후 시립위에 서고, 신료가 반(班)을 합하여 들어와 단지에서 소기거한 후, 재집은 전에 오르고 나머지 신료는 반을 나누어 퇴장한다. 합문사가 '사방자(辭榜子)'를 아뢰면 본격적으로 「조사의」의 의식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하의 정사와 부사가 왼쪽으로 입장해 방절통반 후 단지에 이르러, 재배하고 '성공만복'을 아뢰고 후 재배한다(I-①). 합문사가 읊하여 신호를 하면, 정사가 반을 나가 연궐치사(戀闕致詞)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또 재배하는 것으로 황제께 하직인사를 고한다. “각기 잘 가시오”라고 외치면 오른쪽으로 퇴장한다²³⁾(I-②).

23) '囑'은 큰 소리로 해당 동작을 지시하는 것으로, 원문에서는 누가 '囑'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金代의 다른 의례에서 '閤問通事捨人'이 '囑'하는 예가 있

〈표 2〉 금대 빈례 중 「조사의」의 절차

朝辭儀 ²⁴⁾	
I 夏使의례	<p>황제·신료 입장 皇帝卽御座. 鳴鞭. 報時畢. 殿前班小起居. 至待立位. 引臣僚合班入. 至丹墀. 小起居. 引宰執上殿. 其餘臣僚分班出.</p>
	<p>① 입장 閣使奏辭榜子. 先引夏使. 左入. 傍折通班畢. 至丹墀. 再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又再拜.</p> <p>② 연필치사, 퇴장 揖. 使副鞠躬. 使出班. 戀闕致詞. 復位. 又再拜. 喝「各好去」. 引右出.</p>
II 高麗使	<p>① 입장 次引高麗使. 如上儀. (左入. 傍折通班畢. 至丹墀. 再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又再拜.)</p> <p>② 연필치사, 퇴장 (揖. 使副鞠躬. 使出班. 戀闕致詞. 復位. 又再拜. 喝「各好去」.) 亦引右出.</p>
	<p>① 입장 次引宋使副. 左入. 傍折通班畢. 至丹墀. 依上通六拜. (再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又再拜.)</p> <p>② 연필치사 (揖. 使副鞠躬. 使出班. 戀闕致詞. 復位. 又再拜.) 各祇候. 平立.</p> <p>③ 衣馬·別錄物 받음 閣使賜衣馬. 鞠躬. 聞勅. 再拜. 賜衣馬畢. 平身. 搢笏. 單跪受別錄. 物過盡. 出笏. 拜起. 謝恩. 舞蹈. 五拜.</p> <p>④ 書·傳達 받음 引使副. 左上露階. 齊揖. 入欄內. 揖. 鞠躬. 大使少前拜跪受書. 起復位. 揖. 使副齊鞠躬. 受傳達畢. 齊退.</p> <p>⑤ 퇴장 引左下. 至丹墀. 鞠躬. 喝「各好去」. 引右出.</p> <p>황제·신료 퇴장 次引宰執下殿. 禮畢.</p>

다음으로는 고려의 정사와 부사가 입장하여 하의 사신과 똑같이 행례한 후

으므로 여기서도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24) 『金史』 38, 志19, 禮11.

역시 오른쪽으로 퇴장한다(Ⅱ).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의 정사와 부사가 입장하는데, 하·고려사와 마찬가지로 재배하고 ‘성공만복’을 아뢴 후 재배(Ⅲ-①), 정사가 연궐치사 후 재배를 하고나면(Ⅲ-②), 고려·하사의 의례에는 없었던 별도의 절차가 이어진다. 즉 합문사를 통해 의마(衣馬) 및 별록물(別錄物)을 받는 절차가 그것이다. 송의 사신은 단지에서 의마를 하사한다는 칙(勅)을 듣고 재배한 후 의마를 받으며, 이어서 흠을 깨끗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별록을 받는다. 그러면 별록에 기재된 물품들이 지나가는데,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단순히 “物過”로 되어있지만 「입현의」 때 각국 사신의 예물이 “右入左出” 한 것을 참고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송의 사신이 다시 흠을 꺼내서 절하고 일어나 사은하고 무도, 5배하는 것까지 해당 절차이다(Ⅲ-③).

그런 후에 송의 정사와 부사는 난대로 이동해 「조사의」 송사 의례의 하이 라이트에 해당하는 절차를 행한다. 이는 금의 국서를 받는 절차로, 정사가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국서를 받은 후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전달(傳達)을 받은 후 부사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다(Ⅲ-④). 그런 후 단지로 다시 돌아와 국궁한 후 “각기 잘 가시오”라고 외치면 오른쪽으로 퇴장한다(Ⅲ-⑤). 재집이 전을 내려오는 것으로 「조사의」는 마무리되며, 역시 황제의 퇴장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는 외국사가 금에 들어와서 행하는 「입현의」에 대응되는 의식이다. 때문에 의식의 절차에서도 「입현의」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각국 사신의 입장 순서가 「입현의」와 반대이다. 또한 송사 의례의 경우, 「입현의」에서 송의 국서와 예물을 진정하고 「조사의」에서는 반대로 금의 사물(賜物)과 국서를 수령하는 것을 통해 두 예식은 대칭적인 의례를 통해 균형을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입현의」에서는 각국 사신의 개별 의례를 마친 후, 다시 삼국 사신이 함께 행례하는 순서가 있었으나, 「조사의」에서는 퇴장한 사신의 재입장은 없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의」 역시 「입현의」와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외국사간 차등 대우를 살펴보면 첫째, 의례의 순서상 송사를 우대할 것을 알 수 있다. 「입현의」와 「조사의」의 입장 순서가 반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번에는 늦게 입장할 수

록 높은 지위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즉 「입현의」와 마찬가지로 송사-고려사-하사의 서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둘째, 행례 절차에 있어 송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예가 존재한다. 고려·하사의 경우 입장, 연필치사, 퇴장의 단순한 절차만 행하는 것에 반해, 송사는 금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셋째 사여 및 넷째 공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즉 송사는 단지에서 의미와 별록물을 수령하고, 이어 난내로 이동한 후 국서와 전달을 수령한다.²⁵⁾ 이는 「조사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대 빈례는 송·고려·하의 사신을 모두 '외국사'로 명명하여 하나의 범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송사, 고려사, 하사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즉 송의 지위가 과거보다 격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하와 동급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송사에 대한 우대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송을 고려·하와 구분한 것이 단지 번국 가운데 대소(大小)의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차이인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차등 대우의 방식과 의미

1_ 의식 절차의 차별화를 통한 관계 구분

먼저 금이 송·고려·하사에 대해 차등 대우한 방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요 및 송의 빈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요의 「송사현황제의」, 「고려사입현의」, 「서하국진봉사조현의」와 송의 「거란국사입빙현사의」,

25) 다만 고려와 하의 사신도 나중에 회동관에서 하사품을 받았다. 『金史』 38, 志19, 禮11, 朝辭儀, “夏高麗朝辭之賜, 則遣使就賜於會同館. 惟宋使之賜則庭授”.

「고려진봉사현사의」, 「하국진봉사현사의」의 전체적인 구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이 <표 3>이다.²⁶⁾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입현의」의 구도와 절차는 송·요·금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먼저 요의 「입현의」부터 살펴보면, 금·송에 비해 절차가 많고, 전반적인 구도는 사신이 입장한 후 국서 진정, 안부 교환, 사례(謝禮), 연회 등의 절차를 중심으로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연회는 요 빈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금과 송의 「입현의」에는 연회의 순서 자체가 없는 것에 비해, 상대국을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연회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송사와 고려·하사 간에 차등적 요소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첫째, 행례 절차상 송사 의례는 11가지의 순서가 있고, 고려·하사 의례는 9가지의 순서가 있어 금의 빈례와 마찬가지로 송사 의례가 가장 길고 절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송사가 행하는 절차가 두 가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송사 의례의 전개 과정과 고려·하사 의례의 전개 과정이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사의 경우는 크게 보면 국서 진정-안부 교환-사례 후 퇴장-종인 행례 후 퇴장-의복 하사-정·부사와 종인의 재입장-연회의 순서로 진행되는 데 반해, 고려·하사는 입장 후 안부 교환-예물 입출-사례-

26) 총 7가지 빈례 항목의 세부 절차를 비교하는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여 표를 구성하였지만, 이 표 역시 분량이 많아 지면관계상 원문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구도만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7) 사신 의례의 차이점 비교와 크게 관련이 없는 황제·신료의 입·퇴장 내용은 생략하였다. 또한 금의 「입현의」 절차를 기준으로 표를 구성하여, 「I 송사의례」로 표기하였지만, 이와 비교 항목인 송의 「거란국사입빙현사의」는 요사의례라는 점을 밝혀둔다. 한편 요의 빈례는 특이하게 황태후에 대한 의식과 황제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송과의 비교를 위해 황제에 대한 의식으로 표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표 6>의 「조사의」 비교도 마찬가지다.

28) 『金史』 38, 志19, 禮11.

29) 『遼史』 51, 禮4, 賓儀.

30)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31) 『遼史』 51, 禮4, 賓儀.

32)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政和五禮新儀』 155, 賓禮, 高麗國進奉使見辭儀.

〈표 3〉 금·요·송의 빈례 중 「입현의」 비교²⁷⁾

	금	요	송
	外國使入見儀 ²⁸⁾	宋使見皇帝儀 ²⁹⁾	契丹國使入聘見辭儀 ³⁰⁾
I 宋使의례	① 입장	① 입장	① 입장, 禮物入
	② 國書진정(閣使대행)	② 國書진정(閣使대행)	② 國書진정(閣使대행), 禮物出
	③ 宋帝 대신 金帝의 안부를 물음	③ 宋帝 대신 遼帝의 안부를 물음	③ 遼帝 대신 宋帝의 안부를 물음
	④ 勅旨받음	④ 謝禮, 퇴장	④ 遼帝의 안부를 전함
	⑤ 宋帝의 안부를 전함	⑤ 퇴장 후 衣·金帶 받음	⑤ 정사 謝禮
	⑥ 禮物入出	⑥ 從人입장, 행례, 퇴장	⑥ 정사 賜物 받음, 퇴장
	⑦ 謝禮, 퇴장	⑦ 퇴장 후 衣 받음, 換服	⑦ 부사 謝禮
	⑧ 퇴장 후 衣 받음	⑧ 使副 재입장	⑧ 부사 賜物 받음, 퇴장
	⑨ 從人입장, 행례, 퇴장	⑨ 從人 재입장	⑨ 捨利已下입장, 賜物 받음, 퇴장
	⑩ 연회	⑩ 差來通事以下從人입장, 賜物 받음,	
	⑪ 퇴장		
		高麗使入見儀 ³¹⁾	高麗進奉使見辭儀 ³²⁾
II 高麗使의례	① 입장	① 입장	① 입장
	② 高麗王 대신 金帝의 안부 물음	② 高麗王 대신 遼帝의 안부 물음	② 國書진정
	③ 勅旨 받음	③ 高麗王의 안부를 전함	③ 謝禮
	④ 高麗王의 안부를 전함	④ 禮物入出	④ 賜物 받음, 퇴장
	⑤ 禮物入出	⑤ 謝禮	⑤ 押物以下 입장, 賜物 받음, 퇴장
	⑥ 謝禮, 左階에서 대기	⑥ 私獻	
		⑦ 연회	
		⑧ 퇴장	
		⑨ 막차내 연회·衣物 받음	

	금	요	송
		西夏國進奉使朝見儀 ³³⁾	夏國進奉使見辭儀 ³⁴⁾
Ⅲ 夏 使 의 례	① 입장	① 입장	① 입장
	② 夏王 대신 金帝의 안부를 물음	② 夏王 대신 遼帝의 안부를 물음	② 國書진정
	③ 勅旨 받음	③ 夏王의 안부를 전함	③ 賜物 받음, 퇴장
	④ 夏王의 안부를 전함	④ 禮物入出	④ 종인 입장, 사물 받음, 퇴장
	⑤ 禮物入出	⑤ 謝禮	
	⑥ 謝禮, 右階에서 대기	⑥ 私獻	
		⑦ 연회	
		⑧ 퇴장	
		⑨ 막차에서 연회, 衣物 받음	
Ⅳ 二 使 의 례	① 宋使 재입장 행례		
	② 高麗·夏使 丹墀로 이동		
	③ 宋·高麗·夏使 동시행례, 퇴장		

사헌-연회-퇴장 후 막차내 연회의 순서로, 진행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둘째, 사여의 문제를 살펴보면 송의 정·부사가 퇴장 후 의복과 금대(金帶)를 받을 뿐 아니라 송의 종인 역시 입장-행례-퇴장 후에 의복을 받는다. 이들은 옷을 갈아입은 후 재입장 해 연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입장의 순서는 고려·하사의 경우에는 없는 절차이다. 다만 고려·하사는 한 번 입장해 연회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퇴장한 후 막차에서 의물(衣物)을 하사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막차내 연회가 이어진다. 종인에 대한 사여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부사만 의물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33) 『遼史』 51, 禮4, 賓儀.

34)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政和五禮新儀』 155, 賓禮, 夏國進奉使見辭儀.

셋째, 공간의 문제이다. 요도 난내라는 공간이 있어 송사에게만 허락되고, 「입현의」 절차 중 안부 교환 순서만 난내에서 행한다는 점이 금과 동일하다. 다만 고려·하사의 안부 교환 순서는 노대(露臺)에서 행한다고 되어 있어, 금의 노계(露階)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표 4〉는 遼의 「입현의」에 보이는 절차의 수행 여부를 비교해 송·고려·하에 대한 차등을 살피기 위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삼사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절차는 요 황제의 안부를 묻는 순서, 사례(謝禮), 퇴장 후 의복 하사, 전상연회(殿上宴會)이다. 즉 요의 「입현의」에서 사신이 공통적으로 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송사에게만 해당되는 절차는 국서 전정, 재입장, 종인 의례가 있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와 송은 상호 대등국에 대한 빈례 즉 적례(敵禮)를 적용하였는데, 그렇다면 요의 「입현의」에 보이는 적례의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고려·하사에게만 해당되는 절차는 사신의 대답, 예물 입출, 사헌(私

〈표 4〉 요의 「입현의」 절차상 차등 방식

행례 절차	송사	고려사	하사
국서진정	○	×	×
요제의 안부를 묻음	○	○	○
사신의 대답	×	○	○
예물입출	×	○	○
사례	○	○	○
사헌	×	○	○
퇴장 후 의 받음	○	○	○
재입장	○	×	×
종인의례	○	×	×
전상연회	○	○	○
막차내 연회		○	○

獻)이 있다.

이번에는 송의 「입현의」에 대해 살펴보자. 송의 경우에는 요와 반대로 요사의 경우에만 예물 입출이 있고 고려·하사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서의 진정은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안부를 교환하는 것은 요사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다. 한편 송의 「입현의」에 보이는 가장 독특한 점은 사례와 사여(賜與)이다. 즉 이 두 절차는 요·고려·하사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요사에 대해서는 정사-부사-사리이하(捨利己下)-차래통사이하종인(差來通事以下從人)의 순으로 4단계에 걸쳐 행하는 반면 고려·하사에 대해서는 정·부사-종인의 2단계로 행한다. 이상은 행례 절차 및 사여의 문제와 관련된 차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의 문제를 살펴보면 요사는 안부 교환 의식을 행하기 위해 합문사의 안내를 받아 전상에 올라가 어전(御前)에 선다. 반면 고려·하사는 안부 교환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상에 오르는 일이 없이 모든 절차를 전정(殿庭)에서 행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송의 「입현의」에는 요사와 고려·하사 간 차이가 비교적 많은데 국서를 진정하는 것만 공통의 절차일 뿐이고 예물 입출, 송 황제의 안부를 묻고 사신이 대답하는 안부 교환 의식은 요사에게만 해당한다. 또한 사례와 사여의 순서는 공통적으로 있지만 4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표 5〉 송의 「입현의」 절차상 차등 방식

행례 절차	요	고려	하
예물입출	○	×	×
국서진정	○	○	○
송제의 안부를 묻음	○	×	×
사신의 대답	○	×	×
사례	○ (4단계)	○ (2단계)	○ (2단계)
사물 받음	○ (4단계)	○ (2단계)	○ (2단계)

〈표 6〉 금·요·송의 빈례 중 「조사의」 비교

	금	요	송
	朝辭儀 ³⁵⁾	西夏使朝辭儀 ³⁶⁾	夏國進奉使見辭儀 ³⁷⁾
I 夏使례	① 입장	① 입장	① 입장
	② 연궐치사, 퇴장	② 연궐치사	② 某物·酒食 받음
		③ 衣物 받음	③ 퇴장
		④ 퇴장	④ 종인행례, 퇴장
II 高麗使의례		高麗使朝辭儀 ³⁸⁾	高麗進奉使見辭儀 ³⁹⁾
	① 입장	① 입장	① 입장
	② 연궐치사, 퇴장	② 연궐, 상전	② 致詞
		③ 연회	③ 某物·酒食 받음
		④ 퇴장	④ 퇴장
	⑤ 막차내 연회, 의물 받음	⑤ 종인행례, 퇴장	
III 宋使의례		賀生辰正旦宋使朝辭皇帝儀 ⁴⁰⁾	契丹國使人聘見辭儀 ⁴¹⁾
	① 입장	① 입장(종인 衣物 받음)	① 입장, 상전
	② 연궐치사	② 연궐	② 종인입장
	③ 衣馬·別錄物 받음	③ 사물 받음, 상전	③ 연회, 하전
	④ 書·傳達 받음	④ 종인 입장, 행례	④ 사부, 종인퇴장
	⑤ 퇴장	⑤ 연회	⑤ 재입장, 致辭
		⑥ 受書	⑥ 사물받음, 퇴장
		⑦ 퇴장	⑦ 부사 재입장, 치사, 사물 받음, 퇴장
			⑧ 사리이하, 차래통사 종인
			⑨ 사부 환복 후 재입장, 승전
			⑩ 旨받음
		⑪ 하전, 퇴장	

35) 『金史』 38, 志19, 禮11.

36) 『遼史』 51, 禮4, 賓儀.

37)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政和五禮新儀』 155, 賓禮, 高麗國進奉使見辭儀.

다음으로 「조사의」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비교 항목은 요의 「서하사조사」, 「고려사조사」, 「하생신정단송사조사황제의」와 송의 「하국진봉사현사의」, 「고려진봉사현사의」, 「거란국사입빙현사의」이다. <표 6>은 금의 「조사의」에서 하사, 고려사, 송사의 순으로 입장한 것에 따라 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요·송의 「조사의」도 하사 의례, 고려사 의례, 송사 의례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의」의 구도와 절차는 송·요·금이 각각 다르다. 먼저 요의 「조사의」부터 살펴보면, 대체로 연궐(戀闕), 사여, 연회 등의 절차를 중심으로 의식이 진행되며, 「입현의」와 마찬가지로 연회를 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신간 차등적 요소는 송사에 대해서만 국서를 받는 절차가 있고, 종인이 입장해 예를 행한다는 점이 있다. 특히 국서를 받을 때 송사는 상전해 난내에서 이 의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편 송의 「조사의」는 요·금에 비해 절차가 많은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요사 의례가 11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고려·하사 의례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요사 의례가 이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연회를 행하고, 퇴장과 재입장이 반복되며, 정사-부사-사리이하-차래통사종인 등의 개별 의식이 이루어지고, 고려·하사는 행하지 않는 국서를 받는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송의 「조사의」는 요사와 고려·하사 간 차등을 가장 확실하게 두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의 외국사 차등 대우와 송·요가 외국사를 차등 대우한 방식을 비교하여 표를 통해 나타내면 <표 7>, <표 8>과 같다.

38) 『遼史』 51, 禮4, 賓儀.

39)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政和五禮新儀』 155, 賓禮, 高麗國進奉使見辭儀.

40) 『遼史』 51, 禮4, 賓儀.

41)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42) 『遼史』 51, 禮志4, 賓儀, 宋使見皇帝儀; 賀生辰正旦宋使朝辭皇帝儀.

43)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契丹國使人聘見辭儀.

〈표 7〉 금의 송사 대우와 요·송 상호 적례 비교

행례 절차	金の宋使 대우	遼의宋使 대우 ⁴²⁾	宋의遼使 대우 ⁴³⁾	
入見	국서진정	○ 丹墀	○ 丹墀	○
	안부교환	○ 殿上 欄內	○ 殿上 欄內	○ 殿上 御前
	하사품	○ 衣	○ 衣 포함	○ 다수
	종인입장	○	○ 衣 하사	○ 衣 하사
朝辭	국서전달	○ 殿上 欄內	○ 殿上 欄內	○ 殿上 御前
	하사품	○ 衣馬	○ 다수	○

〈표 8〉 금의 고려·하사 대우와 요·송의 고려·하사에 대한 번례 비교

행례 절차	金の高麗·夏使 대우	遼의高麗·夏使 대우 ⁴⁴⁾	宋의高麗·夏使 대우 ⁴⁵⁾	
入見	국서진정	×	×	○
	안부교환	○ 露階上	○ 露臺上	×
	하사품	×	× 禮後 별도 증정	○ 某物
	종인입장	×	×	×
朝辭	국서전달	×	×	×
	하사품	×	× 禮後 별도 증정	○ 某物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금이 송사를 우대하기 위해 취한 방식들은 모두 요·송에서 상호 적용한 적례(敵禮)의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금·요·송 빈례의 구도는 각각 다르고, 절차상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금이 송사를 고려·하사와 구분하기 위해 차등을 둔 형식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요·송의 적례를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요에서 취한 송사에 대한 대우와 매우 흡사하다. 또한 〈표 8〉을 통해 볼

44) 『遼史』 51, 禮志4, 賓儀, 高麗使人入見儀; 高麗使朝辭儀; 西夏進奉使朝見儀; 西夏使朝辭儀.

45) 『宋史』 119, 志72, 禮22, 賓禮4, 高麗進奉使見辭儀; 夏國進奉使見辭儀; 『政和五禮新儀』 155, 賓禮, 高麗國進奉使見辭儀; 夏國進奉使見辭儀.

때 금의 고려·하사에 대한 대우 역시 요의 고려·하사에 대한 대우와 상당히 비슷하다. 「입현의」에 국서를 진정하지 않고 하사품이 없는 것, 「조사의」에 국서를 주지 않고 하사품이 없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송이 고려·하사를 대우한 것과는 큰 차이는 없다.⁴⁶⁾ 적국의 사신이 행한 적례와 대비되는, 변국의 사신이 행한 의례라는 의미에서 이를 ‘번례(蕃禮)’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_ 식장의 구조와 관계의 시각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대 번례에는 행례 공간으로 단지, 노계, 난내라는 세 가지 명칭이 보인다. 그중 의식 참여자들이 처음 식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재배나 무도 등의 예를 행하는 공간이자 대부분의 절치를 진행하는 곳은 바로 단지이다. 즉 가장 기본적인 행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절치를 행할 때 노계를 올라가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절치는 난내에서 행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공간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공간의 활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단지부터 살펴보면, 「입현의」에서 식장에 입장한 금의 신료들은 단지에서 소기거한 후 각자의 위치로 이동한다. 또 외국사는 단지에서 국서와 예물을 진정하고, 황제를 뵈는 것과 멀리까지 나와 접반한 것 등에 감사를 표하는 절차를 행한다. 한편 「조사의」에서는 외국사의 연궐치사 등의 절차가 단지에서 이루어진다.

단지의 사전적 의미는 ‘단칠(丹漆)로 칠한 뜰(庭)’로 천자(天子)의 뜰은 전의 계단[殿階] 아래를 붉게 칠한다고 한다.⁴⁷⁾ 『통전』 및 『송서(宋書)』 역시 단

46) 송의 賓禮와 外國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성규, 2010, 「皇帝入朝儀禮를 통해 본 宋代 ‘外國’의 國際地位－‘西南蕃夷’와 ‘海外進奉蕃客’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61.

47) 『大漢和辭典』. 한편 『漢語大詞典』에는 臺階 윗면의 空地 또는 臺階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지를 “丹朱色地”, “丹朱漆地”로 설명하는 기사가 보여, 그 유래가 당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⁴⁸⁾ 송과 요 역시 주요 의례 공간으로서 단지가 이용되었는데, 신료들이 단지에서 동서(東西)로 마주보고 서서 행례하는 것을 통해, 가운데에 중도(中道)를 두고 양쪽에 문무관이 품계에 따라 도열하는, 보통 ‘전정(殿庭)’으로 부르는 공간이 바로 단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대 단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남경(南京: 開封)의 궁성이 유일하다. 금의 국도(國都)는 총 세 곳이 있는데, 건국 초에는 상경(上京: 현 하얼빈 동남쪽), 1153년(海陵 貞元1) 이후에는 중도(中都: 燕京), 1214년(宣宗 貞祐2) 이후에는 남경이었다. 금의 빈례가 1135년에 처음 제정되고 1142년에 재정비된 것을 통해 볼 때, 첫 번째 국도인 상경에서부터 해당 의례가 시행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경과 중도의 궁궐에도 단지가 있었으나, 기록에 누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의 마지막 국도인 남경, 즉 개봉은 북송의 동경(東京)으로 그 황성의 오테 위에 직접 지은 것이다. 따라서 그 위치와 범위는 송 동경 황성의 위치 및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며,⁴⁹⁾ 황궁의 남문인 승천문(承天門)을 지나 북쪽으로 대경문(大慶門)이 있고 그 안에 궁성의 중심 공간인 대경전(大慶殿)이 있었다.

正殿曰大慶殿，前有龍墀，又南有丹墀，又南曰沙墀，東廡曰嘉福樓，西廡曰嘉瑞樓。⁵⁰⁾

대경전은 남경 궁성의 정전(正殿)으로서, 전(殿) 앞에서부터 남쪽으로 용지

48) 『通典』, 職官典, 尚書上, 歷代郎官, “省中皆以胡粉塗壁, 畫古賢烈女, 以丹朱漆地, 故謂之丹墀”; 『宋書』, 百官志, “尚書郎奏, 事明光殿, 殿以胡粉塗壁, 畫古賢烈士, 以丹朱色地, 謂之丹墀”.

49) 바깥에서부터 外城, 子城(內城), 皇城, 宮城의 4重의 城으로 둘러져 있고, 외성의 남문인 南薰門에서 자성 남문인 豐宜門을 지나 皇宮 남문 承天門까지 大道로 이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劉春迎, 2006, 「金代汴京開封城布局初探」, 『史學月刊』 10; 杜本禮, 1997, 「金代的汴京皇宮」, 『中州今古』 3.

50) 『金史』 25, 志6, 地理中, 南京路.

(龍墀), 단지, 사지(沙墀)가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처럼 세 종류의 지(墀)로 이루어진 대경전의 전정은 북송대 역시 같은 모습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북송대에는 용지에 여련(輿輦)·어마(御馬)를, 사지에 산선(繖扇)을 배치하여 해당 공간을 이용하였다.⁵¹⁾ 금대에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은 찾기가 어렵지만 용지에 가(駕)를 배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⁵²⁾ 북송대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배열하고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세 가지 지는 시각적으로 구분은 가능하였을 수 있지만 같은 높이였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미미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노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의 빈례에서 노계는 주로 난내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데, 「입현의」에는 노계 위에서 행례하는 절차가 있다. 즉 고려 및 하의 정사와 부사가 국왕을 대신해 황제와 안부를 교환하고 칙지를 받는 예를 행하는 장소가 노계인 것이다. 이들은 단지에서 노계 위로 이동해 행례한 후 다시 단지로 돌아온다.

노계는 이름처럼 전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송·요의 기록에서는 그 명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노계를 올라갈 때 항상 “左上露階”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는 “左下”로 표현하여, 노계의 왼쪽으로만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빈례의 과정 중에는 노계 외에 좌계(左階)와 우계(右階)도 보인다. 즉 「입현의」에서 고려와 하의 정사·부사는 국가별 입현 의례를 행한 후에 고려사는 좌계에서, 하사는 우계에서 대기한다.

그러면 노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필자는 ‘노대(露臺)’를 통해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빈례에는 노대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의례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된다. 전전반이 노대의 좌우에 서거나, 노

51) 『宋史』 116, 志69, 禮19, 賓禮1, 大朝會儀, “陳輿輦御馬于龍墀, 繖扇于沙墀, 貢物于宮架南, 餘則列大慶門外”; 『東京夢華錄』 10, 車駕宿大慶殿, “每遇大禮, 車駕齋宿及正朔朝會于此殿”.

52) 『金史』 41, 志22, 儀衛上, “引駕龍墀旗隊六十五人, 排仗通直二人, 排仗大將二人, 並長腳襍頭紫公服紅鞵帶絲鞭烏皮靴”.

대에 향안(香案)이 설치되어 있거나, 왼쪽으로 노대에 올라간다는 등⁵³⁾의 설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노대는 전 앞으로 넓게 있는 공간을 뜻하며 여기에 전전반이 시립하기도 하고 향안을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칭상 노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노계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추측에 따른다면 좌·우계는 양쪽에 있는 노계, 즉 좌측 노계와 우측 노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빈례에서 “左上露階”로 표현한 것은 노대 위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노계라고 하였지만, 그 중 좌측에 있는 노계로 올라간다는 설명이 아닐까 싶다. 마찬가지로 「입현의」에서 고려와 하 사신의 대기 장소 역시 좌·우 노계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난내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난내는 「입현의」에서 합문사가 송 사신에게 전달받은 국서를 전독(轉讀)하는 장소이자, 송의 사신이 송 황제를 대신해 금 황제와 인부를 교환하는 행례의 장소이다. 또한 「조사의」에서는 송 사신이 금 황제의 국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난내로 이동할 때는 “左上露階”에 이어 “右入欄內”로 표현되어 동선의 파악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빈례에서는 난내로 표현되지만 다른 의례에서는 ‘난자내(欄子內)’로 표현되는 이 시설물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난간의 안쪽’이라는 말인데, ‘난자외(欄子外)’라는 표현도 있어 난간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안쪽에 서기도 하고 바깥쪽에 서기도 하면서 행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난간으로 구획된 공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위치를 추측할 수 있는 사료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a. 若皇太子生日，則公服，左上露臺欄子外。先再拜，二閣使齊揖入欄子內，拜跪，祝畢。⁵⁴⁾

53) 『金史』 29, 志10, 禮2, 朝日夕月儀, “其日, 先引臣僚於殿門外立, 陪位立殿前班露台左右, 皇帝於露台香案拜如上儀”; 『金史』 37, 志18, 禮10, 正旦生日皇太子受賀儀, “若皇太子生日, 則公服, 左上露臺欄子外”.

- b. 是日未明 …… 儀鸞司設皇帝拜褥四，一在阼階上面西，一在香案南面北，一在殿上東欄子內面西，一在燎薪之東面西。 …… 乃引皇帝由殿上正門入殿，於香案前褥位再拜，上香，又再拜，退稍東於欄子內面西褥位立。⁵⁵⁾
- c. 進至殿上，博士捨人分左右於前楹立以俟，讀冊中書令於欄子外前楹稍西立以俟，舉冊官捧冊官立於其後。⁵⁶⁾
- d. 簾前設扇，左右各十。紅傘一，在西階欄子外。⁵⁷⁾
- e. 使奉書，副出笏後隨，左上露臺殿簾柱外，奉書單跪，舊儀於丹墀內奉書。⁵⁸⁾

먼저 a에 따르면 난자(欄子)는 노대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왼쪽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는 「상존시(上尊諡)」 의식을 행하기 전에 황제의 배육(拜褥)을 전상 동쪽 난자 안에 서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c 역시 난자의 위치는 전상인데, 그 바깥쪽에 전상의 앞쪽 기둥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d는 「책황후의(冊皇后儀)」에서 의장 설치 과정 중 홍산(紅傘)을 서계(西階)에 있는 난자 바깥에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난자가 위치하는 곳은 노대 또는 전상이며, 그 바깥에 전의 앞 기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이 기둥은 전의 처마 기둥일 것이다.⁵⁹⁾ 또한 일반적으로 전과 그 앞의 좁은 공간을 합하여 전상이라 하므로, 전상과 노대는 같은 공간을 말하는 것일 듯싶다.

한편 전상에 설치된 난자는 a에서 좌측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나, b에서 배육을 서향으로 설치한다고 한 것이나, 빈례의 내용 가운데 “左上露階

54) 『金史』 37, 志18, 禮10, 正旦生日皇太子受賀儀.

55) 『金史』 32, 志13, 禮5, 上尊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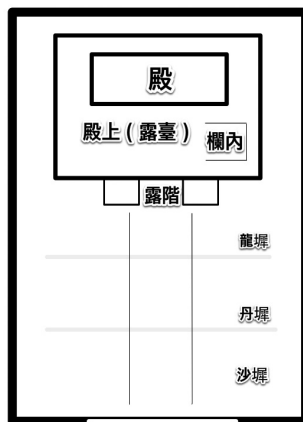
56) 『金史』 36, 志17, 禮9, 受尊號儀.

57) 『金史』 37, 志18, 禮10, 冊皇后儀.

58) 『金史』 38, 志19, 禮11, 新定夏使儀注.

59) 여기에 ‘난내’나 ‘난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위 상승한 夏使가 입현시에 國書를 진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통해 볼 때, 宋使의 해당 의례에 준해서 시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노대 위 전의 처마 기둥이 있는 자리는 송사가 국서를 進모하기 위해 이동하는 난내의 위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右入欄內”라는 표현 등을 종합하면, 전상의 왼쪽 즉 동쪽에 설치되고 서쪽이 뚫려 있어 여기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에서는 서계 위에 난자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난자의 위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상 동쪽에 설치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계 등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난자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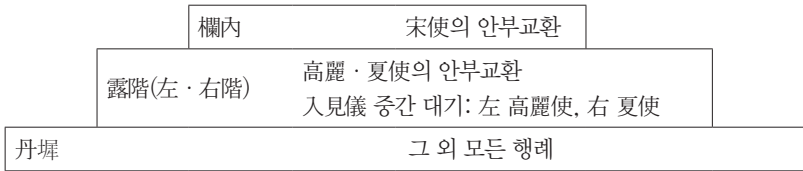


〈그림 1〉 식장의 개념도

이상 금대 빈례의 주요 행례공간으로 등장하는 단지, 노계, 난내의 공간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빈례를 행하는 식장의 개념도를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이 공간 속에서 단지, 노계, 난내는 높이 및 어좌(御座)와의 거리 등을 통해 난내-노계-단지 순으로 위계가 부여된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위치에서 행례함으로써 두 가지가 명확해지는데, 첫째는 외국사의 서열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장 상위의 공간인 난내에 오를 수 있는 외국사는 송사뿐이다. 둘째는 의식의 중요 순위이다. 송사가 난내에서 행하는 예는 「입현의」시 송 황제를 대신해 안부를 교환하는 순간이며, 「조사 의」시 국서를 전달받을 때이다. 따라서 이 의식은 빈례에서 외국사가 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하사 역시 각자의 국왕을 대신해 안부를 교환하는 예가 중요한 것임은 노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역시 난내와 마찬가지로 전상에 오르는 것이지만, 난간으로 둘러진 별도의 공간과는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안부교환의 예가 중요한 것은 『대당개원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당대 빈례의 대상은 번국주(蕃國主)와 번국사(蕃國使)로 구별되는데, 「번주봉현(蕃主奉見)」에서 번주가 전상에 올라 황제 앞에 설치된 좌석에



〈그림 2〉 단지, 노계, 난내의 위계

서 안부를 교환하는 예를 행한다.⁶⁰⁾ 현실적으로 변주의 입현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후대의 빈례는 사신의 예로 고정되었고, 이때 사신이 전상에서 안부를 교환하는 것은 당(唐)대의 변주 의례가 변화되면서 생겨난 것일 듯하다.

이상 세 공간의 위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간의 이용 면에서도 송사는 고려·하사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 또한 고려사와 하사의 경우는, 「입현의」 중간 대기 장소로 고려사가 좌계, 하사가 우계에 위치한다는 점을 통해 고려사가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글에서 분석을 생략한 「곡연의」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연회 때 고려의 종인은 송의 종인과 함께 좌랑(左廊)에, 하의 종인은 우랑(右廊)에 자리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의식 절차는 물론 식장의 공간 이용 면에서도 외국사 간 서열은 송사-고려사-하사 순이었다.

3_ 금대 빈례의 변화상과 유연성

지금까지 금대 빈례에 나타나는 송사 우대의 방식과 그 시각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송사 우대가 어디까지나 빈례의 한 부분일 뿐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고려·하사는 동일하게 ‘외국사’로 명명되었고, 「입현의」에는 이

60) 『大唐開元禮』 79, 賓禮, 蕃主奉見, “舍人引蕃主, 樂作, 蕃主至階, 樂止. 舍人接引升, 至座後, 蕃主就座, 俛伏坐. 侍中承制勞問. 蕃主俛伏, 避席將下拜. 侍中承制曰: 「無下拜.」蕃主復位, 拜對如常. 侍中回奏, 又承制勞還館. 舍人引蕃主降自西階, 展謁者承引, 樂作, 復懸南位, 樂止.”

들이 동시에 행하는 의례가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송사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큰 틀에서는 고려·하사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의식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례에 해당하는 우대를 받는, 적국과 번국의 사이에 걸쳐있다고 할 만큼 모호한 입장에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송사의 지위가 이처럼 모호하게 규정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고려와 하 사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번례를 적용하였지만,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심지어 함께 예를 행할지라도 의례에는 자리의 위치나, 입·퇴장의 순서, 행례절차 등에 의해 차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등은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가 하사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면 양국의 지위는 항상 고려가 앞서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문을 염두에 두고 금대 빈례의 제정 과정과 그 변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a. 夏使次於宋使，高麗使後，賜宴亦如之。⁶¹⁾
- b. 十二月癸亥，始定齊高麗夏朝賀賜宴朝辭儀。⁶²⁾
- c. 三月丙辰，命百官詳定儀制。⁶³⁾
- d. 熙宗時，夏使入見，改為大起居。定制以宋使列於三品班，高麗夏列於五品班。⁶⁴⁾

먼저 a는 1124년 10월의 기록으로, 입현의 순서가 송사, 하사, 고려사 순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금 초기에는 하사의 서열이 고려사보다 앞선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1124년은 고려가 금과 공식적인 외교를 맺기 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즉 고려는 1126년 4월에 금에 칭신상표(稱臣上表)하였으므로,⁶⁵⁾ 공식적인 사신 파견 역시 이때부터이다.

61) 『金史』 3, 本紀3, 太宗 天會2年.

62) 『金史』 4, 本紀4, 熙宗 天會13年.

63) 『金史』 4, 本紀4, 熙宗 天眷2年.

64) 『金史』 38, 志19, 禮11, 朝辭儀.

65) 고려와 금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박윤미, 2011, 「12세기 전반기의 국제정세

b는 1135년 12월의 기사로 이때 처음으로 제(齊), 고려, 하에 대한 조하(朝賀)·사연(賜宴)·조사 의식을 제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시정(始定)’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때 제정된 의식이 공식적으로 금 최초의 빈례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 면에서 입현, 곡연, 조사의 예가 이때 모두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려와 하의 서열은 확인할 수 없으며, 빈례의 대상에 ‘제(齊)’가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는 1130년 7월에 금이 유예(劉豫)를 황제로 옹립하여 세운 괴뢰국가로, 이때 제의 지위는 금의 책봉을 받는 ‘황제국가’였다. 이는 뒤의 금·송 관계에 있어 송의 지위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때 제정된 제에 대한 빈례의 내용이 이후 송에 대한 빈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책봉을 받는 입장이라는 점은 고려·하와 같으면서도, 황제국이라는 점에서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중적 지위가 반영되어 모호하게 보이는 빈례가 규정되기 시작한 것 역시 이때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c는 1139년 희종(熙宗)이 백관에게 의제(儀制)를 상정(詳定)하라 명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d는 그 결과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종연간(1135~1149)에 하사가 입현의시에 행하는 소기거의 예를 대기거로 변경하고, 송사의 반열을 3품, 고려·하사의 반열을 5품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조사의」의 편년기록에 따르면 1142년 6월에 빈례를 재정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입현의 입장 순서는 송사, 하사, 고려사의 순으로, 조사의 입장 순서는 하사, 고려사, 송사의 순으로 정해졌다.⁶⁶⁾ 즉 입현의 서열은 송-하-고려의 순이고, 조사의 서열은 송-고려-하의 순이다. 선행연구는 이에 대해 오기(誤記)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고려와 하의 서열을 같은 것으로 조정하여 양국에 차등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풀이할 수 있다.

와 고려-금 관계 정립, 『史學研究』 104 참조.

66) 『金史』 38, 志19, 禮11, 朝辭儀, “皇統二年六月, 定臣使辭見, 臣僚服色拜數止從常朝起居, 三國使班品如舊. 俟殿前班及臣僚小起居畢, 宰執升殿, 餘臣分班畢, 乃令行入見及朝辭之禮. 凡入見則宋使先, 禮畢夏使入, 禮畢而高麗使入. 其朝辭則夏使先, 禮畢而高麗使入, 禮畢而宋使入. 夏高麗朝辭之賜, 則遣使就賜於會同館. 惟宋使之賜則庭授”.

- e. 禮部尚書張曄等, 進大金儀禮.⁶⁷⁾
 f. 己未, 命吏部侍郎李炳, 國子司業蒙括仁本, 知登聞檢院喬宇等再
 詳定儀禮.⁶⁸⁾
 g. 四月, 校大金儀禮.⁶⁹⁾

e에 따르면 1195년 12월에 예부상서 장위(張曄) 등이 『대금의례(大金儀禮)』를 올리고, f에 의하면 1203년에 이를 재상정하였으며, g와 같이 1210년 4월에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금의례』에는 당연히 빈례도 포함되어있겠지만, 현재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금의 의례 제정이 얼마나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인가는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의 사료를 종합하면 외국사의 서열은 금 초에는 송-하-고려의 순이 었다가 1135년에 빈례가 정비되고, 희종연간 중에 송사의 반품을 3품으로, 고려·하사의 반품을 5품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142년에는 입현의 서열은 송-하-고려의 순으로, 조사의 서열은 송-고려-하의 순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195년에는 금의 의례가 통합적으로 정리된 『대금의례』라는 책을 펴기에 이르렀고, 이는 1210년까지 수정되었다. 또한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기에,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고려-하의 서열이 규정된 빈례가 성립되었다. 즉 송-하-고려, 송-고려-하의 서열이 시기에 따라 모두 존재하였으며, 1142년에는 양국 간 서열을 절충한 방안도 있었다. 바로 이 시기는 금이 주변국에 대해 처음 책봉을 행한 때이기도 하므로, 금의 고려·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양자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 말기인 1225년에 이르면 하사에 대한 금의 대우가 대폭 수정된다. 이는 금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이었는데, 1224년(哀宗 正大1)에 금과 하가 형제국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듬해에 하사에 대한 빈례 역시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금사』 빈례의 편목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신정하사의주」가 그것이

67) 『金史』 13, 本紀13, 章宗 明昌6年.

68) 『金史』 11, 本紀11, 章宗 泰和3年.

69) 『金史』 13, 本紀13, 永濟 大安2年.

다.⁷⁰⁾ 이에 따르면 하사에 대한 대우가 송사에 대한 의례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하는 2년 뒤에 멸망하기 때문에 「신정하사의주」가 시행될 기회도 그만큼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주를 새로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금의 빈례가 매우 유연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상황에 따라 외국사의 지위는 얼마든지 재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례에서 사신이 행하는 의례는 그만큼 당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IV. 맺음말

12세기의 동아시아는 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재편되면서, 중화와 이적이 역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빈례라는 동아시아 특유의 외교 방식에 반영되었다. 금의 빈례는 『금사』와 『대금집례』에 보이는데, 당시 금의 주요 외교대상국이었던 송, 고려, 하의 사신이 모두 ‘외국사’라는 이름으로 금의 조정에 서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글은 금의 빈례를 분석하여 그 구체적인 구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금에 입국한 송사, 고려사, 하사의 지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동일하게 ‘외국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외국은 타국(他國)일 뿐 신하국이나 번국의 다른 표현은 아니다.

금은 송사를 고려·하사에 비해 우대하였는데, 이는 빈례의 구도와 절차,

70) 『金史』 38, 志19, 禮11, 新定夏使儀注, “正大元年十月, 夏國遣使修好. 二年九月, 夏國和議定, 以兄事金, 各用本國年號, 定擬使者見辭儀注云”. 「신정하사의주」의 내용에 관해서는 金成奎, 2014, 「『金史』 「新定夏使儀注」의 의의와 특징」, 『大東文化研究』 84 참조.

식장 공간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송·요가 상호간에 적용한 대등국에 대한 예, 즉 적례(敵禮)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금의 고려·하사에 대한 대우 역시 송·요의 고려·하사에 대한 대우와 상당히 비슷하다. 번국의 사신이 행한 의례라는 의미에서 이를 번례(蕃禮)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의 빈례 중 「입현의」에는 송·고려·하의 사신이 함께 행하는 절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례를 적용하는 송사 우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즉 송사의 지위는 큰 틀에서는 고려·하사와 같으면서도 의식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례에 해당하는 우대를 받는, 적국과 번국의 사이에 걸쳐있다고 할 만큼 모호한 것이었다. 이는 금의 책봉을 받는 '황제국'으로서 송이 가지는 국제 지위가 빈례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또한 고려와 하 사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빈례를 적용하였지만, 이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등은 있으며, 입장 순서, 공간 이용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빈례의 내용을 통해서도 고려사가 하사보다 우위에 있으나, 편년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하사의 우열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즉 금의 빈례에서 이들의 지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의 국제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대 빈례에 보이는 동일한 명칭 속 차등 대우의 성격은 단순히 번국(蕃國) 중 대소(大小)의 구분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 금-송-고려·하 순의 국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이 시기의 국가 간 위계는 일반적인 상·하 두 단계가 아니라, 상·중·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며, 12~13세기 초의 시대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을 예제(禮制)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금대 빈례의 유연성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이범직, 1991, 『한국중세예사상연구』, 일조각.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논문

- 金成奎, 2000, 「宋代 東아시아에서 賓禮의 成立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72.
김성규, 2010, 「皇帝入朝儀禮를 통해 본 宋代 ‘外國’의 國際地位 - ‘西南蕃夷’와 ‘海外 進奉蕃客’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61.
金成奎, 2012,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中國古中世史研究』 27.
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歷史學報』 214.
김성규, 2012,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동양사학연구』 제120집, 동양사학회.
金成奎, 2013, 「金朝의 ‘禮制霸權主義’에 대하여 - 「外國使入見儀」의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86.
金成奎, 2014, 「『金史』 「新定夏使儀注」의 의의와 특징」, 『大東文化研究』 84.
박운미, 2011, 「12세기 전반기의 국제정세와 고려-금 관계 정립」, 『史學研究』 104.
杜本禮, 1997, 「金代的汴京皇宮」, 『中州今古』 3.
劉春迎, 2006, 「金代汴京開封城布局初探」, 『史學月刊』 10.
王大鵬, 2013, 『宋金交聘礼仪研究』, 辽宁大学 碩士學位論文.
張申, 2013, 『金朝外交礼仪制度研究』, 安徽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趙永春, 1993, 「宋金關於‘受書禮’的鬭爭」, 『民族研究』 1993-6.
趙永春, 1996, 「宋金關於交聘禮儀的鬭爭」,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996-3.
曹顯征, 2006, 『遼宋交聘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妹尾達彦, 1992, 「唐長安城の儀禮空間」, 『東洋文化』 72.

자료

- 『宋史』.
『遼史』.

『金史』.

『通典』.

『大唐開元禮』.

『政和五禮新儀』.

『大漢和辭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金代 賓禮를 통해 본
宋 · 高麗 · 夏의 국제 지위

박윤미

이 글은 금의 빈례를 분석하여 그 구체적인 구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금에 입국한 송사, 고려사, 하사의 지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동일하게 ‘외국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외국은 타국(他國)일 뿐 신하국이나 번국의 다른 표현은 아니다.

금은 송사를 고려 · 하사에 비해 우대하였는데, 이는 빈례의 구도와 절차, 식장 공간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확인한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송 · 요가 상호간에 적용한 대등국에 대한 예, 즉 적례(敵禮)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금의 고려 · 하사에 대한 대우 역시 송 · 요의 고려 · 하사에 대한 대우와 상당히 비슷하다. 번국의 사신이 행한 의례라는 의미에서 이를 번례(蕃禮)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의 빈례 중 「입현의」에는 송 · 고려 · 하의 사신이 함께 행하는 절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례를 적용하는 송사 우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즉 송사의 지위는 큰 틀에서는 고려 · 하사와 같으면서도 의식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례에 해당하는 우대를 받는, 적국과 번국의 사이에 걸쳐있다고 할 만큼 모호한 것이었다. 이는 금의 책봉을 받는 황제국으로서 송이 가지는 국제 지위가 빈례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또한 고려와 하 사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번례를 적용하였지만, 이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등은 있으며, 입장 순서, 공간 이용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빈례의 내용을 통해서도 고려사가 하사보다 우위에 있으나, 편년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하사의 우열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즉 금의 빈례에서 이들의 지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국제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대 빈례에 보이는 동일한 명칭 속 차등 대우의 성격은 단순히 번국(蕃國) 중 대소(大小)의 구분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 금-송-고려·하 순의 국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는 12~13세기 초의 시대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국제관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금대 빈례의 유연성으로 인해 예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금(金), 빈례(賓禮), 외국사(外國使), 적례(敵禮), 번례(蕃禮)

[ABSTRACT]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Song, Goryeo,
and Xia on the Basis of the Ceremony for Guests of Jin

Park Yunmi

In the ceremony for guests of Jin(金), envoys from Song(宋), Goryeo(高麗), and Xia(夏) were all equally defined as foreign envoys. This differed from Song and Liao(遼), with their separate rituals for each country, and thus shows Jin in an internationally higher position at that time. However, details of the diplomatic ritual show another aspect: envoys from Song were treated better through differences in procedure and in seating for envoys at the rite. Such treatment is consistent with that of Song and Liao, which were based upon mutual equivalence relations. The treatment for the envoys from Goryeo and Xia in Jin was also consistent with that in Song and Liao, which were based on hierarchical relations with the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ceremony for guests of Jin involved both equal and differentiated treatment for envoys from the three countries. This was probably because of Song's internationally ambiguous position.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Song was lower than that of Jin, but higher than that of Goryeo and Xia because it was an empery proclaimed by Jin.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Goryeo and Xia varied over time because Jin had a flexible ceremony for guests, reflecting the actual situation.

Keywords

International position, Ceremony for guests, *Bin-Li*, Envoy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현명철 | 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필자는 왜관에서의 교섭 경과를 미시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¹⁾ 조선을 속방으로 취급하거나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던 메이지 일본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였던 조선 사이의 외교 갈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화국가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조선의 외교 인식과, 당시 메이지 일본의 역지사리움을 밝힐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편협한 연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관에서의 교섭 경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메이지 일본의 선전적 사료나 왜곡된 보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당시 메이지 정부, 외무성의 역사 인식과 기록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

※ 투고: 2015년 4월 30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1) 현명철, 2007,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17, 동북아역사재단, 122쪽.

다.²⁾ 따라서 당시 일본의 기록은 조선의 기록과 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1870년 윤10월, 관수 반누이 도노스케[番縫殿介]는 세견선 무역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문책 귀국당하고, 다음해 1871년 1월 28일 새로운 관수로 외무성 출사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平正景]가 부임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견선은 계속하여 왜관에 입항하고 있다.

조선과의 외교를 장악하려고 하였던 일본 외무성은 187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화륜선을 조선에 보내어 대마주에 주었던 외교권을 회수하고 세견선을 폐지하여 기유약조를 무력화시킨다. 이 글은 187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화륜선이 입항하는 과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대일본외교문서』를 보면, 화륜선은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왜관에 입항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1월에 작성된 모리야마 시게루[森産茂] 보고서에는,

13일 8시에 출발하여 미풍을 타고 이미 부산만 입구에 도달하였으나 새벽 4시가 되어 미명에 포구에 들어가게 되면 한인들이 의심하고 우려할까 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7시에 이상 없이 왜관에 도착하였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³⁾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9월의 하나부사의 보고서에서도

2) 이러한 필자의 견해의 근거는 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한일관계의 변화와 총독부 간행 조선사 기술 검토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0 참고. 여기서 필자는 당시 일본에서의 역사란, 만국대치의 국제법정에서의 싸움을 위한 선전과 근거자료의 확보였다.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은 폭로하는 것이 법정에서의 싸움이다. 라고 당시의 역사의식을 피력한 바가 있다.

3) 『日本外交文書(韓国篇)』 1, 서울태동문화사 영인, 364쪽. “十三日第八字開帆候処、穩波微風既に釜山灣口に近附候節、漸第四字頃にて、未明中浦入いたし候ては、韓人ノ疑慮に涉り候半と、弘曉相待第七字、無異着館いたし候間、此段御安心可被成下候”.

일행 관원들은 지난 15일 아침 대마도를 출발하여 동일 오후 4시경 春日·有功艦 모두 정박하였고, 조선의 상황에 대해 물어본 바, 특별히 변한 바는 없고, 화륜선이 건너왔다고 해서 특별히 동요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한인 소통사 및 수영의 사람들이 배를 구경하고자 하여 기꺼이 구경하게 하였습니다.⁴⁾

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마도에서 건너오는 배들은 통행증인 노인(路引: 대마주에서는 吹嘘라고 불렀다)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엄격한 입항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871년 신미양요 이후, 국경 방어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본 화륜선이 조선의 검문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입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1872년에 작성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을 바라보는 네 곳의 봉수대(간비오봉, 황령산, 구봉, 응봉)와 경상좌수영을 비롯하여 포이진, 부산진, 두모진, 서평진, 다대진, 그리고 동래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일본의 기록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 지역의 해안방어와 일본에서 배가 왔을 때의 탐지체계, 보고체계, 그리고 예인, 문정, 입항절차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다음, 특히 화륜선이 도착하였을 때 입항이 허락되는 이유와 화륜선에 대한 문정 내용에 대해 동래부의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부산 지역의 해안 방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래부사레』⁵⁾와 『동래부계

4) 一行官員去る十五日未明對馬州出帆, 同日午後四字頃, 春日有功兩艦とも無恙着韓, 近日外向の景狀相尋候処, 別に相替儀無之, 火輪船渡韓に付, 強て動揺いたし候程之儀も相見不申, 韓人小通事並に水營のもの等, 船拜見顯出, 快く差許候事. 『일본외교문서(한국편)』, 406쪽.

5) 『동래부사레』(규장각 4272) 전2책. 원문이 PDF파일로 제공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 책은 1963년에 釜山市史編纂委員會에서 釜山史料叢書 第一로 活印되었다. 『동래부사레』는 고종 5년(1868) 戊辰 윤5월에 東萊府에서 府勢와 재정내역 및 제반 사무 규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는 왜관에 대한 정책도 자세하게 실려 있다.

록』 7⁶⁾, 그리고 1872년 작성된 「지방지도」⁷⁾가 유용하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배가 왔을 때 탐지에서 입항 문정(問情) 보고까지의 과정은 『동래부계록』 6과 『동래부계록』 8을 활용하고자 한다.⁸⁾

동래부사가 올린 장계(狀啓)를 모은 『동래부계록』 6권과 8권의 주된 내용은 왜관 출입국 기록이다. 왜관에 들어온 배의 종류와 입국목적, 입국한 왜들이 가져온 서계와 별폭과 노인⁹⁾을 예조에 올리고, 왜인들의 입국 상황을 의정

- 6) 제7책은 慶尙左道水軍節度使 尹永夏의 狀啓謄錄으로 1870년 8월 27부터 1872년 7월 16일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다. 제6책과 제8책이 동래부사의 장계등록이므로 함께 살펴보면, 같은 시기의 사건을 동래부사의 보고와 수군절도사의 보고서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매력에 있다.
- 7)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조선시대 官撰地圖 제작사업의 마지막 성과로 평가되는 1872년 지방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총 459매이다. 이때 제작된 지도들은 郡縣 지도뿐만 아니라 營·鎭堡·牧場·山城 등을 그린 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한 시기에 제작되어 收束된 지방지도로는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도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제작되어 收束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제작 원칙 하에 체계적으로 그려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전 시기의 지도보다 큰 규모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도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현재 남아 있는 다른 郡縣地圖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하다고 평가받는다. 이 「지방지도」는 흥선대원군이 두 차례의 洋擾를 겪으면서 서양의 침략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 파악은 시급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1871년에는 전국적인 邑誌 편찬사업을, 이듬해인 1782년에는 전국적인 차원의 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중 (동래부, 좌수영, 두모진, 포이진, 다대진, 부산진) 지도는 부산 지역의 해안 방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요긴하다.
- 8) 『東萊府啓錄』은 한국학 전라도서관에서 원문 및 탈초문을 볼 수 있다. 『동래부계록』 제6책과 제8책은 동래부사 정현덕의 장계 등록으로 6책은 1869년 1월 1일부터 1871년 4월까지 그리고 8책은 1871년 5월부터 1874년 2월까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869년 1월에서 1873년 12월까지의 5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동래부사 정현덕은 1867년 5월~1874년 2월까지 장기간 재임하였다. 또한 이 때 호도는 안동준이 계속 근무하였다. 1872년 3~5월, 6~8월은 상고와 병가로 고재건, 현풍서가 가호도로 근무하였다. 또한 별차는 이주현(1869. 1~1870. 8), 현성운(1870. 8~1871. 8 단, 1871년 5월부터 한인진이 가별차), 이필기(1871. 8~1872. 12, 단 10~11월은 가별차 한인진), 고재건(1871. 12~1872. 6, 단, 3~5월 및 6~8월에는 가별차 한인진), 현풍서(1872. 8~1874. 2월 현재)로 교체되고 있다.
- 9) 여행증(입국허가서)이다. 路引을 대마주에서는 吹嘘라고 불렀다. 한편 출국허가서를 路文이라고 『동래부계록』에서는 구분지어 표현하고 있다. 일본 사료에서는 문인(文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노문(路文)과 노인(路引)을 합한 표현이라고 추론하지만 확증을 얻지는 못하였다.

부와 삼군부에 보고하는 내용과, 언제 입국한 배가 언제 어떤 용무로 입국한 왜인 몇 명을 태우고 떠났다고 훈도 별차가 수본(手本-보고서)을 통해 동래부사에게 보고하면 동래부사가 이를 바탕으로 부산진에서 발급한 노문(路文)과 관수왜 서한 혹은 공작미등을 가지고 떠났다는 출국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송환된 표류민에 대한 문정 보고, 하선다례연, 하선연, 상선연 설행에 관한 보고 및 왜관수리 및 왜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난출, 월장사건 등)에 대한 보고, 공작미와 공목 지급 통계 등이 그 중심을 이룬다.

반면, 수군절도사가 올린 장계인 『동래부계록』 7은 이와는 성격이 달라서 중심이 국경방어에 있다. 즉, 수영의 인사, 징별과 포상, 방어 인원의 확보, 정상항로를 벗어난 배에 대한 감시와 예인 정박, 표류에 관한 사항, 담당 지역의 화재, 해난 사고, 영해관아 습격사건, 이양선의 출몰, 군사훈련, 병기점검, 수군무과시험(舟師都試), 등에 대한 보고가 동래부사의 보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관수의 기록인 『관수매일기』¹⁰⁾가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1872년 화륜선이 입항할 당시의 동래-부산 지역의 국경 방어 상황을 살펴보고, 왜선이 나타나 왜관에 입항하는 절차와 문정의 내용과 보고, 그리고 특히 일본이 화륜선을 보냈을 때 동래부와 경상좌수영이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었는지를 복원해 보고, 일본 외무성이 남긴 기록(『대일본외교문서』)과 기존의 연구에 대해 적절한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10) 『館守每日記』는 1870년 윤10월 종료되므로 이 글에서는 크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II. 동래-부산 지역의 해안 방어와 군사 편제

우선, 『동래부계록』 6권과 8권을 통해 1869년에서 1873년까지 5년간 왜관에 입항한 선박과 인원을 간략히 도표로 만들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왜관에 입관하는 선척은 1869~1873년 5년간 합 301척으로 연평균 60척을 기록하고 있으며, 입국 왜인 수도 5,801명으로 평균 1,160명에 달한다. 송환되는 조선인 표류민도 246명으로 연평균 49명을 넘는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선박과 인원이 왜관에 입항을 하는 동래-부산 지역의 국경 방어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표 1> 1869~1873년 왜관에 입항한 선박과 인원

	1869(기사)년	1870(경오)년	1871(신미)년	1872(임신)년	1873(계유)년
세견선	무진조 3척 기사조 8척	기사조 10척 경오조 3척	경오조 13척 신미조 3척	경오조 1척* 신미조 9척	없음
비선	17척	23척	33척	35척	91척
표민영래선	2척	10척	5척	1척	없음
표민차기선	1척	7척	6척	1척	없음
표민본선	0척	4척	2척	2척	4척
기타		공작미청퇴선1 독일무장상선*	신관수왜선1 사쓰마[薩摩]표류 선*	대마 표민선1 화륜선 3척 경오3특수목*	사쓰마 표민선1
(계) 입관선척 수	31척	58척	63척	53척	96척
(계) 입관 인원	750명 표류민 6명	1,711명 표류민 90명	1,584명 표류민 55명 사쓰마 표민 10명	1,007명 표류민 58명 대마표민 4명	749명 표류민 37명

* 대마도는 기유약조에 의해 20척의 세견선(세견17, 특송3)과 이정암, 만송원, 부특송사선을 보낼 수 있었고, 곁대에 의해 8송사선이 접대를 받았다.

* 선척의 수는 처음 들어온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였다(출항하였다가 귀항한 경우는 불포함).

* 독일무장상선과 薩摩표민선, 경오3특송수목선은 왜관 밖에 정박하였으므로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선 당시 부산·동래 주변의 군사 편제에 대해 살펴보자.¹¹⁾ 이 지역은 주지하다시피 경상좌수영과 동래부독진(경상좌병영 소속)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경상좌수영은 효종 3년(1652) 감만포에서 다시 해운포로 옮겨졌고, 숙종 18년(1692) 지금의 수영구 수영동-망미동-광안동 일대에 둘레 2,785m의 크기로 확장, 축성되었다.¹²⁾ 『만기요람』¹³⁾을 보면 1800년대 초에는, 좌수영 본진에 전선(戰船) 3척이 소속되어 있고 예하 8개진(부산진, 다대포진, 포이포진, 두모포진, 개운포진, 서평포진, 그리고 울산진과 기장진)에 전선 7척이 배치되어, 경상좌수사 이하 2만 800여 명이 소속되어 방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좌수영의 중앙은 우후(虞侯)가 담당하였고, 10개 수군만호를 두었다고 한다.

『동래부계록』 7의 좌수영 수군절도사 운영하의 장계를 검토하면, 1870년 도에는 이전의 울산진이 울산부로, 기장진은 기장현으로 승격하여 있으며, 서생포, 포항포가 새로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부산포, 다대포, 서생포, 포항포 네 곳에 첨사(첨절제사)가 있으며, 두모포, 포이포, 개운포, 서평포에는 만호가 경상좌수영 수군절도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해안경비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읍지』를 보면 15척의 전선이 있었다고 하며 좌수영(4), 부산진(2), 다대진(2), 서평포, 두모포, 개운포, 포이포, 김포, 축산포, 칠포에 각

11) 이완영, 1963,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 소고」, 『港都釜山』 제2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2) 지금의 수영사적공원.

13)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이 순조의 명으로 편찬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관찬 사서의 기록이나 수록된 통계자료로 볼 때 순조 8년(1808) 무렵으로 짐작된다. 특히 권4는 관방(關防)·해방(海防)·주사(舟師)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을 비롯해 개성부·수원부·강화부·광주부와 전국 8도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시설, 주요 방어요충지를 기록하였다. 해방에서는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기록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명하고 있다. 주사에서는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경기수영(京畿水營)·삼도통제영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속읍(屬邑)·속진(屬鎭)·병선(兵船)·병력 등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밝혔다. 각 항목마다 간략한 연혁과 각종 통계자료, 법규 등을 수록함으로써 각 관청과 제도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1척의 전선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1872년에 만들어진 지방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경상좌수영도에 4척의 전선과 정탐선(偵探船)이, 부산진도에 두모진, 개운진 전선을 포함 4척의 전선이, 다대진도에는 서평포 전선을 포함한 3척의 전선이, 포이선창도에 포이전선이 보인다. 이 12척의 전선에 기장, 서생포, 울산에 전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1800년대에 10척이었던 전선이 15척으로 증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전선 1척에는 소총수 18명, 教師 5명, 포수 24명, 능노군(能櫓軍) 120명, 기수 30명 등 200명 정도가 탑승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의 판옥선이 개량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⁴⁾

한편, 육군은 동래부사가 숙종 16년(1690) 이후, 금정산성과 동래성의 수성장을 겸임하며 동래부의 독진을 통솔하였다. 1868년에 작성된 『동래부사례』의 군총(軍摠)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동래읍성은 다른 읍성과 마찬가지로 그 성내에 동래부의 주요 행정 관아가 집결되어 있었다. 숙종 3년(1677)에 중수되었고, 영조 7년(1731)에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주위는 2,880步(약 8리, 약 3,200m)로 임진왜란 당시와 비교하면 4배가 넓어진 규모였다. 주변에는 국방상의 요지에 성곽들을 두었는데 북쪽에 금정산성, 동남쪽에 좌수영성, 남쪽에 부산진성, 다대진성을 두었다. 그중 금정산성은 둘레가 6만 8천 9백 8척으로 조선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한다.

이상 대략의 군사력을 살펴보았다. 1870년 당시 부산 좌수영에는 200명이 탑승하는 전선 15척 이상과 다수의 병선(猛船)¹⁵⁾, 그리고 정탐선이 있어서 해상 감시활동을 담당하였고, 동래부독진에는 남포군과 사모군을 제외하고도 군교가 4,500명이 존재하였다.

14) 최근 통영시가 고궁에 따라 복원한 판옥선은 전장 42m, 284t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대포 8문(전면 4문, 후면 4문)이 장착되어 있었다.

15) 병선은 수영 사적공원에 모형이 있다.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으로 나뉘며 주로 소맹선이 활동하였던 것 같다. 병선에는 射夫 10명, 砲手 10명, 能櫓軍 15명 등 35명이 탑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표 2〉 『동래부사례』에 나타난 육군의 편성

		합	내용
軍校	본진	3,911명	중군(中軍) 1명, 천총 1명, 파총 2명, 초관(哨官) 14명, 지구관(知殿官) 2명, 기패관(旗牌官) 82명, 속오군 756명, (속오)별대 60명, 아병군(牙兵軍) 684명, (아병)별대 50명, 복마 39필, 각청표하군 185명, 형명수(刑命手) 4명, 군뢰(軍牢) 22명, 사령(使令) 26명, 취타수 19명, 세악수(細樂手) 14명, 승작대 101명, 별군관 290명, 별기위 230명, 수성군관 400명, 별무사군관 200명, 친병위 300명, 작대 200명, 도훈도 36명, 산성군관 200명, (산성)표하군 30명, 기고관(旗鼓官) 2명
	양산	460명	파총 1인, 초관 3인, 기패관 10인, 속오군 338명, 별대 68명, 복마 21필, 별기위 40명
	기장	135명	초관 1인, 기패관 4인, 속오군 88명, 별대 12명, 복마 6필, 별기위 30명
	계	4,506명	
납포군	1,297명		
私募君	1,302명		
군교 총계	7,105명		

또한 황령산 봉수대를 비롯 네 봉수대의 봉군들이 해상에서 나타나는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왜관의 일본인(대마도인)들을 감시하고 묶어두었던 것이며, 대마도에서 오고 가는 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화륜선이 도착하였을 때 동래부와 부산진이 공포에 떨었다거나, 1872년에 왜관이 침탈당하였다는 등 메이지 초기 한일관계사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Ⅲ. 일본 선박의 왜관 입항과 문정

이 장에서는 1872년 1월, 화륜선 만슈마루[滿珠丸]가 입항할 때를 예로 들어서 일본(대마도)에서 건너온 배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항시키는지, 화륜선이 입항을 허락받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① 1872년에는 세견선이 파견되지 않았다. ② 화륜선은 단독으로 바다를 건너왔다. ③ 화륜선은 조선의 검문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왜관에 상륙하였고, 바로 훈도와의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훈도는 여러 핑계를 대어 취관하지 않았다고 이해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정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①에 관하여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明治 5년(1872) 정월부터 세견선과 공무역은 정지되었고, 왜관유지비도 그 出所를 잃고, 왜관의 현상 유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¹⁶⁾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임신년조(1872) 세견선부터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오해하여 이를 왜관 정리의 이유로 해석하고자 하였다¹⁷⁾고 판단된다. 이시가와[石川寬]의 최근의 연구에서도 1871년 4월까지 세견선이 파견되는 것으로 표를 작성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앞서 살펴본 <표 1>을 보면 1872년에 세견선이 들어와 진상을 하고 공목과 공작미를 싣고 출항하고 있다.¹⁹⁾ 세견선 파견이 당해 연도에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즉, 1872년도에

16)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 研究』 上, 207쪽. (宗高書房 복각판, 1972년).

17) 田保橋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견선의 폐지, 사무축소에 의해 거의 일이 없어졌으므로 꼭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귀국시킬 방침을 취하였다. 세견선·공무역 폐지에 따라서 왜관은 수입을 잃고 오로지 전년도의 잉여금 그리고 구 번주의 보조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현상에서는 인원의 정리가 급무였다. 田保橋潔, 위의 책, 1940, 207쪽.

18) 石川寬, 2003, 「明治期 大修參判使 對馬藩」, 『歴史學研究』 775, 6~9쪽 (<표 1>참고).

19) 『동래부계록』을 보면 1872년 9월 28일 출항한 배가 마지막 세견선이 되고 있다.

도 세견선은 입항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륜선이 세견선 및 표류민선과 함께 국경을 건넜다는 사실이 일본 측 기록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대일본외교문서』와 『조선의 교사무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화륜선이 단독으로 바다를 건넌 것처럼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도해면허증)을 소지한 왜선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입항을 거절당하거나 전투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피하고 입항을 허가받기 위해서 화륜선은 세견선과 표류민을 동반하여 함께 온 것일텐데 일본의 외무성 기록에는 이러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있다.

③ 화륜선이 조선의 검문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왜관에 상륙하였다는 설명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외교문서』에 모리아마의 보고를 보면, 화륜선이 홀로 건너온 것으로 이해되며, 또 마치 아무런 방비가 없는 곳에 입항한 것처럼 이해된다. 외국도 아니고 자기 나라 조용한 시골 포구에 들어가는 것 같다. 게다가 13일 아침 8시에 출발하여 14일 아침 4시에 만 입구에 도착하였고, 당일 7시에 왜관에 입항하였다는 기술에서는 동래-부산의 방어와 입국 관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진다. 상식적으로 조선이 국가인 한, 그리고 Ⅱ장에서 살펴본 부산 지역의 방어가 경상좌수영과 동래부독진이 관할하는 지역이며 봉수대가 준비한 국경 지역임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료 비판이 필요하게 된다. 더 나아가 다보하시는

대마관리가 에도 관원과 함께 이양선에 탑승하여 공공연히 부산에 입항한 사실은, 동래·부산 관민에게 일대 충격을 주었고, 동래부사 정현덕은 滿珠丸입항 당일부터 동선 재박 중 철공철시를 명령하였다. …… 18일 별차 고재건이 취관하였을 때, 훈도의 취관을 독촉하였으나 …… 공무 다망하여 급히 취관할 여유가 없다고 답하였다.²⁰⁾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식적이 아니다. 일본에서 선박이 오게 되면 훈도가 가장 먼저 입항의 이유를 묻고 입항을 허락할 것인지, 철회시킬

20) 田保橋潔, 앞의 책, 1940, 271쪽.

것인지 등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이양선(화륜선)이 도착하였는데 공무가 다망하여 혼도가 취관을 거절하였다는 위 설명은 사실이 아니고, 18일이라는 일시에도 문제가 있다.²¹⁾ 본 장에서는 이상 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화륜선이 입항하게 되는 과정을 복원하도록 하자.

1_ 만슈마루와 동행 선단의 왜관 입항 과정

1872년 1월 13일, 모리아마·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10등]·히로세[廣瀬直行-11등]·우라세[浦瀬最助-12등] 등, 외무성 관원 일행은 화륜선 만슈마루를 타고 대마도를 출발하였다.

이날 화륜선은 신미조1특송사 1호선과 2호선(겸대2·3특송사)과 표류민영 래차왜선, 표민 차기선, 비선(飛船), 표민본선 등과 함께 왜관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동행 선단은 총 7척의 배에 220명의 왜인과 37명의 표류민이 함께 탄 규모가 큰 선단이 되었다. 선단은 중간에 1특송사 2호선과 제주표민 차기선 및 기장표민본선이 먼저 국경을 넘어서 북으로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1호선과 영래차왜선, 비선, 화륜선이 정상항로로 나중에 국경을 넘어선다.

14일, 항로를 이탈한 배가 먼저 卯時(아침 6시경)에 '수종(水宗)을 넘어'²²⁾ 경상좌수영 관내로 들어서자, 좌수영 간비오(干飛鳥), 봉군²³⁾ 유운오(劉雲五) 등이 미변선(未辨船)²⁴⁾ 2척(실제로는 3척)이 기장현쪽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경상좌수영과 부산진에 알렸다. 수군절도사 윤영하(尹永夏)는 바로 좌수영 소

21) 뒤에 살펴보겠지만 滿珠丸은 14일 조선 영해에 들어와 두모포만호와 포이포만호의 제지를 받고 흑암에 정박하였다가 16일 입항하여 문정을 받고 17일 출항하였기 때문에 18일 운운은 근거가 없다.

22) 水宗은 어학적으로는 물마루(수평선)를 말한다. 그런데 사료 해석으로 보았을 때, 수종을 넘었다는 것은 영해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하 영해로 들어왔다고 번역한다.

23) 지금 부산 해운대 장산의 지맥으로 간비오산에 남아있다. 동백역(2번 출구)-운촌에 있다. 좌수영에 소속되어 있었다. 도별장 1인, 별장 6인, 감고 1인, 봉군 100인을 두었다고 한다. 해발 147.9m이다.

24)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배를 일컬어 미변선이라고 하였다.

속 4전선장 이운표(李運杓)를 초탐장으로 보내고, 또한 부산첨사 김철균(金澈均)에게 문정역관을 보내라고 발관신칙(發關申飭)하였다.

또한 辰時(8시)에 기장현감 장용하(張龍河)도 미변선 2척이 영해로 들어와 기장현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배를 예인하기 위해 주사대장(舟師代將) 김양헌(金亮憲)을 내보냈다고 부산첨사와 수군절도사에게 치보(馳報)하였고, 이 치보는 午時(낮 12시경)에 수군절도사에게 도착하였다.²⁵⁾ 주사대장은 표류해 오는 배를 巳時(아침 10시경)에 무지포(武知浦)²⁶⁾에 정박시켰고 좌수영에서 파견한 4전선장과 함께 무지포에 정박한 3척의 배를 지켰다.

한편, 정상항로로 진입한 신미조1특송사 1호선과 영래차왜선, 비선, 그리고 화륜선은 황령산(荒嶺山)²⁷⁾ 봉군이 탐지하여 보고했다. 즉, 황령산 봉군 손반석(孫盤石)은 辰時(아침 8시경)에 왜선 3척과 돛대가 달린 이양선 1척이 영해로 진입하였다고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진고(進告)하였고 부산첨사는 두모포만호 나치순(羅致淳)과 포이포만호 오정환(吳廷煥)으로 하여금 왜선 3척과 화륜선을 초탐하기 위해 보냈으며, 이 사실을 동래부사와 수군절도사에게 치보하였다. 두모포만호와 포이포만호는 巳時(아침 10시경)에 이들 왜선(대선 2척, 비선 1척, 화륜선 1척)을 흑암(黑巖) 앞바다²⁸⁾에 정박시켜 수호하고 이 사실을 부산첨사에게 보고한다. 오후 2시에 부산첨사가 초탐장 두모포만호의 보고를 전하여, 좌수영과 동래부사에게 이 사실을 치보한다.

한편, 15일 밤 12시에는 부산첨사가 기장현감-주사대장의 보고를 전하면서, (14일) 오전 10시에 왜대선 2척과 표류민선 1척을 무지포로 예인하고 정박시켰고 기장현감이 달려가 땀감과 식수를 공급하였으며, 주사대장이 수호하고 있다고 알리고, 이는 오전 6시에 간비오봉 봉군이 발견한 배이며, 기장현에서

25) 기장현에서의 보고는 卯時에 표류한 것을 辰時에 거론하였으므로 시간이 늦었고 역시 2척으로 잘못 보고한 것이라 하여 詳探之失의 죄로 機張次知監色이 경상좌도 수군영으로 불러들어가 19일 梶懲의 벌을 받았다. 군율이 매우 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 현재 기장을 연화리와 대변리에 있다.

27) 지금의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다. 봉수대가 5개인 큰 봉수대였고 동래부 소속이었다.

28) 부산 영도 동삼동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국립해양박물관 근처로 추정된다.

오전 8시에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배와 동일한 배임을 확인하고, 또한 이들이 2척이라고 보고한 것은 3척을 잘못 본 것이어서 상탐(詳探)의 실수임을 면할 수 없다고 수군절도사에게 치보한다. 동시에 동래부사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동래부계록』은 실시간 보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14일 10시에는 6시에 항로를 이탈하여 영해로 들어온 신미조1특송사 2호선과 제주표민차기선, 그리고 기장표민본선이 좌수영 제4전선대장과 기장 주사대장의 감시 수호하에 기장현 무지포에 정박하였고, 이곳으로 문정을 위해 별차 고재건이 가고 있으며, 기장현감은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수와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정상 항로로 8시에 영해로 들어온 신미조특송사1호선과 영래차왜선, 비선, 그리고 화륜선도 같은 시간, 즉 10시에 흑암 앞바다에서 두모포만호와 포이포만호의 제지를 받아 정선하여 정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보고는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견에서 정박시키기까지 항로를 이탈한 배는 4시간 정도, 정상 항로로 들어온 배는 2시간 정도로 마중 나가서 정박시키는 시스템으로, 그 신속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봉군이 표류선 3척을 2척이라고 보고한 것과, 기장현감이 보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 봉대별장과 기장감색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군기의 엄정함 또한 알 수 있다.

정상항로로 화륜선과 함께 와서 흑암에 정박하였던 왜선, 즉 신미조특송사 1호선과 영래차왜선 그리고 비선은 노인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다음 날인 15일 아침 6시에 두모포 만호의 인도로 왜관에 입항하여 문정을 받으며, 화륜선은 관수왜(深見六郎)의 간청에 따라 또 그 다음 날인 16일 아침 6시에 역시 두모포 만호의 인도로 왜관에 입항하여 훈도의 문정을 받게 된다.

한편, 정상항로를 벗어나 무지포에 정박한 특송사 2호선과 제주표민 차기선, 그리고 기장표민 본선은 15일 정박지에서의 1차 문정을 마치고, 오후 4시에 주사대장과 좌수영 소속 초탐장 4전선장의 예인에 따라 출발하여 오후 6시에는 동래 지경에 이르러, 오후 8시에 오류도 앞바다에 도착한다. 주사대장과 4전선장은 이들을 호송장 개운포만호 임봉상에게 인계하고 귀대하였으며, 동

호송장은 위 배 3척을 유인하여 다음 날 16일 午時에 왜관에 정박시킨다. 이들은 다시 훈도의 문정을 받는다. 14일 오전 10시에 무지포에 표착하여 16일 12시에 왜관에 입항하므로 꼬박 이틀이 걸린 셈이다.

2_ 왜선과 표류민선에 대한 문정 내용과 조치

우선 시간상으로 앞서 이루어진 무지포에 표착한 왜선들에 대한 문정을 살펴보자. 1월 14일, 수군절도사-부산첨사의 명령을 받은 별차 고재건은 통사 2명을 데리고 즉시 출발하여 15일 새벽 2시에 무지포에 도착하여 문정하였다. 문정의 주된 내용은 노인²⁹⁾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승선인원과 직책³⁰⁾, 입항 이유 등이었다. 왜선에 대한 문정을 마친 별차는 뒤이어 제주 표류민들과 가장 표민들을 초문(招問)하였다. 표류민에 대한 문정의 주된 내용은, 성명, 나이, 주거지, 표류한 이유, 표류 후 귀국까지의 과정 등이었다.

왜선과 표류민에 대한 문정을 마친 별차는 통사 1명과 함께 왜관 임시로 귀환하여 부산첨사에게 보고한다. 별차의 보고는 부산첨사를 거쳐 16일 오전 8시에 동래부사 및 수군절도사에게 치보된다. 또 1명의 통사는 남아서 이들을 왜관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정상항로로 들어온 왜선에 대한 문정을 살펴보자. 흑암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왜대선 2척과 비선은 화륜선을 남겨두고 두모포 만호의 인도로 15일 오전 6시에 왜관에 도착한다. 이들에 대한 문정은 훈도 안동준이 담당하였다. 훈도 안동준의 수본에 따르면,

29) 노인은 조선 관청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마도주가 발급한 통행증이다. 수신인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로 되어 있다.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117쪽. 따라서 노인은 의정부와 3군부로 上送하였다.

30) 직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이는 직책은, 관수왜, 공대관왜, 서기왜, 의왜 / 통사왜, 반종왜, 종왜, / 정관왜, 두왜, 도선주왜, 선주왜 / 봉진압물왜, 봉진물왜, 사복압물왜 / 별금도왜, 중금도왜, 소금도왜, / 공하대왜, 하대왜 / 사공왜, 목수왜 / 격왜 등이다. 이들의 일본식 직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관에 도착한 왜대선 2척과 비선 1척을 문정한 결과, 제1척은 신미조1 특송사 1호선으로, 거기에 정관왜 藤直固, 도선주왜 藤則孝, 봉진입물 왜 1인, 시봉왜 1인, 반중왜 40명, 집질표민 1명, 영래통사왜 1인, 교대차 온 별금도왜 2명, 공하대왜 3명 등이 예조 앞 서계와 별폭을 각1도, 겸대2, 3 특송사와 서계 별폭 각 2도, 표민순부 서계별폭 각 1도, 동래부산 앞 서계 1도, 별폭 2도 및 진상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척은 제주도 표류민 영래차왜선으로 정관왜 平親長, 봉진물왜 1인, 반중왜 3명, 집질표민 남녀 10명, 영래통사왜 1인, 격왜 40명, 교대차 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 등이 예조앞 서계와 별폭 각 1도, 동래부산 앞 사또 앞 서계 1도, 별폭 2도 및 진상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소금도왜 2명, 하대왜 3명 등이 路引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대선 2척과 비선 1척, 일행2호선 1척, 표민본선 1척, 차기선 1척 합 6척이 13일 아침에 대마도를 출발하였으나, 2호선과 표민본선, 차기선이 뒤떨어져서 보이지 않았고, 자기들의 배는 바다에서 밤을 보내었는데, 화륜선 1척이 갑자기 나타났으며, 배의 모양이 비록 우리가 제조한 배와는 다르지만 그 속에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14일 오전 8시에 함께 水宗을 넘어 10시에 흑암에 정박하여 밤을 세우고, 화륜선은 그곳(흑암)에 남고, 자기들의 배는 오늘 15일 아침 6시에 왜관에 도착한 즉, 낙후된 3척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표류한 것 같습니다. 또 조선의 표류민선 1척이 대마도 府中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훈도 안동준은 문정 결과를 15일 오후 4시에 부산 첨사에게 수본으로 제출하였고, 부산첨사는 16일 밤 12시에 수군절도사와 동래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정상항로로 왜관에 먼저 들어온 배가 신미조 제1특송사 1호선³¹⁾, 영래차왜

31) 이 배는 1월 22일, 무진년(1868)에 왔던 대수대차사 왜선과 신미조특송사 2호선과 함께 출항한다. 22일 관수는 훈도와 별차에게 대수대차사(樋口鉄四郎-平和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송환명령이 내려져 귀환한다고 보고하였고, 대수대차사 왜선은 101명을 태우고 부산진이 지급한 路文을 소지하고 22일 卯時에 출발하였다. 한편 신미조특송사 1호선과 2호선도 각 64명과 61명을 태우고 공작미와 路文

선³²⁾, 그리고 비선임이 확인되어 보고되는 것이다.³³⁾

훈도 안동준은 왜인에 대한 문정을 마치고 제주 표류민에게 가서 표류하게 된 연유와 주거지 성명 등을 초문하였다. 또한 기장 표민 방잉손(方荊孫)을 불러 문정하였다.

훈도 안동준은 왜인과 표류민에 대한 문정을 마치고 수문장(守門將)에 명하여 표류민들을 부산진으로 압송하도록 조치하고, 서계와 별폭, 등본, 순부서계, 별폭 및 노인을 부산진으로 보내었으며, 임소로 환귀하여 15일 오후 4시에 부산첨사에게 수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였고, 부산첨사는 표류민을 다시금 취조하고, 16일 밤 12시에 이를 수군절도사와 동래부사에게 보고하면서, 표류민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불의의 바람을 만나서 표류한 것으로, 표월(漂越)을 엄금하는 국법이 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상황을 아뢰고 훈도의 수본을 첨부하고 있다.

한편, 16일 아침 6시에는 흑암에 정박하고 있던 화륜선을 왜관으로 인도하여 입항시키고, 훈도와 별차는 화륜선을 살피고 화륜선에 대한 도본(圖本)과 제원을 기록한 성책(成冊)을 작성하고 도항 이유를 문정하게 된다. 또 동일 12시에는 무지포에 정박하였던 배들도 왜관으로 호송되어 입항하였으므로 훈도와 별차는 무지포에서 온 배들을 다시 문정한 후, 표류민들을 부산진으로 압송하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를 오후 6시에 부산첨사에게 수본으로 보고하고 있다. 16일 낮 12시에는 배 7척이 모두 왜관에 정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온 왜인은 무려 220명에 표류민 36명이었다.

17일 표류민들은 모두 부산진에서 다시 취조를 받은 후, 동래부로 압송되었다. 또한 화륜선은 17일 새벽 4시에 돛을 올려서 남쪽 바다로 떠나므로, 화륜선이 설문 內洋에 머문 것은 16일 아침 6시에서 17일 새벽 4시까지로 24시

을 소지하고 23일 巳時에 출발하였다. 『동래부계록』 정월 26일조.

32) 이 영래차왜선은 1월 27일 출항하였다. 그러나 하선연과 하선다례연은 2월 22일 양산군수가 접위관으로 행하였다.

33) 보통 때에는 노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곧바로 입관시켰다. 이날 하루 늦게 입관시킨 것은 화륜선이 함께 왔기 때문이다.

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초탐장 두모포만호와 포이포만호는 화륜선이 출항한 사실을 부산첨사에게 치보하였고, 부산첨사는 수군절도사와 동래부사에게 이 사실을 치보하였다. 또한 구봉(龜峰)³⁴ 봉군 강성욱(姜成郁)도 동래부사에게 이를 치보하였다. 부산첨사의 치보는 아침 8시에 수군절도사에게 도착하였다.

3. 보고

모든 문정이 끝나고 화륜선이 출발한 후, 18일 동래부사는 의정부와 삼군부에 위의 사정을 보고하고, 표류민의 성명과 나이, 거주지 등을 작성한 책을 첨부하였다. 아울러 표민영래차왜는 관례대로 접대³⁵를 해야 하므로, 접위관을 근처의 수령 중에서 뽑아 주십사고 아뢰었다.³⁶ 또한 차왜가 가져온 서계별폭등본, 표민순부세계 2도, 별폭 3도, 차기선 노인 2도, 비선노인 1도 등을 봉하여 예조로 올려 보내어 차왜들에게 줄 예단과 잡물 및 순부회답 서계를 예조에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신미조 특송사가 가져온 서계 별폭은 다례일에 봉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³⁷ 또한, 온 배 중 화륜선이 1척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새로 제작한 것이지만 서양의 배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왕래할 때나 표류할 때 멀리서 구별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으므로 이후에는 화륜선을 보내

34)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가 이곳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증을 찾지 못하였다.

35) 여기에는 정관왜 압물왜, 반중왜 3명, 격왜 40명을 대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선 송사왜와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묘시에 왜관에 들어온 영래차왜선 인원과 일치한다.

36) 이를 향접위관이라고 한다. 왜관 연대청에 세견선 접송사나 영래차왜 등을 초대하여 회답서계와 예단을 수교한다. 이번에는 양산군수 孫相駟이 담당하여 2월 22일 하선다례 및 하선연을 베풀었다. 한편 표민영래차왜선은 하선다례·하선연이 베풀어지기 이전인 1월 27일에 출발하였다.

37) 신미조특송사 1호선과 2호선은 1월 23일에 출발하며, 하선다례는 배가 떠난 후인 2월 19일에, 하선연은 2월 20일에, 신미조 만송원 송사 및 신미조 부특송사(1월 18일 도착)와 함께 거행된다.

지 말도록 하였으며, 조슈[長州]의 관리가 말하는 급한 용무로 왜관에 왔다는 것도 법규에 어긋나므로 속히 돌려보내도록 임역들에게 말하여 관수왜에게 책유하도록 하였다고 보고하고, 화륜선의 도본과 그 길이, 폭, 높이 등을 적은 성책을 함께 의정부·삼군부에 올려보냈다.³⁸⁾

한편, 18일 오후 6시에 부산첨사는 수군절도사에게 표민들이 표류한 사연은 관소의 문정과 다름이 없으므로, 동래부로 압송하였다고 하고, 또 설문 내양에 정박하였던 화륜선 1척을 문정하였을 때, 도본을 누락하고, 화륜선이 떠날 때 인명을 누락한 것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즉, 화륜선에는 격왜 18명이 귀환하였으며, 배를 탐색한 도본을 늦게나마 올린다고 도본을 첨부하여 올리고 있다. 이 보고를 받고 19일, 수군절도사는 의정부와 삼군부에 이 과정을 자세히 나열하고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월 13일 대마도를 떠나서 기장현 무지포에 지박한 송사왜 대선 1척과 제주표민 차기선 1척, 기장표민 본선 1척, 바로 왜관으로 온 송사왜 대선 1척과 제주표민 영래차왜선 1척, 비선 1척, 조슈(長州)에서 와서 설문 내양(內洋)에 정박한 화륜선 1척을 합하여 7척을 문정하고 취조하였습니다. 해안의 백성들이 표류하여 국경을 넘는 것은 벌을 줄 일이나 고의가 아니며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으므로, 식량을 주어 각 원적지의 관청으로 호송하도록 동래부사 정현덕에게 신칙(申飭)하였고, 제주표민 역시 신의 찰(경상좌수영)에서 별도로 식량을 지급하였습니다.

간비오봉대(干飛烏烽臺) 별장 이금생은, 표류하는 배 3척을 2척이라고 신고하였고, 기장현감 장용하(張龍河)가 다시 그 배가 6시에 표류하였는데 8시에 거론하고 3척을 2척이라고 보고하였으니, 모두 상탐(詳探)을 잘못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부산첨사 김철균은 화륜선을 문정한 후, 배의 모습과 도본, 떠날 때의 인명 열거 등을 누락하여 비록 임역이 거행하는 변정 주관의 땅이지만, 보고를 지체하였으므로,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에 위의 봉대별장과 기장 감색(監色), 부산진 감색 등 모두 본영으로 착치(捉致)하여

38) 이왕직실록편찬회, 1920, 『동래부계록』 8, 규장각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정월 18일조 요약.

엄히 곤징(棍懲)하였습니다. 또한 조슈왜가 말하는 급무가 있어서 대마도의 왜와 함께 왔다고 하는 것은, 격외의 일로, 이양선을 모방한 배를 타고 온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즉시 책유하여 돌려보내기는 하였으나, 공간(公幹)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고, 또 남은 왜인들은 머무를 수 없으므로 속히 입송하라고, 임역들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엄히 책유하도록 부산첨사에게 관칙하였습니다. 동 화륜선의 도본을 첨부하여 의정부, 삼군부에 아뢰입니다.³⁹⁾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동래-부산 지역의 방어시스템과 보고체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좌수영 수군절도사의 장계는 동래부사의 장계와 차이가 있어서 상탐의 과오, 보고의 연착, 문정 내용의 누락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을 정도로 균율이 엄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자료의 일치됨을 통하여 사료적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래부사와 수군절도사의 보고를 통해 화륜선은 엄격한 검문 검색을 받았으며, 조선의 통제를 잘 따랐으므로 조선이 위협을 느끼거나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본을 보면 화륜선 만슈마루는 군함이 아니었고 크기도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전선: 42m · 284t, 만슈마루: 32m).

왜선이 입항하게 되면, 동래부사와 경상좌수영 양쪽에서 보고가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사실은 『동래부계록』의 사료로서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누락은 시킬 수 있겠으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고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래부계록』을 통해 일본 측 사료를 비판하고 재검토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장을 바꾸어 화륜선의 입항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해 보자.

39) 이왕직실록편찬회, 1920년, 『동래부계록』 7,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정월 19일조 뒷부분 번역 인용.

IV. 화륜선의 입항(入港)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 장에서는 화륜선의 입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1872년 1월의 입항에 대해서는 전장에서 살펴보았고, 이 장에서는 이에 더하여 9월에 화륜선이 왜관에 입항하였을 때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동래부계록』의 보고 내용을 보면, 1870년 5월 독일 상선이 왔을 때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를 보고하였던 것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세견선과 표류민선이 입항한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세견선을 따라서 들어온 화륜선은 부수적인 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일본 외무성은 화륜선에 일본 관헌이 도항한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화륜선과 함께 입항한 세견선이나 표류민은 부수적이고 무시해도 좋은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견선과 함께 입항한 사실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이 때문인지 기존의 연구는 잘못된 점이 많다. 이를 검토해 보자.

1_ 화륜선은 홀로 도항하였는가

화륜선이 세견선과 함께 왜관으로 도항하였음이 기존 연구에서는 감춰져 있다. 왜관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준 도서를 날인한 노인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화륜선이 전투를 피하고 입항하기 위해서는 세견선이나 표류민선을 동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만슈마루는 신미조1특송사 1, 2호선 및 표민영래선, 표민차기선, 표민본선, 그리고 비선과 함께 온 것이며, 가스가마루[春日丸]·유우코우마루[有功丸]도 신미조2특송사 2호선에 표류민 13명을 태우고 함께 온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1월과 9월 모두 세견선의 정관왜나 비선의 두왜, 송환된 표류민 모두 우연히 바다 가운데에서 만나서 함께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말로 이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화륜선을 만나서 함께 왔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화륜선에 탑승한 외무성 관리들만 알고 대마인들과 표류민에게는 비밀에 부쳤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대마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표류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화륜선을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로 조선의 임역들에게 표현함으로써 최후의 순간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조선 무역의 이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을 가능성이다. 상인 정신의 발로라 생각될 수도 있다. 당시는 폐번치현이 선포되고 대마주의 가역(조선과의 외교 무역) 파면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대마 상인들은 기존의 무역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외무성에 대항하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에도 관수왜이하 고위층들은 비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아무튼 1월과 9월, 화륜선과 함께 조선의 영해로 들어온 배들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화륜선과 함께 출발하였음이 사실이며, 이는 『조선외교사무서』를 통해 확인된다.

한편, 화륜선을 끌고 온 모리아마는 세견선(신미조1특송사 1·2호선), 표류민선과 함께 온 사실을 외무성에 올리는 보고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륜선 만슈마루는 14일 8시경에 세견선과 표민선 그리고 비선과 함께 영해로 진입한 것이 관측되었고, 두모포만호와 포이포만호의 제지를 받고 10시에 흑암에 정박, 16일 아침 6시에 겨우 입관하였다가 17일 새벽 4시에 출항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한 쪽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결론이 된다. 실시간 보고인 『동래부계록』의 기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본외교문서』의 기록은 거짓이 된다. 『동래부계록』은 실시간 보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봉수대 봉군의 보고와 부산첨사의 보고, 훈도의 수본 등이 첨부된 것이며, 또한 경상좌수영과 동래부의 보고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사료적 신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모리아마의 보고서는 애당초 진실이 아닌 보고를 하였거나 아니면 훗날 외무성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두자.

또한 표류민 송환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리야마였다.⁴⁰⁾ 표류민을 분송시킨 것도 모리야마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보고에서 표류민과 함께 도항한 것을 누락시킨 것은, 모리야마 일행이 이를 감추었던 것인지, 혹은 정략적으로 외무성이 불편한 보고 내용을 삭제한 것인지 궁금하다.

한편, 그해 9월에 신미조2특송사 2호선에 표류민 13명을 동반하여 도래한 하나부사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하나부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가) 일행 관원들은 지난 9월 15일 아침 대마도를 출발하여 동일 오후 4시경 春日·有功함 모두 정박하였고, 조선의 상황에 대해 물어 본 바, 특별히 변한 바는 없고, 화륜선이 건너왔다고 해서 특별히 동요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한인 소통사 및 수영의 사람들이 배를 구경하고자 하여 기꺼이 구경하게 하였습니다.⁴¹⁾

(나) 표민 13명을 이즈하라에서 왜선에 태워서 증기선으로 견인하여 건너서 일대관으로 하여금 그 나라 임관에게 넘겨주고 임관으로부터 수취서를 오늘(17일) 밤에 받았습니다.⁴²⁾

사료 (가)에서 하나부사는 15일 아침에 출발하여 오후 4시경에 정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동래부계록』 사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일 未時(오후 2시)에 왜대선 1척과 화륜선 1척이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酉時(저녁 6시)에 흑암에 정박시키고 있다. 날짜가 하루가 차이 나는 것은 해석에 곤란을 초래한다. 그런데 하나부사는 표류민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40) 이는 「森山 등의 着釜報告書」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외교사무서』 4(卷之 11) 성진문화사, 45~54쪽. 한편 이는 『대일본외교문서』 제5권(135항 사료)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

41) 一行官員去る十五日未明對馬州出帆, 同日午後四字頃, 春日有功兩艦とも無恙着韓, 近日外向の景狀相尋候處, 別に相替儀無之, 火輪船渡韓に付, 強て動揺いたし候程之儀も相見不申, 韓人小通事竝に水營のもの等, 船拜見願出, 快く差許候事. 『일본외교문서(한국편)』 1, 406쪽.

42) 漂民十三名, 巖原より和船に為乗組, 蒸氣船を以牽き渡り, 一代官より彼国任官へ引合, 略手数には任官より受令書を取, 今晚渡方相濟候事. 『일본외교문서(한국편)』 1, 406쪽.

보고하고 있다. 즉 (나)의 기술을 보면, 표민을 왜선(기미조2특송사 2호선)에 태우고 증기선으로 견인하여 건넜다고 하였다. 왜선을 견인하여 아침에 출발하여 당일 오후에 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화륜선은 15일 출발하여 세견선을 견인해 오느라고 밤을 보내고 16일 조선 해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상황은 이해하기 쉽다. 이는 『동래부계록』의 기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부사의 (가)와 (나)의 진술은 엄격히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 모리아마의 보고와 같은 사료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사료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다.

화륜선이 전투를 피하고 입항하기 위해서는 세견선이나 표류민선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만슈마루는 신미조1특송사 1, 2호선 및 표민영래선, 표민차기선, 표민본선, 그리고 비선과 함께 온 것이며, 가스가마루·유우코우마루도 신미조2특송사 2호선에 표류민 13명을 태우고 함께 온 것이다. 화륜선이 홀로 도항하였다는 기술은 명백히 오류이다.

일본 외무성은 화륜선에 일본 관헌이 도항한 사실만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화륜선과 함께 입항한 세견선이나 표류민은 부수적이고 무시해도 좋은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2_ 화륜선은 아무런 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항하였는가

화륜선이 아무런 문정 절차 없이 입항하였다는 이해는 왜관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조선의 출입국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륜선 만슈마루는 1월 14일 10시에 흑암에 정박하여 이틀 밤을 보낸 후에야 16일 아침 6시에 왜관에 입항하였다. 이때, 관수왜(平正景-深見六郎)가 훈도와 별차를 만나자고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양인들과 통상을 한 지 오래되었고, 서양의 배를 본따서 화륜선을 많이 제조하였습니다. 지금 설문내에 정박한 화륜선도 일본이

제조한 화륜선이며 초슈의 관함(官衙) 3인, 대마주의 간전관 2인이 함께 타고 왔습니다. 온 이유는 일이 있어서 온 것으로 생각되며, 그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계봉납일(公幹之日)에 잘 알 수 있을 터입니다.⁴³⁾

라고 훈도와 별차에게 알리고 있다. 그들은 외무성 관리라고 표현하거나 일본 조정의 관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초슈의 관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두왜 3인 중 모리아마는 야마토[大和國] 출생 효고재판소 출신이었고, 히로츠는 치쿠고[筑後]국의 구루미[久留米] 출신으로 나가사키에서 의사를 하다가 외무성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는 대마도 출신이었다. 이들을 모두 초슈의 관리라고 문정에 대답한 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임이 틀림 없다. 폐번치현이 전년도(1871년) 7월에 단행되었으므로, 조슈번도 대마번도 폐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연히 바다에서 만나서 왔으며 왜 왔는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고, 이처럼 초슈의 관리라고 말하는 것은, 폐번치현이 아직 철저하게 인식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마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언급이라 파악된다. 즉, 외교일원화를 도모하는 외무성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두어 조선에 보고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임을 알 수 있다.⁴⁴⁾ 조선의 임역들은 관수왜에게, 타 지역의 관리가 파견되고 거기

43) 그런데 화륜선이 입항 모습과 이 사료에 대해서, 田保橋潔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모리아마 등의 증기선 滿株丸의 부산 입항에 앞서서, 관수가 훈도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국 정부 파견원 3명과 간전관 2명이 도한할 예정이며, 그들은 일본제 기선 1척에 편승하여 올 예정이라고 그 외형등을 상세히 圖示하였다(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 研究』 上, 270쪽).

그러나 이는 문정에 앞서서 문정 직전에 행해진 발언이다. 즉 1월 16일에 이루어진 언급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이다'는 표현은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배를 보지도 않고 圖示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배는 돈을 주고 빌린 배였기 때문에 왜관의 관수가 미리 이 배의 제원을 파악하여 훈도에게 알려 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田保橋潔의 설명은 오류임이 명백하다.

44) 다보하시의 연구는 대마주와 메이지 정부가 하나가 되어 조선에 서계를 받으라고 하였고 조선은 거부하였다는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이는 대마주의 무역 유지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본 미화의 서술임은 이 진술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에 대마번의 간전관이 함께 온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 문책을 하면서도 입항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화륜선 만슈마루가 입항하자, 혼도와 별차는 달려가 화륜선을 점검·문정하고 있다. 화륜선에는 조슈왜 3인,⁴⁵⁾ 간전관왜 2인,⁴⁶⁾ 격왜 18인으로 총 23인이 함께 타고 왔음을 파악하고, 혼도와 별차는 배의 도본을 작성하고 배의 상세를 기록⁴⁷⁾하였다. 당시의 문정을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혼도: 당신들의 배가 우리 국경을 넘어 올 때에는 규정이 있는데(有字號制), 지금 타고 온 배는 당신들 배가 아니고 명백히 서양선이라고 보이니, 어찌 된 일이며, 조슈의 사람들에 귀주(貴州)의 간전관이 따라서 함께 온 것은 어찌된 일인가.
- 간전관: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화륜선보다 좋은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새로 화륜선을 제조하여 나라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또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이 화륜선으로 오게 되었고, 또 대마도 간전관은 교린을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 혼도: 이 배가 비록 귀국에서 새로 만든 배라고 하여도, 서양의 배를 모방한 것인 즉, 서양선은 우리나라에서 보이면 초멸(勦滅)하도록 하고 있다. 귀국인이 이 배를 타고 온 것이 혹 표류한 것이라면 서양선으로 오인하여 반드시 초멸(勦滅)의 우환을 받을 것이니, 이 어찌 화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후일 반드시 송사를 우리나라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배를 타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또한 조

45) 두왜 3인은 모리야마 시게루와 히로츠, 그리고 사가라이이다.

46) 간전관왜는 우라세 모스케[浦瀬最助]와 히로세 나오유키[廣瀬直行]이다.

47)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배는 길이 17把, 폭 4把, 높이 5把이다. 杉板 下一半은漆黑, 상판 반은 粉白하였고, 안에는 琉璃로 장식한 房櫺이 있어서 속소로 사용되고, 帆竹은 2개로 각각 길이 12把로 각각 3개의 弓竹으로 3층 間架를 만들었으며, 白木風席을 間架 좌우변에 걸쳐두고 熟麻注를 무수하게 묶어두었다. 거미줄 모양의 鐵環碇注를 一張, 길이 50把 정도 杉傍의 양쪽에 붙이고, 纜車 모양의 鐵輪 안쪽에 鐵冶를 설치하여 引火할 수 있게 하고, 鑄銅(골뚝)을 배 한가운데에 두어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였다. 물이 끓고 불길이 강하여 배가 화살처럼 나아가니, 굉장합니다. 이것이 서양의 제도를 모방하여 화륜을 채용한 것입니다. 배안의 사람들의 언어와 복장은 관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의 급무로 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 간전관: 배에 대한 힐문은 과연 당연한 말씀이고 즉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조정의 명령을 받은 일은 우리들이 감히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훗날 서계를 봉납하는 자리에서 진술할 것입니다.

고 하였다.⁴⁸⁾ 훈도와 별차는 대화 내용을 수본으로 작성하고 화륜선의 도본과 성책을 수본에 첨부하여 16일 오전 10시에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고, 초שו와 3인(모리야마, 히로츠, 사가라)과 간전관왜 2인(히로세, 우라세)은 서계를 전하기 위해 남고, 화륜선은 바로 17일 새벽 4시에 돛을 올려서 출항하였다. 엄격한 문정이 있었으며 조선의 통제를 잘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월에 입항한 가스가마루·유우코우마루의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방비가 없고 출입국 절차가 필요 없는, 마치 자기 나라에 들어가는 듯한 기술을 『일본외교문서』는 남기고 있다. 다만, 앞 사료에서 하나부사는 또한 소통사와 수영의 관리들에게 배를 조사하도록 허락하는 모습, 즉 문정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 만슈마루의 경우와는 달리 배를 구경시켜주었다는 한 줄의 보고를 남기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조선의 관리들이 배의 도본과 성책(제원을 기록)을 상부로 올리고 있을 만큼 치밀하고 까다로운 조사를 이렇게 ‘견학’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9월, 화륜선이 도착한 후, 관수왜가 훈도와 별차를 만나기를 청하여

48) 여기에 대해서도 田保橋潔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화륜선이 입항한 후인 정월 18일, 별차 고재건이 취관하여 위의 사정을 질문하고 관수가 대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田保橋潔, 1940, 앞의 책, 270쪽). 그러나 문정이 이루어진 것은 16일이고, 화륜선은 17일 출발하였으므로 18일에는 이미 없다. 田保橋潔은 사료를 잘 못 읽은 것일까. 또한 田保橋潔은 훈도와 별차의 요구—즉 화륜선으로 오게 되면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절은 화륜선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 기선은 즉시 귀국시켜라, 라는 요구—에 대해 관수는 ‘다만 滿珠丸의 귀항만을 승낙하였다’고 마치 관수가 당당하게 교섭에 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관수는 동래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위치임을 망각한 표현이며, 사료의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에 온 화륜선 2척은 에도에서 온 것으로, 公幹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에도에서 별정관원 4인이 대마도의 간전관 2인⁴⁹⁾과 함께 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항을 간청한다. 훈도와 별차가 관수왜에게 힐문하기를 화륜선은 우리나라에 정박하지 말라고 전에 이미 칙유한 바가 있는데, 에도의 사람들이 또 이처럼 타고 온 것은 어찌 성신의 도리라 하겠는가 하고 말하니, 이에 답하기를

상관이 에도 사람이고 화륜선이 에도의 배이므로 대마주에서는 감히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간전관이 동행한 것은 에도의 관원이 사무에 어두워 다시 함께 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하여, 대마주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로 책임을 피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임역은 다시 책망하기를

公幹은 다시 거론하지 마라. 이 모두 교린의 약조 중에 있는 것이다.
에도인과 선척은 곧바로 돌려 보내도록 하라

고 신칙하고, 배로 가서 수검(搜檢)을 하였다.⁵⁰⁾ 훈도와 별차는 만슈마루 문정

49) 에도의 별정관원 4인이란 하나부사(외무대승), 히로즈(외무소기), 모리야마(외무소기), 오쿠(외무소록)를, 간전관은 사이토(외무권대록)와 히로세(11등 출사).

50) 제1선은 길이 35把(너비 4파, 높이 4파) 杉板 상일반은 흰색으로 칠해지고, 下一半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 유리로 장식된 방이 있어서 留宿을 하는 장소이며, 범죽이 2개 있는데 길이는 각 15파로 각 3개의 궁죽으로 3층의 間架를 만들었다. 白木風席이 間架의 좌우에 모두 매달려 있으며, 熟麻注를 무수하게 거미줄 모양으로 펼쳐놓았고, 소선 6척(길이 3파, 높이와 너비 각 1파)이 본선 갑판 양 옆에 붙어 있고, 鐵輪 내에는 철야가 설치되어 引火之具의 구실을 하고, 굴뚝 2개가 배 중앙 앞뒤로 세워져 있어서 연기를 뿜어내도록 하였다. 내외로 끓는 물과 불이 격렬하고, 배가 나아가는 것이 화살과 같다. 에도왜 2인, 간전관왜 1인, 격왜 70명이 타고 있다. 제2선은 길이 30파, 높이와 너비는 제1선과 같다. 다만 굴뚝이 하나로 배의 중앙에 서 있고, 에도왜 2인, 간전관왜 1인, 격왜 50명이 있으며, 언어와 복장은 관왜

때와 마찬가지로 배의 모습을 묘사하여 도본으로 작성하고 또한 배의 제원을 기록하여 성책으로 만들어 보고하였다.

당시의 대화를 보면, 9월 화륜선이 들어와 대마도 관리들이 왜관에서 쫓겨 나가기 직전에도 혼도는 대마도인을 통한 교섭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대마도인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입항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화륜선에 대한 문정은 더욱 까다로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화륜선이 문정 절차 없이 입관하였다는 기술은 오류이다.

3_ 화륜선이 입항하였을 때, 동래 관민은 공포에 떨었는가

조선 군민이 화륜선을 보고 경악하였고 공포에 떨었으며, 동래부사는 철공철시를 단행하여 대응하였다는 이해에 대해 살펴보자. 이러한 이해는 당시 조선의 국력을 낮추어 보는 것이며, 조선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철공철시 외에는 없었다는 역사상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앞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당시의 동래, 부산 지역의 방어 상황을 고려하면 위의 이해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과 큰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보하시는 1월 만슈마루 입항시를 설명하면서,

대마번 관리가 에도관원과 함께 화륜선에 타서 공공연히 부산에 입항한 사실은, 동래·부산 관민에게 일대 충격을 주어, 동래부사 정현덕은 만슈마루 입항 당일부터 동선 체제 중 철공철시를 명령하였다.⁵¹⁾

고 말하고 (『동래부계록』 정월 18일자)를 주로 달고 있다. 그러나 철공철시의 명령은 『동래부계록』에는 물론 보이지 않는다. 『동래부계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철공철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왜곡이며

와 다르지 않다.

51)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270쪽.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학문적 연구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입항 당일부터 철공철시를 명령하였다고 하였는데, 앞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입항 당일은 16일이고 다음 날 출항한다. 모리아마는,

이양선이 정박하였다고 해서, 매일 입관하였던 한인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제(15일)부터는 30인 정도가 입관하여, 평상시와 같이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⁵²⁾

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4일 화륜선이 나타나 흑암에 정박하였을 때는 상인들이 긴장하여 취관하지 않았으나, 일본배임이 확인된 15일에는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6일 화륜선이 왜관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보하시의 설명, 즉 ‘입항 당일부터의 철공철시’라는 것은 사료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리아마의 보고 내용조차 무시하고 『동래부계록』의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인용한 설명으로, 조선이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왜곡 묘사된 것이라는 평을 피할 수 없다.

한편, 9월에 입항한 가스가마루·유우코우마루의 경우에도 다보하시는,

훈도는 동래부사에게 상신하여 9월 16일부터 철공철시를 단행하였다.⁵³⁾

고 말하고 있으나, 16일은 화륜선이 흑암에 정박하였던 날이고, 왜관에 입항한 것은 9월 18일(9월 25일 출항)임을 확인해 두자. 물론 『동래부계록』에는 철공철시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마치 조선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철

52) 乍併異樣船着港と申より, 兼て日日入館いたし居候韓人, 尙人も不入来, 昨日よりは三十人余被差免入館いたし候はば, 平常の通り供市相始メ可申との事にて, 訓導入館等も畢竟火輪船出港の後と存候. 右は懸念の筋に無之事. 『일본외교문서(한국편)』 1, 364쪽.

53)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218쪽, 주 16을 달아 『동래부계록』에 의거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오류이다.

공철시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조선은 화륜선의 입항을 막을 방법도 힘도 없고 오로지 철공철시로 대항하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인지, 다보하시가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부사는 철공철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

양함이 도착한 후, 왜관의 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열려져 있으며, 소통사는 끊임없이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장사꾼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은 일체 입관하지 않으니, 이게 소위 말하는 撤市입니다.⁵⁴⁾

하나부사도 철공철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마도 측에서 항상 외교 개혁을 하려면 조선이 철공철시로 대마도의 목줄을 조이므로 원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던 흔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철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화륜선은 18일 입항하여 25일 출항하기까지 제법 긴 기간 체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부사는 “화륜선이 건너왔다고 해서 특별히 중요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라고 보고하여 당시 조선인이 화륜선을 보고 경악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기존의 연구가 근거가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9월 25일 화륜선 2척은 부산진 제2전선장 구환욱(具桓旭)이 감시하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떠나며, 역시 구봉 봉군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에도인 1인과 간전관 2인을 제외한 전원이 귀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상식적으로 조선은 화륜선이 나타났기에 전쟁의 가능성에 긴장하였으나, 세견선과 표류민을 동반한 일본 선박이기에 안심하였고, 또 교린의 정신으로 입항을 허용하여 도항 이유를 묻고 꼼꼼하게 배를 조사하고 도본과 성책을 작성하여 의정부와 삼군부에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 선박이 조선의

54) 兩艦着韓後，館門は常の通り相開き居り，小通事は不絶出入いたし居候得とも，商売雇工の類，一切入館致さず，所謂撤市に御座候。『일본외교문서(한국편)』 1, 406쪽.

통제를 잘 따랐음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1월의 외무관리들은 폐번치현과 청일 수호조규의 소식을 알리는 서한을 지참하고 있었으며, 9월의 외무관리는 왜관에서 대마도인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조선이 상대할 대상이 대마주가 아니라 외무성관리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항하였다. 외교적 충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1872년 1월이나 9월에 입항한 화륜선에 대해 동래 관민이 공포에 떨었다는 기술은 오류임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사족을 달자면, 조선은 1872년 단계에서 일본을 적대국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공작미와 공목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표 1>의 경요조3 특송수목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마 상인을 통해서 대포, 포탄, 화약, 조총, 환도 등을 구입하는 루트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대마주를 활용하겠다는 조선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다보하시의 훈도 안동준이 정부·동래부사의 명령에 반하여 대수대차사를 물리침으로 한일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고⁵⁵⁾, 관수는 훈도와 별차의 무성기에 분노하여 여러 차례 훈도를 질책하고, 차비관을 훈도 취관시까지 억류⁵⁶⁾하였으며, 소통사를 울산에 파견하여 훈도의 취관을 독촉⁵⁷⁾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훈도는 관수를 관리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관수왜가 훈도를 질책하거나 소통사를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언급해 두자. 또한 관수왜나 대관왜는 메이지 정부와 조선 사이에 양속되어 자번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존재임을 잊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1872년 이 시점에서는 대마주가 조선에 의지하여 외무성이 무역권을 빼앗아 가려는 의도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던 시기였다. 하나부사가 도착 즉시 대관소를 폐쇄하고 대관소 상인들을 강제 귀국시키고 나아가 재판에 회부하였던 것은 이러한 대마 상인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부사는 대관소를 폐쇄하였고, 세견선 파견도 금지시

55)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181쪽.

56) 田保橋潔, 1940, 위의 책, 271쪽.

57) 田保橋潔, 1940, 위의 책, 273쪽.

켰다. 그리고 표류민 송환에서도 서계를 생략시켰다. 말하자면, 1872년 9월을 기점으로 기유약조는 실질적으로 붕괴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 조선을 속방으로 취급하거나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던 메이지 일본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였던 조선 사이의 외교 갈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래-부산 지역의 방어 체제의 개략과 일본에서 배가 왔을 때 감시체제와 입항 절차 및 문정에 대해서 『동래부계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1872년 두 차례 화륜선이 정박하였을 때의 한·일 간의 기록을 비교하여 당시 일본의 기록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관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는 1872년 1월 14일에 영해로 들어온 화륜선 만슈마루 일행과 9월 16일 왜관에 입관한 가스가마루·유우코우마루함 일행의 예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상항로로 들어오는 왜선은 황령산 봉군이 발견하여 부산첨사와 동래부사에게 보고하며, 부산첨사는 두모포만호를 초탐장으로 파견하여 초탐장이 왜관으로 끌고 들어와 정박시키면, 훈도와 별차가 문정을 하고 노인과 서계를 예조에 올려 보내고, 의정부와 삼군부에도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다. 화륜선이 왔을 경우에는 포이포만호나 부산진 2전선장이 함께 나아가 영접·경비하였음도 주목된다.

둘째, 북쪽(기장현)으로 항로를 이탈한 왜선은 좌수영 소속 간비오봉 봉군이 발견하여 부산첨사와 수군절도사에게 보고하며, 수군절도사가 좌수영 소속 전선을 보내고, 기장현감은 독자적 판단으로 주사대장을 보내어 주로 무지포에 예인하고 정박시킨다. 별차가 파견되어 정박지에서 1차 문정을 행한 후, 문

정이 끝난 왜선은 전선장과 주사대장이 인솔하여 정상항로인 오륙도 근처까지 이동하고, 여기서부터는 개운포만호에게 호송을 위임, 개운포 만호의 인솔로 왜관에 입항하여 훈도로부터 정식 문정을 받았다.

셋째, 문정의 주된 내용은 노인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승선인원과 직책, 입항 이유 등이었다.

넷째, 표류민의 경우는 왜관에서 문정을 한 후, 부산진으로 압송, 부산진에서 다시금 取招를 받고, 동래부로 다시 압송하면 동래부에서는 표류를 금지하는 국법이 있음을 엄히 말하고 의복과 식량을 주어 원적지로 보내었다.

다섯째, 동래부사는 훈도의 문정 결과를 기록한 수본과 노인, 서계, 별폭 등을 예조로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며, 왜선의 입항 절차와 문정 내용, 그리고 표류민에 관련한 성책, 화륜선의 도본과 성책 등을 의정부와 3군부로 보고하였고, 또한 경상좌수영 수군절도사 역시 왜선의 입항과정과 문정내용, 화륜선의 도본과 성책을 첨부하여 의정부와 삼군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방어체제의 과오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여섯째, 1872년 1월에 왜관에 입항한 화륜선 만슈마루와 9월에 입항한 화륜선 가스가마루·유우코우마루함은 세견선과 표류민을 동반하여 왔기 때문에 입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대일본외교문서』에서 감추어지고 있다.

일곱째, 화륜선이 아무런 문정 절차 없이 입항하였다는 이해는 잘못된 것이며, 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이 사실이고 입항은 만슈마루는 하루, 가스가마루함은 이틀 후에 가능하였다. 화륜선은 도본으로 그려졌으며, 문정관에 의해 길이 너비 등 제반 사항을 측량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외부성 관리들은 문정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기존 연구 역시 이를 무시하였다.

여덟째, 조선 인민이 화륜선을 보고 경악하였고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은 없다. 상식적으로도 동래부와 경상좌수영은 화륜선이 나타났기에 전쟁의 가능성에 긴장하였으나, 세견선과 표류민을 동반한 일본 선박이기에 안심하였고, 화륜선은 조선의 통제에 순응하였기에 전쟁을 우려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주를 매개로 외교를 지속하고자 하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세견선과 표류민선이 입항한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세견선을 따라

서 들어온 화륜선은 부수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본 외무성은 화륜선에 일본 관헌이 도항한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화륜선과 함께 입항한 세전선이나 류표민은 부수적이고 무시해도 좋은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왜관은 조선이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였다. 매년 1월과 7월에는 왜관의 훼손 상태를 점검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매일 30명의 일직(日直)이 왜관과 선창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1872년 9월 하나부사가 입관하여 왜관에서 대마도인들을 철수시킨 것을 일본에서는 <왜관접수>라고 표현한다. 이는 왜관이 대마도인의 관할에서 외무성의 관할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된다. 필자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왜관접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⁵⁸⁾, 깊이 반성하고 자기비판을 가한다. 앞으로는 <왜관에서 대마인 퇴거> 혹은 <기유약조 붕괴>등의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 다보하시의 주장처럼 일본의 정당한 국교 개정 교섭에 대해서 훈도와 동래부사와 조선정부의 의견차이, 혹은 훈도의 무성의와 독단으로 인하여 교섭이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역사를 왜곡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비판이 필요하다. 기유약조가 붕괴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시기의 연구는 상식에 입각한 해석과 엄밀한 사료비판이 필요하다. 외무성의 사료에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대마도의 자료 역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왜곡하여 보고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기유약조 붕괴 이후의 왜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58)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한국사연구총서 46, 208쪽에서 필자는 「폐번치현 이후 왜관 접수까지의 한일관계」라고 시기 구분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 한일관계사학계가 모두 조심해야 할 시기 구분이 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침략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왜관침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침탈을 당하면 소유권이 뺏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1872년 대마도인들의 퇴거 이후에도 왜관의 수리와 관리는 동래부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관은 접수되거나 침탈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당하다.

참고문헌

저서

『館守每日記』,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디지털 원문자료.

『동래부계록』 5.

『동래부계록』 6.

『동래부계록』 7.

『동래부계록』 8. (규장각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동래부사례』 국사편찬위원회, 1991, 각사등록.

『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회, 1971.

『영남읍지』 규장각 소장.

『應接類書』(부산시민도서관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應接書』(부산시민도서관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

『朝鮮外交事務書』,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71.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출판문화원.

이완영, 1963,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 소고」, 『港都釜山』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日本外交文書』(韓國篇)一, 태동문화사, 1981.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 研究』 上, 207쪽(宗高書房 복각판, 1972년).

논문

현명철, 2007,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17, 동북아 역사재단.

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 한일관계의 변화와 총독부 간행 조선사 기술 검토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0.

石川寬,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歴史學研究』 775.

[국문 초록]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현명철

메이지 정부는 왜관을 조선의 국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즉 외무성의 관할 지역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던 것일까. 일본 외무성이 화륜선을 보내어 외무관료를 왜관에 파견하였을 때 남겨진 기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일본 외무성이 남긴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의 해안 방어 시스템, 특히 해안 감시, 예인과 입항, 그리고 문정의 모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동래부계록』은 당시의 입항 모습을 복원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관에서 세견선, 비선, 표류민선, 그리고 화륜선이 입항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으며, 『대일본외교문서』의 기술과 기존의 연구에 대해 적절한 비판이 가능하다. 부산 지역의 해안 방어와 화륜선 입항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황령산 봉군은 정상항로로 들어오는 배들을 발견하고 부산첨사와 동래 부사에게 예외없이 보고하고 있다. 한편 간비오봉 봉군은 북으로 표류하는 배들을 발견하여 수군절도사와 부산첨사에게, 그리고 응봉산 봉군은 남으로 표류하는 배들을 발견하여 다대첨사에게 보고한다.
2. 정상항로로 들어오는 배에 대해 부산첨사는 두모포만호를 초탐장으로 파견하여 왜관으로 입항을 유도하고 있으며, 화륜선이 왔을 때에는 포이 포만호나 부산진 전선장(戰船將)을 함께 파견하여 흑암에 정박시켰다.
3. 왜선이 왜관에 입항하면 훈도가 즉시 문정을 행하여, 항해 목적, 路引과 서계의 감별 확인, 승선인원과 직책 등을 手本으로 작성하여 부산첨사와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4. 동래부사는 훈도의 수본과 노인, 서계, 표류민 정책, 등을 첨부하여 예조, 의정부, 삼군부에 보고하였다.
5. 1872년 화륜선이 입항을 허가받은 이유는 노인을 소지한 세견선 및 표류민선을 동반하여 왔기 때문이다. 화륜선이 홀로 도항하였다는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6. 화륜선이 문정을 받지 않고 왜관에 입항하였으며 화륜선이 입항하였을 때 동래부민은 공포에 떨었다는 이해도 오류이다. 화륜선은 세견선보다 더 엄격한 문정을 받았으며, 도본으로 그려지고 치수가 측량되어 정책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화륜선은 세견선 및 표류민선과 함께 왔기 때문에 동래부 군민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마지막으로 조선은 세견선과 표류민선의 입항을 중요시하였고, 화륜선 입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반면, 외무성은 화륜선과 자기 관원의 입항을 중요시하고, 세견선과 표류민선은 감추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선의 엄격한 검문 검색 혹은 문정의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왜관을 외무성 관할 지역으로 간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주제어

왜관, 동래부계록, 대일본외교문서, 황령산 봉군, 동래부사, 부산첨사, 경상좌수영, 수군절도사, 전선(戰船), 훈도, 노인, 서계, 세견선

[ABSTRACT]

The Coastal Defense of Busan and the Arrival of Steamships in 1872

Hyun Myungcheol

Meiji Japan wanted to handle Joseon as a dependency, and wanted the Waegwan(倭館) to be its area command base. However, Joseon naturally did not accede to that demand. To analyze these conflicts, we should consider the coastal defense of Busan, in particular, the observation system, the docking procedures for Japanese ships, and the inspection of ships from Japan.

We can confirm these matters in “Report of Dongnaebu”(東萊府啓錄), and can affirm that some studies based on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大日本外交文書』) are not accurate. We can check these facts as follows.

First, the signal – fire beacon soldiers at Mt. Hwangnyeong(黃嶺山烽軍) observed ships sailing the usual course from Japan and report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Busan(釜山僉使) and Dongnae(東萊府使) without exception.

Secon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in Busan(釜山僉使) dispatched the Dumopo official(豆毛浦萬戶) as reconnaissance, and the Dumopo official towed the ships sailing from Japan into the port at Waegwan. When a steamship(火輪船) arrived, the official at Poipo(包伊浦萬戶) or a warship(戰船) docked at the Gyeongsang Province Left Navy Base(慶尙左水營) also was dispatched.

Third, immediately upon the ship entering the port, the interpreter

(訓導) inquired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hip's voyage and checked whether the vessel carried proper identification(路引) or not and if it held a state document(書契). After that, the interpreter report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Dongnae and Busan. And the Dongnae government offic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Rites(禮曹判書), to the State Council(議政府), and to military authorities(三軍府), with attached documents such as the report of the Interpreter(訓導手本), identification, the state letter, the list of drifters(漂民成冊), and a drawing of the steamship(火輪船圖本).

Fourth, at that time in 1872, the steamship was permitted entry because it accompanied the tribute ship(歲遣船) and the drifter repatriation ship. Thu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steamship entered the port unaccompanied is not accurate.

Fifth, the view that the steamship entered the port without an inspection and that people in Dongnae were terrified also is not accurate. This is because inspection of the steamship was conducted exactly and the steamship was drawn and measured. Further, people in Dongnae did not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violence.

Finally, as for Joseon, the tribute ship and the castaway repatriation ship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steamship. But the Japan Foreign Office placed greater emphasis on the steamship and wanted to hide the tribute ship and the inspection because it wanted to control the Waegwan as its own command area. Thus, quellenkritik, or the verification of sources, is required regarding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Keywords

Waegwan(倭館), Report of Dongnaebu(東萊府啓錄), Japanese diplomacy documents(『大日本外交文書』), Signal-fire beacon soldiers at Mt. Hwangnyung(黃領山 烽軍), Local government official of Busan(釜山僉使), Dumopo official(豆毛浦萬戶), Poipo official(包伊浦萬戶), Warship(戰船), Left naval forces of Gyeongsang(慶尙左水營), Interpreter(訓導), Identification(路引), Official letter(書契), Tribute ship(歲遣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일전쟁과 평안도의 사회경제상

조재곤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선도센터 선임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일본의 입장에서 러일전쟁(1904~1905)은 10년 전의 청일전쟁(1894~1895)에 비한다면 총력전이었다. 전쟁비용(국민부담)과 인력 손실 면으로 보아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정화준비금의 고갈에 따라 군사비는 청일전쟁 시기보다 13배 이상의 공채(公債)를 모집하였고 증세에 따른 일본국민의 조세부담은 배로 증가하였다. 그뿐 아니라 인적 동원의 부담도 배가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안은 통화발행량 증대와 12억 엔(円)의 해외공채를 발행하는 것이었다.¹⁾ 다른 한편 '야만적 독재국가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불법불의에 대한 문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문명국가 일본과의 전

※ 투고: 2015년 4월 30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 1) 鈴木俊夫, 2005, 「日露戦争時公債發行とロンドン金融市場」, 『日露戦争研究の新視点』, 成文社; 神山恒雄, 2008, 「日露戦争時公債の發行とその影響」,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梅谷敏彦, 2012, 『日露戦争, 資金調達の戦 - 高橋是清と歐米バンカーたち』, 新潮社.

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당시 영국이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내세운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그들이 주장하던 명제를 과연 명실상부하게 실행하였던 것일까?

한반도에서의 러일 간의 전투는 북부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전개되었다. 러시아의 국경선과 동해에 접해 전개된 함경도 전투는 러시아 측에서는 일본군의 자국영토 진입 우려와 일본 측에서는 연해주와 시베리아 진출이라는 관건이 걸려 있었던 전투였다.²⁾ 그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 함경도 소재 2개의 진위대는 폐쇄되었고 한국 유일의 '군정(軍政)' 지역이 되어 러일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계엄상태가 유지되면서 지역민들은 삶의 질에서 크게 제약받고 있었다.³⁾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지역은 러일전쟁 시기 육상전의 핵심 동선이었다. 그러나 그간 학계에서 러일전쟁과 관련한 평안도 방면에 관한 연구는 별반 진척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대체로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 역시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많은 물리적 피해를 입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전쟁'이라는 일반적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러일전쟁의 주 쟁점(bone of contention)이 한반도냐 만주냐 하는 논쟁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과 입장을 반영한 연구는 물론 지역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만주방면에 중점을 둔 전쟁지역 주민들의 피해상에 대한 연구⁴⁾와, 전쟁사의 관점에서 러시아 군사관련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한 평양과 정주성의 소규모 전투, 압록강 전투 등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있을 뿐이다.⁵⁾

러일전쟁 기간 평안도 지역은 10년 전 청일전쟁 시기의 경험을 통한 이중

2) 조재근, 2013,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

3) 조재근, 2013, 「전쟁과 변경: 러일전쟁과 함경도의 현실」, 『동북아역사논총』 41.

4) 차경애, 2010, 「러일전쟁 당시 전쟁건문목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중국 근현대사연구』 48.

5) 심현용, 2011,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제3장 제2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충격이 지속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러일 간의 전쟁은 1904년 5월 압록강 전투를 기점으로 실제적으로 종식되었다. 그런데 초기 몇 달을 제하면 이후부터 러일전쟁 종전까지 지역의 모든 일상사가 일본의 의지에 전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일본의 중국 대륙침략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일본은 인력과 물자의 강제동원을 지속하면서 본국의 병참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러일전쟁 그 자체의 전투상황보다는 전쟁 기간 일본군의 만주진출을 위한 한국 내의 거점 확보와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만 하였던 평안도의 사회생활과 지역경제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미치는 의미와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쟁 기간 러시아군과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평안도 지역의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일본군대와 물자의 만주방면 이동과 결부된 평안도 지역 군표유통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셋째, 진남포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형 도시건설과 급증하는 이민 및 회사설립을 통한 제국주의적 인프라 구축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II. 러시아군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상황

1904년 2월 8일 러일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러시아군은 곧바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으로 진출하였고, 평안도 의주와 안주의 전보국도 점령하였다. 러시아군이 평양에 출현한 것은 1904년 2월 27일이었다. 이날 평양 외곽의 순안에는 100여 명, 평양에는 50~60여 명의 러시아 기병이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바이칼 동부 코사크군 소속 미첸코(П. И. Мищенко) 장군 휘하 선견기병분견대 정찰병으로 평양성 내에 있던 일본군 제12사단의 일부는 칠성문(七星門)과 서남문(西南門)을 폐쇄하고 러시아군에

〈표 1〉 러일전쟁 초기 평안도의 러시아군 행패 사례(1904년 2~5월)

일시	지역	내용 개요
2월 27일	평북 용천군	군대 통과 길에 민가에 돌입하고 마량초를 임의로 취해 먹임
3월 22일	평북 철산군	연로 백성들의 소와 재산을 약탈하고 糧草를 시가의 절반 가액에 구매하거나 한 푼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음
3월 24일	평북 의주군	400~500명이 총을 들고 진위대에 돌입하여 洋銃 360자루를 탈취
4월 3일	평북 선천군	擔軍을 강제로 잡아들여 성안 인민이 놀라서 흩어짐
5월 10일	평남 영원군	민간 부녀들을 겁간하고 박씨 집 10여 세 여아를 살해
5월 15일	평남 덕천·개천·영원군	물건을 약탈하고(덕천站), 관민을 난타하고(개천), 싹을 심은 밭에 말을 풀어먹임(영원)
5월 17일	평남 개천군	500여 명이 패주 도중 죽은 러시아 병사를 강제로 쳐 나르게 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고 다리를 부수고, 행인 1명을 斬함

* 자료 출처: 『平安南北道來去案』(이하 '來去案'으로 약칭함) 제8책, 「보고서 제12호」(평북관찰사→외대 서리), 「보고서 제 호」(철산군수→외부대신), 「보고서 제15호」(의주군수→외부대신), 「보고서 제4호」(평북관찰사→외대 서리)[奎.17988-v.8];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6호」(평남관찰사→외부대신)[奎.17988-v.7]; 李重夏, 『箕府報鈔』(평남관찰사→의정부·외부)[奎古.4255.5-22] 각 해당 날짜에 의거해 작성.

충격을 가하였다. 이는 비록 소규모 전투였지만 러일전쟁 최초의 육상전이였다. 한 차례의 충격전 결과 러시아군은 정주·철산·박천·의주·삭주 등 평북 각 지역으로 물러갔고 일본군은 순안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평양성 내에는 인심이 크게 들끓어 남녀노소 모두 성 밖으로 피난하고 장정과 역부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평북 지역과 일부 평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인적·물적 동원과 징발과 무차별 폭력 등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의주군수 남치원은 2월 16일 러시아군의 압록강 도강 이후 양초우마(糧草牛馬)의 응접과 도시와 시골[城村] 인민이 뿔뿔이 도망쳐 흩어지는 것이 나날

이 더욱 심해서 한이 없는 물건을 모두 다 보냄에도 그들의 구하는 것은 끝이 없고 주민의 피난으로 읍내는 ‘모든 집이 텅 비어버린(十室十空)’ 형세라면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였다.

마야흐로 지금 경작기에 임해 [農牛를] 아라사인이 매일 도살하여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태반이오니 백성이 물고기처럼 입을 빼꺼겨려도 어느 곳에 호소할 것이며, 둔병(屯兵) 내왕이 불과 1달에 도시[城底]는 십실십공(十室十空)하여 노인과 아이가 서로 손을 잡고 이끌고 너른 들로 끊임없이 울면서 도로에서 방황하는 정황을 차마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으며, 연로 좌우 10리 정도에 사람과 연기가 희소하옵고 ……⁶⁾

그는 ‘일본과 아라사가 교전[交鋒]하기 전에 우선 대한 생령이 독을 입을 것이 매우 심하여 장차 어육이 될 지경’으로, 세계 각국에 공론(公論)이 있으니 외부대신이 각국 공사에게 설명 담판하여 전쟁을 거두고 창생(蒼生)을 보호하기를 바란다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변방의 어려움이 눈에 차서 가히 말로 다할 수 없다. 백성을 다스려서 특별히 생명을 보호할 방책을 마련하여 더하여 생령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는 현상유지의 고식책에 불과하였다.

러시아군 점령지역의 인적·물적 징발상황은 <표 2>와 <표 3>의 평북 태천군·창성군의 사례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태천군의 징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러시아군은 ① 2월 29일 청국 소은화(小銀貨) 20전 57원, 10전 133원, 러시아 지폐 14장 18원, 소금전(小金錢) 2원을, ② 3월 3일에는 청국 소은화 20전 31원, 10전 3원, 러시아 지폐 29장 53원, 백동화 50량을, ③ 3월 8일에는 청국 소은화 20전 11원, 러시아 지폐 3장 11원, 백동화 14량 2전 5푼을, ④ 3월 10일에는 청국 소은화 77원, 러시아 지폐 6장 24원을 지불하였다. 형식상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는 갖추고 있지만 납득할 만

6) 『平安南北道來去案』 제8책, 「보고서 제12호」, 1904. 3. 15(의주군수 남치원→의정부찬정 외부대신).

〈표 2〉 태천군 러시아군 징발 종류와 가액(1904년 2월 29일~3월 10일)

종류		일자	2월 29일	3월 3일	3월 8일	3월 10일	총계
白米	수량		10斗	47斗	4斗 5升	12斗	73斗 5升
	가액		54兩	423兩	40兩 5錢	108兩	625兩 5錢
木米末	수량		10斗	4斗			14斗
	가액		100兩	40兩			140兩
猪油	수량		5鉢				5鉢
	가액		15兩				15兩
(白)鹽	수량		1斗 5升	8斗 5升			10斗
	가액		12兩	42兩 5錢			54兩 5錢
黃肉(牛)	수량		1隻	2隻		1隻	4隻
	가액		330兩	610兩		280兩	1,220兩
洋燭	수량		6匣		3匣		9匣
	가액		15兩 2錢 5分		8兩 2錢 5分		23兩 5錢
長斫	수량		189束	20束	4束	95束	308束
	가액		90兩	12兩	2兩 4錢	47兩 5錢	153兩 9錢
柴木	수량		150束	540束	20束	20束	730束
	가액		75兩	270兩	12兩	10兩	367兩
馬草	수량		140束	1,132束	85束	200束	1,557束
	가액		84兩	679兩 2錢	51兩	120兩	934兩 2錢
皮牟 (馬糧)	수량		70斗	190斗	35斗	20石	295斗 20石
	가액		315兩	855兩	180兩	450兩	1,800兩
通詞	인원		2人			2人	4人
	가액		200兩			200兩	400兩
唐米	수량			115斗			115斗
	가액			517兩 5錢			517兩 5錢
鷄	수량			50首	1首	2首	53首
	가액			180兩	2兩 5錢	5兩	187兩 5錢

종류	일자	2월 29일	3월 3일	3월 8일	3월 10일	총계
	卵	수량		700介	35介	61介
가액			91兩	5兩 2錢 5分	9兩 1錢 5分	105兩 4錢
猪	수량		5首	1首		6首
	가액		85兩	22兩		107兩
唐硫黃	수량			2匣		2匣
	가액			1錢		1錢
粟	수량				40斗	40斗
	가액				160兩	160兩
捲煙草	수량					
	가액				16兩 5錢	16兩 5錢
인부 고용비	인원					
	가액				95兩 2錢 5分	95兩 2錢 5分
일자별 가액 총계		1,290兩 2錢 5分	4,105兩 2錢	324兩	1,501兩	7,220兩 4錢 5分

* 자료 출처: 『來去案』 제8책, 「태천군보 제35호」, 「태천군보 제37호」, 「태천군보 제49호」, 「태천군보 제52호」(평북관찰사→외대 서리), 각 해당 날짜에 의거해 작성.

한 특별한 설명도 없는 강압적 상태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형태였다. 그 결과 태천군수도 비가(比價)가 얼마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거래의 상징적 의미로서 이지 합당한 가액을 지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날짜별 지급액도 총 가액과 비례하지 않았다.⁷⁾

다음의 창성군 자료는 수량만 제시되어 있어 평가액은 물론 비용 지불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중 3월 13~20일 간의 징발 과정에서 러시아 은화

7) 당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인 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코사크 병들은 음식과 馬草를 얻기 위하여 절절매면서 마을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음식과 마초의 대가로 韓人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러시아 화폐를 지불하려고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申福龍 역, 1984, 『大韓帝國滅亡史』, 평민사, 204쪽 (Homer B. Hulbert, 1906, *The Passing of Korea*, William Heinemann Co., London).

〈표 3〉 창성군 러시아군의 청구 물종(1904년 3월 7일~3월 29일)

일자	종류	白米	牛	木末	鷄	鷄卵	穀草	太油	火木	唐米	猪油	鹽	白紙	草	木麥	牟	粟	票穗
3월 7일		20	3	11	3	130	306	3	300									
3월 12일		27	9	23	6	70	460	9	121	156	3							
3월 13일		9		6	2	20	287	2	43	42								
3월 14일		9			2	20	213	3	45	40								
3월 15일		9	1	0.3	2	20	251	3	76	48								
3월 16일					2	20	254	3	63	46		10.2						
3월 17일		9			2	20	200	3	92	32								
3월 18일		9		0.2	2	20	220		63	48			2					
3월 19일		9	1	0.8		20	209	3	95	48								
3월 20일		9	1		2	20	265	3	80	48								
3월 21~29일		55.3	10	36.7	18	260	2,011	21	888	355.5		6.8		1	19.6	1	55	10
합계		165.3	25	78	41	620	4,676	53	1,866	863.5	3	17	2	1	19.6	1	55	10
단위		斗升	隻	斗升	首	介	束	鉢	束	斗升	鉢	斗升	卷	駄	斗升	斗	斗	駄

* 자료 출처: 『來去案』 제8권, 『창성군보 제29호』, 『창성군보 제33호』, 『창성군보 제34호』, 『창성군보 제38호』(평북관찰사→외대 서리), 각 해당 날짜에 의거해 작성.

와 러시아 지폐를 시가라 말하고 지불하였으나 이는 실제 시세로 환산하면 많아야 7~10량에 불과하였다 한다. 또한 3월 29일의 철수 과정에서 많은 양을 강제로 징발하였다.

특히 평북 광산군의 면리(面里) 단위의 민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가옥을 방화하고 교량을 부수는 한편 소와 돼지·닭 등을 다치는 대로 징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의 약탈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환산액은 총 1만 4,584량이었다.⁸⁾ 기재된 액수가 타군에 비해 많은 것은 가옥 방화, 교량파괴 손해액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용천군수도 창성군과 마찬가지로

8) 『1904年 7月 郭山郡被害成冊』(『俄兵却掠成冊』, 奎.17993).

지로 러시아 기병이 물건을 반가(半價) 혹은 몇 분의 1을 지불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한다.⁹⁾

이후 평양 주둔 일본군이 북진하였고 3월 28일 평북 정주에서 러일 간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는 미셴코 부대 소속 코사크 연대와 일본군 12사단 근위기병대 소속 2개 기병 및 보병중대 간의 전투였다.¹⁰⁾ 『평안남북도래거안(平安南北道來去案)』에 의하면 이때 성 내외의 전투로 러시아군은 20명이 사망하고 일본군은 사망 6명, 부상자 8명으로 기록되었다.¹¹⁾ 이날 일본군은 정주성을 점령하였고 러시아군은 압록강변 각 군으로 이동하여 부대별로 개별 활동을 지속하였다. 정주는 러시아군 주둔과 이후 러일 양국 간 교전을 거치면서 약탈파괴와 지역민의 대규모 피난이 이어졌다. 이 기간 제물포와 압록강 사이에는 일본군 10만여 명이 배치되었다. 다시 4월 17~18일의 압록강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승리하고 러시아군이 크게 패하였다.¹²⁾ 그러나 이후에도 러시아 기병의 평북 지역 진출과 그로 인한 소규모 전투는 계속되었다.

예컨대 5월 10일 평남 안주전투는 러시아군의 재차 침투와 후속 전투였고, 러시아군은 패하여 개천 방면을 지나 청국 평황청[鳳凰城]과 지우리안청[九連城] 일대로 퇴각하였고, 안둥[安東]으로 통하는 국경 관문인 의주도 일본군이 장악하였다. 그런데 안주전투 과정에서 군민(郡民) 3명이 유탄을 맞아 사망하였다.¹³⁾ 이후 압록강 일대의 국경 산악지역과 함경도 방향인 덕천 등지에서 계

9) 『龍川郡守臚書』(『俄兵却掠成冊』, 奎, 17993).

10) 朴鍾孝, 2014, 『한반도 分斷論의 起源과 러·일戰爭(1904~1905)』, 도서출판 선인, 304쪽.

11) 반면 러시아 기록에는 러시아군은 장교 1명과 병사 4명 전사, 장교 3명과 병사 12명이 부상하였고, 일본군은 장교 1명과 병사 4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심현용, 2011,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108쪽.

12) 이틀 간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73명의 장교와 2,324명의 병사가 사망하였고 635명의 포로가 발생되었다(심현용, 2011, 앞의 책, 115쪽). 반면 일본군은 1,036명의 병력손실이 있었다.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김중현 역, 2004, 『러일전쟁사』, 건국대출판부, 180쪽.

13)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6호」, 1904. 6. 22(평남관찰사→외부대신).

릴라전 형태(俄匪)로 출몰하는 등의 형세는 당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규모있는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규모 국지전이 지속되던 함경도 북부 두만강 지역을 제하면 대한제국의 전 영토는 일본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이후의 상황을 보면, 평안남도 덕천군의 경우 러시아군은 지나가는 각 참(站)에 남아 있는 대로 찾아 빼앗고 이르는 곳마다 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하여 흩어지게 하였고, 개천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때려 읍속(邑屬)이 대부분 도주하였고, 영원군은 각 전(田)의 입묘(立苗)에 말을 풀어 먹였다 한다.¹⁴⁾ 개천군 향장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주민들로 하여금 사망한 병사를 저 나르게 하는데 만약 따르지 않으면 심하게 구타하였다고 한다. 또한 울우참에서는 교량을 부수고 행인 1명을 참(斬)하였고, 송정참에서는 민가에 불을 지르고 다리를 부수었다. 이때 연로 민인으로 잡혀 간 자는 거의 수백 명으로 모두 운반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러시아 병사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군복을 입혀 위장하여 같이 전진하다가 밤이 되면 쇠줄로 결박하여 도피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채찍질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 돌아올 바를 헤아리기 어려워 우며 아녀자가 남편을 잃고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 소리 내어 우는 상황을 차마 듣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⁵⁾

러시아군은 초기에 주둔하고 있던 평안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본군과 소규모 국지전을 전개하였다.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과 몇 차례 전투에서 패한 후 평안도에서 철수하였다. 러시아군은 기병대로 안주 등지를 습격하는 등 일부 게릴라전을 추진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후 전투 지역은 만주에 집중되면서 일본군이 평안도 지역을 완전 점수하게 된다. 반면 함경도는 이후에도 육로와 해로에서 양국 군대의 일진일퇴 양상의 소규모 접전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그 결과 평안도 지역은 일본군의 만주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병참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인적·물적 질고는 관내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14) 『箕府報鈔』, 1904. 5. 15(평남관찰사→의정부·내부).

15) 『箕府報鈔』, 1904. 5. 17(평남관찰사→의정부·내부).

III. 일본군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상황

압록강 전투 승리 이후 일본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압록강 대안 러시아군의 근거지인 평향청과 자우리안청을 압박하는 한편 더 나아가 만주 방면 공략에 전투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평안도 지역은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일본군이 진주하는 과정에서도 폐해가 이어졌다. 러시아군에 의한 것은 개전 초기 3개월 미만으로 그것도 일부 지역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일본군에 의한 전방위 징발과 인력동원은 거의 1년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평남관찰사 겸 선유사 이중하가 1904년 4월 12일 의정부와 내부에 보고한 평안도 민정 전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여러 군의 관아 공해(公廩)는 모두 일본병이 들어와 차지하고 읍과 연로의 민가는 태반이 텅 비어 오직 인부의 운수 외에는 행인의 왕래가 전혀 없고 …… 스스로 폐농에 이르고 …… 평양진위대는 상원에 나가서 주둔하였으나 사방으로 흩어져 폐단을 만들어 백성은 지탱하기 어렵고 이른바 동학(東學)·백학(白學)의 무리는 곳곳에 널쿨처럼 퍼져”¹⁶⁾라는 것이다.

이중하는 그로부터 보름 후의 보고에서도, 일본군이 군량·마량·군용 각종과 운수의 인부·우마를 민호에 분배하여 민정의 곤란은 대로와 벽읍이 모두 같고, 징수물품을 배정하고 사역(使役)으로 몰아세우고 압박하는데 두서가 없어 관리와 백성이 의지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순안·안주·용강·양덕 등은 관청이 비어 거의 무읍(無邑)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16) 『箕府報鈔』, 1904. 4. 12. 평양은 객사·아사(衙舍)·진위대 영사·전보사, 순안은 아사·각청, 숙천은 객사·아사·각청, 안주는 객사·아사·진위대 영사·전보사, 강서는 아사·각청, 은산과 순천은 장교청, 신천은 아사·각청 등 평안남도 각 군의 공해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5호」, 1904. 6. 16(평남관찰사→외부대신). 평북 의주의 경우 진위대 병영은 근위사단의 치료병원므로, 군수 집무실은 위생대 주둔지로, 향청은 병참사령부가 점령하여 군수는 민가를 빌려 행정업무를 보았다.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23호」, 1904. 5. 4(의주군수→외부대신).

결과 군수는 쓸쓸히 마을[村間]에 있고 이서와 하인[吏隸]은 흩어지고 여행자[行旅]는 일본군의 조사와 수색으로 인해 스스로 발걸음을 끊고 청년들[丁壯]은 물자를 나른다는 연유로 모두 업을 잃고 절도[竊盜]가 제 멋대로 행해진다면서 그 ‘처참함은 차마 볼 수 없다’¹⁷⁾는 사정을 전하였다. 미국인 종군기자 잭 런던(Jack London)도 평양을 지나 압록강 대안 중국 안통과 평황청까지 가는 길에서 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북쪽 지방은 일본군이 통과할 때 이미 황폐해진 상태였다. 도시와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논과 들은 버려져 있었다. 김을 매지도 않았고 파종도 하지 않았으며 이 들에는 녹색 식물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 (강조는 필자) …… 거의 모든 마을에서 종류를 막론하고 단 한 톨의 곡식도 구할 수 없었지만 ……¹⁸⁾

그런데 전시 기간 일본군의 파견주둔과 지원인력 동원, 물자의 강제 징발, 토지 수용 등은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4조에 근거한 것이다. ‘한일의정서’ 제4조는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혹은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 수용할 수 있다”¹⁹⁾고 되어 있다. 이는 청일전쟁 기간 맺은 조일 「양국맹약」과 같은 형태의 일본의 강요에 의한 군사동맹 체제였다.

먼저 일본군의 전쟁 인부(軍夫 또는 役夫로 표현) 청구와 동원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군의 초기 북상시기부터 평양에서는 붉은 또는 보라색 점을 왼쪽 뺨에 칠한 인부들을 동원하고 있었음이 종군기자의 눈을 통해 확인되고

17) 『箕府報鈔』, 1904. 4. 27.

18) 잭 런던·윤미기 역, 2011, 『잭 런던의 조선사람 옛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한울, 227쪽.

19)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4, 『舊韓末條約彙纂』(上), 東亞出版社.

〈표 4〉 평양 주변 및 평북 지역 각 군별/기간별 일본군의 조선인 인부 청구 수

평양 주변	1904. 8. 2	1904. 8. 3	1904. 8. 10	1904. 9. 3	1904. 9. 3	평북 지역	1904. 7. 27	1904. 8. 6	1905. 6. 5	1905. 6. 24	1905. 7. 4	1905. 7. 27	1905. 8. 6	1905. 9. 2	1905. 10. 10
용강	2,000	1,150				가산	2,000	1,500						300	300
삼화	2,000	700				청주	1,000	1,000							
강서	2,000	700				곽산	1,000	1,000				100	200		
안악		1,150				선천	1,500	1,000							
은율		500				철산	1,000	1,000							
長連		500				용천	1,000	1,000		700					
長淵		700				의주		700							
신천		600				태천		500				178			1,700
증산	2,000					구성		500	100		700		265		640
영유			500			창성		500	800						
순안			500			삭주				600					
숙천			500			영변					400				
순천				150		운산						250		250	250
자산				150		박천									490
계	8,000	6,000	1,500	300		계	7,500	8,700	900	1,300	1,100	528	465	550	3,380

* 자료 출처: 『冀府報鈔』(평남관찰사→내부); 『三陟港報錄』 제5책, 「보고 제64호(신회감리→외부대신)」[奎, 17856, v. 5]; 『公文日鈔』(평안남도 편) [奎, 4254-49]; 『來去案』 제17책, 「보고서 제31호(의주군수→외부대신)」, 「보고서 제73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來去案』 제10책, 「보고서 제22호」, 「보고서 제35호」, 「보고서 제39호」, 「보고서 제45호」, 「보고서 제48호」, 「보고서 제56호」, 「보고서 제72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각 해당 날짜에 의거해 작성[다만 7. 27→8. 15 보고].

있다.²⁰⁾ <표 4>는 1904년 7~9월, 1905년 6~10월 상황이다.

위의 내용 중 1904년 8월 3일과 6일의 경우 청국 안동현·지우리안청·평 황청 물자 수송 및 축성(築城) 파견 인부를 청구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탕 산성·장강성 축성에도 동원되었다. 일본군은 평남·북 각 군은 물론이고 안 악·은율·장연 등 황해도 지역까지도 동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주는 이미 1904년 7월 23일 이전 두 차례에 걸쳐 각 방(坊)의 인부 657명 을 보냈고,²¹⁾ 반면 인력이 부족한 함경도의 경우 1905년 6~10월 사이 이용구가 일진회원을 북진수송대(北進輸送隊)로 하여 두만강 방면 일본군 군수물자 수송 등 대규모 노동력 동원을 통한 협력을 전개하였다.²²⁾

청국으로의 전쟁인부 파견과 별도로 서울-의주 간 군용철도, 압록강의 교 랑 부설을 위한 인부의 강제동원도 진행되었다. 평북 가산군의 사례를 보면, 1905년 7월 무렵 매일 1천 명을 보내라 독촉하나 2,715호의 쇠하여 황폐해진 마을을 형편상 농사를 폐기하고 부역하더라도 그 절반을 충원할 수 없다고 군수가 병참사령부에 가서 직접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군수에 따르면 가산군 6개 면은 전염병[輸疾]이 크게 일어나 사망자가 10에 8·9명으로 집들은 비어있 고, 철도구획에 전답이 편입되어 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 살려라!”고 부 르짖고, 민가의 휘철로 “그 참혹함은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²³⁾

이 시기 평안도의 인구는 7년 전인 1897년 내부(內部)의 조사보고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보고가 도착하지 않은 군을 제외한 인부징발을 행한 연로 각 군의 호구와 인구수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평안남도의 경우 순천군 기록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숙천군 의 오기로 보인다. 영유군의 경우 남녀의 수에서 1명이 부족하다. 평안도는 1만 9,277호, 인구 6만 9,753명인 평양을 제한 모든 군의 호수가 1만을 넘지

20) 잭 런던·윤미기 역, 2011, 앞의 책, 60쪽.

21)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1호」, 1904. 7. 23(정주군수→외부대신).

22) 李容九, 『北進輸送隊日記』(李寅燮, 1911,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二, 文明社, 526~572쪽).

23) 『來去案』 제8책, 「보고서 제44호」, 1905. 7. 19(평북관찰사→외부대신).

〈표 5〉 평안남북도 각 군별 호구와 남녀 인구수(1897년)

평안남도	호구	인구		평안북도	호구	인구	
		남	여			남	여
용강군	8,203	25,580		정주군	6,579	29,081	
		14,123	11,457			16,282	12,799
순천군	4,003	12,607		영변군	6,548	36,956	
		6,782	5,825			19,665	17,291
영유군	4,021	12,616		선천군	5,030	23,077	
		7,204	5,411			12,882	1,0195
강서군	4,427	16,107		용천군	4,853	16,423	
		8,761	7,346			9,209	7,214
삼화군	5,818	16,042		철산군	5,371	21,839	
		8,368	7,674			12,465	9,374
순천군	2,372	8,798		가산군	2,646	11,083	
		4,827	3,971			6,126	4,957
자산군	2,414	10,572		곽산군	3,568	12,954	
		5,777	4,795			7,452	5,502
순안군	2,096	9,268		운산군	4,347	14,433	
		5,038	4,230			8,041	6,392
증산군	1,218	5,807		박천군	2,434	11,101	
		3,105	2,702			5,862	5,239

* 자료 출처: 『독립신문』, 1897. 5. 22, 「외방통신」; 『독립신문』, 1897. 5. 25, 「외방통신」; 『독립신문』, 1897. 6. 24, 「외방통신」.

못할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았다. 당시 평안남도 인구는 34만 1,002명에 불과하였고, 1899년 내부의 조사보고를 보면 평안남도 가호는 9만 8,832호 인구는 남 20만 2,875명, 여 17만 24명, 도합 37만 2,899명으로 3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평안북도는 가호 9만 858호, 남 20만 8,685명, 여 16만 1,453명, 도합 37만 138명이었다.²⁴⁾

그러나 이는 평시의 인구로 앞에서 살폈듯이 전쟁 상황에서 연선에 있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피난하였고, '십십십공'(의주군)이나 주민의 8, 9할이 이산(가산군)하였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실제 지역에 남은 인원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인부 2천 명을 배정받은 한 군의 경우 노인과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 남자가 겨우 3천 명을 상회할 정도였다(증산군). 동원 가능한 인력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할당을 감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다.²⁵⁾

태천군의 경우 러시아군이 물러나자마자 일본군의 징발이 속행되었다. 수량과 가액은 이전 2~3월간의 러시아군에 비하면 적은 것이었지만 계속되는 강제로 지역민은 곤궁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 1일 하루 동안의 징발가액은 합계 482량 1전 9푼으로 일본군은 1원 지폐 38장, 5원 지폐 1장, 20전 지폐 80장, 50전 지폐 2장, 10전 지폐 1장을 지불하였다. 당시 시가로 1원 지폐는 한화 8량으로 환산되었는데, 합계 480량 8전이 된다. 이는 총액에서 1량 3전 9푼이 부족한 것으로 러시아군과는 달리 비용을 최대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로 현지 주둔 일본군에 의한 군

〈표 6〉 태천군 일본군 징발 종류와 가액(1904년 4월 1일)

종류	稷	牟	馬草	白米	鷄	長斫
수량	81두 8승	14두 4승	138속	13두 2승	17首	30束
가액	163량 6전	64량 8전	69량	112량 2전	34량	12량
종류	柴木	太芽	太包	鷄卵	鹽	醬
수량	23속	8升	50方	6개	5승	6碗
가액	9량	3량 4푼	1량	6량	7전 5푼	6량 5전

* 자료 출처: 『來去案』 제8책, 「태천군보 제80호」, 1904. 4. 8(평북관찰사→외대 서리).

24) 『독립신문』, 1899. 5. 16, 「가호인구」.

25) 고종 9년(1872)에 작성된 『郭山郡地圖』(奎, 10596)에 따르면 軍總은 1,28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물리적 동원이 가능한 수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표 7〉 러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평안도 각 군별 조사 내용(1904년 7월~1905년 12월)

지역	연월일	조사 내용
삼화군 용강군 강서군 중화군	1904. 7. 2	삼화향 병참사령관이 각 군의 호수, 2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 수, 牛馬豚鷄의 현재 수, 米 1년 수확고와 이전 5개년 평균수, 大麥 1년 수확고, 30석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선박수, 薪炭 재고량, 糶[糶]의 재고량, 社還米 저장 소제지 및 貯積高를 보고 할 것을 조회
정주군	1904. 7. 23	정주군 병참사령관이 각 면리 任掌 및 頭民을 소집하여 각리 가호와 인구 수, 전답 두락 耕數와 매년 소출 穀 수, 牛馬豚鷄 등을 보고하도록 조회
철산군	1904. 7. 30	일본병참부와 이화포 주둔 일본군이 연로 좌우 30리 정도에 소재한 각리의 호구와 전답, 耕落과 소출 穀數와 우마 필수를 조사
벽동군	1905. 6. 18	의주병참사령관이 본군 인구·우차·태마·牛·나귀 수, 米粟·대두·소두·玉糖 및 각종 필요품을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책으로 만들어 보고할 것을 조회
용천군	1905. 6. 20	일본군의 조회에 따른 조사. 1. 조사 요령: 조사 지역, 구역 내 각 촌 호수·인구, 각양 물산의 歲收·歲出 2. 조사 형식: ① 호구 조사(촌명·인가·인구), ② 물자 조사(牛·馬·驢·牛車·車·白米·麥·太·唐·豆·옥수수·航의 현재 수, 1년 산출수, 1년 비용, 1년 비용 후 남은 수), ③ 稅收 조사(결호전 과세 표준, 結戶錢 수세 및 합산 등의 과세 종류, 납세 시기, 납세 총액)
	1905. 6. 29	일본인 技手 등이 경내에 와서 전답결 1,919결 97부 1속, 읍촌 가호 5,333호와 남녀 인구 18,165명 등 3개 항목의 숫자를 기록하여 감
희천군 - 강계군	1905. 12. 5	안주수비대장이 희천부터 강계 사이 연로 각 촌리의 명칭과 미·맥·속·두·우·마·차·계·돈·井口數, 호수·인구수, 일본인이 어느 촌에는 몇 사람이 숙박 가능함과 교량을 가설할 石數와 사용할 수목, 糶糖葉, 時候에 따라 물이 부는 상황과 강설 상황 등을 조사하여 통보할 것을 지시
영변군 - 안주군	1905. 12. 11	영변수비대장이 영변부터 안주 간 도로변 좌우 각 10리 간 白米·麥·粟·豆·馬粥, 군대가 유숙할만한 家室, 운반력으로 사용할 牛馬·牛馬車, 장도리·톱 등 수목별 채 기구, 사용가능한 인부 수의 조사를 급히 조회

* 자료 출처: 『三和港報譯』 제4책, 「보고 제52호」(삼화감리→외부대신);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1호」(정주군수→외부대신), 「보고서 제69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來去案』 제10책, 「보고서 제29호」, 「보고서 제32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보고서 제2호」(용천군수→외부대신); 『龍川港案』, 「보고 제7호」(용천감리→외부대신)[奎, 17874]; 『來去案』 제10책, 「보고서 제98호」(안주수비대장→평북관찰사), 「보고서 제98호」(영변수비대장→평북관찰사) 해당 각 날짜에 의거해 작성.

세(郡勢) 조사도 병행되었다.

이는 지역사정의 상세한 조사를 통해 남만주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 외에 평북 관내 마필 조사, 평남북 금광 조사, 운산의 역둔토 조사 등도 행해졌다. 이 같은 군사상 필요를 내세운 일본군의 각종 요구사항에 연로의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었다. 예컨대 진북(進北) 군대 응접관으로 군수품 조달에 적극 협조하였던 의주군수 구완희는 “진시황이 구하는 바는 끝이 없다(可謂秦求無己也)”²⁶⁾라고 비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우마의 불법징발과 미곡의 약탈이 일본 상인 사이에서 성행하였는데, 용천군에서는 ‘군용’을 빙자하여 소 70마리를 마리당 군용수표 2원으로 매수하려 하였고, 철산에서는 주민의 소 20마리를 무상으로 빼앗은 일도 있었다. 가혹한 징발과 지역민에 대한 전쟁 비용 강제배정 결과 원한을 가진 자가 의주 통군정(統軍亭) 기둥에 ‘우습다. 호랑이와 승냥이가 큰 길에서 횡행함여! (笑殺虎狼大道橫)’라는 시를 몰래 쓰기도 하였다.²⁷⁾ <표 8>은 러일전쟁 말기 만주방면 군수품 운반을 위해 일본군의 평북 지역 각 군별 우마의 배정내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안도 각 군에 주둔한 일본군이 과도하게 전시 군율(軍律)을 적용하여 지역민들을 살해하는 사례가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에 있었다. 강제 동원을 통한 가혹한 노동착취 과정에서 감독의 무리한 대응으로 인한 사망도 보인다. 청일전쟁시와 같은 참형(斬刑)도 진행되었다.

26)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31호」, 1904. 8. 15(의주군수→외부대신). 구완희가 나열한 일본군 요구는 각 營門의 수용, 군 관사를 군용전신국으로 사용, 도로와 교량 및 厠間 설치, 馬草와 柴炭 준비, 鷄·豚·계란 등의 청구, 철도 역부의 임의 모집, 매일 350명씩 구련성 등지 축성 역부 모집, 구룡포 板木監視部 역부 청구, 장강성에 보낼 물자운반 역부 200명 청구, 의주-용천, 의주-삭주 간 도로와 교량을 일일이 수축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大韓每日申報』, 1904. 9. 21.

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別冊 報告書 返戻件」, 1904. 7. 8(한국주차군 참모장 齊藤力三郎→임시대리공사 萩原守一) 중 「別紙 1」, 「平安北道 視察報告書」: 「附屬書 1」, 「露·日戰 露·日 兩軍ノ通過地民間人ノ被害狀況調査書」, 1904. 6. 10.

〈표 8〉 평북지역 각 군별/기간별 일본군의 우마징발 배정수(1905년 6월 5일~10월 10일)

	6. 5	6. 24	7. 4	7. 27	8. 6	9. 2	10. 10
삭주	50(우)						
창성	100(우)				50(우마)	42(牛馬馱)	50(우)
강계	850(우마)			500(馱馬)		400(우)	
후창	100(우마)				150(우)	250(우마)	
운산	600(우마)						50(우)
희천	600(우마)						400(우)
벽동	300(우마)						200(우)
초산	1,400(우마)					400(우)	69(牛馬馱)
위원	150(우마)						
태천		200(馱馬)			300(우마)	80(우)	
구성		200(馱馬)					
자성			46(우)		300(우)		
총계	4,150	400	46	500	800	1,172	769

* 자료 출처: 『來去案』 제10책, 「보고서 제22호」, 「보고서 제35호」, 「보고서 제39호」, 「보고서 제45호」;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73호」; 『來去案』 제10책, 「보고서 제48호」, 「보고서 제56호」, 「보고서 제72호」. 해당 각 날짜에 의거해 작성. 모두 평북관찰사가 외부대신에게 보고한 것이다.

현지민 살해의 경우는 균율을 통한 일본군 당국의 공식행위와 개인의 일탈 등 비공식 행위로 대별된다. 전시체제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가벼운 절도 행위도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충살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전쟁 직후 삼화항 진남포의 일본영사 소메다니 세이쇼[染谷成章]는 일본 거류민에게도 “제10항 간첩은 사형에 처함. 간첩을 유도방조한 자도 같음. 제11항 교전지 또는 작전지대에서 우리(일본) 군대에 위해가 미칠 행위가 있는 사람은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죄사정에 의하여 무거운 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벼운 자는 그 지방에서 현행하는 법령 관습을 참작하여 감형할 수 있음”²⁸⁾이라는 방문을 고시하기도

28) 『三和港報牒』 제5책, 「보고 제10호」, 1904. 2. 29(삼화감리 고영철→외부대신 서리 이지용).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회적 방법의 경고였다.

특히 전선선 절단의 경우 예컨대 정주 주둔 병참사령관은,

1. 가해자는 사형에 처함.
2. 정을 알고 은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3. 가해자를 나포하는 자는 금 20원(元)을 상으로 줌.
4. 가해자를 밀고 나포케 하는 자는 금 10원을 상으로 줌.
5. 촌내에 가설하는 전선 보호를 그 모든 촌민에게 책임을 지우되 각 촌장·주좌위원(主座委員)을 두고 약간 명을 매일 교대하여 전선 보호함이 가함.
6. 촌내에서 전선을 절단하였을 때 가해자를 나포하면 마땅히 당일 보호위원을 태벌(笞罰)하고 또한 구류에 처함.
7. 한 촌 내에 2·3회 가해자는 한국 정부에 통고하여 모든 촌을 엄히 벌하여 막기를 청구할 것.²⁹⁾

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훈시하였다. 사형과 태벌 등 가혹한 처벌과 지역별 연대책임까지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강경정책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표 9>의 1905년 7월 27일 사례처럼 러일전쟁 후반기 전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폭력을 통한 침탈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인 마쓰이 겐지로[松井嚴治郎]는 순안병참지부장을 앞세워 일본상인과 총칼을 든 일본군 병사 20여 명을 이끌고 평남 순안과 자산의 석광의 세감(稅監)을 결박하고 점꾼(店軍)을 위협 공갈하여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의 구역이라는 증서를 강제로 받게 하였고,³⁰⁾ 일본상인 30여 명이 전 상원군수와 협잡하여 전답문서를 위조하여 소출 곡식을 추수하는 사례도 있었다.³¹⁾

29) 『來去案』 제9책, 「보고서 제81호」, 1904. 8. 20(평북관찰사→외부대신).

30) 『平安南北道各郡報告』 제5책, 「보고서 제 호」, 1905. 3. 15(순안 금광위원 보고); 「보고서 제2호」, 1905. 3. 18(평안남북도 각광 감리 태천군수 조정구)[奎, 19160, v.5].

31) 『來去案』 제10권, 「보고서 제2호」, 1905. 10. 21(평남 상원군수 이익룡).

〈표 9〉 러일전쟁 시기 평안도 지역 일본군·일본인의 한국인 처형 및 살해 상황

일시	지역	내용 개요
1904. 3. 18	평남 평양	영변 사람 김사청을 러시아 간첩죄로 보통문 밖에서 砲殺
1904. 5. 22	평북 창성	마을에 들어온 일본군 3명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김윤화가 즉사하고 최광순 등 4인은 중태
1904. 6. 9	평남 덕천	러시아군 통역 김인수를 체포 즉시 포살
1904. 6. 21	평북 정주	일본군 2명이 촌락에 들어가 한 푼도 주지 않고 닭과 계란을 가져가면서 칼로 흥대형을 살해
1904. 8. 5	평북 의주	함경도 출신 러시아 통역 박계혁을 斬刑에 처함
1904. 8. 22	평남 진남포	군용철도와 일본군의 군사행동을 방해한 혐의로 양주 사람 김백조를 총살
1904. 8. 26	평북 의주	러시아어 통역 곽중팔의 의뢰로 평양방면 일본군 현황을 러시아군에게 보고한 최인준을 간첩 혐의로 사형 집행
1904. 9. 3	평북 희천	안주전투 시 러시아군과 협력하여 군수품을 약탈하고 요언으로 민심을 선동한 혐의로 우기순·우내순·김윤홍·이응몽·나희태를 군율로 총살
1904. 9. 16	평북 운산	전선 애자(玉瓶) 1개를 절취한 홍승락을 포살
1904. 10. 11	평북 정주	일본인 철도감독이 부역에 게으르다며 김영록을 나무못등이로 때려 죽임
1904. 10. 24	평북 정주	전신선 절단죄(전신주를 넘어뜨리고 애자를 부숨: 대한매일신보)로 곽산 출신 문찬호를 정주 서문 밖에서 포살
1904. 12. 11	평남 평양	술에 취한 일본군 1명이 새벽에 김용한의 집에 돌입하여 칼로 찔러 죽임
1905. 1. 21	평북 철산	철산정거장 철도부설 재료를 절취한 노학렴을 군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함
1905. 4. 13	평남 안주	안주주차사령부 군용물품 수송 중 모포 등을 절취한 박천군민 양성해 등 8명을 軍律에 따라 총살하고 나머지 5명을 옥에 가둠
1905. 5. 15	평북 창성	군용전신선을 절단 절취한 벽동군 농민 이성세를 포살
1905. 5. 16	평북 창성	군용전화선을 절단 절취한 농민 표현덕을 총살
1905. 5. 21	평북 창성	전신주 2개를 파손하고 전선을 절단 절취한 벽동군민 유용복을 총살
1905. 7. 27	의주-초산	1904년 10월 군용전신용 철선을 절취한 삭주의 조산옥과 주덕문을 창성일본군 헌병분대에서 사형에 처하라고 평북관찰사에 조회하였으나 한국 법에 따라 태 50에 처하고 옥에 가둠

* 자료 출처: 『平壤報牒』 제2책, 「보고 제3호」(평양감리→외대 서리)〔奎.17872.v.2〕;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54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箕府報鈔』(평남관찰사→내부); 『來去案』 제7책, 「보고서 제66호」, 「보고서 제31호」(의주군수→외부대신); 『三和港報牒』 제5책, 「보고 제70호」(삼화감리→외부대신); 『來去案』 제9책, 「보고서 제35호」(의주군수→외부대신); 『公文日鈔』, 평남(내부 보고); 『來去案』 제9책, 「보고서 제89호」, 「보고서 제94호」, 「보고서 제92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平壤報牒』 제2책, 「보고 제17호」(평양감리→외대 서리); 『來去案』 제10책, 「보고서 제3호」, 「보고서 제4호」, 「보고서 제17호」, 「보고서 제14호」, 「보고서 제20호」, 「보고서 제46호」(평북관찰사→외부대신) 해당 각 날짜에 의거해 작성.

IV. 군용수표 유통과 통화시스템의 왜곡

군용절부(軍用切符)·군표(軍票)·군용수형(軍用手形) 등으로 표현된 군용수표(military currency, military payment certificate)란 전쟁기에 점령지역에서 군대가 현지로부터 물자조달 및 그 외의 지불을 위해 발행하는 임시 어음이다. 일본은 1877년 세이난전쟁[西南戰爭] 때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최초로 '사이고 사츠[西郷札]'라는 군표를 사용한 후 청일전쟁 시기인 1895년 2월 이후 점령지에서 청국 통화단위인 2전 5푼, 5푼, 5전, 1량, 5량, 10량의 군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통용된 수량은 많지 않았다. 러일전쟁 때는 전장인 청국과 대한제국에서 발행되어 지역 소재 요코하마 정금은행[橫浜正金銀行] 각 지점, 서울·인천·평양·진남포 소재 한국금고파출소·야전우편국, 한국과 북중국 소재 일본 보통우편국, 제일은행 출장소를 통해 유통시켰다.

러일전쟁 시기 군용수표 발행은 대체로 청일전쟁 당시의 발행계획(1894. 11. 27)에 준거한 것으로 통화단위와 액수 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일본정부는 군표발행의 이익으로 ① 전지(戰地)에서 선차마(船車馬) 인부 운임 및 기타 군비지불에 사용하고, 경화(硬貨)로서 일일이 운반·보관·출납하여 수수·노력·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많은데 비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지불증표로서 매우 편리하고, ② 정화(正貨)를 절용할 수 있고, ③ 태환권의 증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³²⁾

이에 1903년 여름(8~9월)부터 군표발행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는 일본 육군 경리국의 전쟁준비를 위한 비밀리의 한국 내 물자조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총 47일 간 원산 이북 지역을 제외한 한국 각 지역의 교통로, 주민생활, 물자상황, 통화 및 물가, 조달 방법, 경비 등을 조사하였던 육군 3등감독 다카야마 타카시[高山嵩]는 '완금을 요할 경우 일시 인환을 제한할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10전, 50전, 1원, 5원, 10원의 5종의 특별 화폐발

32) 『中外商業新報』, 「軍票物語(1~6)」, 1942. 4. 18.

행을 제안하였다.³³⁾ 이 보고는 그해 11월 20일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1904년 1월 23일 대장대신은 각의에 「군용절부(軍用切符) 발행에 관한 각의안」 및 「군용절부 취급순서」를 상정하여 전쟁 발발 이틀 전인 2월 6일 정식으로 의결하였다. 즉, 군표는 정화(正貨)의 절용과 군사비 지불 편리를 목적으로 러일전쟁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전쟁 발발 직후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에게 군표(軍票) 발행에 관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한 양국에서 군비 지불의 편리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군표를 발행하며, 그 종류는 일본 은화 10전, 20전, 50전, 1원, 5원, 10원의 6종류로 한다. 이는 1903년 11월 다카야마의 건의에 의해 20전 화폐를 추가한 것이다. 둘째, 육해군성으로부터 군표로 지불을 요하는 금액에 대한 예보를 받았을 때, 또는 예보를 받지 아니해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장성 이재국장은 금고 출납 담당관에게 교부해야 할 군표의 종류·매수·금액 등을 조사해서 이를 대장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셋째, 대장대신은 전 항의 보고에 따라 군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교부할 것을 이재국(理財局) 물품 회계 관리에게 명령하고, 동시에 전화로 그 사실을 금고 출납 담당관에게 명령해야 한다.³⁴⁾

지역별 상황을 보면 공식 개전 다음 날인 2월 9일부터 일본군 제12사단은 서울에서 군용수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 유통과정에서 공사도 영사도 이에 대해 하등의 공시를 하지 않아 은행과 우편국이 이를 수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참 후인 2월 23일야 처음으로 제일은행이 교환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한화를 사용하였고, 일본 당국이 수표의 성질을 설명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수취인들은 교

33) 防衛省 防衛研究所, 『密大日記』, 「經理局韓國物資調查報告書進呈ノ件」 중 「秘: 韓國內物資調査報告」, 1930. 8~9월.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録』, 「淸韓 各 地方에서 使用할 軍票 發行 件」, 1904. 2. 26(외무대신 小村壽太郎→특명전권공사 林權助).

환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였다.³⁵⁾

그러나 1904년 3월 제일은행 경성지점 지배인의 보고에 따르면 군용수표의 발행증가에 비례하여 한화는 폭등하였기 때문에 수표의 가격은 한화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다. 이에 지배인은 물가의 등귀를 조장하는 군표발행을 중지하고 기 발행분은 속히 회수하고 가능하다면 원은(圓銀) 또는 태환권과 교환하는 것이 급선무라 주장하였다.³⁶⁾ 제일은행의 입장은 일본군부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복상 과정에서 군용수표는 평안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일자별·지역별 한화 대비 군용수표 가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중 A/B는 한화(A)/군용수표(B), 즉 군용수표 대비 한화 거래 비율을 %로 표시한 것이다. 비율을 보면 거의 전 지역에서 한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군대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통용되는 가격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그만큼 민가에서 군용수표의 신용도는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실거래는 이보다 더 낮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한화가 오히려 낮게 거래된 것으로 계상된 숙천과 개성·금성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따른다.

일본공사의 군용수표 사용 의뢰를 내무대신이 평남관찰사에게 훈령한 것은 3월 9일부터였다.³⁷⁾ 그러나 통용이 개시되자마자 진남포와 평양 방면에서 군용수표는 거의 신용이 땅에 떨어져 군수에게 명하여 상인들에게 훈유(訓諭)하여 극력통용을 독려하였다. 그렇지만 특히 순안(順安) 이북에서는 그 수취를 매우 싫어해 인부들은 군용수표로 임금을 지불받게 되면 다음 날부터 응하지 않았다. 안주 서남 소재 입석장(立石場) 주민들도 한화(韓貨)만을 사용하고 군용수표 수수를 거절하여 이를 강행하면 물자 및 인력 공급을 끊기에 이르렀다

35) 大藏省 理財局,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上卷)』, 「韓國ノ部」, 1908, 8 발행.

36) 大藏省 理財局,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第一銀行ノ部」, 1904, 3. 23(제일은행 지배인 佐佐木勇之助→大藏省 理財局長).

37) 『平安南北道來去案』 제7책, 「훈령 제 호」, 1904, 3. 9(외부대신→평남관찰사).

〈표 10〉 러일전쟁 시기 군용수표 사용지역과 기간별 가격 비율표(1904년 2~5월)

연월일	2월 말	3월 상순	3월 말	4월		15일	16일	21일	4월 하순	
지역	인천	안주	숙천	개성 금성	개성 봉산	경성	안주	제12사단 소재지	안주	가산
A/B	144	100	88	70~80	100	150	150	150	142	140
보고	육	제	육	육	육	제	제	육	제	제
연월일	4월 하순					5월 4일	5월 11일	5월 17일	5월 30일	
지역	정주	선천	차련관 철산	○○○ 장리	의주	제12사단 소재지	선천	선천	선천	
A/B	138	130	128	125	120	200	140	150	175	
보고	제	제	제	제	제	육	黑	黑	黑	

* 자료 출처: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上卷)』, 「韓國ノ部」; 「平安北道 視察報告書」: 「附屬書 1」, 「露·日戰 露·日 兩軍ノ通過地民間人ノ被害狀況調査書」를 근거로 작성.

** '육': '육군', '黑': '黑井 巡查', '제': '제일은행', '○○○'은 판독불능.

한다.³⁸⁾ 순천 부근에서는 원은→한화→태환권→군용수표 순서로 통용되었다. 또한 단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환전상이 한화의 50~60%로 교환하기도 하였다.³⁹⁾ 이같은 결과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군용수표는 일본군 병참부 소재지 근방에서만 통용되고 널리 미치지 못하였다.⁴⁰⁾ 평양의 경우 1904년 봄 군대가 통과하는 지역에서 군용수표가 사용되었지만 하루 교환고는 1천원 정도에 불과하였다.⁴¹⁾

인천의 일본영사도 초기부터 서울과 인천 및 부근 지방의 지불에 대해서는 일본 통화 또는 금화 본위의 어음을 사용하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군용

38)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軍用手票 使用에 關한 第2回 報告 및 意見(제1군, 4월 19일)」.

39)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第12師團 經理部 報告(4월 1일 順川)」.

40) 『通商彙纂』, 「京城ニ於ケル時局ノ影響」(37년 6월 18일부 在京城帝國領事館報告).

41) 『通商彙纂』, 「平壤金融情況」(37년 12월 28일부 在平壤帝國領事館分館報告).

〈표 11〉 러일전쟁 기간 한국에서의 군용수표 교환고

(단위: 원)

연월별		서울	인천	진남포	평양
1904	2월	1,473	44,545		
	3월	413	117,309	2,082	
	4월	22,895	291,315	65,222	
	5월	29,258	2,197	81,320	
	6월	11,192	55,772	32,910	23,428
	7월	19,720	120,978	24,566	14,300
	8월	19,402	74,719	28,946	24,608
	9월	13,493	141,545	41,013	21,444
	10월	53,617	197,073	91,885	31,579
	11월	27,786	376,318	61,672	30,207
	12월	11,368	337,379	32,177	65,623
	1905	1월	16,783	246,318	7,315
2월		8,896	137,769	7,245	27,189
3월		17,205	1,172,088	28,932	49,749
4월		291,607	1,512,995	46,760	19,650
5월		480,399	1,954,198	27,018	25,257
누 계		1,025,505	6,782,516	579,063	403,416

* 자료 출처: 石川亮太, 2012. 11. 2. 「帝國의 인프라와 仁川華商-러일전쟁 전후를 중심으로」, 인천시립박물관·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주최 한러국제학술회의 발표문, 42쪽에서 재인용.

수표를 일본 통화로 교환하자고 요청하였다.⁴²⁾ 러일전쟁 이전 인천 지방에서는 유통의 대부분을 일본지폐가 점하고 있었다. 전체수입고는 1902년 93만여 원, 1903년 70만여 원이었다. 그러다가 전쟁 기간인 1904년은 737만여 원으로, 이중 96만여 원은 제일은행권이고 나머지는 군용수표와 기타 화폐가 대량

42)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電信』, 1904. 2. 22(인천 加藤영사→小村 외무대신).

〈표 12〉 1904년 5~6월 간 한국주차병참금계부 군자금 현재고

(단위: 원)

구분	군용수표	원은	일본통화	합계
5월 10일	268,457	50,000	118,733	437,190
6월 10일	270,949	96,000	731,621	1,098,870

* 자료 출처: 大藏省 理財局, 『(秘)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1908. 8.

유통되었다.⁴³⁾

이중 인천이 압도적인 것은 만주와 북중국 방면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금이 었기 때문이다. 평안도 지방은 가장 늦게 군표가 유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였다.

전쟁 기간 한국에서 군용수표의 유통실무를 담당한 기관은 한국주차군 경리부였고 교환업무는 금계부가 담당하였다.⁴⁴⁾ 일본은 전쟁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제12사단 경리부를 시작으로 군표를 발급하였다.⁴⁵⁾ 1904년 5~6월 당시의 군자금 유통 상황을 군용수표·원은·일본통화 순으로 보면 〈표 12〉와 같다. 이에 의하면 군용수표는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6월 이후 일본통화가 우위를 점하고 원은 유통액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점령군을 통해 유통된 군용수표는 일본군의 식량 구입, 노동자의 임금과 물자징발의 대가, 운임, 군인 군속 등의 급여 지불 등에 사용되었다. 이를 수취한 자는 곧바로 한화로 교환하여 호구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당시 통용되는 본위화와 대비할 때 군용수표의 실제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복진하는 일본군은 한화 1원(圓) 당 절반가인 군용수표 50전(錢), 평양지역에

43) 『通商彙纂』, 「仁川三十七年貿易年報」(39년 6월 13일부 仁川理事廳調査).

44) 曹健, 2005, 「日帝 韓國駐劄軍 經理部の 활동과 韓國國民의 대응(1904~1910)」, 동국대 석사논문, 22쪽.

45) 「第12師團經理部 軍用手形 發行의 件」, 明治 37년 2월 22일(金正明 편,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5) - 日露戰爭編』, 巖南堂書店, 76쪽).

서는 한화 1원에 대해 53전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자가 많았다 한다.⁴⁶⁾ 숙천에서는 원은 1원당 2원으로 교환하였다.⁴⁷⁾ 이는 1/2 가격이었다.

일본화폐의 대체물인 군용수표는 일본의 각종 화폐 중 신용도가 가장 낮아서 액면가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는 신용이 두텁지 않기 때문이었지만, 제일은행 경성지점의 지적 그대로 무엇보다도 원은의 준비부족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지불수단으로 많은 군용수표를 발행함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신용이 박약한 상황에서 군용수표 포기론도 일각에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처음부터 병참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군용수표 유통을 강제하였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기민한 한국인들도 싼 가격으로 한화와 교환한 후, 일화 90전 혹은 원은과 교환하고 다시 이를 한화로 교환하여 큰 이익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⁴⁸⁾ 군표발행 안내 포고문은 전쟁이 휴지기에 들어간 1904년 12월에서 이루어졌고, 군용수표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물가상등만 초래하고 일본 측의 예상과 달리 유통 또한 양호하지 못하여 곧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⁴⁹⁾

일본공사 하야시도 전쟁 초기부터 군대의 지불준비금 부족(소액의 은화만 준비)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 군대가 다량의 군표를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이하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용의 난점을 토로하였다. 그 대안으로 공사는 은화와 교환을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⁰⁾

46) 『舊韓國外交文書』 제6권, 「日案」 6, #7871 「日軍票의 對韓貨換率 및 物品價漏價弊端의 是正要求」, 1904. 3. 2; 「平壤地方에 있어 軍用手形 使用의 件」, 明治 37년 3월 3일(앞의 『日韓外交資料集成(5) - 日露戰爭編』, 103~104쪽).

47)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1904년 4월 19일 第1軍 兵站經理部 報告」.

48)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時局과 關聯한 韓國 經濟狀況 第3回 報告」, 1904. 5.

49) 幣原坦, 1905, 『日露間之韓國』, 博文館, 118쪽.

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李重夏의 宣諭使 確定 및 日本 軍用手票價 下落 對策 講究 件」, 1904. 3. 28(林 公使→小村 大臣).

군용수표가 화폐제도를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혼란만 초래하였으며 환금도 용이치 않다는데 있었다. 예컨대 제일은행 안주임시출장소의 교환상황을 보면, 특정한 하루를 교환날짜를 정하고 교환 시 한인 통역인과 병졸로 경호하고 한 사람씩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교환자가 폭주하였기 때문에 통역인이 뇌물을 받고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 들어갈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교환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공사의 조희에 따르면 군용수표는 처음부터 “우리(일본) 병참 및 제일은행 지점에서 하시(何時)를 묻지 않고 이르는 즉시 바꾸어 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일본은행에서 이를 현금과 교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비밀비재하여 낭패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⁵¹⁾ 교환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중개하고 구문을 취하는 환전상도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들 환전상 중에는 경인지방으로부터 가격이 싼 한화를 운반하여 철산·의주 등 평안도 지역에서 군용수표와 한화를 1:1 비율로 많이 매입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한다.⁵²⁾

이처럼 러일전쟁 기간 전지(戰地)에서 발행된 군용수표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이 없었으며 특히 평안도 지방에서는 수수를 꺼렸던 사실상 불환지폐였다.⁵³⁾ 군표는 일본 정부의 세입에 계산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후일 지불을 약속한 대용증표(代用證票)에 불과한 것으로,⁵⁴⁾ 군의 지불능력 없이 발행된 것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약탈을 용인한 제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51) 『大韓每日申報』, 1905. 11. 11. “(軍用票碍行) 日俄交戰 時에 日本 軍人이 行用하던 軍用票가 지금은 日人銀行에서 交換을 不許하니 韓人이 이 軍用票로 由하여 狼狽한 者가 많이 있다더라”.

52)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時局과 關聯한 韓國 經濟狀況 第3回 報告」 (1904. 5).

53) 『軍用切符ニ關スル調査(下卷)』 「時局과 關聯한 韓國 經濟狀況 第2回 報告」 (1904. 4).

54) 片山徹, 1986, 「日露戰爭以降の財政・金融構造」, 『經濟論叢』 제138권 제5·6호, 京都大學 經濟學會; 石川亮太, 2004, 「日露戰爭軍票の流通實態と日本の對應—滿洲通貨政策の起點として」, 『軍事史學』 제40권 제2·3合併號, 軍事史學會.

V. 지역경제와 ‘대동강 프로젝트’

평안도 지역 수출입 무역은 평양의 외항(外港)이자 평안도 전 지역과 황해도를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진남포(鎭南浦)의 거래상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청일전쟁 이후 1897년 10월 목포와 함께 국제교역 단위의 대항구로 건설되기 시작한 진남포는 러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북진과 이후 전투의 중심이 만주와 중국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요충지로 무역거래액에서 큰 호황을 보이고 있었다.⁵⁵⁾

먼저 진남포의 상황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일전쟁 기간 함경도 원산을 제치고 한국의 8개 무역항 중 제3위의 무역항으로 부상한 진남포는 수입의 현저한 증가와 약간의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당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원산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8위인 성진은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수출은 기록이 없을 정도로 전무한 상태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03년 대비 진남포의 1904년 수입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주요원인은 식료품, 영미 및 일본제 옥양목(Sheeting), 담배 등 증가하는 북진일본군의 군수품 조달과 경의선 철도 공사를 위한 철도 재료 수용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1905년에도 이어졌다. 일부 수출의 감되는 미곡의 수요 감소가 가장 큰 것이었다.

다음은 진남포항 개항 이후부터 9년간의 장기지표이다. 〈표 14〉를 보면 진남포의 수출입 무역액은 앞의 『통상회찬』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통상국에서 작성한 동아시아 및 한국 전국 단위의 기록인 『통상회찬』보다는 현지 거주 일본인 상공회의소의 기록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97년은 10월 1일 진남포항이 개항한 관계로 3개월 간만 합산한 소액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완성되는 1899년부터 진남포는 국제무역항으로

55) 鎭南浦新聞社, 1910, 『鎭南浦案内記』, 28쪽.

〈표 13〉 주요 항구의 대외무역 수출입액(1902~1904년)

(단위: 圓)

지역	연도	1902년	1903년	1904년
	인천	입	7,978,485	10,109,220
출		2,642,415	3,497,826	2,458,060
진남포	입	612,092	915,814	2,316,900
	출	927,343	1,087,796	1,054,970
군산	입	102,071	411,045	594,102
	출	311,066	841,981	416,484
목포	입	210,850	311,653	310,165
	출	730,577	1,029,609	683,490
부산	입	2,711,204	4,210,633	6,410,318
	출	2,607,876	1,964,783	1,619,361
마산	입	32,979	29,212	48,897
	출	71,895	87,422	35,568
원산	입	1,876,267	2,180,764	1,058,245
	출	1,001,204	768,521	645,569
성진	입	7,492	50,842	11,802
	출	24,694	199,842	-
합계	입	13,542,429	18,219,183	26,805,380
	출	8,317,070	9,477,603	6,933,504

* 자료 출처: 『通商彙纂』, 「韓國三十七年對外貿易概況」(38년 9월 11일부 재정성제국영사관보고)에 의함.

〈표 14〉 진남포 무역액 규모(1897~1905년)

(단위: 1천 圓)

내역	연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1904년	1905년
수출액		151	86	568	406	542	928	1,098	1,151	1,362
수입액		8	45	133	154	391	622	926	2,413	3,201
합계		159	131	701	560	933	1,550	2,024	3,564	4,563
초과액		142(출)	41(출)	435(출)	252(출)	151(출)	306(출)	172(출)	1,262(입)	1,839(입)

* 자료 출처: 鎮南浦商工會議所, 1938 『鎮南浦港案内』, 115~116쪽.

** () 안의 '출'은 出超를, '입'은 入超를 표기한 것임.

서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인들이 '진남포의 황금시대'⁵⁶⁾로 불렀던 러일전쟁을 기회로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진남포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영주(永住)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시기부터 입초(入超) 현상으로 나타난다. 진남포는 이후 1909년 단계에 이르면 수입액 207만 6천원, 수출액 321만 5천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 직후부터 평안도 지역의 물가 또한 앙등하였다. 진남포의 경우, 그간의 관행이었던 외상 거래[延賣]는 사라지고 현금거래로 전환되었다. 또한 2월 12일부터 18일 일주일 간 진남포항의 모든 물가는 2배 내지 4, 5할 올랐다. 특히 수요가 많았던 주류 1통은 15원이었던 것이 35원으로 2배 이상이나 되었다. 평양은 50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하였다. 2월 하순에 이르면 물가는 평시의 3, 4할 정도로 점차 하강하였지만 반면 한화(韓貨)는 2배 이상 등귀하였다.⁵⁷⁾

평양의 경우, 개전 전과 개전 후의 물가상황은 <표 15>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평양 지역의 물가는 적게는 1.4배부터 많게는 3.5배까지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 시기 경제호황의 수혜자는 일본 군수품 조달상인과 전쟁특수에 편승한 일부 한상(韓商)뿐이었고,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물가가 나날이 급등하는 가운데 생필품 구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결과 평안감사는 요즈음 물가가 크게 올라 재정이 궁핍하고 더불어 허다한 접대비 등의 지출로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내부에 올리기도 하였다.⁵⁸⁾

전쟁이 평안도 지역 인구와 농업에 끼친 손해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화(戰禍)를 입은 곳은 정주-의주 간 대로변이었다. 1904년 6월 10일자 평안도 지역 민간인 병참조사관으로 파견된 혼마 규스케[本間九介]의 상

56) 鎮南浦史發行所, 1926, 『鎮南浦府史』, 45쪽.

57)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爭ノ通商航海ニ及ホセル影響調査一件 제2권, 명치 37년 2월 20일·29일(진남포 부영사 染谷正章→외무대신 小村壽太郎).

58) 『皇城新聞』, 1904. 4. 2.

〈표 15〉 러일전쟁 전후 평양의 생필품 물가상황

품명	수량	가격			
		개전 전(A)	개전 후(B)	B/A(%)	
白米	斤	12전	20전	167	
醬油	斤	20전	70전	350	
酒	斤	50전	1원	200	
비루(백주)	本	20전	60전	300	
사탕	斤	15전	30전	200	
味噌[된장]	斤	14전	30전	214	
麥	俵	1원 50전	4원	267	
石油	函	5원 70전	8원	140	
담배	Hero	箱	1원 60전	2원 30전	143
	天狗	袋	12전	17전	142
	忠勇	袋	5전	7전	140
	常聲	袋	5전	7전	140

* 자료 출처: 외무성 외교사료관, 『日露戰爭ノ通商航海ニ及ホセル影響調査一件 제2권』, 명치 37년 5월 25일(재평양 부영사 新庄順貞→외무대신 小村壽太郎).

** 'Hero'부터 '常聲'은 상품명이다.

세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이은 가뭄과 피난으로 파종 시기를 놓친 곳이 많았고 우마는 징발되고 종자는 말먹이로 되어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다. 혼마는 정주 성내의 민가 240~250호 중 6, 7채를 제하면 모두 빈집이었고, 차련관에는 300호 중 20호만 기거하였고, 선천의 600호 중 100호가 빈집이었고, 차련관은 피난으로 1/10도 남아있지 않았고, 개천은 25~26호가 불타 버렸다고 보고하였다.⁵⁹⁾

5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別冊 報告書 返戻 件」, 1904. 7. 8(한국주치군 참모장 齊藤力三郎→임시대리공사 萩原守一) 중 「別紙 1」, 「平安北道 視察報告書」: 「附屬書 1」, 「露·日戰 露·日 兩軍ノ通過地民間人ノ被害狀況調査書」, 1904. 6. 10.

반면 일본인들은 평안도 각처에서 점포 등을 개설하고 상행위를 하였고, 일본군대를 따라 다니며 영업하는 일본상인도 출현하였다. 이들은 소자본으로 잡화점 및 음식점, 인부에 대한 가옥 임대업 등을 하였는데, 일본군 병참부가 있던 평남 안주의 경우 1904년 5월 14명이 있었다.⁶⁰⁾ 중군기자 런던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물가가 하루하루 오르기 시작하였다. 인부와 마부 그리고 상인들은 물가를 올려 폭리를 취해 돈을 긁어모았다.”⁶¹⁾고 기록하고 있다.

진남포 지역은 1904년 5월 압록강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하면서부터 일본 해운회사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오사카[大阪]상선회사는 진남포-오사카-고베[神戸] 간 매 2일 1회 정기항로를 개설하였고, 니혼[日本]기선회사는 차입선 ‘오하요-’호로 매 3주 1회로 운항하였다. 또한 인천에서 새로 설립한 3개의 운상회(輪商會) 및 그간 활동하던 호리[堀] 회조점(回漕店: 해운대리점), 요시카와[吉川] 회조점도 기선을 확대하여 진남포와 한국 각 개항장 또는 진남포와 일본 국내 간 해로교통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일본선박은 기선·범선·정크선을 포함하여 약 6만 톤이 증가되었다. 반면 뤼순(旅順) 방면의 장기선으로 중국상선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⁶²⁾

러일전쟁을 시작으로 일본어민의 한국 내 어업은 직접 이주의 형태로 바뀌어 가는 추세였고,⁶³⁾ 평안도 지역 역시 일본어민의 진출로 어업권이 침탈당하게 된다. 러일전쟁이 발발된 지 한 달이 지난 3월에 일본공사는 우리 정부에 조회하여 이전 1883년 「통어장정(通漁章程)」으로 확정된 지방 외에 추가로 황해·평남·충청도 연해어업을 인허하라고 강요하였다. 그 결과는 1904년 4월 16일 ‘통어구역확장’의 고시로 발표되었고 지역의 어업을 잠식해 나가게 된다.⁶⁴⁾ 일본인 어업허가에 따른 진남포 일본어민들은 6월 25일 총 5,100원의 자

60) 外務省 外交史料館, 「堀場 警部復命書提出ノ件/各國內政關係雜件/韓國ノ部 第4券」, 1904. 6. 16(新庄順貞 보고).

61) 잭 런던·윤미기 역, 앞의 책, 54쪽.

62) 『通商彙纂』, 「鎮南浦三十七年貿易年報」(38년 2월 2일부 재진남포제국영사관 보고).

63) 朴光淳, 1994, 「日帝의 韓國漁場 침탈과 漁民의 對應」, 『經濟史學』 18, 74~78쪽.

6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通漁區域擴張告示ノ件」, 1904년 4월 일(荻原 대리공사

본으로 진남포에 어시장조합을 신설하고 조합 규약을 작성하였다.⁶⁵⁾ 그런데 이 ‘규약’은 대한제국 정부에 세금 납부는 커녕 조합이 자율적으로 면세조항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6월 16일 공식 허가와 더불어 와카야마[和歌山]현 사람 무라카미 카쿠료우[村上鶴龍]는 모선 1척과 어선 15척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전쟁 기간 일본공사 하야시는 평안도와 황해도에 농상무성 기사 시모 게이스케[下啓助]를 파견하여 일본인 어업근거지 설치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05년 1월 시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통어구역(通漁區域)이 된 이 지역은 어획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현지에 적합한 어민을 선택하여 이주시키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가 선택한 어업근거지는 평안도의 단도(檀島), 황해도 초도(椒島)와 루파항[巡威島 및 龍威島]이었다. 그는 특히 단도는 도미·조기·민어·갈치·새우·장어 등의 어장과 가깝고 주위에 의주를 비롯한 유망한 시장이 있고 장래에 중국 요동반도까지 판로를 확대시킬 것을 전망하고 있었다.⁶⁶⁾

이같은 평안도 진출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의 신장과 더불어 중의원 의원 아다치 겐조[安達謙藏]의 발의와 청원에 따라 1904년 12월에 자본금 1,880원으로 하는 『평양신보(平壤新報)』 발간이 준비되었다. 이 신문은 1905년 7월 10일 격일 6면 한일문(2면은 한글, 4면은 일문)으로 첫 호가 발간되었다.⁶⁷⁾

같은 기간 일본 정부의 적극적 원조에 의해 진남포 거류민단장 하라다 데

→小村 외무대신, 告示의 공식 제목은 「韓日兩國人民換採區域條例」로 1904년 6월 4일부터 20년을 기한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의 자유 어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일본 내 어로활동은 형식상 명분에 불과하였다.

- 65) 外務省 外交史料館, 「漁業關係 報告 第3卷:鎮南浦」, 1904, 7, 16(진남포부영사 染谷正章 보고).
- 6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平安黃海兩道沿岸漁業根據地設置ニ關スル件」, 1905, 1, 16(林 공사→小村 대신). 시모가 계상한 단도의 토지수용비·가옥건축비 등은 총 9,175원이었다.
- 67) 外務省 外交史料館, 『新聞雜誌操縱關係雜件/平壤新報』 중 「平壤新報社設立意見書」, 1904, 12, 26(安達謙藏→외무대신 小村壽太郎) 및 「平壤新報 發刊 報告의件」, 1905, 7, 15(평양 부영사 新庄順貞→小村壽太郎).

쓰사쿠[原田鐵策]는 거류민을 대표해서 공사 하야시에게 다음의 내용을 청원하였다. 하라다에 따르면 즉, 1903년까지 진남포 거류 일본인은 500~600명에 불과하였는데 1904년 봄 러일전쟁과 더불어 도항자가 크게 증가하여 1905년 6월 현재는 5천여 명, 1천여 호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일본인 이주자들은 진남포에 가옥을 신축하고 향만 매축공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 지역 상권은 일본인이 독점하게 되었고 향후 이주자는 3천여 호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구축 중인 평양철도의 완공과 함께 일본의 이권과 거류민의 행복과 이익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⁶⁸⁾

하라다가 보는 진남포는 중국을 포함하는 일본이 주도하는 한국 내의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무역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이는 '대동강 프로젝트'라 명명할 만한 식민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련하고 일본인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당시의 신문에 따르면 평양성 내외에는 일본인들이 부지런히 집을 구입한 결과 집값은 크게 10배나 폭등하였고, 종로 등지는 일본인 거주지를 방불케 하였다 한다.⁶⁹⁾

평양에 살고 있던 어떤 한인은 시세의 1/4에 해당되는 값으로 그들의 집을 팔도록 일본의 민간인들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거역하였다가 일본인들에게 잡혀 이웃에 있는 일본인 마을로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았다.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그는 치욕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르핀으로 자살하였다. 그의 시체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일본인들은 다시 그의 집에 와서 미망인에게 앞서 말한 값으로 집을 팔도록 요구하였다. 그 여자는 집을 팔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노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의 일이 어찌 되었는지에 관해서 나는 들은 바가 없다.⁷⁰⁾

68) 外務省 外交史料館, 『鎮南浦-平壤間 鐵道敷設 一件』, 「請願書」, 1905. 6. 20(原田鐵策-林權助).

69) 『大韓每日申報』, 1905. 2. 15.

70) Homer B. Hulbert, 1906, 앞의 책, 215~216쪽.

이는 전시라는 특수상황을 빙자하여 지역민들의 민가를 무단으로 징발 사용하고 민유지를 필요 이상으로 획정 점유하고 군대의 힘으로 이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더불어 주민의 노동력을 부역의 형태로 동원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VI. 맺음말

러일전쟁은 ‘애국주의’ 인식이 가장 팽만한 제국주의 시기, 일본 국내의 ‘거국 일치’ 동원의 최종 결론이었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와 한국인들은 일본의 전쟁 동원 체계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상황에서 강제된 조약과 급조된 군율(軍律)을 근거로 한 집단적·조직적 동원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으로 가옥이 불타고 연도의 주민들은 사방으로 피난하고, 전시 축성(築城) 강제동원, 물가폭등과 한전(韓錢) 시가의 앙등으로 평안도와 평양주민은 고통받은 경험이 있었다.⁷¹⁾ 이후 흩어진 지역민들이 다시 귀향하여 겨우 모습을 갖추는 시기에 다시 1904년 러일전쟁으로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 10년 전 과거의 공포감과 실제 고통이 재현되었다. 그러나 사실 처음 3개월여를 제하면 전투 그 자체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외적인 요소였다.

국내에서의 일본의 러시아와의 전투는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국지전이 지속되는 양상이었다. 평안도 지역의 전투는 초기에 종결되고 이제는 만주와 중국 산둥지방으로 주 전선이 이동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도 지역 주민의 질고는 러일전쟁 전 과정에 점철되어 있었다. 전쟁의 전체

71) 이에 대해서는 조재곤, 2015, 『청일전쟁의 새로운 이해: 한국 내에서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참조.

진행구도는 초기에는 러시아, 이후는 일본 측의 인적 물적 '동원' 필요성 때문
에서였지만 병참전략의 심각한 문제는 야만적 형태로 표출되었다.

당시 각종 보고서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 지역 피난의 형국은 청일전쟁
기간 비유된 바 있었던 이른바 '십실구공'⁷²⁾도 아닌 마을이 완전히 텅 비어 버
린 '십실십공(十室十空)'의 총체적 엑소더스(exodus)였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일부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과다한 지역 할당제로 어렵게 동
원한 일부 전쟁 사역 인부들의 소규모 절도 행위나 그에 대한 동료와 주민들의
묵인도 전시 '군율'과 '지정불고지죄(知情不告之罪)'를 적용한 참형(斬刑)과 총
살, 가혹한 매질 등으로 처리하였다. 전쟁의 승리감에 고취된 일본 군인과 일
본인 여부들의 '일탈의 일상화'로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전시 물가폭등과 전쟁비용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군용수표의 광범위
한 유통으로 지역민의 생활고는 유래없이 피폐하였고 화폐주권도 전국 어느
곳보다도 제약되었다. 거기에 더해 평양과 진남포의 식민지형 도시 인프라 구
축과 일본인 이민을 염두에 둔 중장기 '대동강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질서재편
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민은 생계의 터전인 경작지
를, 도시 주민은 철도부지 명목으로 주거공간을 빼앗겼다. 어민 또한 어업권과
어장까지도 일본 어민에게 빼앗기고 어업노동자로 전략하였다.

이반된 흥흥한 민심과 함께 새롭게 세력확충을 도모하거나 자신과 지역방
어를 위한 일진회(一進會)·동학(東學)·백학(白學)·의병(義兵)·민병대[忠
義社와 趕衛社]가 이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동시에 출현하는 역사성도 여
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72) 『甲午實記』, 일자 미상. 이는 평양 이북부터 의주까지의 지역사정을 언급한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4, 『舊韓末條約彙纂』(上), 東亞出版社.
- 로스푸노프 의 전사연구소 편 · 김종현 역, 2004, 『러일전쟁사』, 건국대출판부.
- 朴鍾孝, 2014, 『한반도 分斷論의 起源과 러·일戰爭(1904~1905)』, 도서출판 선인.
- 申福龍 역, 1984, 『大韓帝國滅亡史』, 평민사(Homer B. Hulbert, 1906, *The Passing of Korea*, William Heinemann Co., London).
- 심현용, 2011,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李寅燮, 1911,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二, 文明社.
- 잭 런던 · 윤미기 역, 2011, 『잭 런던의 조선사람 옛보기: 1904년 러일전쟁 중군기』, 한울.

- 鎮南浦史發行所, 1926, 『鎮南浦府史』,
 鎮南浦商工會議所, 1938, 『鎮南浦港案内』,
 鎮南浦新聞社, 1910, 『鎮南浦案内記』,
 幣原坦, 1905, 『日露間之韓國』, 博文館.

논문

- 朴光淳, 1994, 「日帝의 韓國漁場 침탈과 漁民의 對應」, 『經濟史學』 18.
- 曹健, 2005, 「日帝 '韓國駐劄軍' 經理部의 활동과 韓國民의 대응(1904~1910)」, 동국대 석사논문.
- 조재근, 2013,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
- 조재근, 2013, 「전쟁과 변경: 러일전쟁과 함경도의 현실」, 『동북아역사논총』 41.
- 조재근, 2015, 「청일전쟁의 새로운 이해: 한국 내에서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연구』 74.
- 차경애, 2010, 「러일전쟁 당시 전쟁전문목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중국 근현대사연구』 48.
- 梅谷敏彦, 2012, 『日露戰爭, 資金調達の戦 - 高橋是清と歐米バンカーたち』, 新潮社.
- 石川亮太, 2004, 「日露戰爭軍票の流通實態と日本の對應 - 滿洲通貨政策の起點として」, 『軍事史學』 제40권 제2·3合併號, 軍事史學會.
- 石川亮太, 2012. 11. 2, 「帝國의 인프라와 仁川華商 - 러일전쟁 전후를 중심으로」, 인

천시립박물관·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神山恒雄, 2008, 「日露戦争時公債の發行とその影響」,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鈴木俊夫, 2005, 「日露戦争時公債發行とロンドン金融市場」, 『日露戦争研究の新視点』, 成文社.

片山徹, 1986, 「日露戦争以降の財政・金融構造」, 『經濟論叢』 제138권 제5·6호, 京都大學 經濟學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러일전쟁과 평안도의 사회경제상

조재곤

러일전쟁은 ‘애국주의’ 인식이 가장 팽만한 제국주의 시기, 일본 국내의 ‘거국 일치’ 동원의 최종 결론이었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전쟁동원 체계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상황에서 조약 및 급조된 군율(軍律)을 근거로 한 집단적·조직적 동원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러일전쟁의 전투상황보다는 그 기간 일본군의 만주진출을 위한 한국 내의 거점 확보와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만 하였던 평안도의 사회생활과 지역경제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미치는 의미와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지역은 러일전쟁 시기 육상전의 핵심 동선이었다. 이 기간 평안도 지역은 10년 전 청일전쟁 시기의 경험을 통한 이중의 충격이 지속되었다. 평안도에서의 러시아와 일본 간 전투는 1904년 5월 압록강 전투를 기점으로 실제적으로 종식되었다. 그런데 이후 러일전쟁 종전까지 지역의 모든 일상사는 일본의 의지에 전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일본군의 중국 대륙침략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일본은 인력과 물자의 강제동원을 지속시키면서 본국의 병참인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당시 각종 보고서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 지역 피난상황은 마을이 완전히 텅 비어 버린 총체적 Exodus였다. 남아 있던 일부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어렵게 동원한 일부 전쟁 동원 인부들의 소규모 절도 행위나 그에 대한 동료와 주민들의 목인도 전시 ‘군율’과 ‘불고지죄(不告之罪)’를 적용한 참형(斬刑)과 총살, 태형(笞刑) 등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물가폭등과 군용수표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지역민의 생활고는 유래없이 피폐

하였고 화폐 주권도 전국 어느 곳보다도 제약되었다. 거기에 더해 평양과 진남포의 식민지형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일본인 이민을 염두에 둔 ‘대동강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질서 재편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민은 경작지를, 도시 주민은 주거공간을, 어민은 어업권과 어장까지도 일본 어민에게 빼앗기고 어업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주제어

러일전쟁, 청일전쟁, 평안도, 군사동원, 군용수표, 군부(軍夫), 평양, 진남포



[ABSTRACT]The Russo – Japanese War and the Socio – economic Situation
around Pyeongan Province

Cho Jaegon

The Russo – Japanese War resulted from the slogan “National Unity” in Japan during the imperialist period of the greatest awareness of “patriotism.” Although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included in the Japanese war mobilization system, it became the object of collective and organized military mobilization and exploitation based on the treaties and provisional military rule during wartime.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he Japanese military gained the ar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invade Manchuria, and, furthermore, on how Japan placed restrictions on social life and the local economy in Pyeongan Province, which had to play the role of a future colonial town, and the meanings and influences of these restrictions, and does not focus on the military situation during the Russo – Japanese War.

The Pyeongan Province region concentrated in Pyongyang was the central zone for overland warfare during the Russo – Japanese War. During that period, the Pyeongan Province area underwent constant doubled shocks in the aftermath of the Sino – Japanese War of ten years earlier. The Russo – Japanese War in Pyeongan Province came to a real end at the Yalu River battle in May, 1904. But from that time until the end of the war, every matter in the region was decided by Japanese Imperialism, because the region performed roles as advanced bases for Japanese troops to invade the Chinese mainland. Japan continued the

forceful mobilization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used for substitute soldiers drafted.

As stated in various reports at that time, the areas from which refugees had fled remained empty, which could almost be considered a massive exodus. The miserable lifestyles of some local residents who remained there were too appalling to be seen. If some workers barely drafted into battle were found to have committed a petty theft and their friends or local residents turned a blind eye, they were punished by being beheaded, shot, or receiving lashes for the violation of “military rule” and the crime of “not reporting bad deeds.” With prices surging and military currency in widespread circulation, local residents experienced unprecedented, devastating lives. The regions were restricted in currency stocks more so than anywhere else in the nation. In addition, building colonial urban infrastructure in Pyeongyang and Jinnampo and reorganizing the order of a particular region through the “Daedong River Project,” mindful of Japanese immigrants, was another factor that ruined the lives of those people. In the process, peasants were deprived of farmland and urban residents of housing space. And fishermen were reduced to fishing workers, having been deprived of their fishing rights and even fishing grounds by Japanese fishermen.

Keywords

Russo–Japanese War, Sino–Japanese War, Pyeongan Province, Military mobilization, Military currency, Military laborers, Pyeongyang, Jinnampo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

김인덕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23년의 조선인학살 사건은 일본인의 유언비어에 일본 민족과 사회가 관동대 지진을 빌미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관동 지역 가운데 도쿄도[東京都], 치바현[千葉縣],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바라키현[茨城縣], 도치기현[栃木縣], 군마현[群馬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을 중심으로, 특히 일본 민중과 군·경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학살은 아직 현재까지도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¹⁾ 조선인학살 사건 발생 직후 일본 내에서의 관련 조사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가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²⁾

※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8월 17일

- 1) 강효숙, 2013,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지금까지는 실증적인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여러 이유 가운데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식민지 과거사 은폐 야욕과 한국 정부의 무성의함을 들 수 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관한 일반 연구의 시작은 1950년대 후반부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60년대 제일조선인 연구자들에 의해 비로소 “조선인학살”이라고 불렸다. 여기에는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도 일조하였다.³⁾

이 분야의 연구는 강덕상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말 그는 주목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2005년 그의 저서는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되었다.⁴⁾ 이와 함께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다나카 마사다카[田中正敬]를 들 수 있다. 야마다는 강덕상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는 길을 걸어왔던 연구자로 1970년 중반부터 한국, 중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후 꾸준하게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그는 조선인학살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 이를 일본인에게 널리 알려 반성과 참회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⁵⁾

최근 가장 왕성한 현지 조사를 선도한 사람은 다나카이다. 그는 관동 지역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특히 국제 사회에서 조선인학살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극명히 드러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학살 과정에 대한 대처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선에서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⁶⁾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근대국가 출현과 관련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 2)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98~102쪽.
 - 3) 하니 고로[羽仁五郎]의 논문과 도자와 니사부로[戸沢仁三郎], 후지시마 우나이[藤島宇内]가 1923년 관동대지진 관련 대담에서 사용하면서 이후 정착되었다.
 - 4) 姜徳相, 2003, 『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靑丘文化社(강덕상 지음, 김동수·박수철 옮김, 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그리고 주목되는 자료집을 간행하였다. 姜徳相, 琴秉洞 編, 1963, 『關東大震災と朝鮮人(現代史資料 6)』, みすず書房.
 - 5) 山田昭次 저, 이진희 역,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 6) 田中正敬, 2003. 8, 「關東大震災はいかに伝えられたか」, 『歴史地理教育』 657.

소냐량[Sonia Ryang]은 일본 근대국가 출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상정하였다.⁷⁾ 이진희는 조선인학살을 제국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는 조작된 폭력이 제국 통치의 일환으로 그 대상을 조선인에게서 찾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⁸⁾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역사학 전공자들⁹⁾과 일본 지역 연구자들이 부분적으로 일본 내 연구 성과를 도입하여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¹⁰⁾ 아울러 일본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¹¹⁾ 이와 함께 90주년을 맞은

7) ソニア・リヤン, 中西恭子 譯, 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8) JIN-HEE LEE, 2004, "Instability of Empire: Earthquake, Rumor,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Japanese Empire," University of Illinois Ph.D.Dissertation; 이진희, 2008, 3, 「관동대지진을 추도함-일본제국의 '불령선인'과 추도의 정치학」, 『아세아연구』(131).

9) 申載洪, 1984,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 『史學研究』 38호; 이진희, 2008, 「관동대지진을 추도함: 일본제국의 '불령선인'과 추도의 정치학」, 『아세아연구』 131호; 박경하, 2009, 「1930년대 한 조선청년의 구직 및 일상생활에 대한 일고찰-『旣判鈺日記』(1918-1947)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1호.

10) 이연, 1992,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27; 김인덕, 1993, 9,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순국』(32);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총독부의 '震災處理'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노주은,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學林』 29집,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이형식, 2010, 「중간내각 시대(1922, 6~1924, 7)의 조선총독부」, 『東洋史學研究』 113집; 김인덕, 2010, 12,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 및 서술 경향」, 『한일역사쟁점논집-일본 역사교과서 대응 논리』, 동북아역사재단; 노주은, 2013, 8,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104); 장세운, 2013, 8,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람』(46); 강덕상 외 지음, 2013, 1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11) 이지형, 2004, 「마사무네 하루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人を殺したが)'의 풍경-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 『일본문화연구』 10집; 이지형, 2005,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3집; 성해준, 2007, 「日帝期 한국 신문을 통해 본 大杉榮」, 『일본문화연구』 24집; 조경숙, 2008,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 『한국일본학연합회 제6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김홍식, 2009, 「관동대지진과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호; 김지연, 2011, 「다케히사 유메지와 관동대

각종 학술회의가 한국과 일본에서 있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선행연구는 “피해자의 수”, “학살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계엄령”과 조선인학살 분위기를 조장한 일본 정부의 기묘한 움직임과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는 학살 이후 재일조선인이 생존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학살 현장에 있던 최승만은 1923년 도쿄 조선YMCA의 간사가 되고, 이듬해 1924년 총무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는 목숨을 건졌고 천도교청년회 등과 협력해서 조선인학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문제는 이런 사실과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어 왔다는 점이다.¹²⁾ 이 글은 여기에 주목해 1923년 관동대지진 전후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의 동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이 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1923년 관동대지진 전후 일본 사회운동세력의 조선 이해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의 동향을 보겠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재일조선인 사회, 운동세력의 대응에 대해 서술하겠다. 나아가 1923년 이후 일본 국가의 대응과 사회운동세력의 움직임, 재일조선인의 움직임을 통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둘러싼 동향, 기억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¹³⁾

지진 그리고 조선-회화와 사상성, 『아시아문화연구』 21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
 구소;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2012, 「계엄령에 대하여-관동대지진을 상기
 한다는 것」, 『일본비평』 7호, 서울대 일본연구소; 황호덕, 2012, 「재난과 이웃, 관
 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
 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호.

12) 정희선 외 역, 2013, 『재일코리아사전』, 선인 참조.

13) 이 글은 1920년대의 재일조선인 관련 제한된 자료를 취급한다.

II. 1920년대 초 재일조선인과 일본사회

1_ 1920년대 초 일본사회운동과 조선 이해

1923년 관동대지진의 전야에 해당하는 1921년부터 1923년은 전반적으로 재일 조선인 운동과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동향, 그리고 노동운동에 양측 연대 지향이 나타난 시기였다.¹⁴⁾

1921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에 걸쳐 코민테른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극동노동자대회에서, 가타야마 센[片山潛]과 도쿠다 큐이치[徳田球一] 등 일본인 대표단은 ‘일본에 있어서 공산당원의 임무’에서, 일본인 공산주의자가 당면 실현해야 할 4개의 과제의 하나로서 식민지, 식민지적 세력권의 해방을 거론하였다.¹⁵⁾

이런 분위기는 난카츠 노동회[南葛勞働會]의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와 같은 사람의 발언을 통해 국제연대로의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적극적인 국제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일 노동자의 궁극적인 과제로서 식민지 지배의 폐기, 눈앞의 과제로서는 민족차별 임금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이미 1922년 11월부터 재일조선인 전호엄은 난카츠노동회 가메이도[亀戸] 지부에 소속해 활동하였다. 따라서 가와이는 눈앞의 과제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20년대 일본 사회운동 세력의 조선인에 대한 연대적 표현의 글은 많이 확인할 수 있다.¹⁶⁾ 주요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4) 山田昭次, 2013, 「일본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금일의 일본의 정치적 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15) 岩村登志夫, 1979년 5월, 「極東勤勞者大会日本代議員採擇綱領」, 『史林』 第62卷 第3号, 147쪽.

16) 다음의 글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石坡浩一, 1993, 『近代日本の社會主義と朝鮮』, 社會評論社; 김계자 저, 이민희 역, 2012, 『일본 프로문학자의 식민지 조선』

- (1) 『前衛』 1922년 3월호 「朝鮮人으로부터 日本の 勞働者로」: 이 논설은 조선인운동은 “편협한 국수운동도 아니고, 또 원래부터 우리들만의 민족운동도 아니다. …… 우리들도 세계 무산계급의 일부이다”라고 하여, 일본인 노동자와의 연대를 요구하였다.
- (2) 1922년 7월 29일자 『読売新聞』, 「信濃川 朝鮮人虐殺事件」: 新潟県 信濃川の 지류인 中津川の 발전소 공사를 청부한 토건회사 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학살을 보도한다.¹⁷⁾
- (3) 『前衛』 1922년 9월호 「日鮮勞働者の 단결」, 「당면의 문제」(山川均): 일본인 노동자의 조합운동은 조선인 선각자에 대한 민족차별 임금의 폐지를 운동의 슬로건으로 할 것을 제기하였다.
- (4) 『赤旗』 1923년 4월호 「無産階級으로부터 본 조선해방문제」: 동지 편집부로부터 제출된 앙케트 조사 내용이다. 27명의 일본인 사회주의자·노동운동가와 2명의 조선인의 회답이 게재되었다. 여기에서 야마가와 히토시[山川均]는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식민지의 포기를 권력자에게 압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그 때문에 “조선의 무산계급과 나란히 그 대표자에 대해 가능한 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보면 국제연대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념을 넘어 현실의 투쟁에서 조직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1923년 관동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현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다.

인 자료 선집』, 문.

- 17) 1922년 8월 초순, 경성에서 조직된 新潟県 朝鮮人虐殺事件調査會와 도쿄 거주의 조선인이 현지조사를 한다. 山田昭次, 1996, 『金子文子－自己・天皇制国家・朝鮮人』影書房, 123~124쪽. 그리고 9월 7일 東京市 神田区 美土代町の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信濃川朝鮮人虐殺事件調査會 주최의 조사보고회가 개최되었다. 9월 9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회장 내에 일본인 약 2천 명, 조선인 약 5백 명, 회장 밖에 수 천 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인 사이에도 제일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_ 1920년대 초 재일조선인의 동향

실제로 민족문제보다 국제연대를 우선적으로 사고하던 재일조선인은 이미 국제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운동에 깊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과 일본의 사회운동 고양의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1922년 5월 1일 도쿄시[東京市]에서 개최된 제3회 메이데이에 참가한 백무는 조선인 동료와 함께 인사를 하고, 일본인 노동자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¹⁸⁾ 그는 이전에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인 일본인 지식인과는 친근감을 갖고 접하였는데, 일본인 노동자와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 노동자와의 교류를 구하려고 1922년 메이데이에 참가하였던 것이다.¹⁹⁾ 이후 1923년 일본의 메이데이 집회에도 재일조선인이 계속적으로 참가하였다.²⁰⁾ 당시 재일조선인에게 있어 메이데이의 의미는 조·일 양국 프롤레타리아의 동일한 적에 대한 승리를 위한 협동전선을 구축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²¹⁾

1922년 재일조선인에게는 노동운동 조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도쿄[東京]조선노동동맹회의, 12월에는 오사카[大阪]조선노동동맹회가 결성되었다.²²⁾ 이미 재일조선인 특히 학생과 노동자의 의식은 급속히 성장했고, 이것이 기반이 되었다. 1923년 5월 14일자 내무성경보국보장의 각 부현 장관 앞으로 보낸 「조선인노동자 모집에 관한 건의명 통첩」은 “내지 경제

18) 메이데이를 맞이하여 재일조선인이 일본노동총동맹 주최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은 1922년부터였는데 송봉우[백무]의 회고에는 그가 참가하지 않았다(吉岡吉典, 1965. 6, 「朝鮮人がはじめて参加した第3回メーデー前後 - 白武氏にきく -」, 『朝鮮研究』(40), 32쪽), 백무 등이 참가하였다. 金熙明, 1927. 5, 「メーデーを前にして」, 『文藝戦線』(4-5), 132쪽.

19) 吉岡吉典, 1965년 6월, 「朝鮮인이 최초로 참가한 第3回 메이데이 전후 - 白武氏에게 듣다」, 『朝鮮研究』 第40号, 32쪽.

20) 1924년 집회에서는 조선인 노동자가 제출한 '식민지 즉시 해방'이라는 표어가 일본 노동총동맹의 간부들에 의해 이유없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金熙明, 1927. 5, 앞의 글, 133쪽.

21) 朱鐘建, 1923. 5, 「メーデーと朝鮮の問題」, 『進め』(1-4), 참조.

22) 内務省警保局保安課, 1975, 「大正十五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 朴慶植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1卷, 三一書房, 215쪽.

의 부진에 즈음하여 이들 조선인의 다수는 취직난에 고통받아 부랑자로 변할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에 참가하여 단체행동으로 나설 경향도 있다”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사상적 성장에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였다.²³⁾

이 시기에는 김종범, 주종건 등도 조·일 노동자의 연대를 주장하였다.²⁴⁾ 다만 일본인 논자들 가운데는 조선인에 대해 많은 일본인 민중이 갖는 편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도 종종 있었다.²⁵⁾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폐기, 눈앞의 과제로서 민족차별 임금의 폐지를 일본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주목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천재지변의 상황은 이런 인식을 현실에서는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한편, 1923년 9월 1일 이전 재일조선인 사회의 주요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⁶⁾

- 1월 도쿄에서 흑우연맹이 10여 명이 참가하여 창립
- 1월 북성회가 변희용, 김종범, 백무 등 50명으로 결성되어 공산주의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발족
- 2월 하코다테[函館] 조선인노동자 ‘북조선노무조합’의 노동조합 결성
- 2월 제주도와 오사카 간의 정기항로가 개설됨: 일본으로의 도항자 급증으로 조선우선과 아마사키우선[阿崎郵船] 두 회사가 정기항로 개시

23) 朴慶植, 1976, 『在日朝鮮人運動史－解放以前』, 三一書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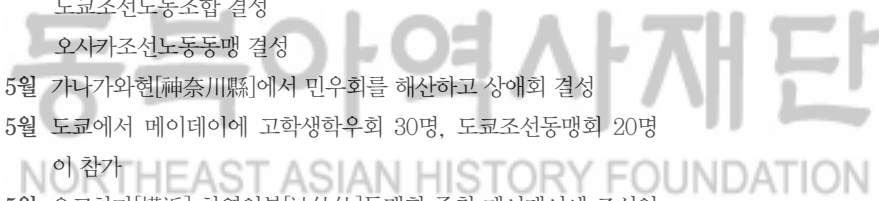
24) 山田昭次, 2013, 「일본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금일의 일본의 정치적 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34쪽, 42~43쪽.

25) 예를 들면 釜夫連合組合車合會의 坂口義治는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우리 일본 민족은 이와 같이 두려워해야 할 인류 상의 대의를 무시하고, 동시에 조선민족을 정복지배하려는 의도를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일본민족의 대다수인 무산계급은 이미 여기에 착안하고 있다. 단지 남은 것은 각성을 모르는 소수의 권력자만이다.” 山田昭次, 2013, 「일본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금일의 일본의 정치적 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38쪽.

26) 姜徹, 2002,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22쪽.

- 3월 박열 등이 불령사 결성
- 4월 유진걸이 『신광』을 창간(500부 발행)
- 4월 교토대 조선동창회지 창간
- 4월 이동화가 『황인시론』을 창간(1,000부 발행)
- 4월 오사카에서 조선신문 『조선일보』를 창간하였다가 바로 발행금지 처분 받음
- 4월 북성회 기관지 『척후대(斥候隊)』(한글)를 창간
- 4월 도쿄의 고마바[駒場]에서 유학생학우회 주최 조선인학생 노동자 연합 춘계 운동회가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림
- 4월 나고야[名古屋]에서 조선인과 나니와구미[浪花組]가 업무 관련으로 다툼
조선무산청년회가 결성
도쿄조선무산청년동맹 결성
도쿄조선노동조합 결성
오사카조선노동동맹 결성
- 5월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 민우회를 해산하고 상애회 결성
- 5월 도쿄에서 메이테이에 고학생학우회 30명, 도쿄조선동맹회 20명이 참가
- 5월 요코하마[横浜] 하역인부[沖仲仕]동맹회 주최 메이테이에 조선인 인부 2명 참가
- 5월 일본 정부 내무성 통달로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건'을 공포
- 5월 효고현[兵庫縣] 무코가와[武庫川] 이서(以西)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야회 간친회
- 6월 재일조선무산청년회가 이현, 백무 등을 중심으로 결성
- 6월 도쿄에서 조선인노동자대회 개최
- 7월 북성회의 김약수 등은 일본인단체 스스메사[進め社]의 기타하라 다츠오[北原龍雄],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등의 지원을 받아 다카츠 마사미치[高津正道]의 효민회와 조선내지순회강연단을 편성하여 조선에서 강연을 하면서 사상·노동 단체의 결성 촉진

재일조선인은 각종 항일운동 조직을 결성하였다. 흑우연맹, 북성회, 북조선노동조합, 불령사, 조선무산청년회, 도쿄조선무산청년동맹, 도쿄조선노동조



합, 오사카조선노동동맹 등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중적 선전, 선동을 위해 『신광』, 『조선동창회지』, 『황인시론』, 『조선일보』, 『척후대』 등을 간행하였다. 특히 일본 사회운동세력과 조직적 연대를 통해 국제연대의 실현을 조선 내 공동 강연단을 조직함으로써 실행으로 옮겼다.

Ⅲ.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재일조선인 사회

1_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일상적 기억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은 도쿄, 요코하마 일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간토 지방에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0만 명의 사망자와 1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최소한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당하게 된 요인 중에는 유언비어를 들 수 있다. 조선인을 학살한 유언비어의 내용은 주로 조선 사람들이 관동대지진의 혼란을 틈타서 폭행·약탈·방화·부인능욕·폭탄투척·집단습격·우물에 독극물 투약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일 오후 3시 경에는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의 방화가 많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일본 언론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보도하여 조선인들의 학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도쿄니치니치신보(東京日日新聞)』은 9월 1일자로 일본에서 최초로 관동지진에 관한 뉴스를 호외로 발간하였고, 9월 3일에는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1면 톱으로 보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²⁷⁾

27) 김인덕, 2013, 「한국 역사교육 속의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역사와 교육』 16; 강덕상 외 지음, 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

이런 과거의 기억을 통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최악의 학살 현상이었다. 당시 어린이와 학생의 증언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그 진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⁸⁾

- (1) 이시하라 하시²⁹⁾: 9월 1일 아침, 학교에서 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시 놀고 있었다. 점심 때가 되어 어머니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흔들 집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물이 나왔다. …… 조선인이 사람을 죽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인이 오니까 모두 모이시오’라고 해서 몸이 딱 얼어붙어서 부들부들 떨렸다. …… 오빠와 언니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섰다. 마침 그때 조선인이 도망오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통나무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조선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 그 중 한 조선인은 죽어버렸다.
- (2) 가키자키 요시오³⁰⁾: 3일째 우리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조선인들의 무리였다. 시민들은 모두 손과 손에 긴 대나무 갈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와아!”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돌려 보냈다. …… 조선인 소동이 대부분 진압되었기 때문에, 5일 드디어 요코하마를 떠나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보니 요코하마역에 조선인이 벌렁 누운 채로 죽어 있었다.
- (3) 후지모리 아키마사³¹⁾: 내가 지진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였다. 그 지진으로 닛포리역쪽으로 우리집 모두가 피난하였다. 그런데 불길 이 잡혀서 3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사카모도 파출소 근처에 왔을 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동이 일고 있어서 오빠가 무슨 일이냐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조선)인이 나쁜 짓을 해서 잡혔어”라고 하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었다. 그때 **(조선)인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두들겨맞은 것을 보니 가엾

사재단.

28) 1993, 9,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어린이 증언수기」(본 내용은 『조선인 학살관련 아동증언자료』, 녹음서방, 1989의 일부임), 『순국』 32.

29) 5학년 여학생으로 요코하마시 고토부키소학교에 다녔다.

30) 6학년 남학생으로 요코하마시 고토부키소학교에 다녔다.

31) 5학년 여학생으로 도쿄시 류센소학교에 다녔다.

은 생각도 들고 울화도 치밀었다.

- (4) 이토 기이치³²⁾: 자경단이 가끔 얼씬거리는 것과 등불 빛은 으스스함을 더해주었다. …… “***(조선)인이 왔다! 잡아라!”하고 어둠을 꿰뚫는 소리에 나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래서 소리나는 쪽으로 뛰쳐나갔다. “죽여버려! 죽여버려!”하면서 강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무기를 꺼내서 뭔가 시커먼 것을 두들기고 찌르고 하고 있었다. …… 잠시 후 “***(조선)인이 폭탄·철포·피스톨 등을 가지고 운하처럼 쳐들어왔으니 모두 힘껏 분투하라”고 하였다. 경고문이 나오자 굉장한 총성이 대지를 흔들었다. 나는 나무토막을 버리고 돌맹이를 집어들었다. 내 마음 속에는 결사(決死)라는 것이 새겨졌다. 요란한 경종소리, 나팔소리, 끔찍한 종소리 …… 그러나 ***(조선)인이 노는 기미도 없고 나팔소리, 경종소리, 총소리도 멎고 난 후에는 또다시 한동안 적막한 밤이 되었다. 처음으로 그것이 유언비어라는 것을 알았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죽어 버렸다, 죽어 있었다” 등의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당시 도쿄에서 이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던 일본 학생들에게 관동대지진 후 조선인학살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반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조선인에 대한 연민을 느낀 학생도 있고, 이 모든 사건이 유언비어로부터 나오게 되었음을 안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후에 알게 된다.³³⁾ 휴머니즘이 녹아있는 인간의 삶을 이들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32) 2학년 남학생으로 도쿄시 아키가와고등소학교에 다녔다.

33) 한편 조선 유학생은 조선에 돌아가 1923년 관동대지진 상황을 회고하고 있다. 한승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첫 귀국 유학생이다. 그는 9월 6일 동아일보사에 가서 경험담을 얘기하였으나 삭제당하였다(한승인, 1983, 『동경진재 한인 대학살 탈출기』, 갈리리문고, 94쪽). 이후 조선인학살의 사실은 널리 전파되었다.

2_ 조선인학살과 재일조선인 사회의 대응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고 조선인들이 무참히 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재일 조선인 조직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재일조선인 가운데 선진적인 활동가들은 투옥되거나 감금상태였기 때문에 학살사건에 대응하는 전술도 없었고, 규탄활동을 할 체제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923년 학살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조선인들은 당시 소식을 면한 유일한 조선인 단체였던 천도교청년회 사무실에 모였다. 예정 없이 모인 한위건, 김은송, 이동제, 최승만, 박사직, 이근무 등은 제출된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였다. 당시 천도교청년회는 그 이전부터 조직적 역량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일본에서는 박달성이 도쿄로 간 이후 본격적으로 천도교청년회 도쿄지회의 설립이 추진되었다.³⁴⁾ 1921년 1월 10일 방정환, 김상근, 이기정, 정중섭, 박달성은 천도교청년회 도쿄지회를 설립할 것을 발기하였다. 여기에는 방정환, 김상근, 이기정, 정중섭, 이태운, 박춘섭, 김광현, 박달성 등 10여 인이 모였다. 같은 해 1월 23일에는 방정환, 이기정, 박달성 등의 천도교 청년들은 계림사에서 시일예식을 거행하였다.³⁵⁾ 조직적 기반이 있던 천도교 조직이 기반이 되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이후 사후 처리에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조직과 기독교 조직에 연계된 재일조선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주목하였다. 재일조선인들은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결성하고 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³⁶⁾ 10월이 되기 전에 도쿄에는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

34) 崔文泰, 1921. 2, 「덧느냐 보느냐 青年同德아」, 『天道教會月報』(127), 78쪽. 최문태가 도쿄의 천도교의 장래를 위하여는 박달성 1인이 있다고 할 정도로 1921년 천도교청년회 도쿄지회를 설립할 때 그의 역할은 상당하였던 것 같다.

35) 朴春坡, 1921. 1, 「東京에 있는 天道教青年의 現況을 報告하고 아울러 나의 眞情을 告白함」, 『天道教會月報』(126), 54~58쪽.

3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한국독립운동사사전』(1-5); 김인덕, 1993. 9,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순국』(32); 강덕상 지음, 홍진희 옮김, 1995, 『조선인의 죽음』, 동쪽나라.

제회가 존재하였다. 이미 재일조선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9월 6일 도쿄에 조직되었던 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가 발전한 단체가 존재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9월 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경운동 천주교당에서 유성준 이하 21명이 집회하여 재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를 발족시킬 것을 발기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발족시켰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재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의 임시회장으로 유성준이 선정되었다.

재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의 목적은 도쿄에 있던 이재조선인을 응급 구제하는 데 두었다. 이미 6일에는 유학생 신태약, 임정교로부터 유학생회에서 상무위원 5명을 선정하고, 일본 이재 조선인 상황조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구제에 힘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유학생회의 김낙영과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활동한 재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에 대해 당시 종로 경찰서는 조선인들이 도쿄 지역에서 확대받고 가혹한 조사를 받은 증거를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 당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실정 사찰에 노력할 것으로 보고, 요주의 단체 및 인물이라고 경성지방법원 검사에게 보고하였다.³⁷⁾

전술하였듯이 재도쿄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10월 3일 도쿄 고이시카와구[小石川區] 오츠카시모마치[大塚下町]의 천도교회 내에 이재조선동포위안반이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이동제가 위원이 되어 조선과 도쿄 간의 편지 연락과 구호에 진력하였다.³⁸⁾ 이 조직은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재일조선동포피학살진상조사회라고 칭하였으나 계엄령하에서 경시청으로부터 학살이라는 명칭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고 압박을 받게

37) 「在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發起會ノ件」(京鍾警高秘 제10471-2호, 1923. 9. 8). 이 회에는 임시재경일본유학생회, 조선일보사, 동아부인상회,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청년회연합회, 조선소작인상조회, 동아일보사, 동경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 보천교, 천도교, 창문사 등이 참가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유성준, 김병효, 정현모, 홍덕유, 임경재, 김정국, 류병룡, 최원순, 이순탁, 장평중, 김윤수, 김철수, 김건호, 이범승, 이태위, 고원훈, 심명섭, 이인, 김용무, 신태약 등이 보인다.

38)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100쪽.

되어 전술한 이재조선동포위안반으로 개칭하였던 것이다.³⁹⁾ 이 조직의 중심은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였고, 여기에 조선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등이 참가하였던 것이다.⁴⁰⁾

결국 일본에 파견되어 학살 사건 등의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는 10월 25일 이전에 이미 일본 정부에 의해 해산당하였고, 일본 내의 이재조선인 구제활동 또한 금지를 당하였다.⁴¹⁾

그런가 하면 재도쿄지방이재조선인후원회에 고문으로도 활동한 후세 다츠지[布施辰治]는 조선인학살 사건의 조사, 고발에 선두에 섰다. 후세는 자유법조인의 선두에 있었는데, 1923년 12월 개최된 피살동포추도회에서 추도 강연을 조직하였다. 그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인생의 비극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 온 동포의 최후를 생각할 때 저는 애도할 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 어떠한 말로 추도한다고 해도 조선 동포 6천 명의 영혼은 성불하지 못할 것입니다. 슬퍼하는 1천만의 추도의 말을 늘어놔도 그들의 원통함이 가득찬 최후를 주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학살은 계급투쟁의 일부였습니다. 우리의 동지가 살해당한 것도, 6천 명의 동포가 그와 같은 처지에 직면한 것도 우리가 계급투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우리가 졌지 생각해 주십시오.⁴²⁾

39)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99~100쪽.

40) 조선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는 실제로 조선인박해사실조사회를 조직하고, 동아일보사로부터 2천 엔의 지원금을 받고 백무, 변희용, 한위건, 이동제, 박사직, 이근무 등이 활동하였다. 그리고 보고 대회를 1923년 12월 25일 열었다. 윤소영, 2013. 9. 7, 「관동대지진과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힘쓴 사람들」, 『關東大震災90周年國際심포지엄 발표문』, 立命館大學코리아研究센터·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2쪽.

41) 「일본진재시에 학살당한 동포 위하여, 구미위원회」, 『신한민보』 1923년 11월 8일.

42) 『大同公論』 2-2, 1924. 11.

이렇게 후세는 조선인학살 사건을 인간이 저지른 인재, 대학살로 생각하였다. 이런 그는 조선인학살에 대해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에 사죄문을 보냈다. 그는 사죄문에서, 관동대지진 직후의 조선인학살 문제에 대해 소신과 소감을 전한다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천재지변은 일본 노동자와의 국제적인 연대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연대의식이란 평상시 일상적인 수준에 머문 것이었다.

한편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상애회⁴³⁾의 박춘금은 학살의 주범인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츠시[赤池濃]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시총감은 박춘금 등의 상애회 일파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애회 일파는 선두에 서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합을 과시하듯 지진 뒷정리의 일환으로 도쿄 시내 청소를 하였다. 회원 300명으로 ‘노동봉사대’를 편성하여 시체처리와 복구작업을 자청하였던 것이다.

박춘금은 일본에서 상애회를 조직하고 친일활동을 벌였다. 상애회는 한일 병합을 합리화하는 사상, 즉 일시동인의 사상으로 일관하였다. 출발할 당시는 상구회라는 이름이었으나 1921년경에 상애회로 재출발하고, 1923년경에는 회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상애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인류 상애의 정신·공존공영의 본의에 입각한 일선용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박춘금은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폭력으로 착취하고 통제하는 한편, 조선 땅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공갈을 일삼은 예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⁴⁴⁾

43) 김인덕, 2002, 「상애회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33).

44) 김인덕, 2002, 위의 책. 박춘금의 간단한 행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91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고, …… 왜놈의 술집에 심부름꾼으로 있을 때 싸움 잘하기에 유명하였다. 사람을 치기가 마치 짐승에 대하는 것 같고, 언제나 불량배들의 두목이었으며 일본에 가서는 노가다로 그의 만용을 사방에 떨치었다”. 김학민, 1993, 『친일파죄상기』, 학민사, 58쪽.

이 박춘금과 그가 주도한 상회회는 1923년 12월 27일에 추도회를 개최하였다.⁴⁵⁾ 추도회는 도쿄 고이시카와에서 “이재귀유선인(罹災歸幽鮮人)”을 위해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 조선총독부 대표, 조선인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등이 후원을 하였다. 다른 추도식이 일제에 의해 중지당하는 현실에도 박춘금이 개최한 모임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다음 해인 1924년 9월 14일에도 열렸다. 박춘금이 주도한 추도회는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개최된 추도식은 대부분이 행사 도중에 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⁴⁶⁾ 추도식 중에 학살에 정부가 개입하였던 사실이나 일제에 대해 비판할 때는 추도식은 중단되었다.

IV. 1923년 이후 일본 사회와 제일조선인

1_ 일본 정부의 대응과 사회운동세력의 움직임

일본 정부는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1년이 지나자 기념관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였다.⁴⁷⁾ 일본 정부는 진재기념당과 재건기념관을 통해 이를 추

45) 『東京日日新聞』 1923년 12월 28일.

46) 『東京日日新聞』 1924년 3월 17일, 1924년 3월 16일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이 연합하여 합동추모식이 열렸는데 일제는 이 모임을 해산시켰다. 당시 300여 명의 경찰이 모임 자리에 함께 하였고, 스가모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각각 10명씩 체포하였다.

47) 이진희, 2008. 3, 앞의 글, 60~61쪽.

진하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와 황족, 기업들은 기금과 전시품을 통해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특히 추도식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다. 정부 관료를 비롯해 노동조합, 학생단체, 종교단체, 조선인 친일부역자, 자경단원, 일반 주민 등의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학살자를 추도하였다. 그것은 10월 하순의 일이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학살의 기억과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자신들이 희생을 기억하는 데 주력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사고의 틀을 일방적으로 조성해 가고자 하였다.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외국인 학살에 대한 기사는 10월에서야 나타났고, 본질에 대한 보도는 진행되지 않았다.⁴⁸⁾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자에 대한 추도 집회는 1923년 10월 28일 도쿄의 조조지[増上寺]에서 열렸다.⁴⁹⁾ 이 자리는 불교조선협회, 민중불교단, 정연규 등이 주도하며 만들었다. 여기에는 일본 고위 관료의 화환으로 장식되고 조선총독부 관리들도 참석하였다. 일제의 통제로 조선인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가 정연규가 추도사를 통해 죄 없이 학살된 망자를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조선인 학살자에 대한 조직적인 추도는 1924년 여름에도 계속되었다.⁵⁰⁾

그런가 하면 조·일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내걸던 일본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세력은 자신들의 생명 유지에 국제적 연대를 내버렸다. 9월 3일 가와이가 검거되고, 다음 날 학살되었다. 본격적인 일본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3일 밤과 4일 이후였다. 이 가운데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1일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자경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조선인의 학살을 방관하였다. 이들은 집단학

48) 이진희는 『讀書新聞』 1923년 10월 2일자 기사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진희, 2008, 앞의 글, 61쪽.

49) 『讀書新聞』 1923년 10월 29일.

50) 姜德相, 琴秉洞 編, 1963, 『關東大震災と朝鮮人(現代史資料 6)』, みすず書房, 603~604쪽. 일제는 1924년 이 모임을 용화 정책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개최하였다. 이후에도 추도법회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고, 따라서 현실적인 개인의 삶을 우선 생각하였던 것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세력은 조·일 연대를 피력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계급적인 문제보다는 민족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노동총동맹은 1924년 1월, 일본 노동운동가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지만,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직전까지 조선인 노동자는 우리들의 동료이고, 우리들의 형제이며, 우리들의 전우이고, 국제주의에 입각해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주장하였지만, 실천에 직면해서는 그 관념성을 여실히 나타냈다.

2_ 재일조선인 사회의 반일운동을 통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기억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조선인이 학살되는 가운데 전술하였듯이 재일 조선인 단체와 조직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우선은 개인들의 목숨 부지가 급하였고, 이와 함께 재일조선인 가운데 선진적인 활동가가 투옥되거나 감금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의 움직임은 나타난다.

1920년대 대표적인 사상단체인 북성회⁵¹⁾는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때 재일본조선노동자조사회, 도쿄조선노동동맹회, 일본노동총동맹의 원조로 이재동포의 조사와 위문을 전개하였다. 1923년 11월 말 도쿄조선노동동맹회, 오사카조선노동동맹회, 고베조선노동동맹회 등과 함께 한 모임에서 다음 내용을 결의하였다.

51) 북성회는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사에서 대표적인 단체로, 흑도회가 1922년 11월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로 분화되어 조직되었다. 박경식, 1981, 「在日思想團體北星會·日月會について」, 『在日朝鮮人: 私の青春』, 三一書房, 116쪽.

- (1) 진재 당시의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그 진상의 발표를 요구할 것
- (2) 학살에 대해 항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유족의 생활권 보장을 요구할 것
- (3)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조선과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 격문을 반포할 것
- (4) 관동진재 당시 가메이도서[龜戸署]에서 살해 당한 일본의 동지 9명의 유족을 위해 조위금을 모집할 것
- (5) 기관지 『척후대』를 금년 내에 속간할 것

이상과 같은 결의는 조선에서 활동하던 회원에게도 전달되어 대구 부근의 회합에서도 그 결의 내용이 확인된다.⁵²⁾

조선인학살 1주년을 맞이하여 흑우회,⁵³⁾ 북성회, 여자학흥회, 조선YMCA,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⁵⁴⁾ 천도교청년회, 불교청년회, 무산자청년회, 조선노동동맹회, 조선노동공생회 등의 10여 단체가 1924년 9월 13일 도츠키[戸塚]에서 추도식을 열었다.⁵⁵⁾ 이 모임은 1시간도 못 되어 참가자들이 체포되고 강제로 해산당하였다.⁵⁶⁾

1925년 9월 20일에 열렸던 관동진재조선인학살추도회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⁵⁷⁾ 도쿄조선노동동맹회, 일월회,⁵⁸⁾ 삼월회,⁵⁹⁾ 도쿄조선무산청년회, 흑

52) 朴慶植, 1976, 『在日朝鮮人運動史－解放以前』, 三一書房, 114쪽.

53) 흑우회는 흑도회가 1922년 11월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로 분화되어 朴烈, 金重漢, 李允熙 등이 조직한 아나키즘 계열의 조직이다. 이석태 편, 1948, 『사회과학대사전』, 문우인서관, 278쪽.

54) 학우회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다. 대한흥학회를 개칭하여 1912년 10월 유학생 친목회 연합으로 출발하였다. 1920년대 학우회는 다수의 구성원이 재일조선인 유학생단체인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학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특히 조선기독교청년회와는 이명동체라고 할 수 있었다. 1922, 「주의를 요하는단체」,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3), 15쪽.

55) 『東京日日新聞』 1924년 9월 14일.

56) 이에 앞서 도쿄YMCA에서 9월 5일 기독교인들의 기도회도 있었다. 『東京日日新聞』 1924년 9월 13일.

57)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재일조선인운동을 내용적으로 주도하던 일월회의 주도

우회, 학우회, 여자학흥회, 무산학우회, 고학생형설회, 노사공생회 등의 11개 조선인 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개최되어 일본인을 포함해서 800명이 참가하였다.⁶⁰⁾

1926년 시기에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4대 운동인 3·1운동 기념투쟁, 메이데이투쟁, 관동진재 조선인학살 추도회, 국치일 기념투쟁을 주도하였다.

특히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극동(사회)문제연구회와 함께 조선수해이재 자구제연설회,⁶¹⁾ 관동진재학살 3주년 기념집회를 조직하였다.⁶²⁾ 이밖에도 관동진재 3주년을 기념한 연설회는 9월 1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기독교청년회와 여자기독교청년회가 주도한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요코하마조선합동노동회가 주도해 9월 2일 연설회가 있었고, 9월 5일에는 자강회 사무실에서 천도교도교총리원이 주최한 연설회가 있었다. 그리고 학우회, 일월회 등 8개의 단체가 주도한 모임이 9월 28일 스킵트홀에서 열렸다.⁶³⁾

또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은 1928년 활성화된 지부, 반조직을 통해서 민족해방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조선 내의 탄압, 간도공산당 사

로, 1925년 2월 22일 일본노동총동맹과 협조하여 조선무산계급의 운동을 개시할 것을 내용으로 창립되었다. 단체 가입의 원칙 아래 출범하여 12개 단체 800명으로 시작하였다. 1925년 10월에는 1,220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박경식, 1931, 「在留朝鮮人の運動」,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2-1), 1076쪽.

58) 일월회는 1925년 1월 결성된 조직으로 한 시기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에서 제한적이지만 중심적 역할을 한 조직이다. 조선공산당 1차당 일본부와 대중단체 속에서 활동하였고, 현실투쟁의 성과에 기초하여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결성을 주도하였다. 조직 내부에는 혁명사 일본 지역 구성원이 그 역할을 하였다. 박경식, 1981, 「在日思想團體北星會・日月會について」, 『在日朝鮮人:私の青春』, 三一書房.

59) 삼월회는 일월회의 자매 여성단체이다. 1925년 3월 이현경, 황산덕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무산계급과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무산계급 남성과 제휴하여 인류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고 대중 본위의 신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언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3), 78쪽.

60) 『사상운동』(2-3), 11쪽.

61) 김정주 편, 1993, 「大正十四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 『조선통치사료』(7), 국학자료원, 845쪽.

62) 김정주 편, 1993, 위의 책, 871쪽.

63) 『社會運動の狀況』(大正15年版), 246쪽 참조.

건에 대한 항의 등이 전단으로 선전되었고,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국치기념일, ‘관동진재일’을 맞이하여 일본의 조선지배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적 선전을 대대적으로 수행하였다. 1928년 시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관동진재 학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도쿄조선노동조합 서부지부는 「관동진재 당시 **동포 추도기념 제5주년을 당(當)하여 전조합원에게 소(訴)함」(1928. 8. 20.)에 5주년 기억을 투쟁을 통해 선도하였다.⁶⁴⁾

그런가 하면 1927년 12월 18일 신간회 도쿄지회 제2회 대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보고하였다.⁶⁵⁾ 특히 신간회 도쿄지회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규탄하여, “죽어도 잊을 수 없는 9월에 전 조선 2천 3백만 동포에게 격한다”, “관동진재 당시 학살동포추도기념일에 際하여 조합원에게 격함”이라는 전단을 살포하였다.

1928년 9월 30일에는 조선인단체협의회 주최로 관동진재 조선인 학살추도회가 열렸다. 조선인단체협의회는 2천 3백만 학살동포를 ‘추도(追悼)’하는 것은 일어나 싸우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농민은 철경(撤耕)으로! 시민은 철시(撤市)로! 학생은 파교(罷敎)로! 싸우자”면서 가열찬 투쟁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에 9월 1일은 또 다른 기억과 기념 투쟁의 날로 발전되었다. 이런 현상은 일제강점기를 넘어 해방공간으로 이어져 갔다.

64) 早稻田大學 마이크로필름실 소장.

65) 첫째, 반동단체 민중회 박멸운동과 관련한 보고와 둘째, 관동진재 당시 학살동포 추도회에 대한 보고가 그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1923년 관동대지진을 전후로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의 조선 이해와 관동대지진에 대한 대응과 움직임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재일조선인 운동세력은 민족적, 계급적 문제에 주목하였고, 그것은 일본 사회운동세력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적, 계급적 문제보다는 개인적 문제가 우선이었다는 점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전부터 조선과 일본의 계급적 관점의 국제적인 연대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반제국주의적 성격의 조·일 연대 투쟁은 일본 내에서 실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현상은 변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보다 국제연대를 우선적으로 사고하던 재일조선인은 이미 국제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운동에 깊이 들어가서 적극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조선인이 무참히 죽어 가는 상황에서 재일조선인 조직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선진적인 재일조선인 조직도 학살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였다. 전술도 없었고 규탄투쟁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도교와 기독교 조직에 기초한 조직화된 재일조선인 활동가, 유학생들은 모일 수 있었다. 이들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주목하면서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1923년 10월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국내와 조직적인 연계를 틀을 갖고 있었다. 국내에서 전국적인 연계 모습도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조선인이 학살된 이 시점에도 친일적 모습을 견지한 그룹이 있었다. 박춘금과 상애회가 그들이었다. 이들의 친일적 추도회는 식민지 지배의 연결선에 있었고 단순히 세력 확장의 도구였다.

한편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1년 이후 재일조선인과 일본 정부와 시

민 사회는 각자의 방법으로 기억을 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진재기념당과 재건기념관을 통해 이를 추진하였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기억하는 추모는 일본이 중심인 반인륜적인 내용이 주였다. 이들 보통 일본사회, 일본인에게 조선인학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기억되어 왔다. 이는 재일조선인 각종 단체가 있어 가능하였다. 이들 단체의 주도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년 이후인 1924년부터 추도회가 열렸다. 재일조선인은 매년 9월 1일, 이날을 일상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의 공간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제노사이드로 남아 있고,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둘러싼 일본 내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의 움직임은 본질적인 한계를 노정해 왔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패배자가 되었고, 결국은 나뉘었던 것이다.

한편 해방과 함께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도 기억되었다. 특히 재일조선인 사회는 1945년 12월 7일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이 주도한 박열 환영회에서 내무대신을 상대로 조선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6년 10월 제3회 전체 대회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학살된 것 같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귀환자가 적지 않다고 보고하였다.⁶⁶⁾ 20년이나 지난 일이 아니라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에게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현실이었던 것이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사건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와 한국사회에서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⁶⁷⁾

66) “관동대진재희생동포위령비”가 재일본조선인연맹 치바현 본부가 세워 학살 책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鄭榮桓, 2013,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運動と‘關東大虐殺’問題」, 『關東大震災90周年記念集會要項』, 關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22쪽.

67) 현재의 기억과 기념을 위한 각종 활동은 별도의 글에서 그 역사성을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저서

- 강덕상 외 지음, 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강덕상 지음, 김동수, 박수철 옮김, 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 김계자, 이민희 역, 2012, 『일본 프로문학지의 식민지 조선인 자료 선집』, 문.
- 김학인, 『친일파죄상기』, 학민사, 1993.
- 山田昭次 著, 이진희 역,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 정희선 외 역, 2013, 『재일코리안사건』, 선인출판사.
- ソニア・リヤン, 中西恭子 譯, 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 姜徳相, 2003, 『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靑丘文化社.
- 姜徳相, 琴秉洞 編, 1963, 『關東大震災と朝鮮人(現代史資料6)』, みすず書房.
- 姜徹, 2002,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 内務省警保局保安課, 1975, 「大正十五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1卷, 三一書房.
- 朴慶植, 1976, 『在日朝鮮人運動史－解放以前』, 三一書房.
- 山田昭次, 1996, 『金子文子－自己・天皇制国家・朝鮮人』, 影書房.
-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 石坡浩一, 1993, 『近代日本の社會主義と朝鮮』, 社會評論社.
- JIN-HEE LEE, 2004, “Instability of Empire: Earthquake, Rumor,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Japanese Empire”, University of Illinois Ph.D. Dissertation.

논문

- 강효숙, 2013. 12, 「관동대지진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 김인덕, 1993. 9,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순국』(32).
- 김인덕, 2002, 「상애회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33).

- 김인덕, 2010,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 및 서술 경향」, 『한일역사쟁점 논집 - 일본 역사교과서 대응 논리』, 동북아역사재단.
- 김지연, 2011, 「다케히사 유메지와 관동대지진 그리고 조선 - 회화와 사상성」, 『아시아 문화연구』 21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김홍식, 2009, 「관동대지진과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호.
-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 총독부의 '震災處理'과 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 노주은,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學林』 29집,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노주은, 2013,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 - 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104).
-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2012,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7호, 서울대 일본연구소.
- 박경하, 2009, 「1930년대 한 조선청년의 구직 및 일상생활에 대한 일고찰 - 『旣判録日記』(1918~1947)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1호.
- 山田昭次, 2013. 12, 「일본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금일의 일본의 정치적 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 성해준, 2007, 「日帝期 한국 신문을 통해 본 大杉榮」, 『일본문화연구』 24집.
- 申載洪, 1984,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 『史學研究』 38호.
- 이연, 1992,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 - 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27.
- 이지형, 2004,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人を殺したが)'의 풍경 -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 『일본문화연구』 10집.
- 이지형, 2005,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3집.
- 이진희, 2008, 「관동대지진을 추도함: 일본제국의 '불령선인'과 추도의 정치학」, 『아세아연구』 131호.
- 이형식, 2010, 「중간내각 시대(1922. 6~1924. 7)의 조선총독부」, 『東洋史學研究』 113집.
- 조경숙, 2008,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 『한국일본학연합회 제6회 학술

대회 발표문집』.

장세운, 2013,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46).

황호덕, 2012,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호.

金熙明, 1927. 5, 「メーデーを前にして」, 『文藝戦線』(4-5).

金岡吉典, 1965. 6, 「朝鮮人がはじめて参加した第3回メーデー前後 - 白武氏にきく」, 『朝鮮研究』(40).

岩村登志夫, 1979. 5, 「極東勤勞者大会日本代議員採擇綱領」, 『史林』第62卷 第3号.

田中正敬, 2003, 「關東大震災はいかに伝えられたか」, 『歴史地理教育』 657.

鄭榮桓, 2013,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運動と'關東大虐殺'問題」, 『關東大震災90周年記念集會要項』, 關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朱鐘建, 1923. 5, 「メーデーと朝鮮の問題」, 『進め』(1-4).

자료

「구제회의 구체적 조직」, 『조선일보』 1923. 9. 10.

「기독교인의 구체협의」, 『조선일보』 1923. 9. 8.

「일본진재시에 학살당한 동포 위하여, 구미위원부」, 『신한민보』 1923. 11. 8.

「참화에 죽어가는 동포를 위하여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성립」, 『동아일보』 1923. 9. 10.

朴春坡, 1921. 1, 「東京에 잇는 天道教青年의 現況을 報告하고 아울러 나의 眞情을 告白함」, 『天道教會月報』(126).

崔文泰, 1921. 2, 「덧느냐 보느냐 青年同德아」, 『天道教會月報』(127).

[국문 초록]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

김인덕

이 글은 1923년 관동대지진을 전후로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의 조선 이해와 관동대지진에 대한 대응과 움직임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재일조선인 운동세력은 민족적, 계급적 문제에 주목하였고, 그것은 일본 사회 운동세력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적, 계급적 문제 보다는 개인적 문제가 우선이었다는 점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전부터 조선과 일본의 계급적 관점의 국제적인 연대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반제국주의적 성격의 조·일(日) 연대 투쟁은 일본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현상은 변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 보다 국제연대를 우선적으로 사고하던 재일조선인은 이미 국제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운동에 깊이 들어가서 적극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조선인이 무참히 죽어 가는 상황에서 재일조선인 조직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선진적인 재일조선인 조직도 학살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였다. 전술도 없었고 규탄 투쟁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도교와 기독교 조직에 기초한 조직화된 재일조선인 활동가, 유학생들은 모일 수 있었다. 이들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주목하면서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1923년 10월 도

교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국내와 조직적인 연계를 틀을 갖고 있었다. 국내에서 전국적인 연계 모습도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조선인이 학살된 이 시점에도 친일적 모습을 견지한 그룹이 있었다. 박춘금과 상애회가 그들이었다. 이들의 친일적 추도회는 식민지 지배의 연결선에 있었고 단순히 세력 확장의 도구였다.

한편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1년 이후 재일조선인과 일본 정부와 시민 사회는 각자의 방법으로 기억을 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진재기념당과 재건기념관을 통해 이를 추진하였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기억하는 추모는 일본이 중심인 반인륜적인 내용이 주였다. 이들 보통 일본 사회, 일본인에게 조선인학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기억되어 왔다. 이는 재일조선인 각종 단체가 있어 가능하였다. 이들 단체의 주도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년 이후인 1924년부터 추도회가 열렸다. 재일조선인은 매년 9월 1일, 이날을 일상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의 공간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제노사이드로 남아 있고,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둘러싼 일본 내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의 움직임은 본질적인 한계를 노정해 왔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패배자가 되어, 결국은 나뉘었던 것이다.

주제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재일조선인 운동세력, 기억, 제노사이드, 일본 사회운동세력, 재일조선인

[ABSTRACT]

The Massacre of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rends in the Movement of Power

Kim Induck

This paper focuses on Joseon through the power of social movements in Japan at the tim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and on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had come to be established before 1923. In particular, anti-imperialism movements were active, but the Great Kanto Earthquake changed matters greatly. However, Koreans residing in Japan who cared not for nationalism but for internationalism had become active together with Japanese social movements.

However, soon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ny Koreans died in drastic situations, and many individual Koreans could not remain active in movements. Even Korean resident groups in Japan that were advanced could not react effectively. There was no denunciation of the struggle, however.

As time passed, activists affiliated with Cheondogyo and with Christian faiths, and Korean students gathered. They had taken notice of the massacre brought by the earthquake and established the “Rescue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Tokyo” in 1923. This group had connections in Japan and internationally, and this was clearly seen in domestic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pro-Japanese groups even among Koreans, such as Pak Chun-geum and the

Sangaehoe. These two groups held memorial services with pro-Japanese points of view in order to expand their power.

Meanwhile, one year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ivil society) recalled their losses in various ways. The Japanese government built a memorial hall for the earthquake disaster and a reconstruction hall.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nded, the massacr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due to the Kanto earthquake was remembered. Various organizations made this possible. In 1924, many organizations in Japan held memorial services. And every year on September 1, people continue to commemorate the earthquake and the losses.



Keywords

Massacre of Koreans, Great Kanto Earthquak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Genocide, Memory, Japanese social movement forces, Korean residents in Jap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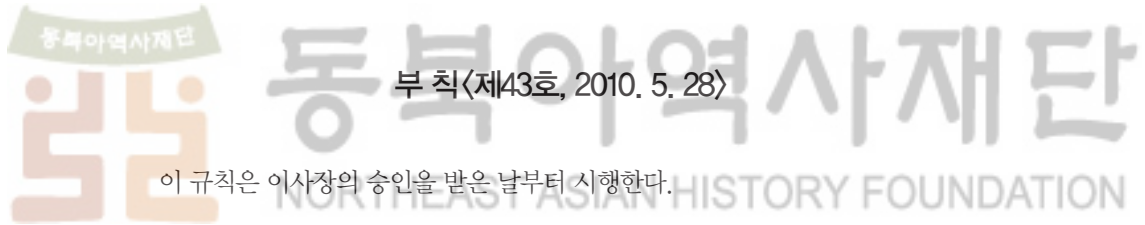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 편집이사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문자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김은숙 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안병직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중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허동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



동북아역사재단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9호(2015. 9)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5년 9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9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